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2015. 12.



# 제 출 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강 기 춘

---



## <제목 차례>

<b>I. 계획의 개요 .....</b>	<b>3</b>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1.1.1 계획의 배경 .....	3
1.1.2 계획의 목적 .....	3
1.2 계획의 범위 .....	4
1.2.1 공간적 범위 .....	4
1.2.2 시간적 범위 .....	4
1.2.3 내용적 범위 .....	4
1.3 계획의 성격과 역할 .....	5
1.3.1 계획의 성격 .....	5
1.3.2 계획의 위상 .....	5
1.3.3 계획의 역할 .....	5
1.4 계획수립의 추진과정 .....	6
1.5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6
 <b>II. 현황 및 여건분석 .....</b>	<b>9</b>
2.1 제주의 경관 현황 .....	9
2.1.1 자연경관 .....	9
1) 지형·지세 .....	9
2) 지질 .....	11
3) 한라산 .....	12
4) 오름 .....	13
5) 초지 .....	16
6) 꽃자왈 .....	18
7) 동굴 .....	20
2.1.2 수경관 .....	23
1) 해안, 바다, 섬 .....	24
2) 하천 .....	34
3) 습지, 관리현황 .....	38
4) 용천수 .....	42
2.1.3 자연환경 관련 지정현황 .....	43
1) 생물권보전지역 .....	44
2) 관리보전지역 .....	45
3) 세계자연유산 .....	47
4) 세계지질공원 .....	47
5) 자연환경 관리현황 .....	48
2.1.4 농산어촌경관 .....	50
1) 전원교외부 .....	50
2) 해안마을 경관 .....	50

3) 중산간마을 지역 .....	51
2.1.5 역사문화경관 .....	55
1) 영주십경 .....	55
2) 탐라순력도 .....	55
3) 문화재 .....	56
4) 제주성지 .....	58
5) 돌담(집담, 발담, 산담, 잣담) .....	58
6) 역사문화경관의 관리현황 .....	60
2.1.6 도시경관 .....	61
1) 행정구역 및 토지이용 .....	61
2) 고도기준 .....	61
3) 도시개발 현황 .....	63
4) 시가지경관 .....	66
2.2 유형별 경관자원 현황 .....	69
2.2.1 건축물 .....	69
1) 우수건축물 독려 .....	69
2) 전통가옥 .....	70
2.2.2 도시 공공오픈스페이스 .....	70
1) 도시공원 .....	70
2.2.3 가로환경 .....	72
1) 도로 .....	72
2) 도로시설물 .....	74
3) 가로수 식재 .....	74
4) 문화·테마거리 .....	75
2.2.4 관광 및 역사문화시설 .....	76
1) 관광지, 관광단지 .....	76
2) 관광시설(관람지)현황 .....	77
3) 해수욕장 .....	78
4) 골프장 .....	79
5) 올레길 .....	80
6) 관광개발현황 .....	81
7) 관광문화경관 관리현황 .....	82
2.2.5 야간경관 .....	83
2.3 경관 사례지구 분석 .....	84
2.3.1 경관 및 관리계획(2009)의 경관사업 .....	84
1) 경관시범사업 :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	84
2) 경관후속사업 .....	85
2.3.2 가로경관 사례 지구 분석 : 제주시 이도2지구단위계획구역 .....	86
1) 일반적 현황 .....	86
2) 지구단위계획 현황 .....	87
3) 가로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 분석 .....	89
2.4 경관관련 계획 및 법 .....	97
2.4.1 관련 계획 .....	97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97

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100
3)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	101
4)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	102
5) 제주건축기본계획 .....	105
6)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2 .....	107
7) 2020도시디자인 기본계획 .....	110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 2011.6 .....	114
9)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2000 .....	115
10) 2013 IBM스마터 시티 챌린지 제주 .....	115

## **Ⅲ.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인식조사 ..... 119**

3.1 국내 사례조사 .....	119
3.1.1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	119
3.1.2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	120
3.1.3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	122
3.1.4 김해시 도시경관계획 .....	123
3.1.5 경상남도 건축경관 형성 기본계획 .....	123
3.1.6 진해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	124
3.1.7 진주시 경관계획 .....	124
3.2 국외 사례조사 .....	126
3.2.1 전원경관 .....	126
3.2.2 수변경관 .....	126
3.2.3 습지경관 .....	127
3.2.4 세계문화유산경관 .....	128
3.2.5 문화재·역사경관 .....	130
3.2.6 구도심 경관 .....	130
3.2.7 시민참여 경관 조성 .....	131
3.2.8 경관제도 .....	132
1) 유럽 .....	132
2) 미국 .....	133
3) 일본 .....	134
3.3 시사점 .....	134
3.4 인식조사 .....	135
3.4.1 조사개요 .....	135
1) 목적 .....	135
2) 대상 .....	135
3) 시기 .....	135
4) 방법 및 분석 .....	135
5) 내용 .....	135
3.4.2 도민 .....	135
1) 인구통계적 특성 .....	135
2) 제주에 거주하면서 경관에 대해 느끼는 사항 .....	137
3) 경관계획 수립 관련 .....	142

3.4.3 관광객 .....	144
1) 인구통계적 특성 .....	144
2) 제주를 관광하면서 경관에 대해 느끼는 사항 .....	145
3) 제주 관광활동 .....	149

## IV. 기존계획 검토 ..... 153

4.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	153
4.1.1 경관 및 관리계획 .....	153
1) 계획의 용어 분석 .....	153
2) 경관 및 관리계획의 개선사항 .....	154
4.1.2 경관지침 .....	156
1) 지침의 용어 분석 .....	156
2) 경관지침의 개선사항 .....	156
4.1.3 기존계획의 평가 .....	160
1) 기존계획의 정통성 및 연계성 .....	160
2) 경관 및 관리계획의 엄격한 적용 .....	160
3) 기존계획의 보완 .....	160
4.2 경관심의 자료분석 .....	160
4.2.1 자료 분석 .....	160
1) 기 개발된 대규모 개발사업 .....	160
2) 시사점 도출 .....	163
3) 개선방안 .....	165

## V. 기본구상 ..... 169

5.1 경관관리 미래상 .....	169
5.1.1 경관이미지 검토 .....	169
5.1.2 미래상 .....	170
5.2 추진전략 .....	171
5.2.1 목표별 추진전략 .....	171
5.2.2 세부추진전략 .....	172
5.3 기본구상 .....	174
5.3.1 경관골격 .....	174
1) 경관구역(면) .....	174
2) 경관축(선) .....	174
3) 경관거점(점) .....	174
5.3.2 경관구역 .....	176
1) 경관구역 설정 .....	176
2) 경관구역 설정 기준 .....	177
3) 경관구역 개념도 .....	177
4) 경관구역별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	178
5.3.3 경관축 .....	179
1) 경관축 설정 .....	179

2) 경관축 설정 기준 .....	180
3) 경관축별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	181
5.3.4 경관거점 .....	181
1) 경관거점 설정 .....	181
2) 경관거점 설정기준 .....	183
3) 경관거점별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	183
5.3.5 경관종합 구상도 .....	184
5.4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	185
5.4.1 부지조성 : 절성토 .....	185
5.4.2 좌향 .....	185
1) 통경축 .....	185
2) 개방지수 .....	185
5.4.3 높이 .....	186
5.4.4 형태 .....	186
5.4.5 재료 .....	186
5.4.6 식생 .....	187
1) 원 식생의 보존 .....	187
2) 조경용 식물 .....	187
5.4.7 경관색채 .....	187
5.4.8 지역별 주요 조망점 .....	188
5.5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	189
5.5.1 경관권역의 일반지침 .....	189
1) 전체지침의 체계 .....	189

## VI. 경관계획 ..... 193

6.1 경관계획 수립방향 .....	193
1) 경관계획의 방향 .....	193
2) 경관계획의 체계 .....	193
6.2 경관권역 계획 .....	194
6.2.1 경관단위㉓ 권역 계획 .....	194
1) 주요 경관특성 .....	194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94
3) 주요경관 .....	194
6.2.2 경관단위㉔ 권역 계획 .....	199
1) 주요 경관특성 .....	199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99
3) 주요 경관 .....	200
6.2.3 경관단위㉕ 권역 계획 .....	218
1) 주요 경관특성 .....	218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218
3) 주요경관 .....	219
6.2.4 경관단위㉖ 권역 계획 .....	250
1) 주요 경관특성 .....	250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250
3) 주요경관 .....	251
6.2.5 경관단위 <sup>㉔</sup> 권역 계획 .....	289
1) 주요 경관특성 .....	289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289
3) 주요경관 .....	290
6.3 경관축 계획 .....	306
6.3.1 기본방향 .....	306
6.3.2 하천경관축 계획 .....	306
1) 주요 경관특성 .....	306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306
3) 경관계획 .....	307
6.3.3 해안경관축 .....	307
1) 주요 경관특성 .....	307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308
3) 경관계획 .....	308
6.3.4 주요도로축 계획 .....	309
1) 주요 경관특성 .....	309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309
3) 경관계획 .....	309
6.4 경관거점 계획 .....	310
6.4.1 기본방향 .....	310
6.4.2 역사문화경관거점 경관계획 .....	310
1) 주요 경관특성 .....	310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310
3) 경관계획 .....	310
6.4.3 관문경관거점 경관계획 .....	311
1) 주요 경관특성 .....	311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311
3) 경관계획 .....	311
6.4.4 공공시설 경관거점 경관계획 .....	312
1) 주요 경관특성 .....	312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312
3) 대상별 경관계획 .....	313
6.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314
6.5.1 오름군락 .....	314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314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314
3)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	315
4) 경관관리방안 .....	317
6.5.2 습지 및 자연연못 .....	318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318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318
3)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	319

4) 경관관리방안 .....	319
6.5.3 세계자연유산지구 .....	320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320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321
3) 경관관리방안 .....	323
6.5.4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	323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323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323
3) 경관관리방안 .....	323
6.6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	325
6.6.1 건축물 높이 .....	325
1) 현황 및 문제점 .....	325
2) 기본원칙 .....	325
3) 경관관리방안 .....	325
6.6.2 도로개설 및 그 부대시설 .....	325
1) 현황 및 문제점 .....	325
2) 기본원칙 .....	325
3) 경관관리방안 .....	325
6.6.3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 .....	325
1) 현황 및 문제점 .....	325
2) 기본원칙 .....	326
3) 경관관리방안 .....	326
6.6.4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건설사업 .....	326
1) 현황 및 문제점 .....	326
2) 기본원칙 .....	326
3) 경관관리방안 .....	326
6.6.5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시설물 .....	326
1) 현황 및 문제점 .....	326
2) 기본원칙 .....	326
6.7 경관요소별 계획 .....	327
6.7.1 주택 .....	327
1) 주거지 경관 관리유형 .....	327
2) 기본방향 .....	327
3) 세부지침 .....	327
6.7.2 공공건축물 .....	329
1) 기본방향 .....	329
2) 범위 및 수준 .....	329
3) 지침의 방향 .....	329
4) 세부지침 .....	330
6.7.3 산업 및 저장시설 .....	331
1) 기본방향 .....	331
2) 범위 및 수준 .....	331
3) 지침방향 .....	331
4) 유형별 세부지침 .....	332

6.7.4	관광시설	332
1)	기본방향	332
2)	관광시설 유형별지침의 방향	332
3)	지침방향	333
4)	세부지침	333
6.7.5	도로	334
1)	개요	334
2)	대상 및 범위	334
3)	기본방향	334
4)	유형별 지침의 방향	335
6.7.6	도시시설물	338
1)	기본방향	338
2)	대상 및 범위	338
3)	유형별 지침의 방향	338
4)	항목별 디자인 지침	339
6.7.7	역사문화시설	342
1)	기본방향	342
2)	지침의 방향	342
6.7.8	가로수 및 가로녹지	343
1)	기본방향	343
2)	유형별 지침의 방향	344
6.7.9	대지안의 조경	346
1)	적용범위	346
2)	기본방향	346
6.7.10	도시공공오픈스페이스	347
1)	적용범위	347
2)	기본방향	347
6.7.11	바닥포장	348
1)	기본방향	348
2)	공간별 적용방향	348
6.7.12	옥외광고물	349
1)	개요	349
2)	기본방향	349
3)	10가지 기본원칙	349
4)	공통지침	350
5)	세부지침	352
6.7.13	가로시설물	358
1)	개요	358
2)	대상 및 범위	358
3)	기본방향	360
4)	공통지침	361
5)	항목별 디자인 지침	365
6.7.14	보행자용 안내판	376
1)	개요	376
2)	공통지침	376

3) 세부지침 .....	377
6.7.15 야간경관 .....	381
1) 개요 .....	381
2) 기본방향 .....	381
6.7.16 공공시설물 색채 .....	381
1) 기본방향 .....	381
2) 제주대표 10색의 활용 .....	382
3) 공통지침 .....	382
6.7.17 대중교통시설 .....	383
1) 개요 .....	383
2) 항목별 디자인 지침 및 세부지침 .....	383
6.7.18 공공글꼴 .....	389
1) 개요 .....	389
2) 범위 .....	389
3) 공통지침 .....	389
4) 세부지침 .....	389

## **VII. 실행계획 ..... 393**

7.1 경관관리지침 적용방식 .....	393
7.1.1 경관관련 적용 원칙 .....	393
7.1.2 경관심의대상 및 적용 .....	393
7.1.3 해안변 및 중산간 경관관리 .....	393
7.1.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적용 .....	394
7.1.5 주민 홍보 및 교육 방안 .....	394
7.2 관련제도 및 체계의 정비 .....	394
7.2.1 경관협정 .....	394
7.2.2 제도개선 .....	395
7.2.3 주민의식교육 .....	395
7.2.4 우수한 기성건축사 선정 및 지원대책 수립 .....	396
7.3 전문가 POOL 가동 .....	396
7.3.1 지역경관 향상 공모사업 .....	396
7.3.2 제주형 농어촌주택 표준형 설계도 마련 .....	396
7.3.3 제주지역내 건축 및 경관 전문가 프로보노(pro bono) 지원체계 구축 .....	397
7.4 경관재정비 계속 및 후속사업 .....	397
7.4.1 해안변 경관자원조사 .....	397
7.4.2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 사업 .....	397
7.4.3 주요도로 육교 철거 및 경관자원화 사업 .....	397
7.4.4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	398
7.4.5 지중화 사업 .....	398
7.4.6 풍력발전 가이드라인 사업 .....	398

## <표 차례>

표 2-1 표고분석 .....	10
표 2-2 경사분석 .....	10
표 2-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질층서 .....	11
표 2-4 2004년, 2014년 마을공동목장 현황 비교 .....	17
표 2-5 동굴의 문화재 지정 현황 .....	21
표 2-6 해안선 및 도서 현황 .....	25
표 2-7 제주지역 하천 현황 .....	35
표 2-8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	39
표 2-9 경관심의 대상 습지 .....	41
표 2-10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현황 .....	44
표 2-11 생물권보전지역관리지역 지역별 개요 .....	44
표 2-1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정현황 .....	45
표 2-13 생태계보전지구 지정현황 .....	46
표 2-14 경관보전지구 지정현황 .....	46
표 2-15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현황 .....	48
표 2-16 자연환경 관리현황 .....	49
표 2-17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	50
표 2-18 유형별 개발 면적 및 개수 현황 .....	53
표 2-19 국가지정 문화재 .....	57
표 2-20 도지정 문화재 .....	57
표 2-21 문화자원보전지구 지정 현황 .....	57
표 2-22 제주성지 잔존구간 .....	58
표 2-23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지정현황 .....	61
표 2-24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건축물의 고도기준 .....	62
표 2-25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현황 .....	64
표 2-26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현황 .....	65
표 2-27 택지개발사업 현황 .....	65
표 2-28 산업단지 현황 .....	66
표 2-29 경관관련 용도지구 지정현황 .....	67
표 2-30 전통가옥 현황 .....	70
표 2-31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	71
표 2-32 도시공원 현황 .....	72
표 2-33 도로개설 현황 .....	73
표 2-34 가로수 수종의 분포 현황도 .....	75
표 2-35 관광단지 및 관광지 현황 .....	77
표 2-36 관광지 관리 현황 .....	77
표 2-37 공공운영 관광시설(관람지) 현황 .....	78
표 2-38 도내 해수욕장 현황 .....	79
표 2-39 도내 골프장 현황 .....	80
표 2-40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현황 .....	81
표 2-41 유원지 현황 .....	82

표 2-42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	83
표 2-43 후속사업 현황 .....	86
표 2-44 조사대상지 현황도 .....	88
표 2-45 디자인 구성요소의 유형별 분포 현황 .....	90
표 2-46 일반형과 상부층단형 도면사례 .....	91
표 2-47 박공형, 박공형+평지붕 도면사례 .....	91
표 2-48 2차적 디자인 구성요소의 유형별 분포 현황 .....	92
표 2-49 전면부 후퇴형, 저층부 후퇴형 도면사례 .....	93
표 2-50 출입구 양쪽 내부 도면사례 .....	94
표 2-51 외벽, 지붕마감과 색채의 유형별 분포 현황 .....	96
표 2-52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	103
표 2-53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104
표 2-54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과제 .....	106
표 3-1 부산광역시 경관유형 .....	122
표 3-2 국외 경관제도 .....	133
표 3-3 미국의 경관관리제도 .....	133
표 3-4 미국의 유형별 경관 관리 방향 .....	133
표 3-5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	134
표 3-6 인구통계적 특성 .....	136
표 3-7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	137
표 3-8 제주 해안의 시설들에 대한 인식 .....	137
표 3-9 중산간 개발행위 증가에 대한 인식 .....	138
표 3-10 주요 간선도로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	138
표 3-11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	139
표 3-12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 .....	139
표 3-13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도 .....	139
표 3-14 제주 경관에 만족하는 이유 .....	139
표 3-15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139
표 3-16 제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 .....	140
표 3-17 제주 경관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 .....	141
표 3-18 제주의 상징적인 경관 .....	141
표 3-19 제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 .....	142
표 3-20 경관계획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142
표 3-21 경관 관련 계획·사업에 대한 도민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	143
표 3-22 적절한 도민 홍보 및 교육 방식 .....	143
표 3-23 제주 경관에 관한 건의사항 .....	144
표 3-24 인구통계적 특성 .....	144
표 3-25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	145
표 3-26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 .....	145
표 3-27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도 .....	146
표 3-28 제주 경관에 만족하는 이유 .....	146
표 3-29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146
표 3-30 제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 .....	147
표 3-31 제주 경관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 .....	147

표 3-32 제주다운 상징 경관 .....	148
표 3-33 제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 .....	148
표 3-34 제주 방문 횟수 .....	149
표 3-35 숙박한 지역 .....	149
표 3-36 머물렀거나 머물 예정인 곳 .....	149
표 3-37 숙박 유형 .....	150
표 3-38 숙박지 선택 요인 .....	150
표 3-39 제주 방문의 가장 주된 목적 .....	150
표 3-40 제주 경관에 관한 건의사항 .....	150
 표 4-1 경관권역의 유형 .....	 155
 표 6-1 권장 수종 리스트 .....	 197
표 6-2 행위 제한 유형 .....	201
표 6-3 하천 행위 제한 유형 .....	201
표 6-4 하천 조망유형별 세부지침 .....	205
표 6-5 권장수종 리스트 .....	206
표 6-6 행위 제한 유형 .....	221
표 6-7 행위 제한 유형 .....	221
표 6-8 권장수종 리스트 .....	238
표 6-9 생태 면적을 적용기준 .....	239
표 6-10 하천 조망유형별 세부지침 .....	272
표 6-11 생태 면적을 적용기준 .....	276
표 6-12 주거지 유형별 주택 종류 .....	328
표 6-13 제주지역 풍력발전 구축 설비 용량 .....	341
표 6-14 가로수 현황 (상위 10순위) .....	344
표 6-15 간판디자인 체크리스트 .....	352
표 6-16 옥외광고물 색채 지침 .....	353
표 6-17 옥외광고물 수량 지침 .....	353
표 6-18 조명방식별 허용여부 .....	356
표 6-19 합성재료 .....	357
표 6-20 천연재료 .....	357
표 6-21 합성재료 .....	358
표 6-22 가로시설물의 분류기준 .....	359
표 6-23 기본계획-삼다 .....	360
표 6-24 기본계획-삼무 .....	360
표 6-25 기본계획-삼려 .....	361
표 6-26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유형 .....	365
표 6-27 항목별 디자인 지침 (가로등) .....	366
표 6-28 항목별 디자인 지침 (보행등) .....	366
표 6-29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벤치) .....	367
표 6-30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벤치) .....	367
표 6-31 항목별 디자인 지침 (휴지통) .....	368
표 6-32 항목별 디자인 지침 (클린하우스) .....	369
표 6-33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버스 승차대 : 쉼터) .....	369

표 6-34 버스승차대(쉘터) 유형별 디자인 .....	370
표 6-35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보관대) .....	370
표 6-36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안전헬스) .....	371
표 6-37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안내표지판) .....	371
표 6-38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스테이션) .....	371
표 6-39 항목별 디자인 지침 (볼라드) .....	372
표 6-40 항목별 디자인 지침 (중앙분리대) .....	372
표 6-41 항목별 디자인 지침 (보호헬스) .....	373
표 6-42 항목별 디자인 지침 (무단횡단방지헬스) .....	373
표 6-43 항목별 디자인 지침 (방음벽) .....	374
표 6-44 항목별 디자인 지침 (해안파제벽) .....	374
표 6-45 항목별 디자인 지침 (공사장가림막) .....	375
표 6-46 항목별 디자인 지침 (관광안내소) .....	375
표 6-47 항목별 디자인 지침 (가로판매대) .....	376
표 6-48 항목별 디자인 지침 (주차부스) .....	376
표 6-49 항목별 디자인 지침 (관광안내판) .....	377
표 6-50 항목별 디자인 지침 (시설안내판) .....	378
표 6-51 항목별 디자인 지침 (유도사인) .....	379
표 6-52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벽보게시대) .....	380
표 6-53 제주의 공공글꼴 .....	390
표 7-1 경관협정 추진단계별 지원 내용 .....	395
표 7-2 2015년도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현황 .....	396

## <그림 차례>

그림 2-1 자연경관의 대표유형 .....	9
그림 2-2 중산간 일대의 자연경관 .....	10
그림 2-3 제주도 표고분석 .....	10
그림 2-4 제주도 경사분석 .....	10
그림 2-5 지질도 .....	12
그림 2-6 주요 분포 지질 .....	12
그림 2-7 한라산 경관 .....	13
그림 2-8 주요 오름 경관 .....	13
그림 2-9 오름 분포도 .....	14
그림 2-10 용눈이오름에서 본 오름군락 조망경관 .....	15
그림 2-11 오름주변 무질서한 현황(비룡오름) 및 계획된 개발 사업(뉴오션타운) .....	15
그림 2-12 초지 경관 .....	16
그림 2-13 조선후기제주10소장및목장분포 .....	16
그림 2-14 마을공동목장분포(면적비교) .....	16
그림 2-15 초지 관리 현황 .....	17
그림 2-16 제주 곶자왈 경관 .....	18
그림 2-17 제주 곶자왈 분포 현황 .....	19
그림 2-18 재선충으로 훼손된 곶자왈과 채석장 .....	20
그림 2-19 동굴 분포도 .....	21
그림 2-20 김녕굴 및 만장굴 .....	22
그림 2-21 협재굴 및 쌍룡굴 .....	23
그림 2-22 용천동굴 .....	23
그림 2-23 하천현황 .....	24
그림 2-24 제주도 해안경관 .....	25
그림 2-25 월정리 해안 현황 .....	26
그림 2-26 제주의 섬 현황 .....	27
그림 2-27 비양도 경관 현황 .....	27
그림 2-28 문섬·범섬·쇠섬 전경 .....	28
그림 2-29 가파도와 마라도 전경 .....	29
그림 2-30 모래언덕의 훼손사례 .....	30
그림 2-31 제주의 해안도로 .....	31
그림 2-32 해안가 불법 매립 현황 .....	31
그림 2-33 해안도로변 양식장 현황 .....	32
그림 2-34 풍력발전기 현황 .....	33
그림 2-35 해안경관 변화 .....	34
그림 2-36 제주도 하천 현황 .....	35
그림 2-37 제주의 하천 .....	35
그림 2-38 생태하천축 .....	36
그림 2-39 산지천 친수공간 .....	36
그림 2-40 산지천 보행공간 .....	36
그림 2-41 강정천 .....	37

그림 2-42	걸매생태공원 (숨반천)	37
그림 2-43	병문천 다가구주택	38
그림 2-44	한천 단지형다세대주택	38
그림 2-45	제주지역 주요습지 현황	39
그림 2-46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및 해안·내륙습지	39
그림 2-47	하논습지 현황	40
그림 2-48	심의대상 습지(자연연못) 현황	41
그림 2-49	제주지역 주요 습지 현황	42
그림 2-50	용천수 현황	43
그림 2-51	용천수 현황	43
그림 2-52	생물권보전지역 권역도	45
그림 2-53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현황	45
그림 2-54	생태계보전지구 등급현황	46
그림 2-55	경관보전지구 등급현황	46
그림 2-56	세계자연유산 위치도	47
그림 2-57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9개소) 위치도	48
그림 2-58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지구 지정현황	49
그림 2-59	특별법에 의한 절·상대 보전지역지정 현황	49
그림 2-60	해안마을 전경	50
그림 2-61	일본 중산간지역의 개념도	51
그림 2-62	중산간지역 취락지 분포 및 현황조사지역	52
그림 2-63	중산간지역 취락지 : 가로시설물	52
그림 2-64	중산간지역 취락지 : 가옥	53
그림 2-65	중산간지역 개발 현황 분포도	53
그림 2-66	중산간에서의 개발 현황	54
그림 2-67	연도별 표고별 개발행위허가 추이(2009~2014)	54
그림 2-68	개발행위허가 표고별 현황분포도 (2009~2014)	54
그림 2-69	영주십경	55
그림 2-70	영주십경 위치도	55
그림 2-71	탐라순력도	56
그림 2-72	국가지정 문화재	56
그림 2-73	도지정 문화재	57
그림 2-74	제주성지 잔존 및 문화재 지정 구간	58
그림 2-75	제주지역 돌담 및 경계획정 사례	59
그림 2-76	돌담 현황	60
그림 2-77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61
그림 2-78	신제주방면 고도지구 현황	63
그림 2-79	구제주방면 고도지구 현황	63
그림 2-80	서귀포시 서부지역 고도지구 현황	63
그림 2-81	서귀포시 동부지역 고도지구 현황	63
그림 2-82	산업단지 지정 현황	66
그림 2-83	시가지 경관	68
그림 2-84	취락지구 분포 현황	69
그림 2-85	취락지구 현황	69
그림 2-86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71

그림 2-87 주요공원 현황 .....	72
그림 2-88 주요 간선도로 현황 .....	73
그림 2-89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 도로표지판 .....	74
그림 2-90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무질서한 관광안내표지판 .....	74
그림 2-91 가로수 주요현황 .....	74
그림 2-92 문화 및 테마거리 현황 .....	76
그림 2-93 주요관광지 현황 .....	78
그림 2-94 제주지역 주요 해수욕장 현황 .....	79
그림 2-95 골프장 현황 .....	80
그림 2-96 올레길 코스 현황도 .....	81
그림 2-97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위치도 .....	82
그림 2-98 야간경관 .....	83
그림 2-99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구상도 .....	84
그림 2-100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현황 .....	85
그림 2-101 이도2지구 전체 현황도 .....	87
그림 2-102 계획의 기본 틀 .....	97
그림 2-103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98
그림 2-104 국토녹색길 개념도 .....	99
그림 2-105 제주의 전략 방향 .....	100
그림 2-106 국가 경관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	101
그림 2-107 해안경관 관리범위 .....	102
그림 2-108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의 구분 .....	105
그림 2-109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의의 .....	105
그림 2-110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	105
그림 2-111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106
그림 2-112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기본원칙 .....	106
그림 2-113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육역 범위 .....	108
그림 2-11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용도해역 총괄도 .....	109
그림 2-115 제주특별자치도 연안해역 기능구 총괄도 .....	110
그림 2-116 자연해안관리 대상 및 범위 .....	110
그림 2-117 기본계획의 구성 .....	112
그림 3-1 미래상 및 목표 .....	119
그림 3-2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의 체계 .....	119
그림 3-3 서울특별시 경관관리구역 .....	120
그림 3-4 주요전략 및 경관형성기준 .....	120
그림 3-5 미래상 및 목표 .....	121
그림 3-6 계획의 체계 .....	121
그림 3-7 대구광역시 경관관리구역 .....	121
그림 3-8 부산광역시 경관역·경관축·경관핵 .....	123
그림 3-9 역사문화경관 관리 기본구상도 .....	123
그림 3-10 북장대에 대한 양각분석 .....	124
그림 3-11 북장대에서 본 부각에 의한 주요 가시범위 .....	124
그림 3-12 문화재보호구역의 양각적용검토 .....	125
그림 3-13 진주성 주변 시뮬레이션 .....	125

그림 3-14 경관지구 고도조정의 내용 .....	125
그림 3-15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일의 농촌마을 경관 .....	126
그림 3-16 오스나브뤼크 주요 경관 .....	126
그림 3-17 독일 뒤셀도르프 항만지구 주요 경관 .....	127
그림 3-18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수변 도시재생 사업 .....	127
그림 3-19 미국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사례 .....	128
그림 3-20 독일 쾰른 도심 주요 현황 .....	129
그림 3-21 출페어라인 탄광 재개발 현황 .....	129
그림 3-22 하이델베르그성에서 바라본 도심의 원경 및 근경 .....	130
그림 3-23 스위스 바젤의 알프스 실루엣을 살린 벽면, 도로 및 담장 .....	131
그림 3-24 스위스 바젤의 Novartis 건물, 미관을 고려한 낙수물 공간 .....	131
그림 3-25 스위스 베른 시내 구도심 및 주요 스트리트몰 .....	131
그림 3-26 스위스 산악경관 및 숙박시설들 .....	132
그림 3-27 응답자의 거주지역 .....	136
그림 3-28 현재거주지역의 거주기간 .....	136
그림 3-29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	137
그림 3-30 중산간 개발행위 증가에 대한 인식 .....	138
그림 3-31 주요간선도로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	138
그림 3-32 제주도 경관의 만족도 .....	139
그림 3-33 평소 제주도 경관에 대한 생각 여부 .....	139
그림 3-34 제주도 경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	140
그림 3-35 제주도에선 선호하는 경관 .....	140
그림 3-36 제주도에선 불만족스러운 경관 .....	141
그림 3-37 제주도에선 개선해야할 공공시설물 .....	142
그림 3-38 경관계획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	143
그림 3-39 적절한 홍보 및 교육방식 .....	143
그림 3-40 관광객의 제주도 경관 생각여부 .....	145
그림 3-41 관광객의 제주도 경관을 생각하게 된 계기 .....	145
그림 3-42 관광객 경관 만족도 .....	146
그림 3-43 제주도에선 선호하는 경관 .....	147
그림 3-44 제주도에선 불만족스러운 경관 .....	148
그림 3-45 제주도에선 개선해야할 공공시설물 .....	149
그림 4-1 경관계획 .....	153
그림 4-2 경관계획 용어빈도 .....	153
그림 4-3 경관계획 1부 .....	154
그림 4-4 경관계획 2부 .....	154
그림 4-5 경관계획 3부 .....	154
그림 4-6 경관계획 4부 .....	154
그림 4-7 경관계획 1부 용어빈도 .....	154
그림 4-8 경관계획 2부 용어빈도 .....	154
그림 4-9 경관계획 3부 용어빈도 .....	154
그림 4-10 경관계획 4부 용어빈도 .....	154
그림 4-11 경관권역 설정 예시도 .....	155
그림 4-12 경관지침 .....	156

그림 4-13 경관지침 용어빈도 .....	156
그림 4-14 모호한 중산간 사례 .....	157
그림 4-15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현황 .....	157
그림 4-16 동부오름군락 .....	157
그림 4-17 동부오름군락군 초지현황 .....	157
그림 4-18 남-북 단면도 .....	158
그림 4-19 서-동 단면도 .....	158
그림 4-20 제주시 시가지를 기준으로 한 단면도 .....	158
그림 4-21 동부오름군락 단면도 .....	158
그림 4-22 해안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한라산조망저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161
그림 4-23 해안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한라산 조망저해(이호유원지:조감도) .....	161
그림 4-24 스카이라인 저해 : 이호유원지(조감도) .....	161
그림 4-25 주요도로변에서의 개발사업지 경관 (아덴힐리조트) .....	162
그림 4-26 부감경관(새별오름에서 바라 본 아덴힐리조트) .....	162
그림 4-27 부감경관(새별오름에서 바라 본 에버리스골프장) .....	162
그림 4-28 부감경관 (오설록전망대에서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	162
그림 4-29 기개발 사업장 경관 .....	162
그림 4-3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색채계획 .....	163
그림 4-31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안) .....	166
그림 5-1 여건분석 현황 .....	169
그림 5-2 경관권역(면) .....	174
그림 5-3 경관축(선) .....	175
그림 5-4 경관거점(점) .....	175
그림 5-5 기존 조망점 100 .....	188
그림 5-6 조망점에서 본 가시권 분석 .....	188
그림 5-7 오름에서 본 가시권 분석 .....	188
그림 6-1 한라산 국립공원 영역 .....	195
그림 6-2 식생대단면 다이어그램 .....	195
그림 6-3 행위제한 하천별 개발 유형 .....	202
그림 6-4 올레담의 소실 .....	203
그림 6-5 중산간 취락경관에 조화롭지 못한 대문 .....	203
그림 6-6 시설물 과다설치 .....	203
그림 6-7 원형 보존되는 봉천수 .....	203
그림 6-8 절제되어 정비된 팽나무 주변 .....	204
그림 6-9 원형으로 유지되는 팽나무와 뗏돌 .....	204
그림 6-10 방풍림의 개방으로 조망 확보 .....	206
그림 6-11 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	206
그림 6-12 오름 탐방로 단면구성 예시 .....	208
그림 6-13 자전거도로의 단면예시 .....	208
그림 6-14 중산간지역의 도로변 경관 .....	209
그림 6-15 경관단위④ 건축물색채 적용 예시 .....	210
그림 6-16 경관단위④ 지붕권장색채 .....	210
그림 6-17 관광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11

그림 6-18 주거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11
그림 6-19 역사문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11
그림 6-20 간판특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11
그림 6-21 건축물 라인 조명방식 사용금지 .....	216
그림 6-22 판류형 옥외광고물 조명 설치 주의 .....	216
그림 6-23 대형 휴게공간 배제 .....	220
그림 6-24 소규모 공간으로 분산 배치 .....	220
그림 6-25 행위 제한 대상 하천변 개발 유형 .....	221
그림 6-26 단지조성 예시 .....	224
그림 6-27 단지배치 예시 .....	225
그림 6-28 단지조성 예시 .....	225
그림 6-29 가로환경의 기본요소 .....	227
그림 6-30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관리 .....	228
그림 6-31 가로환경의 경관계획대상요소 .....	228
그림 6-32 건축지정선 설정의 기준 .....	229
그림 6-33 보행영역의 통합관리 .....	229
그림 6-34 필지의 관리 .....	230
그림 6-35 가용 파사드의 연장 및 골목의 활용 .....	230
그림 6-36 저층부 파사드의 개방도 .....	230
그림 6-37 맞벽 설치·측면공지의 관리 .....	231
그림 6-38 골목의 관리 .....	231
그림 6-39 가구 내 맹지의 관리 .....	231
그림 6-40 가구 내부의 활성화와 이면도로와의 연계 .....	232
그림 6-41 서귀포시 신시가지 가로체계 .....	232
그림 6-42 서귀포시 중정로 주변 가로체계 .....	232
그림 6-43 제주시 연동 가로체계 .....	233
그림 6-44 제주시 산지천 주변 가로체계 .....	233
그림 6-45 도시형태보전지구 지정사례 .....	233
그림 6-46 도시형태의 보전사례 .....	233
그림 6-47 방풍림의 개방으로 조망 확보 .....	236
그림 6-48 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	236
그림 6-49 오름 탐방로 단면구성 예시 .....	238
그림 6-50 자전거도로의 단면예시 .....	239
그림 6-51 지붕색채의 재료별 현황 .....	241
그림 6-52 관광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42
그림 6-53 주거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42
그림 6-54 상업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43
그림 6-55 역사문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43
그림 6-56 간판특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243
그림 6-57 보존이 양호한 올레담 .....	245
그림 6-58 보존이 양호한 발담 .....	246
그림 6-59 경작지의 분묘 .....	246
그림 6-60 경작지의 산담 .....	246
그림 6-61 잔존하는 훼손위기의 잣성 .....	246
그림 6-62 건축물 라인 조명방식 사용금지 .....	248

그림 6-63 판류형 옥외광고물 조명 설치 주의	248
그림 6-64 대형 휴게공간 배제	252
그림 6-65 소규모 공간으로 분산 배치	252
그림 6-66 단지조성 예시	258
그림 6-67 단지배치 예시	260
그림 6-68 단지조성 예시	260
그림 6-69 가로환경의 기본요소	262
그림 6-70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관리	263
그림 6-71 가로환경의 경관계획대상요소	263
그림 6-72 건축지정선 설정의 기준	264
그림 6-73 보행영역의 통합관리	264
그림 6-74 필지의 관리	265
그림 6-75 가용 파사드의 연장 및 골목의 활용	265
그림 6-76 저층부 파사드의 개방도	265
그림 6-77 맞벽 설치·측면공지의 관리	266
그림 6-78 골목의 관리	266
그림 6-79 가구 내 맹지의 관리	266
그림 6-80 가구 내부의 활성화와 이면도로와의 연계	267
그림 6-81 서귀포시 신시가지 가로체계	267
그림 6-82 서귀포시 중정로 주변 가로체계	267
그림 6-83 제주시 연동 가로체계	268
그림 6-84 제주시 산지천 주변 가로체계	268
그림 6-85 도시형태보전지구 지정사례	268
그림 6-86 도시형태의 보전사례	268
그림 6-87 산지천 단면도	271
그림 6-88 한천 동산교 부근 단면도	271
그림 6-89 병문천 단면도	272
그림 6-90 바다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273
그림 6-91 인위적 초화연출 금지	273
그림 6-92 지문을 고려한 공원형태	273
그림 6-93 지문을 무시한 공원형태	273
그림 6-94 오름 탐방로 표준 예시	275
그림 6-95 자전거도로의 단면예시	275
그림 6-96 하도 해수욕장 인근거리	276
그림 6-97 탑동 서부두 횡집거리	276
그림 6-98 함덕 해안의 펜션	277
그림 6-99 조천 해안변의 폐유탱크	277
그림 6-100 배색적용	278
그림 6-101 지붕권장색채	278
그림 6-102 색채 적용 예시	279
그림 6-103 관광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280
그림 6-104 주거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280
그림 6-105 상업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280
그림 6-106 역사문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280
그림 6-107 간판특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280

그림 6-108 육상수조 양식장 분포도 .....	283
그림 6-109 양식장 현황 .....	283
그림 6-110 어업장 현황 .....	283
그림 6-111 양식장 배치현황 .....	283
그림 6-112 신산 환해장성 .....	285
그림 6-113 건축물 라인 조명방식 사용 금지 .....	286
그림 6-114 판류형 옥외광고물 조명 설치 주의 .....	286
그림 6-115 해안도로 cut-off 방식조명사용권장 .....	288
그림 6-116 바다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	297
그림 6-117 인위적 초화연출 금지 .....	297
그림 6-118 배색적용 .....	300
그림 6-119 지붕권장 색채 .....	301
그림 6-120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및 고립화 방안 .....	342
그림 6-121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보존 .....	343
그림 6-122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서의 조망확보 .....	343
그림 6-123 최소·조화·연립의 예 .....	350
그림 6-124 개별·개성·심볼의 예 .....	351
그림 6-125 픽토그램 제시안 .....	362
그림 6-126 방향표시 제시안 .....	363
그림 6-127 한국어 서체 .....	363
그림 6-128 영어 서체 .....	364
그림 6-129 중국어/일어 서체 .....	364
그림 6-130 그늘막 설치 예시 .....	368
그림 6-131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시 .....	370
그림 6-132 관광안내판 : 도심형 .....	377
그림 6-133 관광안내판 : 중산간형 .....	377
그림 6-134 관광안내판 : 해안형 .....	377
그림 6-135 시설안내판 : 도심형 .....	378
그림 6-136 시설안내판 : 중산간형 .....	378
그림 6-137 시설안내판 : 해안형 .....	378
그림 6-138 유도사인 : 도심형 .....	380
그림 6-139 유도사인 : 중산간형 .....	380
그림 6-140 유도사인 : 해안형 .....	380
그림 6-141 벽보게시대 : 도심형 .....	381
그림 6-142 벽보게시대 : 중산간형 .....	381
그림 6-143 벽보게시대 : 해안형 .....	381
그림 6-144 제주색 개발방향 .....	382
그림 6-145 버스 외관색 .....	384
그림 6-146 버스 외관 .....	385
그림 6-147 버스 외관색 .....	386
그림 6-148 내부 버스정보 .....	386
그림 6-149 택시 외관 .....	387
그림 7-1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예시 .....	397



# I . 계획의 개요



# I. 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1.1 계획의 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과 같은 호재를 통해 제주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유입인구와 같이 급격한 인구증가 지속되고, 2014년 말 기준 63만명을 넘어섰음
-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제주지역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의 사유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의 해안도로변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해안경관의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어 기수립된 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됨
- 더불어 2014년 2월 시행된 「경관법」 제15조는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2009년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경관법」 규정과 변화된 지역 현실에 부합하게 재수립해야 할 시점에 도래
- 뿐만 아니라 선진 경관정책 사례를 통해 빼어난 경관과 함께 단순히 지역(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
  - 제주의 경우, 경관정책 재설계를 통해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필요
-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경관관리계획 수립('09년) 및 경관조례 제정('10년) 이후 경관정책의 변화가 없는 상황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경관적 요소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중산간 및 해안지역의 보전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
  - 경관에 대한 도민인식 변화를 고려한 경관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1.1.2 계획의 목적

- 제주지역의 기존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제주미래비전 및 관련상위계획과 부합되는 경관목표 및 전략을 수립
  - 제주미래비전에서는 ‘청정’과 ‘공존’이 미래가치임
-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자원을 재정립하고 세계자연유산, 세계7대자연경관에 걸맞는 신비롭고 매력있는 지역경관을 창출함
- 제주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경관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구상, 경관지침 및 실행계획을 마련함

## 1.2 계획의 범위

### 1.2.1 공간적 범위

- 면적 : 1849km<sup>2</sup>(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1.2.2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 2020년
- 기준년도 : 2015년

### 1.2.3 내용적 범위

- 제주자치도의 경관관리 현황 및 여건분석을 통한 과제 도출
  - \* 중산간 지역 보전, 대규모 개발사업 및 미적 기준 관련 과제 포함
- 경관 관련 제도·계획 검토 및 국·내외 사례 조사 후 시사점 도출
- 경관 권역·축·거점, 중점관리 구역 등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미적 기준이 반영된 관리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1.3 계획의 성격과 역할

### 1.3.1 계획의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09) 수립, 경관조례 제정('10)이후 여건이 변화하고 경관법이 개정(시행 '14.2)되어 법제적으로 경관관리의 실행력이 확보
- 그러나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재정비 계획을 통한 법제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음

### 1.3.2 계획의 위상

- 기존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09)을 기본틀로 제주지역의 변화와 여건에 맞는 실정을 담도록 함
- 이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경관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

### 1.3.3 계획의 역할

- 이번 재정비의 역할은 기존에 마련된 경관관리계획 및 경관지침의 내용중에서 약했던 지침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자 및 행정에는 지침적 역할 충족 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지역의 변화와 고유의 지문을 반영하여 현 상황에 활용가능토록 함
- 더불어 자의적으로 해석가능하거나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재정비 역할	1. 기존에 약했던 지침적 역할을 재정비 계획을 통하여 강화토록 함
	2.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시행자 및 행정의 지침적 역할 충족
	3. 재정비 또는 계획 중인 도내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일원화된 이념 구축
	4. 지역의 변화된 지문을 반영하여 현 상황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5.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용어, 지문을 정의 및 해석을 통해 오해의 소지 감소

## 1.4 계획수립의 추진과정



## 1.5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2015. 1. 20.	착수보고	
2015. 2. 24.	1차 자문회의	
2015. 6. 23.	2차 자문회의	
2015. 8. 28.	1차 중간보고	
2015. 9. 15.	3차 자문회의	
2015. 10. 2.	2차 중간보고	
2015. 12. 1.	공청회	1차 제주도, 2차 서귀포시
2015. 12. 15.	최종성과품 제출	

## II. 현황 및 여건분석



## II. 현황 및 여건분석

### 2.1 제주의 경관 현황

- 제주도는 하나의 한라산체로 이루어진 완만한 원추형의 섬이며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임
- 화산활동의 산물로서 화산 지형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한라산의 화산분출과 기생화산의 분출로 이루어진 섬으로 전체가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섬 탄생에 기인한 한라산과 오름, 곶자왓 및 하천, 해안 및 부속도서 등이 주요한 자연경관자원임
- 침식에 의한 지형의 국지적인 특성의 형성이 미미하나, 해안에서 중산간지역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기생화산인 오름들이 지형경관의 국지적인 개별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도시경관은 다양한 유형분류가 가능
  - 시점과의 관계에 의한 구분(조망형 경관, 환경형 경관)
  - 규모에 의한 구분(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지구경관, 가로경관)
  - 자연성과 인공성에 의한 구분(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경관, 생활경관)
  - 형태에 의한 구분(점적경관, 선적경관, 면적경관)으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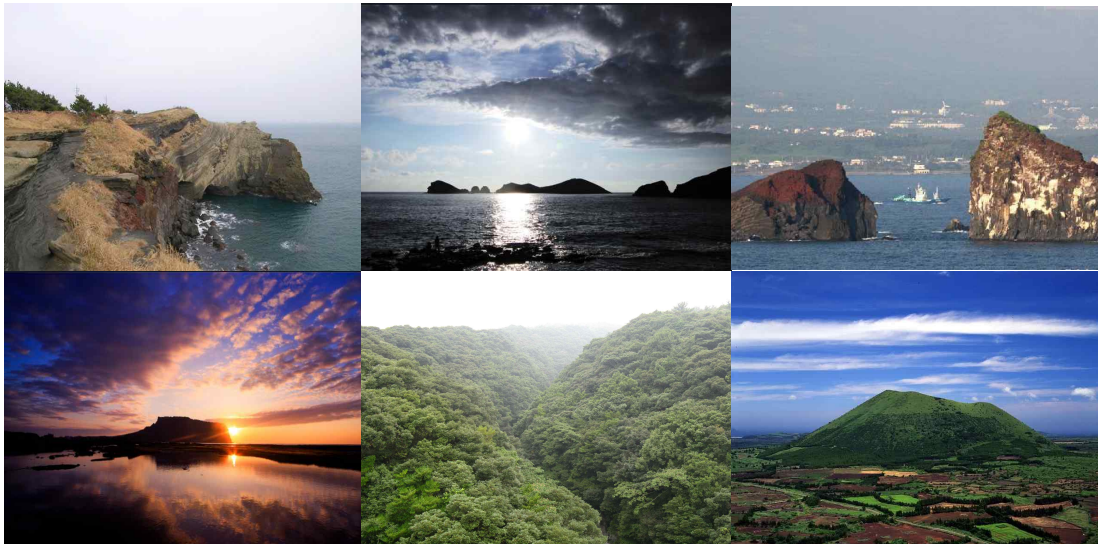


그림 2-1 자연경관의 대표유형

#### 2.1.1 자연경관

##### 1) 지형·지세

- 제주도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원추형을 나타내며,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사면의 경사도가 차이 날 뿐 섬 전체가 동심원적으로 균질한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제주도는 유년기 지형으로 지표의 침식이 미미한 상태여서 침식에 의한 지형의 국지적인 특성의 형성도 미미하나, 해안에서 중산간지역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기생화산인 오름들이 지형경관의 국지적인 개별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독특한 지질학적 환경을 보유하여 세계7대자연경관의 지정 및 UNESCO 인증가 인증하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을 받아 트리플크라운을 가질 만큼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지닌 곳임



그림 2-2 중산간 일대의 자연경관

-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 (3~5°)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사면은 동서보다 급한 경사(5~10°)를 나타냄. 특히 동서방향 장축의 끝 지역은 넓은 평원이 형성
- 해발고도 200m이하 지역이 전체 면적의 55.3%로 해안지대이며, 고도 200~500m의 지대는 전체 면적의 27.9%로 목장지나 유흥지이며, 고도 500~1,000m지대는 12.3%, 1,000m이상의 고산지대는 4.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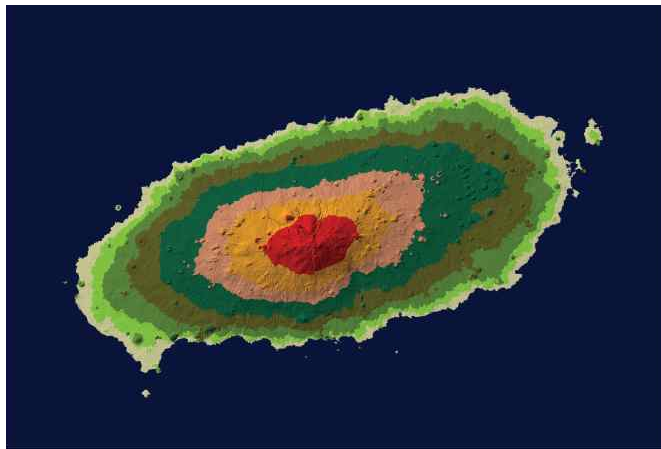


그림 2-3 제주도 표고분석

구분	면적(km <sup>2</sup> )	구성비(%)
합계	1,848.7	100.0
200m이하	1,011.3	54.7
200~400	391.9	21.2
400~600	197.8	10.7
600~800	101.7	5.5
800~1,000	61.0	3.3
1,000~1,200	38.8	2.1
1,200m이상	46.2	2.5

표 2-1 표고분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그림 2-4 제주도 경사분석

구 분	면적(km <sup>2</sup> )	구성비(%)
합 계	1,848.7	100.0
10% 이하	1,599.2	86.5
10%~20%	183.0	9.9
20%~30%	49.9	2.7
30%~40%	12.9	0.7
40% 이상	3.7	0.2

표 2-2 경사분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 2) 지질

- 제주도는 화산체로서 화산지형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침식윤회 단계에서 유년기에 해당되어 화산원지형이 많이 보전되어 있으며, 따라서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현무암이 전면적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음
- 제주도의 지질은 기반암, 고제주화산암, 서귀포층, 표선리현무암군, 탐라층, 현무암질 암맥복합체, 한라산현무암군, 백록담조면암군, 화산성 암설사태층, 신양리층 및 고해빈-내만사층으로 구분됨
- 지표면은 침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빠져들어 하천은 거의 대부분 건천 상태가 되어 물이 흐르지 않아 잡곡 위주의 밭농사가 주를 이룸
- 제주도를 구성하는 화산암의 조성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며, 동부와 서부 지역의 용암류는 남부 및 북부 지역에 비해 전이질 현무암과 비알칼리암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함

표 2-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질층서

시대	층서단위	비고	분석구	응회환
홀로세	고해빈·내만사층	사아, 패각층의 해성층		
	신양리층	역암과 사암의 해성층		
플라이스토세 후기	화산성암설사태층 층서관계 불명확 백고담조면암군	다양한 종류의 암괴와 암설		
		용암돔, 암맥		
	한라산현무암군	파호에호에 및 아아 용암		
	현무암질 암맥복합체	암맥군과 쉬트상 단독암맥	후기분석구	응회환
	탐라층	주로 역암, 함력 사암등 하성 역질 퇴적암		
	표선리현무암군	파호에호에 용암	전기분석구	
	서귀포층	역암, 사암, 이암의 해성층, 상부에 유리쇄설암과 응회환층 협재		
	고제주화산암	서귀포층에 포함된 현무암질, 조면암질의 역들		
	기반암	미문상화강암(불국사화강암), 응결응회암, 화산력 응회암, 흑운모화강암(대보화강암)		
플라이오세 후기				
팔레오세				
선캄브리아기				

자료 : 한국농촌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2006,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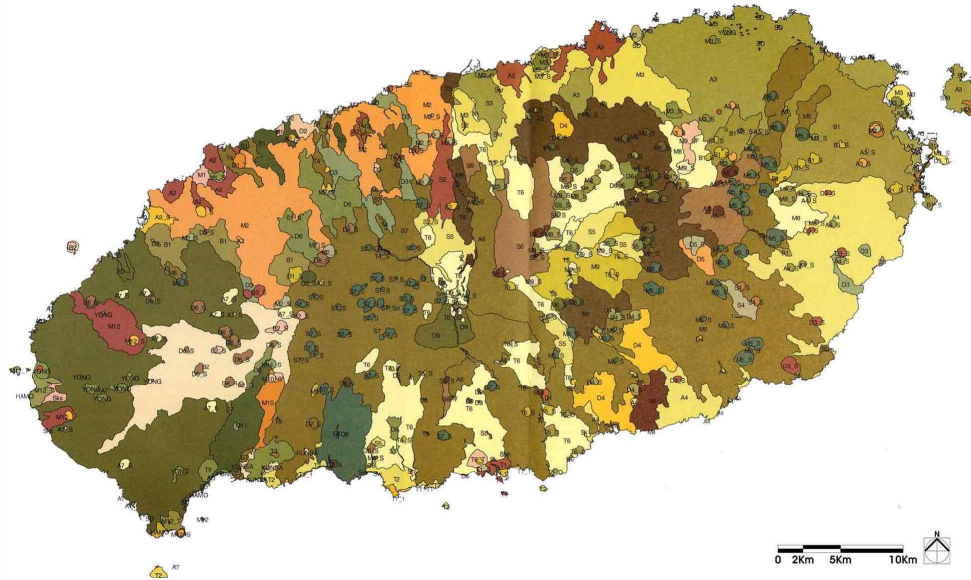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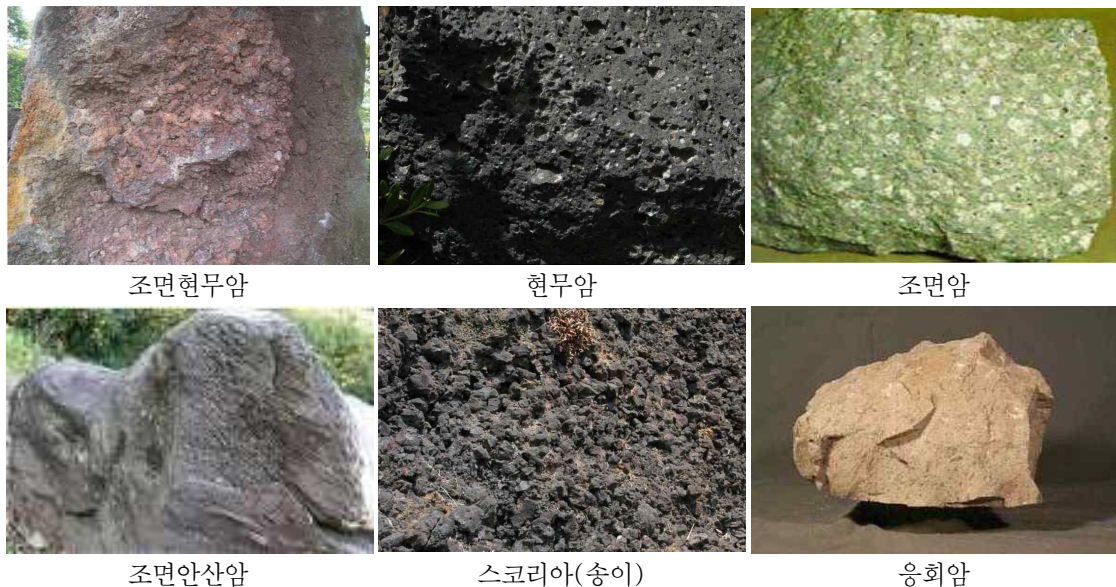


그림 2-5 지질도



조면현무암

현무암

조면암

조면안산암

스코리아(송이)

응회암

그림 2-6 주요 분포 지질

### 3) 한라산

- 한라산은 산림녹지경관의 핵이며,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원추형으로 펼쳐진 제주섬은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한라산인 지형적 특성을 보임
- 한라산은 해발고도에 따라 200m 이하의 해안지대, 200m~600m의 중산간지대, 600m 이상의 산악 지대로 구분되며, 중심부에는 약 133km<sup>2</sup>에 걸쳐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중심에 있는 백록담은 둘레 3km, 지름 500m의 화구호이며 주변에 사라오름, 성널오름, 어승생오름, 흙불은오름 등 48개의 오름이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분포하여 한라산과 더불어 산림녹지 경관을 이루고 있음
- 한라산에는 해발고도에 따라 1,800여 종에 달하는 아열대·온대·한대성 고산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특히, 1,400m 이상의 고지대에는 90여종의 특산식물과 상당수의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등 다양한 식생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식생자원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생태계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고 있음

- 경관적으로 계절성이 느껴지는 봄의 철쭉·진달래·유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과 운해가 절경을 이루어 제주도민 및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양환경과 생태경관을 제공하고 있어 한라산은 제주의 최고의 경관자원이자 환경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림 2-7 한라산 경관

#### 4) 오름

- 제주의 오름은 제주 전역에 소규모 화산이 분출한 기생화산으로, 368개의 오름이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만들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음. 외형적인 특성에 따라 말굽형, 원추형, 원형, 복합형 오름으로 분류되며 있음
- 한라산 산록동측 및 서측 중산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제주시에 210개 서귀포시에 158개 오름이 있으며, 표고별로는 200m 이하 해안지대에 143개 전체의 38.9%, 200m~600m 중산간지역에 149개 40.5%, 600m이상의 산악지대에 76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음
- 마을과 근접해 있는 오름은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자 일부임. 현재에도 일부 도시내의 오름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내 녹지공간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산일출봉, 산방산과 같이 주요 관광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오름의 소유형태별로는 국공유지가 164개로 전체의 44.6%이며, 사유지, 마을공동소유, 재단 소유 등이 204개로 전체의 55.4%로 나타나 제주의 주요한 자원인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1) 경관적 가치

- 오름은 주로 분석구, 용암 원정구, 응회환 및 응회구, 마르 등의 지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 분출시기, 분화특성, 화산활동의 양상, 마그마가 생성되었던 심부 환경 등 당시의 화산활동의 양상, 마그마가 생성되었던 심부 환경 등 당시의 화산활동에 대한 정보와 화산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림 2-8 주요 오름 경관

- 또한 분화 당시의 지표상황(국지적인 지형 구배, 기상관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변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일출봉, 두산봉, 수월봉, 월라봉, 단산은 풍호 및 침식을 많이 받은 결과, 측면에 발달되어 있는 층리 관찰이 매우 용이함
  - 오름은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지구과학 학습장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368개의 오름군은 현재와 같은 제주도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원경관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오름은 한라산 주변에서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개별오름은 경우에 따라 한라산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제주의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함
- 오름은 분화활동을 통해 많은 양의 용암류와 화산재 및 화산 쇄설물을 쏟아냈고, 그로 인해 용암대지, 용암동굴, 곳자왈과 용암빌레, 용암해안 등이 형성되어 연계경관으로서 조망체험효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오름형성 요인과 분화구 형태에 따라 조망거리, 조망각 그리고 조망구도 유형의 다채로움을 체험할 수 있음. 또한 구좌읍 송당리 일원과 같이 단위 오름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지에서 조망뿐만 아니라 오름 정상에서 조망되는 또다른 오름 또는 오름군의 파노라믹한 풍경은 제주의 대표경관이라 할 수 있음
- 산정 화구호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인 경관은 경사 급변점을 가지면서 전형적인 분화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화구 내의 경관은 습지를 형성하고 산정 화구호를 제외한 사면은 환경사면을 이루면서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적 조망가치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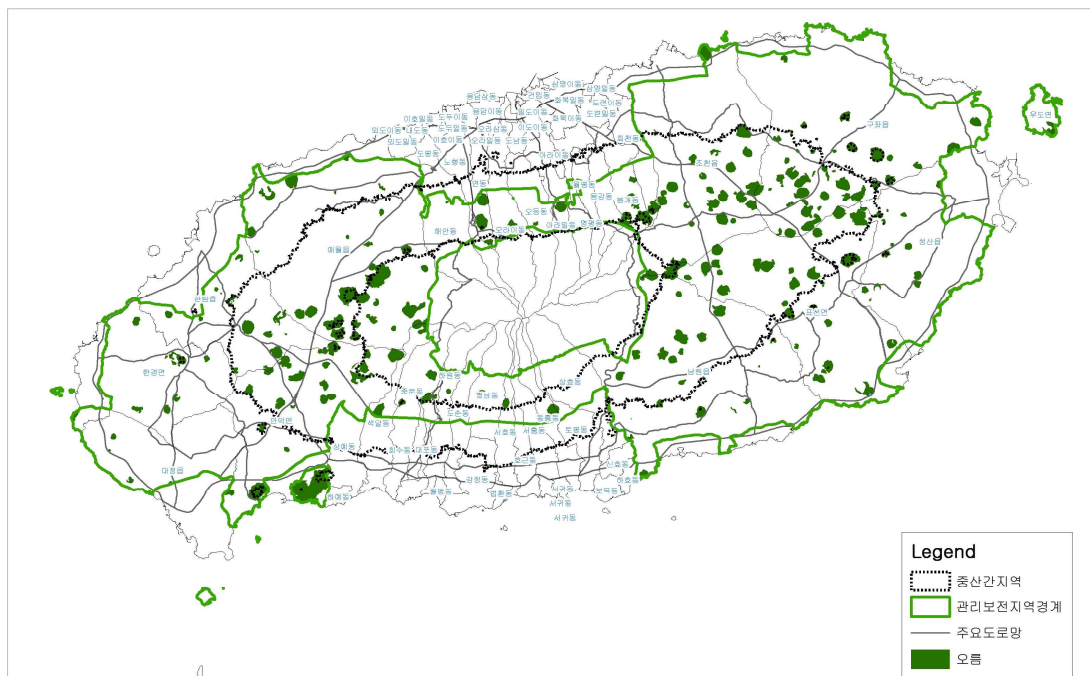


그림 2-9 오름 분포도

- 특히, 분화구내의 습지에서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육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습지의 중앙부터는 습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이 동심원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수문조건, 일사량 등 자연적인 전제조건에 따른 습지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탐방로 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오름은 지형경관으로서 미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진기함과 새로움 등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조망가치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10 용눈이오름에서 본 오름군락 조망경관

## (2) 경관관리 현황

- 제주지역의 난개발로 도시허파가 사라지는 가운데 오름주변 자연녹지도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관훼손이 심해지고 있음
-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도심권 건설부지 부족과 지가상승, 자연녹지 개발제한완화 등으로 자연녹지내 건축바람이 불고 있음. 민오름 북측에서 연북로까지 200~250m 사이의 자연녹지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선 것은 물론 상업·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민오름 동측 능성이에 공동주택의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서쪽에는 건물기반 공사가 진행되는 등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음
- 남조순오름과 상여오름, 오드싱오름과 밀접한 자연녹지 역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돼 오름 경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들 오름 주변 자연녹지내 건축물들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이 이뤄졌음
- 현행 경관조례에는 동부지역 오름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내 오름의 경우 하부경계선에서 1.2km 이내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제주시 동지역내 오름은 경관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동지역 녹지지역내 건축물 제한높이인 최대 높이 15m로만 제한된 규정만 지키면 오름 주변에 4층까지 공동주택과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경관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동지역 오름주변 난개발을 막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그림 2-11 오름주변 무질서한 현황(비룡오름) 및 계획된 개발 사업(뉴오션타운)

## 5) 초지

- 제주의 초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말을 진상하기 위한 말목장의 일환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 전체를 에워 돌며 중산간에 조성되었음
- 초지의 가치는 목초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비바람에 의한 토양침식방지, 홍수방지 및 수자원 함양, 축산분뇨처리, 대기정화와 같은 자연환경보전 기능이 있으며, 녹지 공간 제공이라는 경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경관적인 측면에서 초지는 한라산과 바다, 그리고 해안면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지역으로 한라산, 오름, 곳자왈과 더불어 제주 경관을 이루는 핵심요소임. 그러나 2006년 기준 전국 전체 초지의 41%에 달하는 제주의 초지는 18,425ha에서 각종 관광시설 및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으로 전용되는 면적이 증가일로에 있어, 2015년 현재 제주의 초지는 16,649ha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초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으나 제주 방문객들의 초지경관에 대한 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 초지가 제주의 관광자원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제주 초지가 지니는 교유의 가치 및 경관적 가치를 높게 판단하여 보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마을공동목장은 2014년 12월 기준 57개소(6,327ha)로, 제주시 동지역 5개소, 제주시 읍면지역에 33개소, 서귀포시 동지역에 4개소,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14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 마을 공동목장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6,327ha인데, 그중 176ha는 국유지, 1,405ha는 공유지이고, 4,746ha는 사유지로 되어 있음. 2004년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목장 수는 74개소에서 57개소로 약 23%인 27개소가 해체되었고, 조합원 수도 8,027명에서 1057명으로 약 13% 감소하였다. 토지면적 또한 9,127.19ha에서 6,327ha로 약 30.6% 줄어들었는데, 토지면적 중 사유지는 5,304.26ha에서 4,746ha로 약 11% 감소한 반면, 국유지는 46% 공유지는 60%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 이는 환경보전 정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국공유지의 공동목장이 쉽게 해체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예를 들면 상가리공동목장에 추진되고 있는 상가관광지로서 개발위주에서 보전위주로 정책이 전환되기 전에 국공유지에 투자를 유치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 2-12 초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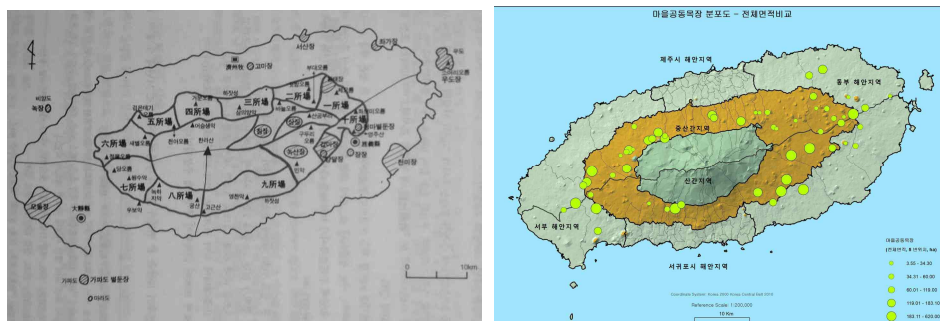


그림 2-13 조선후기제주10소장및목장분포    그림 2-14 마을공동목장분포(면적비교)

자료 : 제주목장사, 남도영, 2001

표 2-4 2004년, 2014년 마을공동목장 현황 비교

년도	공동목장	조합원	토지면적				축우수	관리방식		
			계	국유	공유	사유		직영	임대	개방
2004	74개소	8,027명	9,127.1	327.8	3,493.9	5,304.2	9,054마리	41	24	9
2014	57개소	6,970명	6,237	176	1,405.0	4,746.0	11,693마리	38	17	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2014 마을 공동목장 현황, 2014.12

### (1) 경관관리 현황

- 제주도내 공동목장 중 상당수는 이미 소멸돼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오랜 전통문화유산인 목축문화가 사라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제주의 주요 경관을 이루고 있는 초지가 사라져감을 의미함
- 마소가 마음껏 풀을 뜯던 드넓은 초원을 없애고 강력한 농약으로 관리해야하는 서양산 잔디가 깔린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며, 이처럼 마을소유의 공동목장이 도외 대자본이나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면서 목장조합이 해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음.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는 사례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목축업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의 하나인 한림읍의 공동목장은 현재 단 2곳만 남은 상태라고 함
- 매각되는 마을목장 대부분은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마을의 공동재산이면서 제주도의 공공재산이기도 한 마을공동목장이 사기업에 무더기로 넘어가고 있으며 상가리마을 공동목장도 그 중 하나임



▷남원읍 위미리 마을공동목장에 방치된 드라마촬영장



▷새별오름에서 바라본 아덴힐리조트



▷상도리 공동목장의 레일바이크



▷공동목장에 들어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림 2-15 초지 관리 현황

## 6) 꽃자왈

- 꽃자왈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요철지형을 이루며 쌓여있는 곳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숲 또는 지형임
- ‘꽃’과 ‘자왈’은 각각 숲과 덩굴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나무와 덩굴이 엉클어진 숲과 같은 느낌을 함축하고 있으며, 꽃자왈 용암으로 이루어진 크고 작은 바위들이 수십 미터씩 쌓여 있거나 함몰된 곳으로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분포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주도의 꽃자왈은 형성된 용암에 따라 크게 4지역에 분포하여 첫째, 한경-안덕 꽃자왈, 도너리오름 꽃자왈용암류와 병악꽃자왈용암류로 세분되며, 전자는 최대 연장거리 23km로, 해발고도 330m에서 50m 미만까지 펼쳐져 있고, 후자는 최대 연장거리 9km로, 해발고도 492m 지점에서 시작됨
- 둘째, 애월 꽃자왈지대는 노꼬메오름꽃자왈용암류로 불리며, 해발고도 833.8m에서 시작해 90m까지 총 9km에 걸쳐 분포. 셋째,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함덕-와산꽃자왈용암류, 조천-대흘꽃자왈용암류, 서거문리오름꽃자왈용암류로 세분되며, 최대 연장거리는 30km로, 해발고도 450~500m에서 시작됨
- 넷째, 구좌-성산 꽃자왈지대는 제주도 동부에 분포하며, 동거문리오름꽃자왈용암류, 다랑쉬오름꽃자왈용암류, 용눈리오름꽃자왈용암류, 백악리오름꽃자왈용암류로 세분되며, 최대 연장거리는 25.8km이며, 해발고도 382m에서 시작해 30m 미만까지 펼쳐져 있음
- 꽃자왈은 암괴로 이루어진 장소이므로 땅이 척박하여 경지로 이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목에도 적절하지 않아 대부분 방치되어 덩굴이 엉클어진 자연림 지대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 이 꽃자왈 지대는 ‘제주의 허파’ 또는 ‘자연의 허파’등과 같이 인간의 허파에 비유되면서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으로 강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꽃자왈은 과거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지하수의 함양기능을 비롯하여 한라산과 해안지역사이의 환경적인 완충기능 그리고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위락 관광 자원의 기능을 담당함



한경·안덕 꽃자왈지대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구좌·성산 꽃자왈지대



애월 꽃자왈지대

그림 2-16 제주 꽃자왈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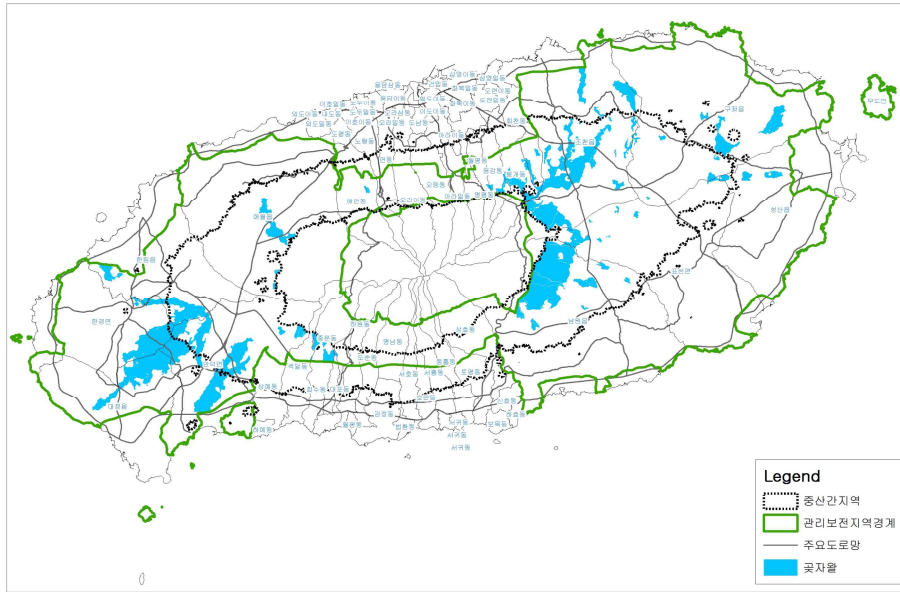


그림 2-17 제주 갯자왈 분포 현황

#### (1) 한경-안덕 갯자왈지대

- 도너리오름갯자왈용암류와 병악갯자왈용암류로 세분됨. 전자는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도너리오름에서 시작되어 한림읍 월정리와 대정읍 영악리의 해발 20m지역까지 두갈래로 나뉘어져 분포하고 최대 연장거리 23km로 해발고도 330m에서 50m 미만까지 펼쳐져 있으며, 후자는 해발고도 492m의 병악오름에서 시작되어 화순리 방향으로 9km에 걸쳐 분포하고, 평균 1.5km의 폭으로 산방산 근처의 해안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음

#### (2) 애월 갯자왈지대

- 노꼬메오름갯자왈용암류로 불리며,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오름에서 시작해 해발 90m의 애월읍 납읍리와 원동지역까지 총 9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형의 경사가 비교적 급한 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폭이 협소하지만, 해발 200m~300m 사이의 완경사 지역에서는 최대 3.2km의 폭을 나타내고 있음

#### (3) 조천-함덕 갯자왈지대

- 함덕-와산갯자왈용암류, 조천-대흘갯자왈용암류, 서거문리오름갯자왈용암류로 세분됨. 함덕-와산갯자왈용암류는 조천읍 교래리 돛배오름의 북측지점부터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 인근까지 평균 2~3km의 폭으로 총 12km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조천-대흘갯자왈용암류는 구좌읍 선흘리 민오름 인근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천리 해발 20m 지점까지 총 11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서거문리오름갯자왈용암류는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서거문리오름)에서 시작되어 해발 80m 지점의 선흘곶까지 1~2km의 폭으로 약 7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 (4) 구좌-성산 갯자왈지대

- 제주도 동부에 분포하며, 동거문리오름갯자왈용암류, 다랑쉬오름갯자왈용암류, 용눈리오름 갯자왈용암류, 백악리오름갯자왈용암류로 세분됨. 동거문리오름갯자왈용암류는 해발 340m인 동거문리오름에서 시작되어 한동리 방향으로 해발 30m의 해안저지대까지 약 11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다랑쉬오름갯자왈용암류는 해발 382m의 다랑쉬오름부터 세화리의 해발 20m 지점까지 4.7km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 용눈이오름곶자왓용암류는 해발248m의 용눈이오름부터 종달리 지미봉 근처까지 분포하고 있고, 백약이오름곶자왓용암류는 해발 356m의 백약이오름에서 시작되어 수산리마을 서쪽 해발 50m 지점까지 약 5.5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약 1km 미만의 가장 폭이 좁은 곶자왓용암류로 알려져 있음

#### (5) 경관관리 현황

- 개발바람이 불면서 곶자왓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돼 생태적 복원기능이 상실되는 등 곶자왓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 곶자왓에 들어선 개발면적은 20.63㎢로 곶자왓 전체 109㎢의 18.7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이 관광개발 등으로 이미 훼손됨
- 특히 골프장 10곳에 7.88㎢로 곶자왓 전체 면적의 7.18%로 나타났으며, 돌문화 공원을 포함한 관광시설 8곳에 6.03㎢로 5.49%, 영어교육도시 등 택지개발은 4.22㎢로 3.84%로 뒤를 이었으며, 또한 채석장 0.66㎢로 0.61%, 공장이 0.35㎢로 0.33%, 잡종지가 0.38㎢로 0.35%를 차지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 발달과 개발위주 경제정책으로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곶자왓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시행돼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돼 생태적 복원기능이 상실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왓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보전에 나섰지만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곶자왓 훼손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따라서 제주특별법 상의 관리 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곶자왓 보전지구를 추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도는 곶자왓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 곶자왓 보전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훼손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



그림 2-18 재선충으로 훼손된 곶자왓과 채석장

#### 7) 동굴

-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지표면을 흘러내릴 때에 그 용암류 속에서 형성되는 동굴을 용암동굴이라 하며, 제주도에 130여개가 넘는 용암동굴이 산재하여 있음
- 대표적인 용암동굴로는 만장굴, 협재굴, 빌레못굴 등이 있으며 만장굴을 포함한 거문오름 동굴계의 5개의 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음

표 2-5 동굴의 문화재 지정 현황

문화재 명칭(동굴명)		지정번호	공개여부	소재지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만장굴	천연기념물 제98호	공 개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 외
	김녕사굴		미공개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협재굴·쌍용굴	천연기념물 제236호	공 개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소천굴·황금굴		미개발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천연기념물 제342호	미공개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번지 외 107필지
제주 당처물동굴		천연기념물 제384호	미공개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외 4필지
제주 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제466호	미공개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제주 선흘리 벵뒤굴		천연기념물 제490호	미공개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제주 수산동굴		천연기념물 제467호	미공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번지
북촌동굴		지방문화재 제53호	미공개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94번지
제주 미천굴		미지정	공 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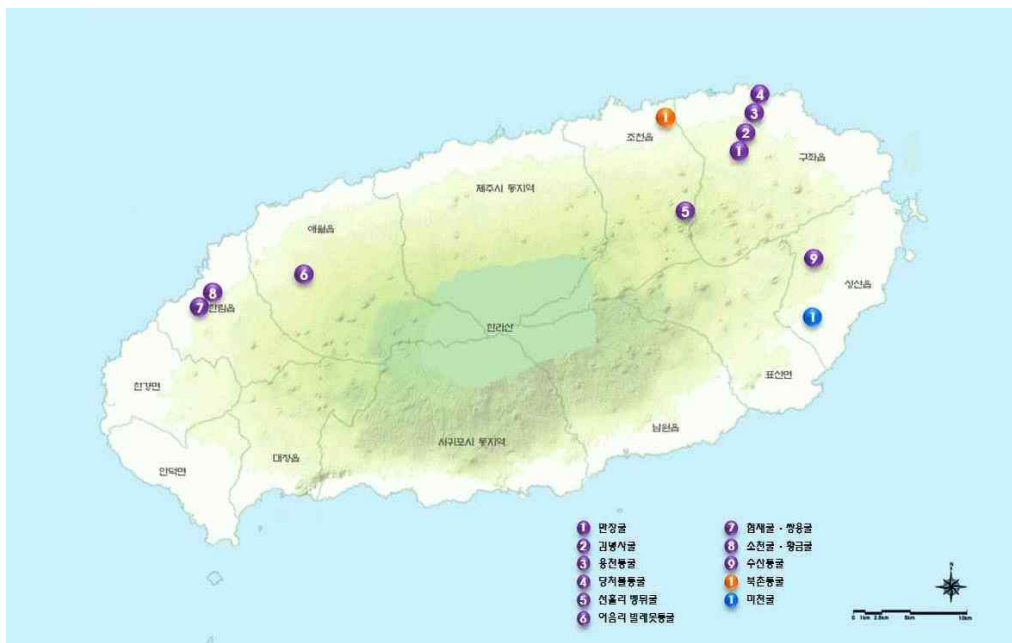


그림 2-19 동굴 분포도

### (1) 김녕굴 및 만장굴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에 있는 화산동굴이며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많은 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장굴과 김녕굴은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규모의 대표적인 동굴로 두 동굴은 별개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원래는 하나의 화산동굴계에 속하였다가 후에 동굴 천장이 함몰됨으로써 2개의 동굴로 분리되어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고, 1982년 한일합동조사시 덕천굴, 발굴, 절굴 등의 모든 동굴을 포함하는 만장굴 화산동굴계의 총연장이 15,798m로 확인되어 당시 세계제일의 화산동굴계로 공인되었음

- 동굴계의 주체가 되는 만장굴은 총길이 8,924m로 세계 제4위의 단일 화산동굴이다. 지질은 마찬가지로 표선리 현무암층에 속하며 동굴 속 지형·지물들의 규모나 특수성으로도 세계적인 화산동굴임. 만장굴에서는 용암종유석, 용암석순, 용암주(熔岩柱), 용암붕, 용암교, 용암구, 분출종유(gasball), 용암관, 용암폭포, 승상용암(繩狀熔岩, lopy lava), 찰흔(擦痕) 등 다양한 화산동굴 지형과 지물들을 모두 볼 수 있음. 이밖에 용암교(熔岩橋) 15개와 용암구(熔岩球) 21개가 집중 분포해 있는데 세계적인 규모임
- 만장굴 바로 밑에 있는 김녕굴은 김녕사굴 또는 뱀굴로도 알려져 있으며, 동굴 가운데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 전체 구조는 S자형의 2층 굴로 되어 있으며 총길이가 705m밖에 안 되나, 중간에 두 곳이 합몰되어 3개의 지굴(支窟)로 나뉘어 있으며, 제1굴의 길이는 약 50m이며, 제2굴은 위와 아래로 뚫려 있는 2층 굴로 하층굴이 약 150m이고 상층굴은 약 50m임
- 현재 관광동굴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제3주굴(主窟)로서, 동굴입구에서 1km 지점까지만 공개하고, 안쪽은 동굴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10m가 넘는 동굴통로로 들어서면 15m 천장 높이가 계속되고, 2차 용암류의 말단부가 그대로 남아 있음



그림 2-20 김녕굴 및 만장굴

## (2)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세계제일의 용암동굴지대로,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동굴지대는 협재굴을 비롯하여 쌍룡굴·황금굴·소천굴·재암천굴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협재굴은 길이 약 200m, 너비 10m, 높이는 5m 정도의 규모이며, 용암동굴이자 석회동굴의 특징이 복합된 2차원적인 동굴이라는 점이 특이하며, 그 일대가 모래와 조개껍질이 섞여있는 패사층으로 되어 있음
- 동굴 내부에는 천장에서 뚫어 나온 석종과 마치 바닥으로부터 솟구쳐 나온 듯이 보이는 석순 등이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석종과 석순이 만나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종유석과 동굴 벽면에 덮여 있는 석회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벽화가 새겨져 있는 듯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쌍룡굴의 입구는 협재리 뒷산 도로변의 소나무숲 속에 있는 함몰구이며, 동굴은 크게 좌우 양쪽으로 발달하였고, 북서 방향의 오른쪽 굴은 내부에서 양분되며 150m 내부에서 패사(貝砂)로 막혔으나 그 너머 40여m 지점에 다른 하나의 입구가 있어 내부로 60m 가량의 동굴이 발달해 있음.
- 제2입구와 협재굴 종단부와는 55m 가량 떨어져 있어 두 굴은 원래 동일한 굴로 합몰되어 분리된 것으로 추측되며, 왼쪽 굴은 남쪽과 서쪽 두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그 중 서쪽 방향 굴이 규모가 큰 편으로 150m에 이르고, 남쪽 방향 굴에는 북서 방향의 낮은 상층부가 20m 가량 뻗어 있음



그림 2-21 협재굴 및 쌍룡굴

### (3) 용천동굴

- 제주 용천동굴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암 동굴로서 2005년 5월 11일 전신주 교체 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전체면적 477,519㎡, 길이 3.6km 정도로 2006년 2월 7일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지정되었음
- 용천동굴이라는 명칭은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깊이 12m 이상 되는 호수가 마치 용틀임하며 솟아오르는 용의 모습과 같다 하여 붙인 이름이며, 동굴 안에는 용암선반·용암조흔·용암단구·용암폭포·용암수로 등 용암동굴의 특성과 종유관·석주·석순·산호·유석·석화 등 석회동굴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남
- 또한, 대형 전복 껍데기와 패각류, 통일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류·철기류·돌무더기가 발견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내 183개 천연동굴 가운데 규모·학술·경관·문화재 측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동굴로 평가되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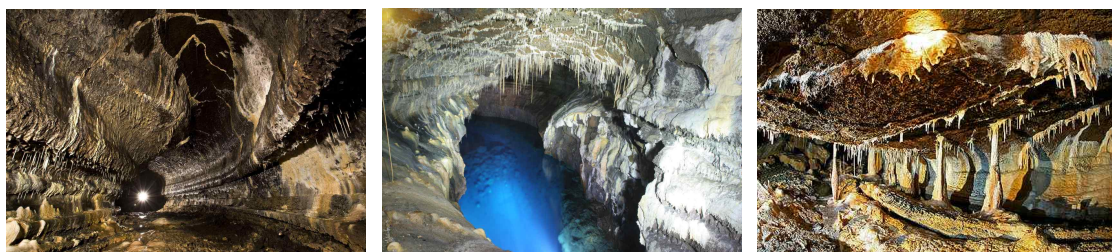


그림 2-22 용천동굴

### 2.1.2 수경관

- 제주도의 수경관은 제주도를 둘러싼 해안경관 및 지방하천, 소하천, 습지로 나눌 수 있음
- 해안경관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요소 중 하나로서 화산지형의 특성으로 성산일출봉, 산방산, 용머리해안 및 주상절리 등의 지형적 특색과 국토 최남단선 마라도를 포함하여 유인도 8개와 71개의 무인도를 거느리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음
- 제주도내 하천은 지방하천 60개소(제주시 26개소, 서귀포시 34개소)와 소하천 87개소(제주시 40개소, 서귀포시 47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시의 동홍천의 정방폭포, 연외천의 천지연폭포, 중문천의 천제연 폭포 등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 제주도내 습지는 내륙습지 53개소 및 해안습지 20개소가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곳이며, 서귀포시 남원읍의 물영아리 오름은 전국최초로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음

## 1) 해안, 바다, 섬

- 제주도 해안선의 길이는 부속 섬들의 해안선을 포함해 총 551.78km임. 제주도 본섬의 해안선은 415.56km이고 추자도와 63개 부속 도서의 해안선이 136.22km임
- 우도면 우도, 한림읍 비양도,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추자면 상추자도, 하추자도, 황간도, 추포도 등 8개 유인도와 55개 무인도를 포함하여 총 63개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안을 연해 절벽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화산쇄설성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는 송악산, 산방산 및 성산일출봉 일대를 제외하면 조면암이 노출되어 있는 안덕, 서귀포 등지에 한정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지역인 남원과 애월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현무암의 절벽이 발달
- 해안 곳곳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바다로부터 바람에 의해서 운반된 해양성모래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빈(sand beach)이 발달. 동남계절풍에 의해 바람의 방향과 유사하게 배열된 사구(sand dune)를 형성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동북부 해안지역은 대규모의 사구층을 형성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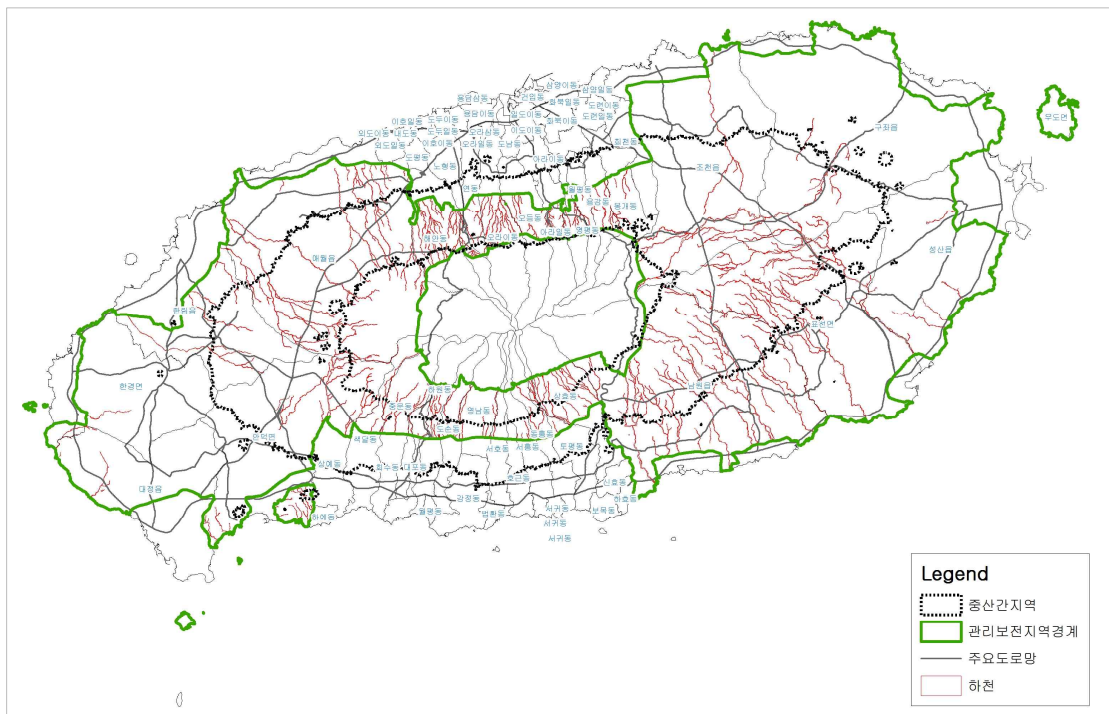


그림 2-23 하천현황

- 1990년대 접어들어 해안경관을 관광객들이 즐기고 해안마을의 편의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안선에 근접하여 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올레길이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 제주도의 해안경관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해안도로개설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안에 근접하여 개설됨으로서 해안과 육지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또한, 해안도로를 따라 펜션과 카페 등의 상업적 건축물, 그리고 적지 않은 양식장이 들어섬으로서 해안마을 원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 특히, 해안변에 위치한 양식장은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주변 해안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양식장의 폐쇄적인 형태의 외관으로 인해 해안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음
- 제주도는 제주 연안의 자원·환경·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주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연안해역의 보전·이용·개발행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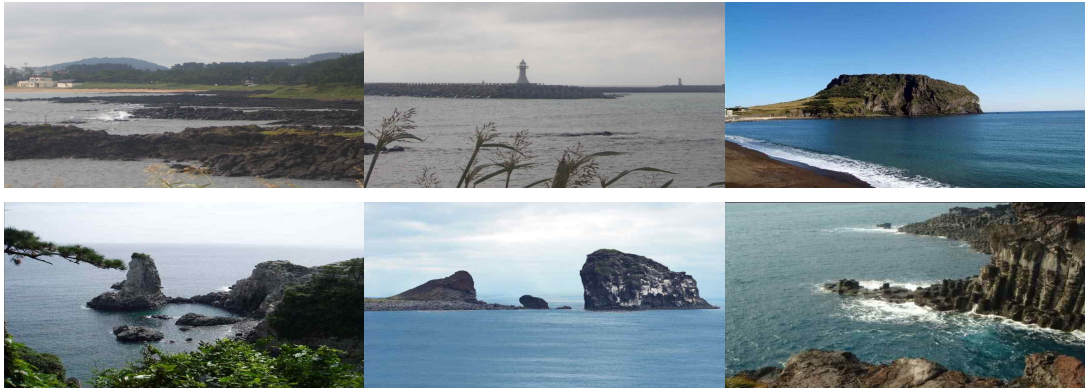


그림 2-24 제주도 해안경관

표 2-6 해안선 및 도서 현황

구분	해안선(km)			도서현황		
	총계	육지부	도서부	총계	유인도(개)	무인도(개)
제주특별자치도	551.78	415.56	136.22	79	8	71
제 주 시	326.71	212.77	113.94	68	6	62
서귀포시	225.07	202.79	22.28	11	2	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통계연보, 2013.12.31기준

### (1) 해안

- 현무암이 넓게 분포하는 제주도 해안은 암석해안이 탁월하여 제주도 전체 해안의 75%를 차지하는 229.7km가 암석해안으로 분류되고, 고온의 현무암질 용암류는 점성이 작아 잘 흐르는데 동부와 서부해안에는 매우 유동적인 파호이호이용암(pahoehoe lava)이 넓게 분포함
-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류는 얇은 층을 이루며 멀리까지 이동하며 주변부로 갈수록 용암류의 두께는 감소하므로 동부와 서부해안에는 비고가 큰 지형의 출현은 적고 대부분 바다를 향하여 완만하게 기울어진 평탄면이 나타남
- 유동성이 작은 조면안산암이 분포하는 서귀포 일대의 남부해안에는 비고가 큰 지형이 발달하며, 조면암질 용암류에 잘 나타나는 주상절리로 인하여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의 해식애가 출현하기 쉬움
- 암석해안이 탁월한 제주해안에는 대부분 파식대가 출현하나 모식적인 암석해안과는 달리 파식대 배후에 명료한 해식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무암질 용암류의 유동성으로 비교적 완만한 사면이 해안에 면하고 있기 때문임
- 파식대의 형태는 암석과 파랑 에너지의 강도를 반영하게 되므로 현무암의 종류에 따라 파식대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는데, 파호이호이용암으로 이루어진 파식대는 비교적 평탄면을 보이는데 비하여 아아용암(aa lava)이 분포하는 해안의 파식대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기복이 많이 나타남
- 제주도의 사질해안은 규모와 수가 모두 작아 전체 해안의 7.1%인 21.9km에 불과한데, 제주도 사빈을 대표하는 이호, 함덕, 협재, 광지, 김녕, 중문해수욕장은 길이가 500m를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포켓 비치이며, 해수욕장 도처에 기반암이 노출하고 있어 사빈의 연속성도 떨어짐
- 또한 모래의 주요 공급원이 육지가 아니므로 사빈 퇴적물에는 바다로부터 공급된 패사의 함량이 매우 높는데, 제주도 사빈에서 석회질 퇴적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7%에 이르며, 특히 김녕해수욕장에서는 퇴적물의 98%가 석회질로서 사빈이 대부분 조개껍질의 파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주의 해안변은 청정제주와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근간
  -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안마을이 형성되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 아름다운 풍광을 가득한 제주 정체성과 역사성이 담긴 공간이며,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도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장소
- 최근 해안가의 자연자원 및 경관파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해변공간과 경관의 사유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안침식에 따른 해양자원 유실 및 자연재해도 가속화
- 해안가의 자연자원 및 경관 파괴
  - 해안 매립, 인공호안, 공유수면 거래 등으로 자연해안선 소실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안변의 산, 섬 등 우수한 경관자원 훼손
  - 올레길 주변에 음식점, 카페 등 뽐뿌기식 개발로 자연경관 훼손
  - 해안변 육상양식장 난개발로 해안가 자연자원 및 해안생태계 훼손
- 해변공간과 경관의 사유화
  - 호텔 등이 해변으로의 접근로를 차단하고 특정 해변을 사유화
  - 개발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이 누리던 경관 훼손, 특정 경관 사유화
- 연안침식에 따른 해양자원 유실 및 자연재해 피해
  - 해안도로, 인공호안, 해안가 매립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 월파 등 도민피해 증가 및 주요 해양자원 유실(알작지해안, 검은모래해변)
    - ※ 제주도 해수면 상승은 5.7mm/년으로 동·서·남해안을 크게 상회
    - ※ 2014년 기준 제주도 12개 해변 중 8개가 C등급으로 재해발생우려(해수부조사)



그림 2-25 월정리 해안 현황

## (2) 섬

- 우리나라의 섬은 만조 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유인도는 총 8개로 제주시권에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6개, 서귀포시권에는 마라도, 가파도 2개 섬이 있음
- 이 중 추자도는 반도부와 제주도의 중간 해상에 위치하여 제주항에서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섬으로 행정구역상 제주도에 속하지만 풍속은 전라도와 유사하며, 제주시의 6개의 유인도 중 4개의 유인도인 상·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및 38개의 무인도가 추자면에 속하며 추자군도라 불리고 있음
- 제주도 본섬에서 조망되는 인근 무인도로는 차귀도, 관탈섬, 토끼섬, 지귀도, 섯섬, 문섬, 범섬, 형제섬 등이 있으며, 제주의 해안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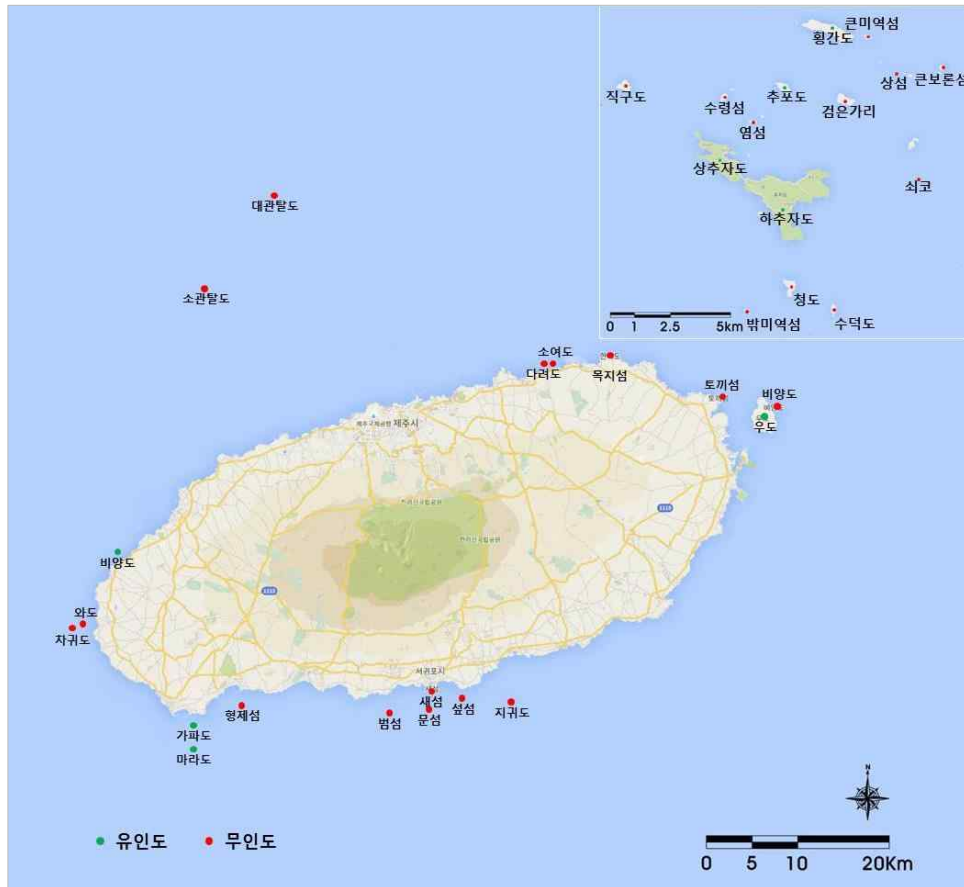


그림 2-26 제주의 섬 현황

### 가. 비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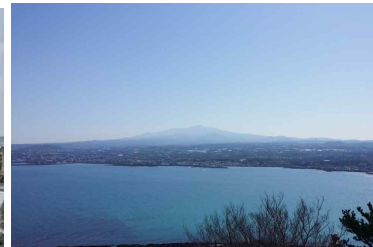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앞에 있는 화산섬으로서 죽도라고도 불리며, 생성년도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인 1002년(목종 5)으로 추정하고 있어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화산섬임
- 형태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며, 서북~남서 방향의 아치형 능선을 중심으로 동북사면이 남서사면보다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음. 섬 중앙에는 높이 114m의 비양봉과 쌍둥이 분화구인 ‘큰암메’, ‘작은암메’가 있으며, 오름 주변 해안에는 ‘애기 엮은 돌’이라고도 하는 부아석(負兒石)과 베개용암 등의 기암괴석들이 형성되었으며, 오름 동남쪽 기슭에는 ‘필낭’이라 불리는 염습지가 있음
- 협재해수욕장 및 금능 으뜸원 해수욕장의 푸른 바다와 어울려 조망되어 한림읍 해안경관의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음



협재해수욕장에서 본 비양도



비양도 호니토



비양봉에서 본 한라산

그림 2-27 비양도 경관 현황

## 나. 범섬·문섬·섬섬

- 범섬은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실잣밤나무·종가시나무·참식나무·후박나무·사철나무·동백나무 등이 대표적이고, 윗부분은 참억새를 중심으로 명석딸기·병풀·아욱메풀·잔대 등으로 대표되는 초지를 이루고 있어, 총 142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특히 거문도와 한경면 용수리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푸레나무과의 박달목서가 자생함
- 문섬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급경사를 이루는 단사면의 구조
- 섬 전체가 수직으로 된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에서 남서쪽에 이르는 지역에는 15~20%의 각도를 이루며 누워 있는 주상절리층이 있음
- 생물상은 육상식물이 118종인데, 그 중에는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보리밥나무와 큰보리장나무의 균락이 자라고 있으며, 후박나무도 생육함
- 문섬 수중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어 사시사철 아열대성 어류들이 서식하며 63종의 각종 희귀 산호들이 자라고 있어 국내 최고의 수중생태계의 보고이다
- 섬섬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 있는 섬으로, 서귀포시에서 남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무인도이며 나무가 뾰뾰이 들어서 숲섬으로도 불리우고 있음. 각종 상록수와 180여 종의 희귀식물, 450종의 난대식물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초일엽은 한국에서도 섬섬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천연기념물 제18호인 제주도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 부근 해역은 돌돔·흑돔·참돔·다금바리·감성돔·뱅어돔 등이 풍부한 천혜의 낚시터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많은 식물들이 소실되어 현재는 서귀포시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유람선으로만 둘러볼 수 있음



문섬 전경



범섬 전경



섬섬 전경

그림 2-28 문섬·범섬·섬섬 전경

## 다. 우도

- 우도는 인구 1,752명이 살고 있는 섬으로 제주도의 부속도서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3.8km, 구좌읍 종달리에서 동쪽으로 2.8km 해상에 위치하며, 부근에 비양도와 난도가 있음
- 1697년 국유목장이 설치되면서 국마를 관리·사육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거주가 허락되었으며 원래는 구좌읍 연평리에 속하였으나 1986년 4월 1일 우도면으로 승격하였음
- 섬의 형태가 소가 드러누웠거나 머리를 내민 모습과 같다고 하여 우도라고 이름지었으며 주요농산물은 고구마·보리·마늘 등이며, 가축 사육도 활발고, 부근 해역에서는 고등어·갈치·전복 등이 많이 잡힘
- 부서진 산호로 이루어진 백사장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우도 8경이 유명하며, 매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섬임

## 라. 가파도·마라도

- 가파도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된 계기가 된 곳으로 1653년 가파도에 표류했으리라 짐작되는 네덜란드의 선박인 스펠웰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선장 헨드릭 하멜이 ‘하란선 제주도 난관기’와 ‘조선국기’를 저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비교적 정확히 소개된 계기가 되었음
- 주요 농산물은 고구마·보리이며, 겨울 농사로 보리를 재배하고, 여름 농사로 고구마 등을 재배함  
고구마는 수익성이 높은 경제작물로 개경 초부터 재배해 왔음. 주요 어획물로는 소라·전복·해조류·해삼·성게 등이 대부분임  
해녀들에 의하여 김, 굴, 해삼, 전복, 소라 등이 채집되며 근해에는 자리돔 어장이 형성되고 있음
- 마라도는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5.5km 지점인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중간에 있으며, 바다 속에서 독립적으로 화산이 분화하여 이루어진 섬으로 추정되나 분화구는 볼 수 없음. 제주도의 부속 도서 중 네 번째로 큰 섬으로 가장 높은 곳은 높이 20m 정도이며, 구릉이나 단애가 없는 평탄한 섬으로 전체적 모양은 가오리 형태를 이루고 있음
-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무인도로 버려진 곳이었으나, 국유 목장의 설치를 계기로 마을이 들어섰으며, 1751년(영조 27)에 목사 정연유가 소를 이 섬에 방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들어와 살았음
- 주민들의 대부분은 전복·소라·툰·미역 등을 채취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객의 급증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집도 늘고 있음



가파도 전경

가파도와 마라도

마라도 전경

그림 2-29 가파도와 마라도 전경

## (4) 모래언덕 (해안사구)

- '모래언덕'은 그 생성과정이 제주와 육지가 다른데, 육지는 암석이 대부분 화강암과 변성암류로 돼 있어서 높은 산의 화강암 덩어리에서 깨져 나온 큰 돌덩어리가 빗물에 쓸려 강을 타고 굴러 내려오면서 갈라지고 깨져 점점 작아지고, 바위가 자갈로 변하고 더 작게 부서지면서 점점 더 작아져 모래가 됨. 모래의 성분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석영이 주성분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모래가 바다에 이르러 모래 해변을 만들고, 모래언덕은 해변의 모래가 해풍에 의해 다시 바닷가 근처 육지로 올라와 만들어짐
- 제주의 모래는 대부분 패각(貝殼), 조개껍데기로서, 제주도에서는 3천년 전 해수면이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 해변의 조개껍데기들이 드러나게 됐고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모래가 해변에 쌓여 있다가 해풍에 날려 올라오면서 모래언덕이 만들어진 것임.
- 해안가 모래언덕에는 해안사구식물인 숨부기낭(숨비기나무) 등이 뿌리를 내리면서 모래를 잡아주고, 모래언덕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와 함께 가지가 모래를 덮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아줌. 또한 해안사구는 파도의 힘을 줄여 바닷가 모래사장의 모래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쪽으로 모래가 날리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해일 등의 피해를 막는 자연방파제 구실을 함

- 제주도에는 이호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사계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의 사구가 대표적인데, 최근 모래언덕 위로 해안도로를 만들고 방파제를 쌓으면서 해안 모래언덕이 사라지고 있으며, 동시에 도로나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모래사장의 모래 유실도 심각해지고 있음
-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은 해안사구 위에 방파제가 설치되면서 모래언덕의 대부분이 사라졌으며, 이 때문에 해수욕장의 모래도 바람에 날려 주변도로와 밭을 뒤덮고 파도에 쓸려나가는 수준이 심각함에 따라 결국 모래사장 전체를 천으로 덮어놓았음



해수욕장과 모래언덕 사이에 도로를 내고 모래언덕에는 옹벽을 두른 김녕성세기해변  
자료 : 미디어제주, 『바람의 선물 사구를 보다』, 2015.03.19



건물이 들어설 언덕에 있는 모래를 파헤치고 있는 월정해변의 모습  
자료 : 미디어제주, 『바람의 선물 사구를 보다』, 2015.03.19



관광객과 도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천년의 해안사구가 파괴된 해안도로 모습  
자료 : 국제뉴스, 『이기봉 의원, "해안사구파괴...인공이 만든 자연재앙"』, 2015.04.15



한쪽 차선이 해안에서 밀려든 모래로 백사장을 연상케 하는 모습  
자료 : 제주의 소리, 『도로야? 백사장이야?...월정 해안도로 '몸살'』, 2015.03.04

#### 그림 2-30 모래언덕의 훼손사례

##### (5) 해안도로

- 제주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545.2km이며, 이 가운데 제주본섬은 419.99km, 추자도·우도 등 유인도와 무인도를 포함한 77개의 도서지역은 126.63km임. 제주본섬의 전체 해안선 가운데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로 이뤄진 165.16km를 제외한 자연해안선은 254.83km로 전체의 60.67%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전체 자연해안선의 59.4%인 151km에 개설된 해안도로는 1983년 국비를 지원을 받아 도두-제주 국제공항-용두암을 잇는 4.2km의 해안도로가 1984년 전국 소년 체전의 개최에 맞춰 준공되어 제주도 관광자원이 되었고, 1989년부터 읍·면 지역에서도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군도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안도로가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되었음. 1990년대 접어들어서도 해안경관을 관광객들이 즐기고 해안마을의 편의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안선에 근접하여 도로개설사업이 계속되었음
- 최근에는 제주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올레길이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 제주의 해안경관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 와서 해안선과 너무 가까운 도로는 제주 해안의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등의 문제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해안도로는 조간대를 가로질러 개설되거나 모래유실 또는 유입현상 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더구나 해안도로를 따라 건축물과 양식장 등이 난립하면서 원형이 훼손되고 있고, 바다에 지나치게 가깝게 개설되면서 월파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성산 오조리 해안도로



애월 해안도로

그림 2-31 제주의 해안도로

#### (6) 공유수면

- 제주지역은 1977년 화력발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화순 공유수면에 1만6200㎡ 규모로 매립지가 형성된 이후 최근까지 마라도 면적(30만㎡)의 4배에 육박하는 113만7300㎡의 해안이 육지로 변했음
- 먹돌로 유명했던 제주시 탐동의 경우 해안선 및 조간대에 16만4000㎡ 매립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도두, 세화, 삼양, 이호, 강정 등에서 매립사업으로 자연해안이 사라졌음. 특히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무분별한 공사강행으로 자연해안선 훼손, 해양생태계 파괴, 월파 및 해일피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
- 포락지란 밀물때 바닷물이 차오르는 곳으로, 지반이 부여돼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매립 등이 가능한 지역임
- 2015년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의 한 바닷가 공유수면에 불법적으로 1.5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고, 행정당국의 공사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매립되었는데, 매립이 이뤄진 면적은 최종 확인 결과 1,300㎡에 이름. 이와 같이 포락지 대부분이 공공자산이 공유수면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개인자산으로 둔갑해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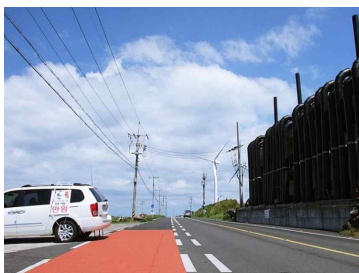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해안가에 불법 매립 전(좌)과 불법 매립 후(우)의 공유수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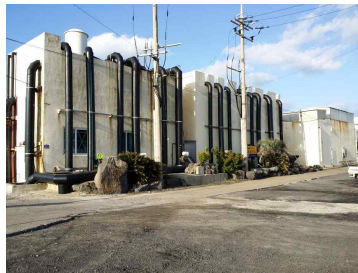
그림 2-32 해안가 불법 매립 현황

## (7) 양식장

- 해안도로개설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안에 근접하여 개설됨으로서 해안과 육지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며, 해안도로 변에 해안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제공한다는 점임
- 특히, 해안변에 위치한 양식장은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주변 해안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양식장의 폐쇄적인 형태의 외관으로 인해 해안경관을 훼손
- 해양생태계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해 유용해조류와 해양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제주해안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육상에서 양식장 배출수가 유입되고 있는 고산리 한장동 앞 바다는 파래가 이상 번식을 하고 있고 바위틈 사이에는 불가사리가 점령을 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조건대로 직접 배출시키고 있는 도내 육상양식장 배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육상양식장 단지화 등을 통한 배수 방법을 고려해야 함



성산 해안도로변 양식장



김녕-월정 해안도로변 양식장



성산읍 바다목장

그림 2-33 해안도로변 양식장 현황

## (8) 풍력발전

- 도내 육상풍력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구조물인 발전기 설치 확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신중한 계획 마련과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각된 풍력 발전에 있어 제주가 최적지로 손꼽히면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도내에서 운전 중인 육상풍력 발전시설은 총 109MW 규모로, 구좌읍 행원과 김녕 등을 비롯해 12개소에서 63기의 발전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
- 여기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된 가시리 등 4개 지구에 34기(총 101MW)의 발전기가 설치될 계획인가 하면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망 등 2개 지구도 15기(총 45MW) 설치 계획을 신청해 놓고 있음.
- 따라서 도내 육상풍력 발전기는 110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 대규모 인공구조물인 풍력발전기 특성상 다발적 설치 확대에 따른 자연 경관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이는 구좌읍만 해도 사업주체 및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서 해안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조성이 미흡, 설치 계획부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임
- 풍력발전기의 자연경관 저해 우려는 제주도에서 수립한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도 제기돼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상세한 경관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사업 추진계획이 반영되었음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풍력발전기인 경우 제주의 고유 풍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다 경관 복원도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풍력발전기 설치 확대에 따른 상세한 경관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설치시 경관보호구역 등 주요 경관자원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경관심의대상에 풍력발전기도 포함돼 있으나, 이보다 세밀한 입지 기준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경면 일대 풍력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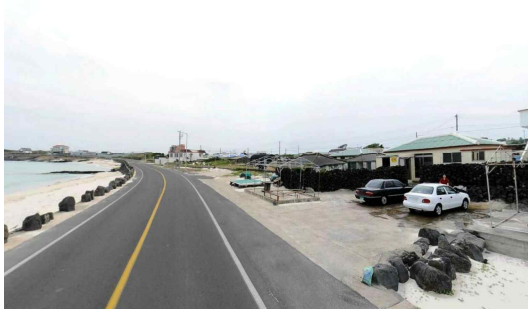
구좌읍 행원리 일대 풍력발전

신창리 싱계물공원 풍력발전

그림 2-34 풍력발전기 현황

#### (9) 해안변 건축물 : 숙박업소 및 카페 등

- 월정해변 및 애월 일대 해안가 등 해안지역에 관광객 증대로 인한 해안변의 숙박업소와 카페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는 해안경관이 파괴되고 조망권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구좌읍 월정리 해변은 역시 맑고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가 눈부신 경관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해변 풍경은 아담하고 고즈넉한 마을과 어울려 도시의 번잡한 삶에 찌들린 이들에게는 힐링 장소로 적격임
- 제주도민들에게도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이곳에 '아일랜드 조르바'라는 낯선 이름의 커피집이 들어선 뒤 외부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고래가 될 카페'로 이름이 바뀌면서 월정 해변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음. 급기야 최근 2~3년 사이 월정해변에 방문객들이 급증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외지인들이 들어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들을 20여 곳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와 대부분 괴리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음
- 해안변 경관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절·상대 보전지역 및 경관·생태계·지하수관리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 통한 건축심의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나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건축디자인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구좌읍 월정리 해안변 (2008년)



구좌읍 월정리 해안변 (2014년)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변 (2008년)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변 (2014년)

그림 2-35 해안경관 변화

## 2) 하천

- 제주도의 수계는 지형 특성상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림천, 귀덕천, 용포천 등 지방하천 60개소(제주시 26개소, 서귀포시 34개소)와 소하천 87개소(제주시 40개소, 서귀포시 47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이 평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들이며, 지표수를 모아 하천을 형성 하기에는 제주도의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화산암류와 화산쇄설물의 투수력이 너무 높음
- 지표수가 지하로 쉽게 침투함으로 지하수의 형성은 용이하지만 지표면의 하천형성은 극히 미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건천의 현상은 국내에서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것으로 경관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음
- 제주도내 대부분의 하천은 강우시에만 흐르는 건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제주시내 산지천, 외도천, 흘천, 한천 및 서귀포시 도순천, 악근천은 제주도 하천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르게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며 주변에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상 생태하천축은 주요하천으로 연결하여 시가화가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 나 개발압력이 강하여 일부 하천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으로 제주시의 외도천과 산지천 2개소 및 서귀포시의 창고천, 강정천, 악근천, 숨반천, 동홍천, 효돈천, 서중천 7개소가 있음
- 최근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내 하천은 방재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형 하천은 하천경관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림 2-36 제주도 하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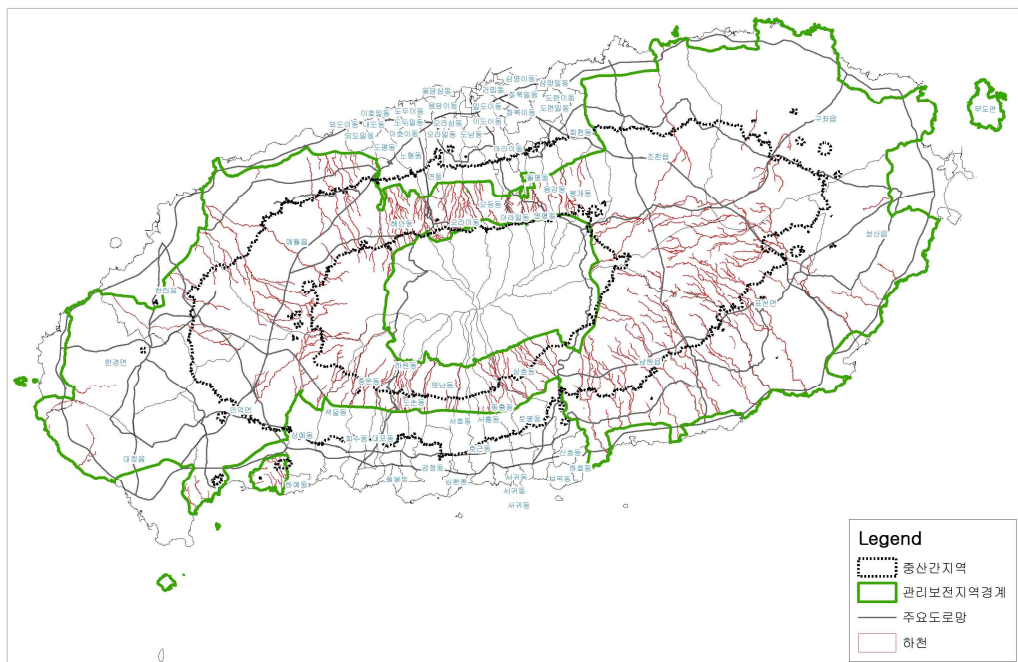


그림 2-37 제주의 하천

표 2-7 제주지역 하천 현황

구분		하천 수	하천 연장	요개수 연장	기개수 연장	미개수 연장	심의대상 하천	심의대상 하천연장
지방 하천	계	60	608.4	386.4	270.6	115.8	60	608.4
	제주시	26	260.5	191.84	136.28	55.56	26	206.5
	서귀포시	34	347.9	194.56	134.32	60.24	34	347.9
소 하천	계	87	235.5	229.6	38.8	190.8	—	—
	제주시	40	107.5	101.6	24.4	77.2	—	—
	서귀포시	47	128	128	14.4	113.6	—	—

자료 : 2015 주요행정총람, 제주특별자치도, 2015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 도 건축지적과 자료



그림 2-38 생태하천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상 생태하천축, 2007

### (1) 산지천

- 한천, 병문천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여 시가지의 동부 지역을 흐르는 지방 하천. 한라산 북쪽 사면의 관음사 근처에서 발원하여 제주항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가며, 길이는 약 13km임
- 조선 시대에는 제주 읍성 내부를 흐르는 유일한 하천으로 용천수가 풍부하여 식수원으로 활용되었고, 하류에는 선박이 출입할 수 있어서 '건입포(巾入浦)'라는 포구가 들어서 있었음
-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년대에 주택이 밀집되면서 생활하수와 쓰레기로 오염되는 문제가 생기자 1966년 복개되었으나 복개된 후에도 오염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1995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2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었음. 지금은 은어도 가끔 볼 수 있음
- 하천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길이는 500~600m에 이르고 아치형 다리가 하천의 중간중간에 놓여 있음. 분수대가 있어 날이 더운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며 하천이 끝나는 곳 근처에는 중국 피난선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음



그림 2-39 산지천 친수공간



그림 2-40 산지천 보행공간

## (2) 강정천

- 강정천은 한라산 영실 일대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강정동을 지나는 지방하천 2급인 하천으로서 '거린내'라 불리는 우회도로 제2도순교에서 상류 400m 지점에서부터 도순천과 합류하며, 합류 이후에 강정천이라 불리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지방하천임
-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 동쪽에 있는 강정천은 평소에는 말라버리는 제주도의 일반 하천과는 달리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예로부터 대가내천, 대가래천, 큰내 등으로 불렸음
- 강정천을 인접하여 강정취수원과 정수장이 있으며 서귀포시 식수의 70%를 강정천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음. 강정천은 용천수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용출 수량이 다소 줄어들지만, 풍수기인 6월~9월에는 많은 수량이 용출되어 바다로 흐르고 있음
- 하천길이가 총 16km, 소 7곳, 교량 6개, 폭포 13개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양쪽에는 기암절벽과 노송이 우거져 절경을 이루고 있음
- 강정천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1급수 어종인 은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무리지어 사는게 종종 목격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한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피서객으로 만원을 이룸



그림 2-41 강정천

## (3) 천지연 걸매 생태공원 (숨반천)

- 서귀포시 서홍동 천지연폭포 상류에 위치하여 숨반천이 흐르는 걸매생태공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표본으로 국내 최대 관광의 보고인 천지연폭포를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생태를 보존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임
- 수생식물관찰원, 습지생태계관찰원, 매화 및 야생조화류관찰원, 야생조류관찰원, 목재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자연을 유흥중심에서 생태자연 중심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시민스스로 올바른 자연환경을 지켜가도록 만든 이 공원에서 숨쉬는 자연을 만나볼 수 있음
- '걸매'란 '물도랑이 자주 막혀 메워져 있는 곳'이란 뜻으로, 즉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장소로 예전에는 논이었음



그림 2-42 걸매생태공원 (숨반천)

### (3) 주요하천변 경관심의 사례조사

- 제주시 한천 및 병문천 일대의 하천변 건축물인 경우 경관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심의 전후의 현황을 확인함



그림 2-43 병문천 다가구주택

그림 2-44 한천 단지형다세대주택

### 3) 습지, 관리현황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거 습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湖) 또는 소(沼)와 하구(河口)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滿潮)시에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定義)하고 있음
- 람사(Ramsar)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의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이며, 이 협약에서 습지는 자연적이든/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흐르고 있든, 담수이든/기수이든/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 서는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 및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함
- 제주도 내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은 물영아리오름, 제주1100고지 습지, 제주 물장오리 오름 습지, 제주 동백동산 습지 4개소이며, 람사협약에 의한 지정 습지는 이외에 습은물뱅디 습지가 최근에 지정되어 총 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그 밖의 제주도내 내륙습지로는 조천읍 남생이못, 물찾분화구, 한림읍 뱅디못, 애월읍 웃못(큰못) 등 53개소가 있으며, 연안습지로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및 종달리 해안조간대, 성산읍 오조리 및 시흥리 갈대밭 등 20개소가 있음
- 습지의 가치가 높은 것은 습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때문으로, 생태의 연결고리로서의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자, 서식 동·식물에 의한 수질정화 작용, 어패류 양식, 어패류 생산기지 및 수생식물의 자원인 경제적 기능과, 자연교육, 생태관광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기능, 홍수의 조절과 용수공급원이 되는 수리적 기능 및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한 기후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습지의 생태관광과의 연관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훼손지 복원 등 습지보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으로 다루어야 함



물영아리오름

제주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동백동산습지

그림 2-45 제주지역 주요습지 현황



그림 2-46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및 해안·내륙습지

표 2-8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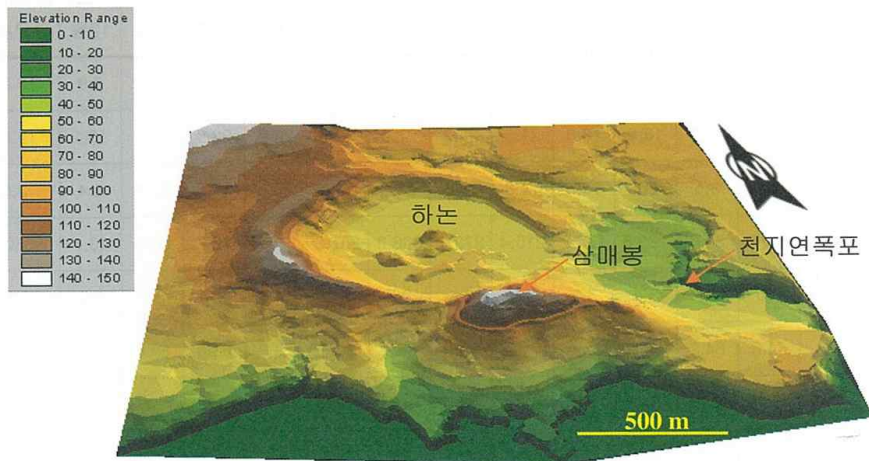
지역명	위 치	면적 (km <sup>2</sup> )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 지정)
물영아리오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0.309	화구호 습지	2000.12.5 (‘06. 10. 18)
제주1100고지 습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0.126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2009.10.1 (‘09. 10. 12)
제주 물장오리 오름습지	제주시 봉개동	0.610	이탄층이 발달한 산정 하구호습지	2009.10.01 (‘08. 10. 13)
제주 동백동산 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지하수 함양률이 높은 꽃자왈 지역	2010.11.12 (‘11. 03. 14)
숨은물뱅디	제주시 1100고지 휴게소 동쪽	1.175	화산쇄설물과 라하르에 의해 형성	- (2015.5.13.)

자료 :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지정현황

- 습지 및 자연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m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 심의대상 습지(자연연못)은 75개소이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변 문맥과 상이한 형태의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음

## (1) 하논습지

- 하논 습지는 분화구 바닥에 물이 고여 형성된 습지로 위치는 서귀포시 남단 호근동과 서홍동 경계 지역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지방1132호(구국도12호)선과 접함. 국내에는 희귀한 마르(Marr)형 분화구로서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과 지질, 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서식생물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함.
- 하논 습지는 해발표고 53m~143.4m의 고도차를 갖는 분화구가 있으며, 화산체의 중심에는 원형의 분화구가 형성되어 있고, 분화구 안에는 다시 소규모 분식구들이 발달하고 있음. 화산체 주변에는 불규칙한 화산구릉, 저지대, 하천계곡 등이 발달함
- 하논 화산체는 동서방향으로 약 1.8km, 남북방향으로 약 1.3km의 너비를 갖는 타원형 화산체임. 분화구 내에는 곶술, 가마귀쪽나무, 생달나무 등 비교적 다양한 난대성 식물이 자생
- 희귀조류로는 환경부 보호조류인 말뚝가리, 잿빛개구리매 2종, 멸종위기종인 매1종, 천연기념물(제 323호)인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새매 4종이 나타남



✓수직축척: 1.5배 과장

그림 2-47 하논습지 현황

## (2) 습지관리현황

-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습지가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산재한 습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에서부터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태임. 또한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습지가 매립 사라짐에 따라 중장기 습지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습지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습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제주도는 습지 보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습지 현황 파악도 민간단체인 제주녹색환경자원센터의 2012년 12월 기준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 그 동안 중산간 개발 및 상수도 보급에 따른 봉천수(빗물)를 가둬놓은 연못이 매립돼 사라지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안습지(조간대)가 파괴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연못 정비를

한다며 바닥의 펄을 건어내 콘크리트로 타설해 습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곳도 적지 않음

- 최근에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부근 15만3612㎡ 일대에서 현무암 116만352㎡를 채취해 쇄석골재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석채취사업이 선홍곶자왈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음. 사업예정지는 람사르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이며,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홍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으로,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따르면 습지 및 자연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m 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심의대상 습지는 자연연못을 포함하여 총75개소로 다음과 같음

표 2-9 경관심의 대상 습지

구분	개소	습지(연못)명
합계	75개소	
제주시	5개소	마이못, 월대천, 빌레못, 명도암 생태연못, 용강생태연못
애월읍	6개소	광령저수지, 수산저수지, 윤내미물, 연화못, 밀레못, 괴면이물
한림읍	2개소	세미소, 돌개기못
한경면	9개소	두모저수지, 펄래물, 오빠미물, 저거흘물, 새미왓물, 명리동연못, 용수저수지, 용당못, 조록물
대정읍	13개소	동남못, 옷못, 남문앞못, 수월이못, 봉우리못, 움푹이못, 다리논물, 살래덕물, 쇠뱅디물, 케안물통, 구남물, 좌기동(구시홀못), 맨처남물
안덕면	1개소	명알목소
남원읍	6개소	수은물못, 샛못, 물영아리(수령악), 동수악, 논고악, 오리튼물
표선면	6개소	산물동못, 어두운못, 넓은못, 남선못, 못병디못, 미상(표선리)
성산읍	5개소	큰동네습지, 한못, 혼인지, 다래물, 고타리못
구좌읍	7개소	모사니물, 홀래물, 문화니물, 옷물, 미상(2개소, 덕천리), 종달 하도습지
조천읍	11개소	괴드르못, 짐승못, 바농못, , 남생이못, 넓은못, 미상(와흘리), 흐린내, 뽕뒤못, 동백동산, 반못, 도루못, 괴못
우도면	4개소	양방통, 진사통, 하교수동, 성서방통



그림 2-48 심의대상 습지(자연연못) 현황



그림 2-49 제주지역 주요 습지 현황

#### 4) 용천수

- 제주도의 용천수는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862.6m 한라산 남벽아래(돈내코코스)에 있는 방아샘에서 부터 해안가까지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해안가에 분포함
- 제주도 용천수의 용출 위치는 지형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지형의 변화는 용암류의 불연속적인 분포, 하천의 발달, 분석구(오름)의 생성, 침식·퇴적작용, 화산 및 지진활동에 수반된 지질구조적인 운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생겨남
- 용천수는 강수 후에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층의 깨진 틈이나 열린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물로 제주지역의 용천수는 평균 수온 15~17℃로 여름철에는 매우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함
- 용천수는 1970년대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도민들이 음용수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식수원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원 등으로 사용되어, 제주의 역사가 용천수와 관련된 삶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 또한, 제주인의 독특한 물이용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기도 함
- 그 후 상수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용천수는 주민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용천수는 매립되거나 훼손된 곳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량의 증대 및 용천수에 대한 관리부재 등으로 용천수는 수량이 감소하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마을별로 이용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용천수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울타리 시설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제주시 도두동의 ‘오래물’, ‘마구물’, 영평동의 ‘수수물’, 봉개동의 ‘명도암물’, 서귀포기 동홍동의 ‘지장샘’등이 있음
-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용천수 보호 시설물들은 용출지점만 남겨두고 그 주변지역을 돌이나 콘크리트로 단장하여 오히려 용천수 고유의 모습이 사라져 용천수의 원풍경을 저해,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까지 조사된 용천수 현황은 911개소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540개소, 서귀포시에 371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이 중에서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천수는 28개소, 생활용수 218개소, 농업 및 생활용수 공용 122개소, 기타4개소이며, 이용하지 않는 곳도 339개소임
- 용천수의 분포 위치에 따라 크게 저지대(해발 200m 이하), 중산간지대(해발 200m~600m), 고지대(해발 600m 이상) 용천수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저지대 용천수가 전체 용천수의 92.1%인 839개소이며, 중산간 지대 51개소, 고지대에 21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 세계자연유산 등재, 올레 등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주목,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맞물려 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태체험자원의 하나로 용천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림 2-50 용천수 현황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의 명수 이용과 보전방안,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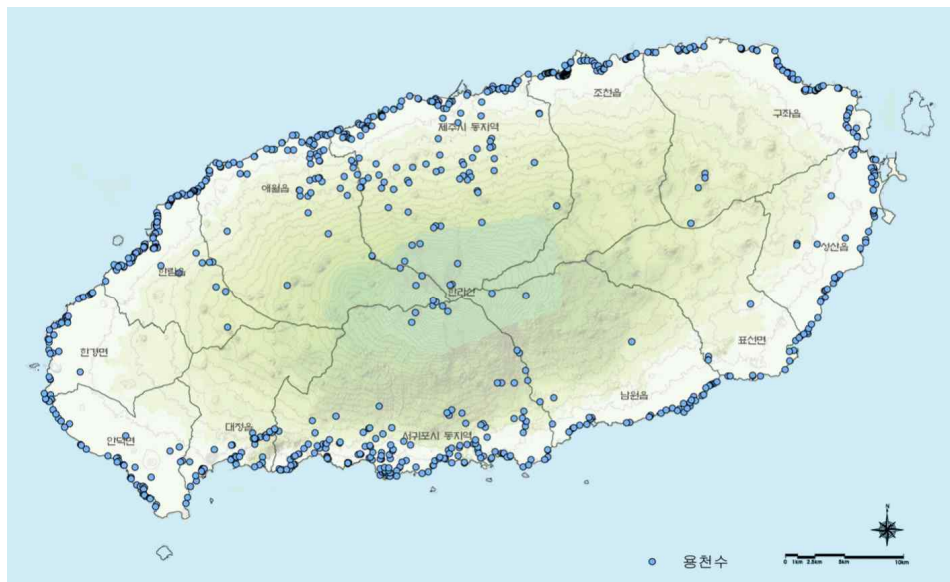


그림 2-51 용천수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물, 용천수

### 2.1.3 자연환경 관련 지정현황

- 제주의 자연환경은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한라산과 360여개의 오름, 그리고 160여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음
- 이러한 제주의 가치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UNESCO 3관왕을 달성하였음

## 1) 생물권보전지역

- 20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발 200m 이상 지역, 그리고 영천과 효돈천 및 그 주변 500m이내 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으로 전체면적은 83,094ha로 핵심지역 15,158ha, 완충지역 14,601ha, 전이지역 53,335ha로 되어 있음

### (1) 핵심지역 (Core Area)

- 생물다양성의 보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조사·연구·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 (2) 완충지역 (Buffer Zone)

-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
-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위해 이용

### (3) 전이지역 (Transition Area)

- 다양한 농림어업활동, 주거지 및 기타 용도로 이용
-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BR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

표 2-10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현황

계	면 적(km <sup>2</sup> )			지정일	구 역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이 지역		
830.94	151.58	146.01	533.35	02. 12. 16 (유네스코)	한라산국립공원 포함 해발 200m 이상지역 영천·효돈천 포함 주변 500m 이내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

표 2-11 생물권보전지역관리지역 지역별 개요

지 역	지역별 개요
핵심지역	육상 : 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해양 : 설섬,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완충지역	육상 :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국유림 및 국립공원 북측 일부 해양 :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일부
전이지역	중산간지역(개략고도200-600m, 도시계획구역제외) 하천(효돈천 및 영천)변 양측 500m구간 서귀포시립해양공원(완충지역 제외) 및 효돈천하구 앞 해상



그림 2-52 생물권보전지역 권역도

## 2) 관리보전지역

- 제주지역은 이국적인 자연경관 및 독특한 생태자원 들을 확보하고 있고, 상위계획에서도 이러한 자원들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제주미래비전에서는 “청정과 공존”을 향후 제주의 핵심가치로 정함)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5년마다 정기적 재조사를 실시 관리보전지역 등급 정비하고 있음. 현재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관리보전지역의 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중에서 한라산국립공원과 일부도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1,257km<sup>2</sup>이며, 지하수자원지구, 생태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하고 각각 등급이 부여되어 있음
-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1등급이 2.2%, 2등급 15.9%이며 하천과 꽃자왈이 1,2등급을 이루고 있음

표 2-1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지정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면적(km <sup>2</sup> )	1,257.058	27.561	199.980	237.576	791.941
비율(%)	100.0	2.2	15.9	18.9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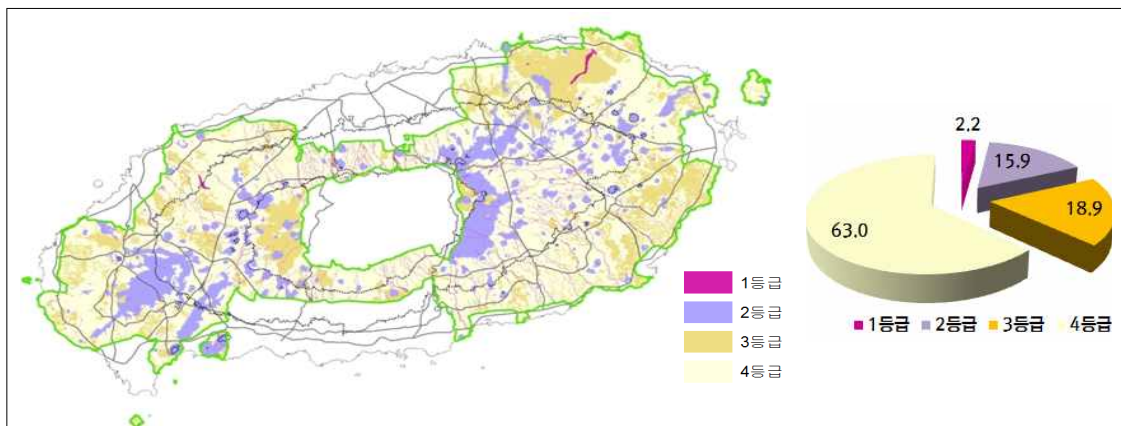


그림 2-53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현황

-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2.3%, 2등급 4.6%이며 보전기능이 강한 1,2등급의 비율이 6.9% 정도임

표 2-13 생태계보전지구 지정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면적(km <sup>2</sup> )	1,257.058	28.861	57.920	101.278	161.672	327.559	579.768
비율(%)	100.0	2.3	4.6	8.1	12.8	26.1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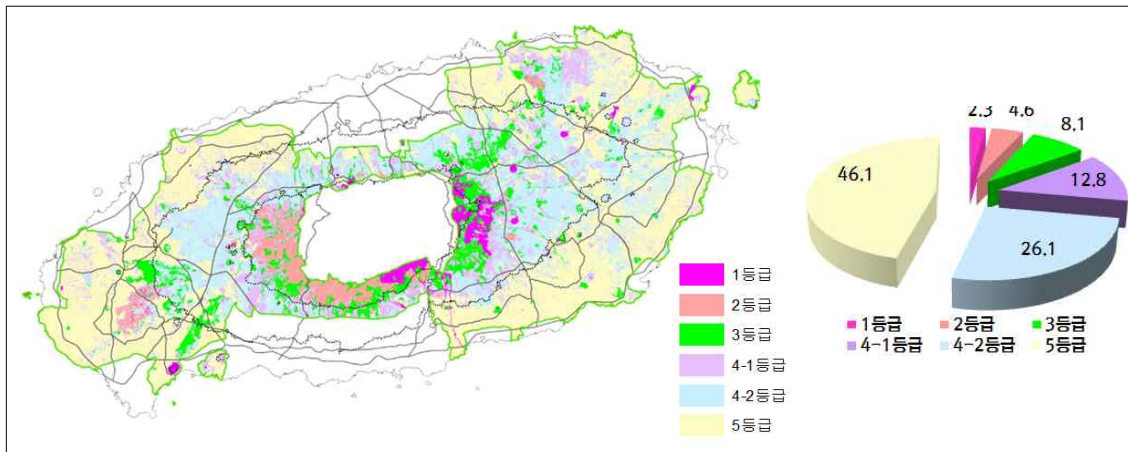


그림 2-54 생태계보전지구 등급현황

- 경관보전지구는 1등급이 6.6%, 2등급 2.7%, 3등급이 제일 많은 45.4%를 나타내며, 1등급은 오름에 지정되어 있음

표 2-14 경관보전지구 지정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면적(km <sup>2</sup> )	1257.058	83.278	33.768	570.781	219.771
비율(%)	100.0	6.6	2.7	45.4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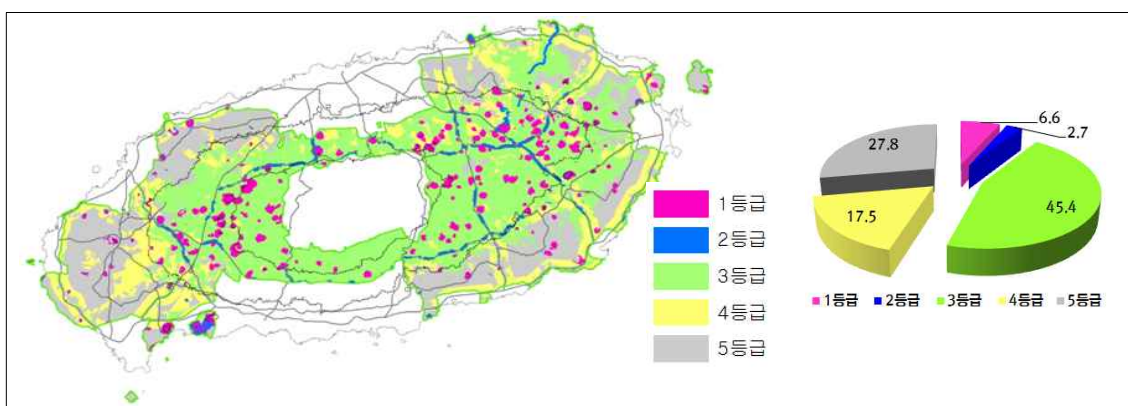


그림 2-55 경관보전지구 등급현황

### 3) 세계자연유산

- 세계 유산은 자연형, 문화형, 복합형으로 나누고 등재기준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 제주에서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로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세계자연유산의 총면적은 188,462,471m<sup>2</sup>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64,405,787m<sup>2</sup>, 성산 일출봉 1,689,338 m<sup>2</sup>,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22,367,346m<sup>2</sup>)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그 중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거문오름용암동굴계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지표면을 흐르면서 만들어진 용암동굴들을 일컫는 말로 거문오름을 포함하여 만장굴, 김녕굴, 뽕뒤굴, 당치물동굴, 용천동굴이 포함됨



그림 2-56 세계자연유산 위치도

### 4) 세계지질공원

-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임
- 2004년 유네스코와 유럽 지질공원망(EGN)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전 세계 25개국 77개소(2011년 기준)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2010년 10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대상지역은 제주도 전체로 대표명소는 9개소를 지정함

표 2-15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 현황

구 분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지정년도)
한 라 산	제182호(1966년)
만 장 굴	제98호(1962년)
성산일출봉	제420호(2000년)
서귀포 패류화석층	제195호(1968년)
천지연폭포	제379호(1966년)
대포동 주상절리대	제443호(1998년)
산 방 산	제376호(1966년)
용머리해안	제526호(2010년)
수 월 봉	제513호(2009년)



그림 2-57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9개소) 위치도

##### 5) 자연환경 관리현황

-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의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절·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외 산림녹지경관의 관리방안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지정이 있으며, 수변경관의 관리방안으로 「연안관리법」, 「수도법」, 「습지보전법」 등에서 각종 보호 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관리함

표 2-16 자연환경 관리현황

구분		관리방안	제주도 지정현황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	육지부 20,335 ha 해면부 18,261 ha 합계 38,597 ha
	자연경관지구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 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	제주시 11개소 95 ha 서귀포시 8개소 246 ha
제주특별 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절대보전지역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지정	제주시 10,850 ha 서귀포시 8,324 ha
	상대보전지역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과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제주시 641 ha 서귀포시 678 ha
	관리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지구)	-도시지역 및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 -등급별로 세분화 하여 행위제한 (1, 2등급 토지형질변경금지)	1등급 2,946 ha 2등급 5,937 ha
	지하수 보전지역	-도시지역 및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 -등급별로 세분화 하여 행위제한 1등급은 습곡, 하천, 용암동굴 등	1등급 2,912 ha 2등급 20,308 ha
	경관보전지역	-도시지역 및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 -등급별로 시설물의 높이 및 길이 등의 행위제한	1등급 8,136 ha 2등급 2,727 ha 3등급 47,663 ha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산지	제주시 3,792 ha 서귀포시 7,873 ha 합계 11,665 ha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제주시 11,785 ha 서귀포시 7,795 ha 합계 19,580 ha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총 4개소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지역	문섬등 주변해역 136 ha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	제주시 8개소 155 ha 서귀포시 5개소 27 ha 합계 13개소 182 ha
연안관리법	연안육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을 도모	일주도로(12번 국도)를 범위설정의 주요기준으로 하였으며,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연 안육역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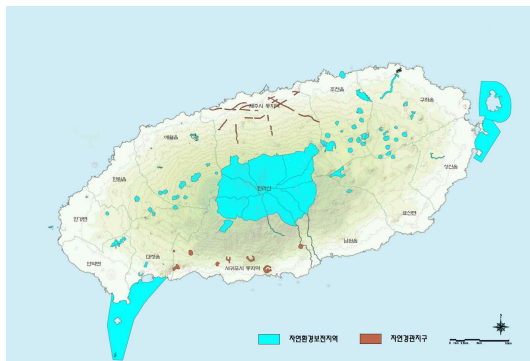


그림 2-58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지구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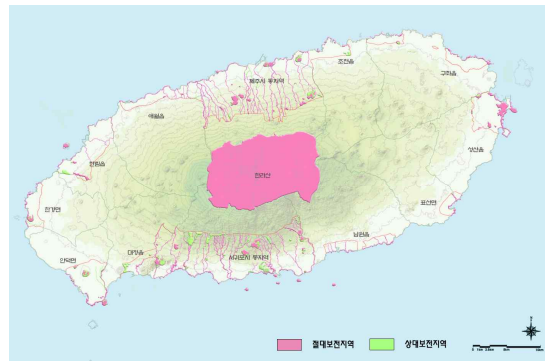


그림 2-59 특별법에 의한 절·상대  
보전지역지정 현황

## 2.1.4 농산어촌경관

### 1) 전원교외부

- 시행승인사업을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38개소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준공(운영중)사업은 23개 사업임
- 일부 준공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22,592천㎡이며, 공사중인 사업은 제주도 2개 사업, 서귀포시 7개 사업임
- 공사를 준비중이거나 사업이 승인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표 2-17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일부 준공	공사중	공사 준비중	사업 승인
계	38개소 (37,505km <sup>2</sup> )	23개 사업 (22,592천㎡)	9개 사업 (10,621천㎡)	4개 사업 (3,493천㎡)	2개 사업 (799천㎡)
제주 시	19개 사업	봉개휴양림관광지, 함덕관광지, 묘산봉관광지, 라온더마파크, 폴로승마리조트, 에코랜드, 아덴힐리조트, 셰프라인체험랜드, 라온프라이빗타운, 산천단(2차)	제주여성테마파크, 무수천	오라관광지, 제주동물테마파크, 풍산드림랜드, 제주 그린벨리관광타운	록인제주복합관광 단지, 이호
서 귀 포 시	19개 사업	표선민속관광지, 성산포(보광), 롯데리조트, 성산포(해양과학관), 남원관광지1차·2차, 토산관광지, 미친굴관광지, 수망관광지, 우리들 매디컬, 테디벨리골프&리조트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백통신원제주리조트, 핀크스비오토피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삼매봉		

자료 : 2015주요행정총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2015.3기준

### 2) 해안마을 경관

- 제주지역의 해안마을은 예부터 해안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음. 1960년대 옛 용담 한두기마을과 같이 형성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해안마을은 현대적 건축물이 자리잡았고, 관광객들의 관광목적의 해안도로 및 도민들의 주거지들이 혼재되어 있음



▷ 옛 용담 한두기마을 (1960년대)  
자료 : 제주학아카이브, 서재철



▷ 동한두기 (2015년)

그림 2-60 해안마을 전경

### 3) 중산간마을 지역

#### (1) 중산간지역

-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중산간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은 일반적으로 해발고도 200~600m로 칭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 한국지리지(20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 계획(2013)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들어 중산간지역의 개념은 과거 산촌과 평지농촌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개념에서 산으로부터 연결된 지역으로서의 중산간지역이라는 의미가 부여됨
- 평야의 주변부에서 산간지에 이르는 일정면적의 평탄한 경지가 적은 지역을 중산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산간 지역을 일반 농산촌 지역 중에서 평지의 주변부에서 산간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면적의 경지가 적고, 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추상적으로 정의 (고관범, 2005).
-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이후 1962~ 63년에 걸쳐 실시된 '4·3사건 이재민 귀농 정착 사업'으로 중산간 마을의 복구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목축단지, 양잠단지, 과수원이 조성되고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중산간지역에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
- 제주에서 중산간은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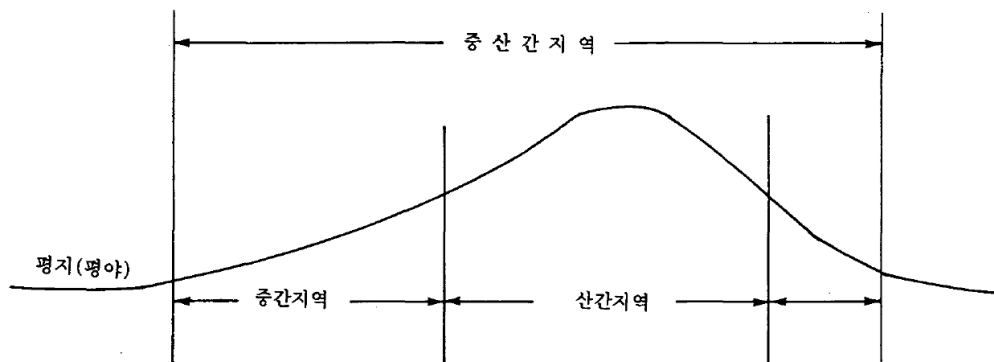


그림 2-61 일본 중산간지역의 개념도

자료 : 장우환, 일본의 중산간지역 개념과 구분, 농촌경제 제20권 제2호, 1997 여름

#### (2) 중산간지역의 위상과 중요성

- 한라산국립공원과 해안지역 사이에 위치한 생태적 완충지대
  - 생태학적 측면으로 상류, 중류, 하류로 이어지는 하천의 흐름 속에서 중류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호우시 적절히 빗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 담당
  - 특히, 환경자원(꽃자왈, 뱀지 등) 측면으로 한라산과 더불어 생물의 종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꽃자왈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중산간에 분포함
- 경관적으로는 한라산, 바다, 해안면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지역
  -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아도 배경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인문환경적으로는 산림지와 초지로 이루어져 대규모 목장이 분포
- 농업과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역으로 제주도의 농업 축산업 임산물의 생산기지 역할 담당

### (3) 중산간 취락지 분포

- 중산간지역에는 32개소의 취락이 있으며, 제주시 24개소, 서귀포시 8개소로 면적은 0.96km<sup>2</sup>로 중산간 전체면적의 0.2%를 차지. 표고별로는 200~300m 지역에 전체 취락지의 74.5%가 집중되어 있으며, 400~600m지역에도 0.5km<sup>2</sup>의 취락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400m가 취락지의 한계로 분석
- 중산간 지역의 취락지는 소규모 게스트하우스, 펜션, 커피숍, 음식점 등으로 혼재되어 가고 있어 기존의 마을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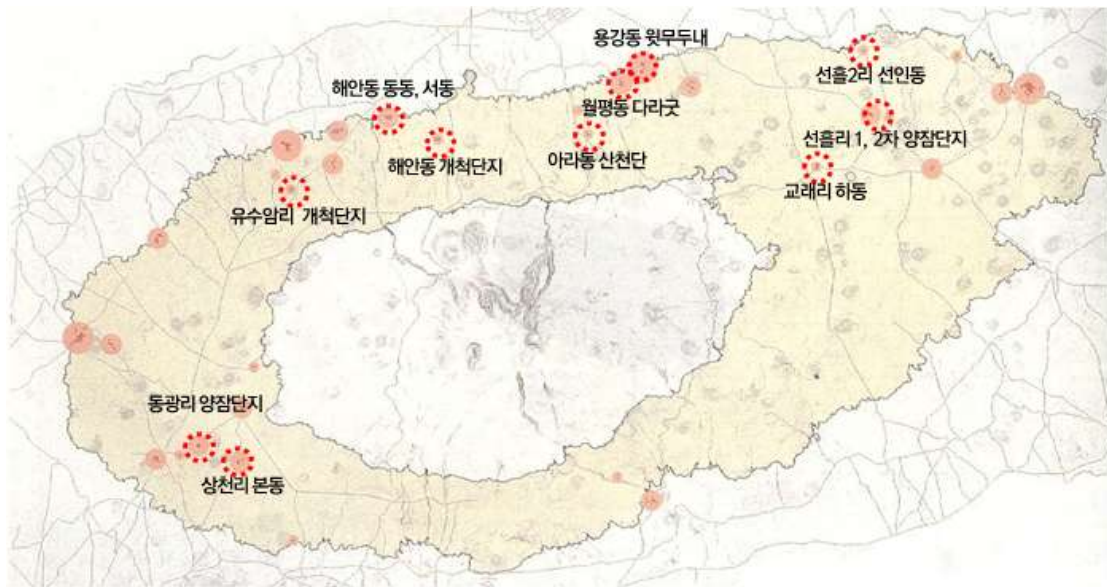


그림 2-62 중산간지역 취락지 분포 및 현황조사지역

자료 :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997



그림 2-63 중산간지역 취락지 : 가로시설물

#### (4) 중산간지역 개발 현황

- 중산간지역은 해발고도 200~600m이며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완충지역이며 한라산과 도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과의 공간적, 기능적 전이지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경관, 환경적 가치가 높아 신규개발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음
- 중산간에는 관광지 9개, 골프장(도시계획시설) 8개 등이 입지하며, 기존의 마을공동목장이 개발된 경우가 많고, 현재와 같이 중산간이 개발된다면 한라산권과 생활권과의 완충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임



그림 2-64 중산간지역 취락지 : 가옥

- 중산간지역은 해발고도 200~600m이며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완충지역이며 한라산과 도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과의 공간적, 기능적 전이지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경관, 환경적 가치가 높아 신규개발수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음
- 중산간에는 관광지 9개, 골프장(도시계획시설) 8개 등이 입지하며, 기존의 마을공동목장이 개발된 경우가 많고, 현재와 같이 중산간이 개발된다면 한라산권과 생활권과의 완충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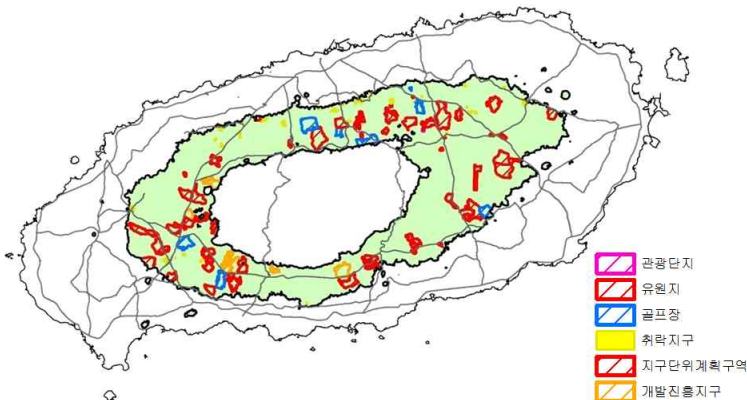


그림 2-65 중산간지역 개발 현황 분포도

구분	면적(㎡)	개수
관광지·관광단지	16,325,741	9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9,636,772	8
유원지(도시계획시설)	11,975,475	10
지구단위계획	46,601,897	49
취락지구	3,003,492	41
개발진흥지구	10,698,274	16
계	98,241,651	133

표 2-18 유형별 개발 면적 및 개수 현황

- 중산간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경관 심의를 통해 개발이 진행되거나 조성되어 있음
- 그러나 으뜸 조망을 통해 대규모 나홀로 개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제주다운 경관을 찾아볼 수 없음
- 부감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임



그림 2-66 중산간에서의 개발 현황

#### ■ 중산간지역 개발행위허가

- 제주지역의 개발행위는 제주가 가진 지문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대규모의 사업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자본 등 일부 자본만 참여할 수 밖에 없음
-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대규모 투자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개발행위허가 현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행위는 관리보전지역 관리에도 영향을 미침
-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2009~2014)에서 표고별 현황을 살펴보면 100m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중산간(200~600m)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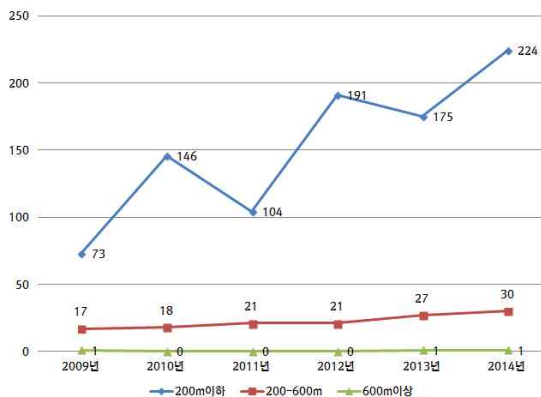


그림 2-67 연도별 표고별 개발행위허가 추이(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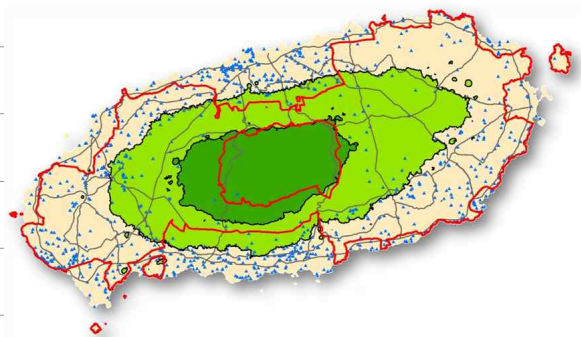


그림 2-68 개발행위허가 표고별 현황분포도 (2009~2014)

## 2.1.5 역사문화경관

### 1) 영주십경

- 매계 이한진(梅溪 李漢震 1823~1881)은 자신의 문집에서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성산에 올라 아침해가 솟아오름을 보는 일(城山出日), 사라봉에 올라 저녁노을을 바라보는 일(紗峰落照), 들렁귀에서 봄에 핀 꽃구경(瀛邱春花), 정방연(正房淵)의 여름 폭포구경(正房夏瀑), 굴림서원 과원의 가을빛(橘林秋色), 백록담에 쌓인 겨울눈(鹿潭滿雪), 영실계곡의 기이한 바위(瀛室奇巖), 산방산의 굴속 절간(山房窟寺), 산지포구에서의 고기낚기(山浦釣漁), 태고적 숲에서 말기르기(古藪牧馬) 등 열 가지 풍경을 영주십경(瀛州十景)이라 품제하고 그 경치마다 칠언율시 한 수씩을 남겼음



그림 2-69 영주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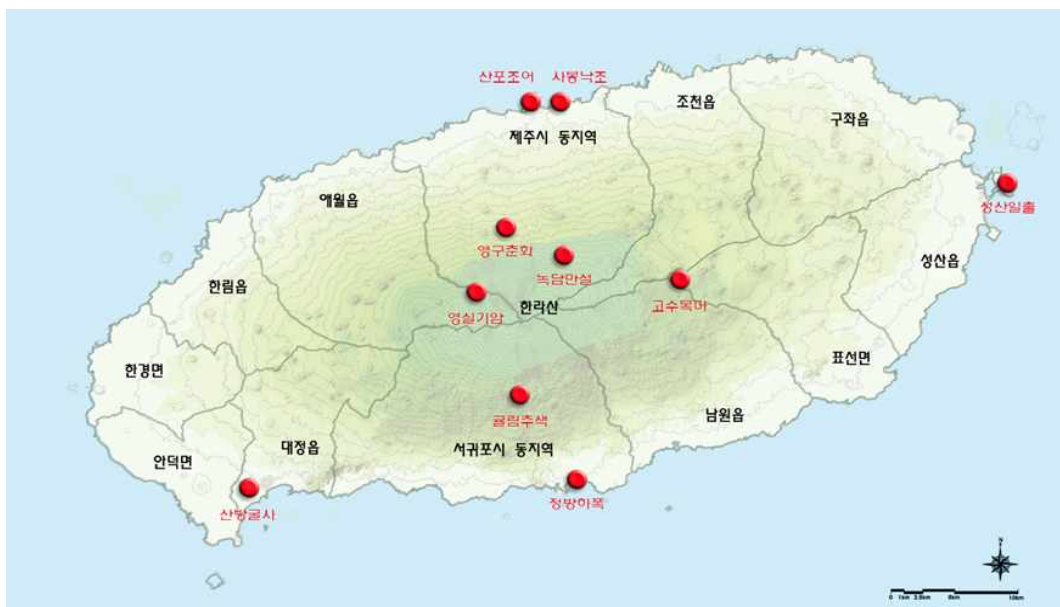


그림 2-70 영주십경 위치도

### 2) 탐라순력도

-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년)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제주관내 순시를 비롯해 한 해 동안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제주목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40폭의 채색도로 그리게 한 다음 매 화폭의 하단에 간결한 설명을 적고, '호연금서'라는 이름의 그림 한 폭을 곁들여 꾸며진 총 41폭의 화첩임

-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풍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제주도의 역사연구에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거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소중한 화첩임
- 탐라순력도는 보물 제652-6호로, 화폭에 나와 있는 제주의 지형과 문화는 현재의 제주경관과 비교하여 역사문화적으로 재조명되고 더 나아가 경관적으로 보존해야할 가치를 지님



그림 2-71 탐라순력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탐라순력도 홈페이지 (<http://tamnamap.jejusi.go.kr>)

### 3) 문화재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4개, 도지정 문화재 296개 총 400개의 문화재가 대정읍 47개소, 애월읍 31개소, 표선면 27개소, 조천읍 23개소, 구좌읍 22개소 등 각 지역에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음
-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는데 그 중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서, 제주도에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로서 관덕정, 삼성혈, 제주목 관아,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등이 있음
- 기념물은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뉘며, 경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한라산의 백록담,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서귀포 정방폭포, 외돌개 등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문화자원보전지구로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자원보전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만이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2-72 국가지정 문화재

표 2-19 국가지정 문화재

구 분	계	도일원	제주시	서귀포시	주요 문화재명
계	106	3	51	52	
보물	6	—	5	1	관덕정,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안중근의사유묵, 탐라순력도, 불탑사 오층석탑, 최익현초상
사적	7	—	6	1	삼성혈, 제주목 관아, 향파두리항몽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시 용담동 유적
천연 기념물	48	3	24	21	삼도파초일엽 자생지,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무태장어 서식지, 김녕굴 및 만장굴,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등
명승	9	—	1	8	정방폭포, 산방산, 쇠소깍, 외돌개, 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 방선문
중요민속 문화재	9	—	3	6	애월말방아, 잣동네말방아, 당거리동네말방아
중요무형 문화재	5	—	4	1	성읍 조일훈가옥, 성읍 고평오가옥 등
등록 문화재	22	—	8	14	망건장, 탕건장, 칠머리당영등굿, 제주민요
					남제주강병대교회, 남제주비행기격납고, 이승만별장, 구 제주도청사 등

표 2-20 도지정 문화재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주요 문화재명
계	273	175	98	
유형 문화재	33	22	11	제주향교, 연복정, 대정향교, 정의향교, 향사당 신촌향사, 추자처사각, 용방록 등
무형 문화재	20	13	7	해녀노래, 영감놀이,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송당리마을제, 남읍리마을제, 덕수리불미공예, 정동별립장, 방앗돌굴리는노래 등
기념물 (사적, 수목, 지질, 경관)	128	82	46	제주성지, 삼사석,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명월대, 절부암, 동백동산, 오현단 등
민속자료	82	49	33	복신미륵, 동자복, 서자복, 돌하르방



삼성혈



돌하르방



제주큰굿

그림 2-73 도지정 문화재

표 2-21 문화자원보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문화자원보전지구
제 주 시 (7)	제주향교지구, 관덕정지구, 오현단지구, 삼성혈지구, 삼양동 선사유적지구, 하도리 별방진지구, 용수리 절부암지구
서귀포시 (4)	보목동 숲섬지구, 서귀진지지구, 보성리 대정성지지구, 수산진성지구

#### 4) 제주성지

- 제주성지는 기존 제주성지의 잔존지역과 문화재 지정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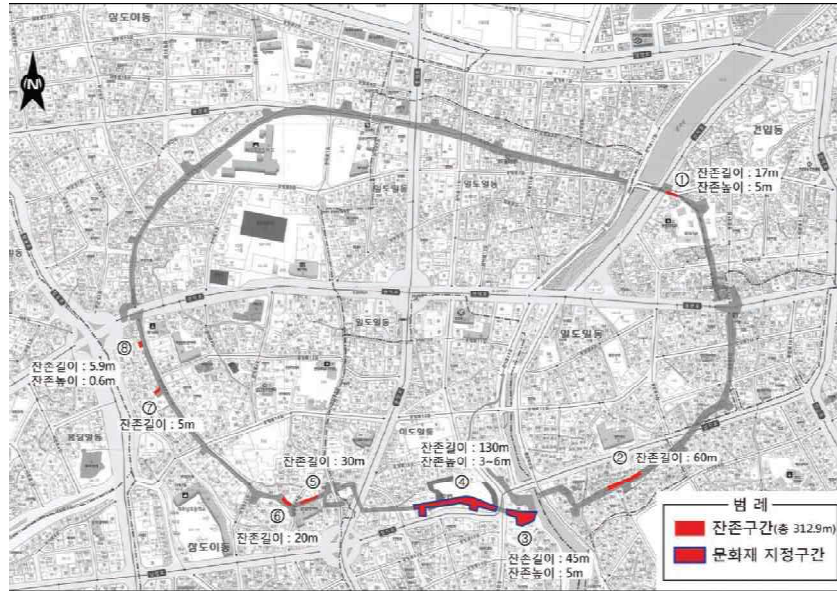


그림 2-74 제주성지 잔존 및 문화재 지정 구간

표 2-22 제주성지 잔존구간

구간	구역	잔존길이 (m)	위치		잔존상태
			지번	좌표	
1	Ⅱ-1	17	제주시 일도1동 1189번지 북쪽 기상청 후문계단	X-156245, Y-102423 ~ X-156266, Y-102417	외벽 일부
2	Ⅱ-5 Ⅱ-6	60	제주시 일도1동 1094-61, 1497-33, 1497-16, 1497-19번지 북쪽경계	X-156149, Y-101948 ~ X-156202, Y-101974	내벽 일부
3	Ⅲ-1	동서 45, 남북 15	제주시 이도일동 1437-2번지 일대	X-155985, Y-101911 ~ X-156027, Y-101930	양호
4	Ⅲ-2	130	제주시 이도일동 1437-6, 1437-13, 1437-18번지 일대	X-155832, Y-101914 ~ X-155971, Y-101914	복원
5	Ⅲ-5	30	제주시 삼도2동 184-5번지 북쪽 경계	X-155663, Y-101931 ~ X-155685, Y-101939	내벽 일부
6	Ⅲ-5	20	제주시 삼도2동 177-2번지 북쪽 경계	X-155630, Y-101938 ~ X-155646, Y-101928	내벽 일부
7	20호 치성	5	제주시 삼도2동 830-5번지 남쪽 경계	X-155435, Y-102109	외벽일부
8	Ⅲ-8	5.9	제주시 삼도2동 841번지	X-155411, Y-102183	외벽일부
계		312.9			

자료 :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013

#### 5) 돌담(집담, 밭담, 산담, 잣담)

- 제주도에서는 밭길 닿는 곳마다 길게 이어진 돌담을 만날 수 있는데, 제주 선민들의 생존역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잘 활용하라”라는 선민들의 지혜가 담긴 의미체라고 말할 수 있음
- 끝없이 이어지는 제주도의 돌담을 보고 옛 선인들은 이르면 1만리까지 간다고 하여 ‘흑룡만리(黑龍萬里)’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총길이는 2만2000km에 달해 지구 반바퀴에 달해 제주의 돌담은

제주의 경관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라 말할 수 있음

- 제주의 돌담은 용도 위치 등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집 주위를 에워쌓은 집담, 경작지 사이에 쌓아 놓은 밭담, 무덤 주위에 쌓아 놓은 산담, 밭 한쪽에 길게 쌓아두고 성담처럼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도록 한 잣담이 있으며, 바닷가 연안에 일정한 너비와 높이로 쌓아두고 고리를 가두어서 잡는 원담(또는 갯담)이 있음
- 또한 올렛담(큰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의 돌담), 우영담(택지 옆에 붙어있는 텃밭의 돌담) 또는 통싯담(돼지우리를 둘러놓은 돌담)처럼 돌담이 쌓인 장소나 위치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도 있음



밭 담



산 담



집 담



원 담



잣 담



환해장성

그림 2-75 제주지역 돌담 및 경계획정 사례

- 돌담의 기능으로서 집담은 집의 울타리로서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집안 내부의 모습을 차단하고, 강풍이나 태풍이 불어올 때는 바람의 강도를 낮추어 바람의 피해를 줄이고, 평소에는 지나가는 우마 등 가축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기능 및 해안에 아주 인접한 가옥인 경우에는 파도에 의한 염해(鹽害)를 막는 기능도 함
- 밭담은 경작지의 소유를 구분함과 동시에 우마 등 가축들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산담은 원래 사자(死者)의 영혼이 깃드는 공간 혹은 사자의 생활공간이 및 우마의 피해와 산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음
- 밭 한쪽에 길게 쌓아놓은 잣담은 근본적으로는 경작지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돌들을 한쪽에 쌓아두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돌의 양이 워낙 많다보니 먼 곳으로 치우지 못하고 옆 밭과의 경계를 구분 짓는 돌담에 의지하여 쌓아두게 된 것임. 이러한 잣담도 여름이나 가을철에 비가 많이 내리던지, 장마가 지속될 경우에는 농작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통행로로 이용하며, 또한 평소에는 농기구나 작업복 및 점심 바구니 등을 놓아두는 용도로도 이용된다. 제주인들은 이런 잣담길을 보통 잣질(잣길)이라 함
- 원담 또는 갯담이라 불리는 어로 시설은 얇은 바닷가 연안에서 주변의 지형지물과 연결하여 1m 내의 높이로 쌓은 돌담인데, 이것은 보통 밀물을 따라 연안으로 들어온 고기떼가 원담 안에서 유영하며 놀다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은 빠지고 고기들은 얇은 물 속에 갇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잣성은 잣 또는 잣담이라고도 하는 데, 이 돌담은 조선시대 때 중앙에서 사육하는 말과 소를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방목하며 키우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함

- 잣성과는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르나, 환해장성을 비롯하여 3개 지역에 쌓여졌던 읍성이나 9개의 군주둔지(화북, 조천, 별방[하도], 수산, 서귀포, 모슬포, 차귀[고산], 명월, 애월)였던 진성에는 돌로 석성(石城)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정교한 돌담으로 이루어진 성담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 내를 빙 둘러가며 요새지마다 쌓은 것임
- 이러한 기능과 역사를 지닌 제주의 돌담은 제주의 중요한 역사문화 경관중 하나이며, 2002년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문화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농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는 세계농업유산으로 2014년 4월 밭담이 지정되었으나, 보전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그림 2-76 돌담 현황

## 6) 역사문화경관의 관리현황

- 역사문화경관의 관리방안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지정이 있음
-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옛시가지와 화폭에도 나타나듯이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가치 있는 것으로 한라산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 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과 영향 검토 구역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최대 500m, 도지정문화재 최대 300m 내에서 발생하는 건축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음
-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9호, 2011.4.1.)을 통해 허용기준의 범위,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작성기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에서는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문화재 주변의 경관 미 조망의 훼손 여부,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의 저해 여부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조망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또한 타 법령에 의거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주도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문화자원 보전지구로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자원보전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만이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자원의 유지·보전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제주도에 저지예술인 마을이 2010년도에 지정되었음

## 2.1.6 도시경관

### 1) 행정구역 및 토지이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은 2행정시, 7읍 5면 31행정동(62법정동), 172행정리(137법정리)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48.85km<sup>2</sup>임. 이 중 제주시는 4읍 3면 19행정동(40법정동), 96행정리(80법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3읍 2면 12행정동(22법정동), 76행정리(57법정리)로 구성됨
-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총 2,050.2km<sup>2</sup>으로 제주시 1,103.1km<sup>2</sup>, 서귀포시 947.1km<sup>2</sup> 이며, 이중 도시지역의 면적은 453.5km<sup>2</sup>로 도시지역 점유율은 22.1%임

표 2-23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지정현황

구 분		총 면 적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2,050.2	1,103.1	947.1
도시 지역	계	453.5	226.8	226.7
	주 거	48.2	26.6	21.6
	상 업	6.3	4.2	2.1
	공 업	4.7	2.9	1.8
	녹 지	379.1	184.4	194.7
	미지정	15.2	8.7	6.5
관 리 지 역		1,101.3	601.6	499.7
농 립 지 역		107.9	37.7	70.2
자연환경보전지역		387.5	237.0	150.5



그림 2-77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2) 고도기준

- 시가지 경관을 이루는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경관고도규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고고도지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이외의 도시개발지역의 고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타 읍면 등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최대높이 기준이 설정됨
- 최근 시가지내 고층건물에 대한 개발 수요의 증가 및 시가지내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구역내의 고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합리적인 높이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관적 고찰도 필요한 실정임

표 2-24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건축물의 고도기준

시 군 별	지 역 별		건축물의 최대높이(m)	기 수립된 경관고도 규제계획(m)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신 제 주	상업지역	35	35~55
		준주거지역	35	25~45
		주거지역	20	25~45
		녹지지역	15	15
	신제주 이외 지 역	상업지역	35	30~55
		준주거지역	20	30
		주거지역	20	8~30
		공업지역	20	20
		녹지지역	15	15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		상업지역	30	20~40
		준주거지역	20	15~30
		주거지역	20	12~30
		공업지역	20	—
		녹지지역	15	—
읍.면도시계획구역		상업지역	25	—
		준주거지역	20	—
		주거지역	20	—
		공업지역	20	—
		녹지지역	15	—
비도시지역		—	15	—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	20	—

주1)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철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 등과 같은 특수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경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됨

주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여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

주3)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 적용지역 :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도시지역). 다만, 아래 도면의 신제주 도시지역,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 고도가 완화결정된 지역, 관광단지, 관광지구, 개발진흥지구, 유원지,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주시 동지역내 녹지지역은 제외

나.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완화 제안 시

다. 적용방법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건축물고도기준상 건축물 최대높이(경관고도규제계획 포함)의 100% ~ 140% 범위에서 허용

·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세부적용기준을 정함(도지사가 심의기준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고도완화

라. 적용시점 : 위 심의기준 고시일부터

주4)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의 활력을 다시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다.

주5) 읍·면 도시지역에서 현상공로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1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그림 2-78 신제주방면 고도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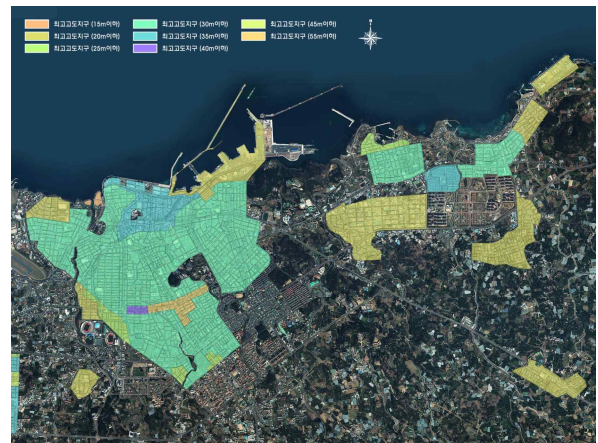


그림 2-79 구제주방면 고도지구 현황



그림 2-80 서귀포시 서부지역 고도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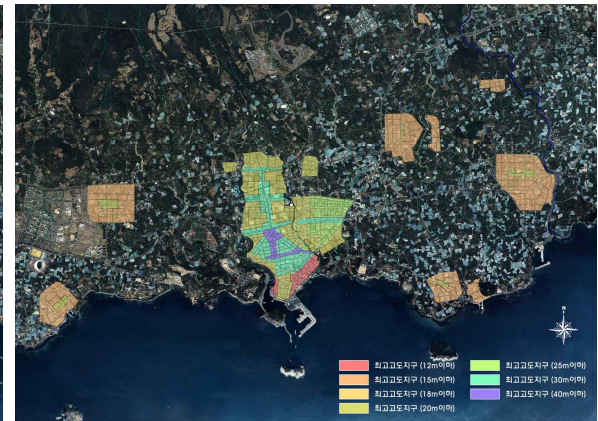


그림 2-81 서귀포시 동부지역 고도지구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2009.10), 20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 3) 도시개발 현황

#### (1) 도시개발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사업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짐
-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가 사업시행자이고 환지방법을 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제주시 이도동 제주제1지구로 '54년에 착공하여 '67년에 완료되었음
- 완료된 도시개발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18개소, 서귀포시 3개소로 총 21지구로 면적은 11,955천㎡임

표 2-25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분		개 수	면적(천㎡)		
		위치	계	택지	공공용지
합 계		21개 지구	11,955	7,691	4,264
제주시	제주제1지구	제주시 이도동	589	352	237
	제주진성동지구	제주시 삼도동	37	31	6
	제주삼성혈지구	제주시 이도동	149	110	39
	제주제2지구	제주시 용담동	583	339	244
	제주신산지구	제주시 건입동	570	376	194
	신제주제1지구	제주시 연동	1,422	1,007	415
	제주제3지구	제주시 삼도동	983	632	351
	신제주제2지구	제주시 노형동	572	371	201
	제주신산제2지구	제주시 건입동	1,015	672	343
	제주화북공업지구	제주시 화북동	289	214	75
	제주화북지구	제주시 화북동	262	174	88
	제주이도지구	제주시 이도2동	829	535	294
	신제주제3지구	제주시 연동	757	492	265
	제주노형지구	제주시 노형동	213	133	80
	제주삼양지구	제주시 삼양동	658	435	223
	제주외도지구	제주시 외도동	751	491	260
	시민복지타운	제주시 도남동	430	107	323
	하귀1지구	애월읍 하귀리	401	252	149
	소계	18개 지구	10,510	6,723	3,787
서귀포시	서귀포제1지구	서귀포시 서귀동	774	542	232
	서귀포동홍지구	서귀포시 동홍동	454	270	184
	서귀포토평지구	서귀포시 토평동	217	156	61
	소계	3개지구	1,445	968	477

-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제주시 아라동내 아라지구와 노형동내 노형2지구, 2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1,284천㎡임

표 2-26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천㎡)			비고
		계	주거용지	공공용지	
아라지구	제주시 아라동	926	556	370	사업 진행
노형2지구	제주시 노형동	358	172	186	

## (2) 택지개발사업

-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신시가지인 서호지구로서 '89년에 시작하여 '92년에 완료된 지구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임
- 최초의 택지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신시가지인 서호지구로서 '89년에 시작하여 '92년에 완료된 지구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임
-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총 9개소, 5,047천㎡로서 종전의 남제주군에서 시행한 사계지구를 제외하고는 주택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택지를 조성

표 2-27 택지개발사업 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비 (백만원)	계획인구 (세대수)
		계	택지	공공용지		
계	9개소	5,047,152.1	1,750,743.1	2,349,691.3	585,098	89,442 (26,544)
일도지구 (토지공사)	제주시 일도2동, 이도2동	1,091,735.1	607,111.6	484,623.5	195,691	19,760 (5,200)
화북지구 (주택공사)	제주시 화북동	222,287.9	149,854.8	72,433.1	40,600	8,746 (2,429)
연동지구 (토지공사)	제주시 연동, 노형동	948,816.5	-일반택지 (390,667.8) -상업용지 (78,514.1)	479,634.6	196,012	18,564 (5,304)
노형지구 (주택공사)	제주시 노형동	365,325	231,958	133,368	88,177	9,185 (3,102)
함덕지구 (토지공사)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16,495	66,239	46,007	7,971	1,050 (350)
사계지구 (남제주군)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71,048.5	37,201.7	33,846.8	2,774	1,040 (260)
서호지구 (토지공사)	서귀포시 서호, 법환, 강정동	978,421.1	-일반택지 (393,743.1) -상업용지 (79,544.7)	505,133.3	53,873	6,220 (1,520)
삼화지구	제주시 화북 1,2동	976,032	510,465	465,567	242,400	19,504 (6,588)
강정지구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276,991	147,913	129,078	60,200	5,373 (1,791)

### (3) 산업단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산업 및 인구의 분산,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1989년 4월 구좌농공단지, 1992년 6월 대정농공단지, 1994년 6월 금능농공단지가 조성되어 5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2010년 3월 조성되어 4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
- 또한 일반산업단지로서, 제주도 용암해수를 가공하는 식료품산업단지를 목표로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음
- 산업단지 근로자 수는 907명으로 이는 산업종사자의 0.4%, 제조업 종사자의 10.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향후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업체 입주가 시작되면 산업단지가 관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28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면 적 (천m <sup>2</sup> )	입주업체 (개소)	가동업체 (개소)	종업원수 (명)	비 고
국가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921	68	41	330	—
일반산업단지	용암해수	195	—	—	—	—
농공단지	구좌	67	23	20	165	—
	금능	130	21	18	184	—
	대정	115	22	20	228	—
계		1,491	134	99	907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그림 2-82 산업단지 지정 현황

### 4) 시가지경관

- 시가지경관을 형성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산화 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아 기본적인 토지이용을 관리함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 녹지, 상업, 공업)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구분하여 토지의 성격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달리 하여 건축물을 관리함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기능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함
- 용도지역·지구는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Zoning Control의 성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총 8개 지구로서, 이 중 세분된 용도지구 16개 지구로 관리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정 기준에 의해 지정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음

표 2-29 경관관련 용도지구 지정현황

용도지구	지 정 목 적	지 정 현 황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녹지지역 주요 도로변, 서귀포시 동지역 오름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 보호·유지	서귀포시 동지역 해안변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 보호	없음
미관지구	미관 유지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상업지역 도로변, 신제주 상업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관리	없음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와의 지역으로서 미관 유지·관리	주거지역 도로변, 신제주 주거지역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제주시 동지역 시가화용지 8~55m 서귀포시 동지역 시가화용지 12~40m 서귀포시 신시가지 8~18m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연동택지개발 상업용지 3층이상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 예방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상업지역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없음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하도 별방진, 용수리 절부암 서귀포시 숲섬, 대정 보성지구 등 11개소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없음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없음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서귀포시 서귀고 일원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제주도청 일원,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귀포시 신시가지 시청 일원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없음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없음

용도지구	지 정 목 적	지 정 현 황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녹지지역, 관리지역 366개소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없음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보로미마을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13개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없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57개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5개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	없음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자원의 유지·보존과 문화환경 조성	저지예술인 마을

자료 : 20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 제주시 주요가로인 중앙로는 한라산 방향으로 오르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로변 상업지역이고, 중앙로변의 건물들은 옥외광고물을 뒤덮은 건물과 원색계열의 건물이 다수 존재
- 주요도로변 곳곳에는 돌출경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조형물도 존재



그림 2-83 시가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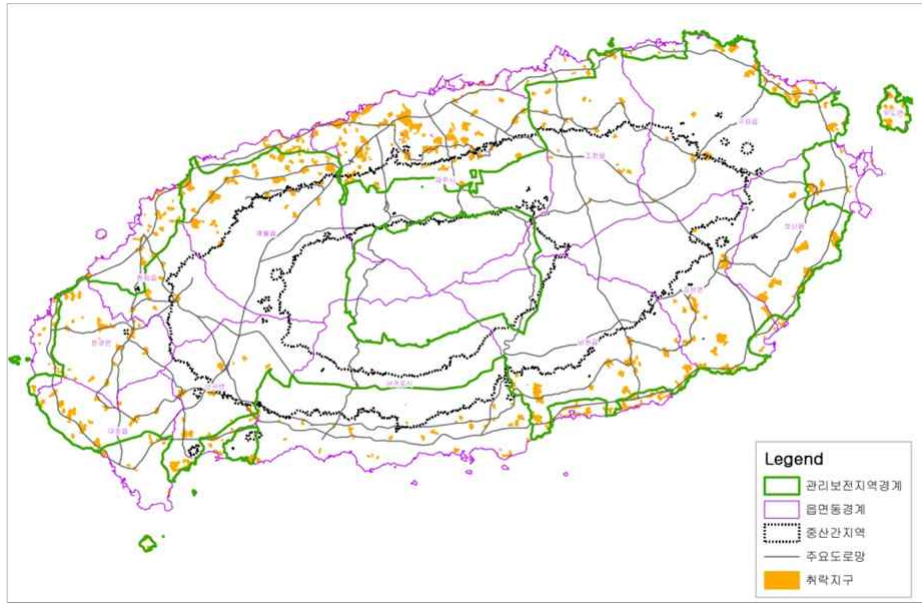


그림 2-84 취락지구 분포 현황



그림 2-85 취락지구 현황

## 2.2 유형별 경관자원 현황

### 2.2.1 건축물

#### 1) 우수건축물 독려

##### (1) 제주건축문화축제의 개최

- 이전까지는 관련 단체별로 나뉘어 건축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2005년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가 협약식을 갖고 ‘제주건축문화축

제'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여 2005년 12월 제1회 제주건축문화축제가 개최되었음(자료: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2013)

- 1년을 주기로 건축전시회, 건축포럼, 사생대회, 심포지엄, 건축영화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 제주건축문화인상 수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전까지 시·군에서 시행해오던 건축상제도를 건축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으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대상 수상작으로는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2006년), 해심현(2007년), 소암 현중화기념관(2008년), 서호동H주택(2009년), 유수암리 이성희씨주택(2010년), 제주절물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2011년), Y Resort(2012년)가 있음

## (2) 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한 건축물 신축

- 2000년대 들어 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2008년),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2008년), 제주 4·3평화공원(2008년), 제주 한라도서관(2008년), 성판악 탐방안내소(2009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2009년), 제주해양과학관(2009년), 제주복합체육관(2012년), 서귀포 다목적체육관(2012년) 등이 있음

## 2) 전통가옥

- 제주 특유의 지형, 지질, 기후, 생태, 신화, 생활양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됨으로써 제주의 건축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통가옥은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는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제주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가옥은 와가 3개동, 초가 6개동, 중요민속문화재 5개동으로 총 14개동이 파악되며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종합적 관점의 전통가옥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30 전통가옥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4호 제주도 와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호 제주도 초가	중요민속문화재
3개소	6개소	5개소
4-1 김석윤가옥 4-5 조천리 황씨종손가옥 4-6 조군현가옥	3-1 강운봉가옥 3-8 문시행가옥 3-9 변효정가옥 3-20 조규창가옥 3-45 양금석가옥 3-46 송종선가옥	제68호 성읍 조일훈가옥 제69호 성읍 고평오가옥 제70호 성읍 이영숙가옥 제71호 성읍 한봉일가옥 제72호 성읍 고상은가옥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2013

## 2.2.2 도시 공공오픈스페이스

### 1)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으며,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내권의 대표적인 모습과 하천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제주시권에 9개소, 서귀포시권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제주시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두봉공원구역이 조성되었으며, 방선문공원구역 및 원당봉공원구역이 일부조성이 되고 나머지 공원구역은 미조성되어 있음. 서귀포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공산공원구역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의 출입이 제한적임

표 2-31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구 분		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계	개 소	15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주시	9	도두봉공원구역, 해안제1,2 공원구역, 남조봉공원구역, 방선문 공원 구역, 발안생이 공원구역, 원당봉공원구역, 만조공원구역, 당산공원 구역
	서귀포시	6	제지기공원구역, 고근산공원구역, 군산공원구역, 공산공원구역, 단산 공원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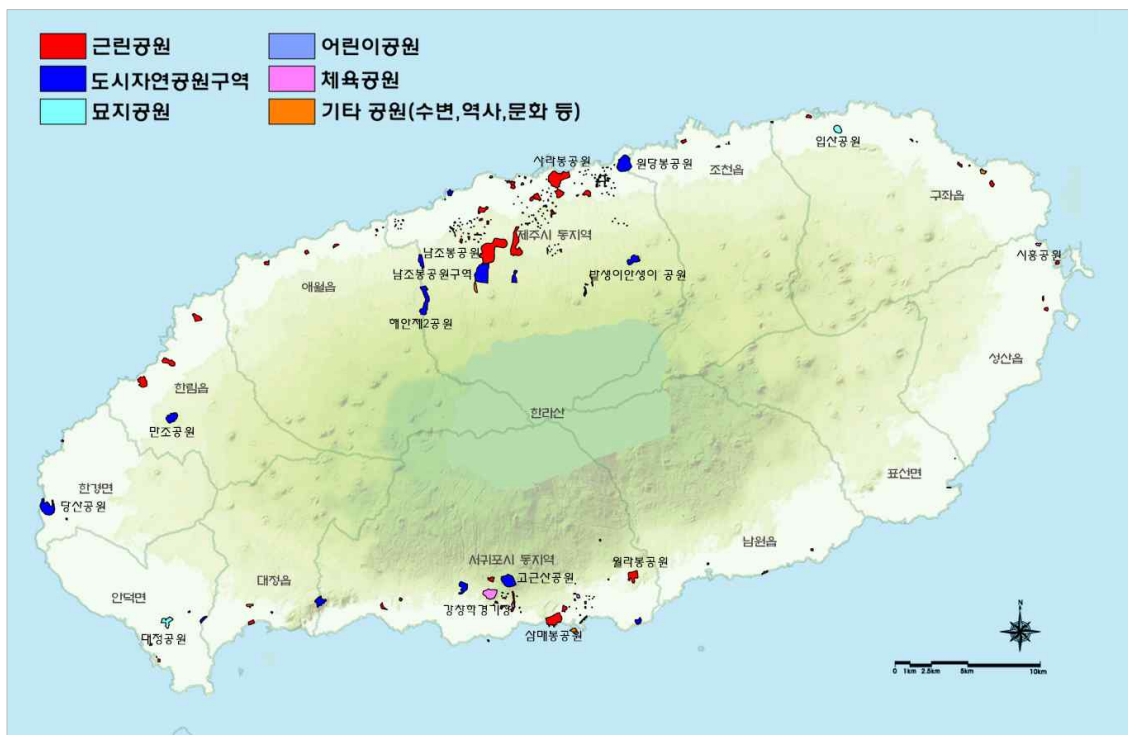


그림 2-86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 대부분의 공원면적을 차지하는 근린공원은 제주시에 54개소, 서귀포시에 30개소가 있으며 주요근린공원으로는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걸매생태공원, 삼매봉공원 등이 있음
- 제주시권에는 총 4개의 주제공원이 있으며 역사공원인 관덕공원 및 문화공원인 신비의도로 공원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용담체육공원 및 입산묘지공원이 있음. 서귀포시권의 주제공원으로는 수변공원인 새섬공원 및 체육공원인 강창학공원 등 총 7개의 주제공원이 있음
-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조봉공원구역과 같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미조성된 공원들이 경관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원조성이 동지역에 편중되어 읍면 생활권에서는 불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라봉 공원

걸매생태공원

관덕공원

새섬공원

그림 2-87 주요공원 현황

표 2-32 도시공원 현황

구 분		개소	면적	주요공원
계	개 소	252	9,954,375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주시	—	
		서귀포시	2	5,219
	어린이	제주시	127	308,898
		서귀포시	28	71,875
	근린	제주시	54	6,334,056
		서귀포시	30	1,882,372
주제 공원	역사	제주시	1	16,000
		서귀포시	—	—
	문화	제주시	1	96,930
		서귀포시	1	54,190
	수변	제주시	—	—
		서귀포시	1	104,670
	묘지	제주시	1	165,560
		서귀포시	1	274,680
	체육	제주시	1	22,530
		서귀포시	4	617,395

## 2.2.3 가로환경

### 1) 도로

- 제주도의 간선도로 현황은 구 국도 5개노선 및 국지도 1개노선, 지방도 10개 노선이 있음
- 구 국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변에 쪽으로 섬을 한바퀴 도는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선)와 중산간 지역을 한바퀴도는 중산간도로(지방도1136호선)가 있으며, 한라산의 동측면에서 남북으로 잇는 5.16도로(지방도 1131호선) 및 서측면에서 남북으로 잇는 1100도로(지방도1139호선)도로 및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귀포지역으로 서측으로 방사선으로 뻗은 평화로(지방도 1135호선)가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동쪽으로 방사선으로 뻗은 변영로(97호선)이 있음
- 지방도는 총 10개노선으로 제주시의 산간을 잇는 제1산록도로와 서귀포시의 산간을 잇는 제2산록도로 및 남원 조천을 잇는 남조로, 성산 서귀를 잇는 서성로 및 대한로, 제안로, 제성로, 한창로, 비자림로 및 추자도에 있는 추자로가 있음

표 2-33 도로개설 현황

구 분		총노선수	연 장 (km)				노폭(포장폭)
			계	포 장 도	%	미개발	
합 계		4,393개 노선	3,215.7	2,741.6	85.3%	474.06	－
구 국 도	소 계	5개 노선	453.01	453.01	100.0%	－	－
	5·16 도로(지1131)	구남군청-관덕정	40.56	40.56	100.0%	－	15 (7)
	일주도로(지1132호)	광양로-광양로	176.07	176.07	100.0%	－	24.5 (15.5)
	중산간도로(지1136호)	아라동-아라동	172.28	172.28	100.0%	－	10 (7)
	1100 도로(지1139)	중문동-노형동	35.10	35.10	100.0%	－	10 (7)
	평화로(지1135호)	인성리-광령리	29.00	29.00	100.0%	－	24.5 (16)
국 지 도	소계	1개 노선	35.82	35.82	100.0%	－	
	변영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0%	－	12~40 (7~23)
방 도	소계	10개 노선	263.8	212.84	80.7%	50.96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	27.3	100.0%	－	9 (6)
	추자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	5.9	100.0%	－	8 (6)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수~상효	43.9	36.88	84.0%	7.02	10 (7)
	한창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	14.3	100.0%	－	10~25 (7~16)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월평~어음	20.8	20.8	100.0%	－	10 (7)
	남조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	29.8	100.0%	－	12~25 (6~14.5)
	서성로 (지1119호)	하례~성산	33.9	31.23	92.1%	2.67	10~25(7~16)
	대한로 (지1120호)	하모~한림	18.0	18.0	100.0%	－	10 (7)
	제안로 (지1121호)	노형~사계	41.7	27.0	64.8%	14.67	10 (7)
	제성로 (지1122호)	선흘~온평	28.2	1.6	5.7%	26.6	10 (7)
시 군 도	소계	4,377개 노선	2,463.0	2,039.9	82.8%	423.1	－
	제주시 (시도)	3,950	1,345.6	1,243.6	92.4%	102.0	－
	제주시 (군도)	76	484.0	318.8	65.9%	165.2	－
	서귀포시 (시도)	277	229.9	227.4	98.9%	2.5	－
	서귀포시 (군도)	74	403.5	250.1	62.0%	153.4	－



그림 2-88 주요 간선도로 현황

## 2) 도로시설물

- 도로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도로표지판은 목적지 찾기가 어렵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음
- 목적지 방향별 표지판 축을 구분하고, 거리순으로 정렬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등의 정비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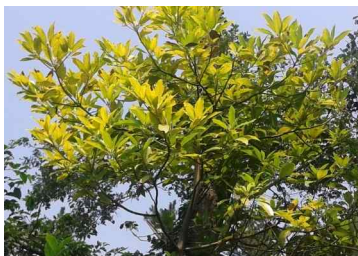


그림 2-89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 도로표지판      그림 2-90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무질서한  
관광안내표지판

출처 : 수애기 네이버블로그 (<http://blog.daum.net/chang625/14896322>)

## 3) 가로수 식재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록수 21종, 낙엽수 16종으로 상록수로는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까마귀쪽나무, 녹나무, 담팔수, 돈나무, 동백나무, 먼나무, 사스레피, 협죽도, 향나무류, 와싱턴야자, 조록나무, 종려, 참식나무, 편백, 하귤, 해송, 홍가시나무, 후피향나무, 종가시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낙엽수로는 감나무, 겹벚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홍단풍, 이팝나무, 목련, 팽나무, 배롱나무, 느릅나무, 백합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자엽자두가 식재
- 구체적으로 상록수 중에서는 후박나무(10,336주), 먼나무(7,547주), 해송(4,375주), 담팔수(4,279주), 구실잣밤나무(3,743주), 와싱턴야자(3,207주), 종려(1,278주)가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낙엽수 중에서는 왕벚나무(15,000주), 느티나무(3,334주)가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로수는 총 64,636주로 그 중 상록수의 비율이 63.69%(41,169주), 낙엽수의 비율이 36.31%(23,467)로 낙엽수 보다는 상록수의 비율이 더욱 높아 상록수가 더욱 많이 식재됨
- 수종의 분포 현황도를 보면 제주시의 도심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도 시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로수를 찾아 볼 수 있음. 도로의 경우는 주로 한 가지 종류의 수종이 도로를 따라 일렬로 식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타도시(서울시 은행나무, 양버즘나무-75%)와 비교하였을 때 후박나무, 담팔수, 먼나무 등을 제외하고 한 수종이 15%를 넘지 않아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하여 난온대 기후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수종을 활용한 가로경관 연출이 가능함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먼나무

그림 2-91 가로수 주요현황

표 2-34 가로수 수종의 분포 현황도

총 면 적	제 주 시		서귀포시	
	길이(m)	비율(%)	길이(m)	비율(%)
후박나무	30,771	25.3	21,979	28.5
구실잣밤나무	25,068	20.6	4,341	5.6
위싱턴야자	9,780	8.0	—	—
왕벚나무	9,418	7.7	5,826	7.5
담팔수-동백나무	7,384	6.1	—	—
느티나무	4,124	3.4	6,854	8.9
느티나무-후박나무	3,823	3.1	1,550	2.0
담팔수-후박나무	3,275	2.7	—	—
녹나무-후박나무	2,845	2.3	—	—
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	2,582	2.1	—	—
녹나무-참식나무	2,392	2.0	—	—
느티나무-구실잣밤나무	2,196	1.8	—	—
소나무	1,704	1.4	—	—
먼나무	1,613	1.3	11,181	14.5
느티나무-먼나무	1,561	1.3	—	—
참식나무	1,267	1.0	—	—
담팔수	—	—	11,080	
은행나무	—	—	2,634	3.4
하귤	—	—	1,481	1.9
동백나무	—	—	506	0.7
가로수 없음	121,723	2.1	9,750	12.6

#### 4) 문화·테마거리

- 제주도 내에 조성된 테마거리는 1997년 이중섭 거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곳에 이르며 사업비만 299억원이 투입되었고, 또한 제주도는 제주시 삼성혈 인근과 서귀포시 솔동산 일대 등 문화의 거리 2곳에 29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제주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6억원을 들여 테마거리 14곳을 조성하였고, 옛 제주대병원 인근 도로에도 33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예정임. 서귀포시는 114억원을 투자해 테마거리 4곳을 단장하였음
- 문화·테마거리는 행정의 활용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원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 등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의 교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퇴색된 지 오래임. 인도 포장이나 경관조명 보수, 조형물 설치 등에 그치며 콘텐츠가 없는데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각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체계적 관리도 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난해 제주시 중앙로 인근 남문로, 탑동, 관덕로, 동문로 일대의 빛의 거리와 연동 소재의 신화의 거리가 퇴출되며 사실상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정비가 필요함

- 실제 제주시는 포장면의 노후화로 보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신광로 구간에 대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 450m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콘자갈포장을 걷어내고 친자연적인 제주석과 화강석을 이용한 판석포장을 한다는 계획임. 시는 특히 신광로의 경우 바오젠거리와 인접해 쇼핑객이 많이 몰리는 거리의 성격과는 달리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수목보호대와 경관조형물 등이 많음에 따라 이를 철거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4년 동안 총 23억 원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조형물 설치와 인도정비 뿐으로 상징물 설치도 지역 콘셉트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솔동산 문화의 거리 자체를 일반 테마의 거리처럼 만들어졌으며,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문화·테마의 거리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칠성로 ‘영화의 거리’



서귀포시 솔동산 ‘문화의 거리’ 입구

그림 2-92 문화 및 테마거리 현황

#### 2.2.4 관광 및 역사문화시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일원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로서,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유일의 섬으로서 관광과 관련된 시설들이 도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음
-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지닌 제주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16개소 및 관광단지 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객이용시설업들은 소규모의 시설들은 개발행위허가로, 대규모의 시설들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유원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1) 관광지, 관광단지

-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는 3개단지 20개 관광지였으나 2010년 사업예정자 미지정 및 개발사업 승인을 득하지 못한 관광지를 정비하여 3개 관광단지 및 16개 관광지로 조정하였음
- 이후 JDC 선도프로젝트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자 제안에 의해 록인제주 체류형복합 관광단지 4개소가 추가되었음

표 2-35 관광단지 및 관광지 현황

	관광(단)지 명칭	위 치	면적(m <sup>2</sup> )
1	중문관광단지	서귀포시 중문동 2700	3,562,000
2	성산포해양 관광단지	성산읍 고성리 127-2	722,651
3	표선관광단지	표선면 표선리 40	376,970
4	신화역사공원	안덕면 서광리 일원	3,985,601
5	제주헬스케어타운	동홍동 2032일원	1,539,013
6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예동 633-3번지 일원	741,192
7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523,325
8	협재해안 관광지	한림읍 협재리 2450	238,791
9	곽지관광지	애월읍 곽지리 1385	297,863
10	금악관광지	한림읍 금악리 81-8	100,042
11	오라관광지	제주시 오라2동 산 92	2,683,686
12	봉개휴양림 관광지	봉개동 237-7	1,168,000
13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	조천읍 교래리 산119	969,731
14	함덕해안관광지	조천읍 함덕리 산14-1	380,000
15	김녕해수욕장관광지	구좌읍 김녕리 산1-1	134,012
16	묘산봉관광지	구좌읍 김녕리 산157	4,512,261
17	세화송당관광지	구좌읍 세화리 산38	2,362,800
18	미친굴관광지	성산읍 삼달리 1010	97,496
19	수망관광지	남원읍 수망리 산1	2,406,553
20	토산관광지	표선면 토산리 16	155,690
21	남원관광지	남원읍 남원리 1408	159,560
22	돈내코관광지	서귀포시 상호동 1460	198,033
23	용머리관광지	안덕면 사계리 114	254,000

## 2) 관광시설(관광지)현황

- 도 전역으로 총 165개소의 관광시설가 있으며, 공공운영 57개소와 민간운영 108개소임
- 지역별로는 제주시 75개소, 서귀포시 90개소임

표 2-36 관광지 관리 현황

구 분	합 계	공공 운영							민간 운영
		소계	문화 관광부	교육청	해양 관리단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165	57	1	1	1	18	12	24	108
제주시	75	30	1	1	1	15	12		45
서귀포시	90	27	-	-	-	3		24	63

표 2-37 공공운영 관광시설(관람지) 현황

관 리	명 칭
문 광 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박물관
제주해양관리단	우도등대
제주특별자치도 (18)	국제평화센터,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도립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수목원, 만장굴, 비자림, 제주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제주해녀박물관, 항일기념관, 현대미술관, 성산일출봉, 갯전시관, 한라생태숲, 사려니숲길,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제 주 시 (12)	용연, 용두암, 수월봉, 신비의도로(도깨비도로), 제주별빛누리공원, 노루생태관찰원, 절물자연휴양림, 제주목관아, 삼양동선사유적, 중국피난선, 항몽유적지, 우도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서귀포시 (24)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시립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외돌개, 제주추사관, 성읍민속마을, 큰영(남원관광지구), 송악산, 섭지코지, 마라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산일출해양도립공원, 돈내코, 안덕계곡,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서북전시관, 산방산(용머리, 하멜상선), 서귀포감귤박물관, 소암현중화기념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경마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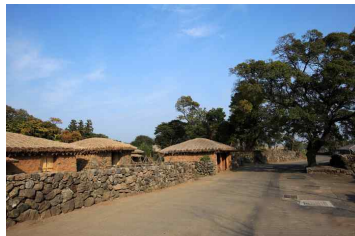
국립제주박물관



김녕 미로공원



만장굴



성읍민속마을



에코랜드

그림 2-93 주요관광지 현황

### 3) 해수욕장

- 도내 해수욕장은 총 12개소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5개소가 있음
- 해수욕장 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자랑하여 함덕 해수욕장은 앞바다에 떠있는 비양도와 아름다운 바다 색이 압권이며, 중문해수욕장은 길이 560m, 폭 50m의 활처럼 굽은 백사장과 ‘진모살’로 불리는 모래가 특색이 있음
- 이용객은 매년 약 3백만명 정도이며, 2014년에는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1백9십만명이 이용함

표 2-38 도내 해수욕장 현황

	해변별	백 사 장		이용객(명)		
		면적 (㎡)	길이 (m)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2 개소	749,250	5,610	3,036,508	3,366,026	1,938,870
제주시	소 계	429,750	3,050	1,997,170	2,249,926	1,348,720
	이호테우	42,250	650	341,570	451,410	334,100
	삼양검은모래	6,000	200	104,490	185,645	140,975
	협재	40,000	400	571,694	579,059	218,150
	금능 으뜸원	30,000	300	120,025	150,664	76,040
	곽지 과물	52,500	350	138,198	207,407	120,690
	김녕 성세기	25,000	250	62,992	27,350	43,235
	함덕 서우봉	234,000	900	658,201	648,391	415,530
서귀포시	소 계	319,500	2,560	1,039,338	1,116,100	590,150
	중문·색달	28,000	560	513,950	582,800	392,728
	신양 섭지코지	97,500	650	25,565	28,650	13,650
	화순 금모래	25,000	250	175,040	169,400	57,950
	표선 해비치	160,000	800	278,670	284,200	95,542
	하호 쇠소깍	9,000	300	46,113	51,050	30,28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주요행정총람



중문색달



함덕



협재 해수욕장



곽지



이호



화순

그림 2-94 제주지역 주요 해수욕장 현황

#### 4) 골프장

- 도내 골프장 현황은 총 37개소로 운영중인 골프장은 오라CC를 비롯한 30개소, 승인받은 골프장이 3개소이며 이외에 절차이행중인 골프장이 3개소가 있음.

표 2-39 도내 골프장 현황

구분	합계	운영중	승인	절차이행
개소	37	30	4	3
면적(㎡)	40,694,493	33,595,518	3,030,975	4,068,000
홀 수	회원	684	576	45
	대중	186	150	27
명칭	—	오 라CC, 제 주CC, 제주힐CC, 중 문GC, 캐슬렉스제주GC, 크라운CC, SK핀크스GC, 해비치CC, 나인브릿지CC, 레이크힐스CC, 플라자CC제주, 라온GC, 엘리시안제주, 스카이힐 제주CC, 타미우스CC, 블랙스톤, 샤인빌, 사이프러스, 제피로스GC, 에버리스CC, 라헨느, 한라산, 테디밸리, 세인트포, 부영CC, 우리들메디칼, 더 클래식, 에코랜드, 아텐힐, 스프링데일	오라관광지구, 이어도, 라헨느, 부영CC	서귀포관광 리조트, 블랙 나이트, 내쇼날CC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주요행정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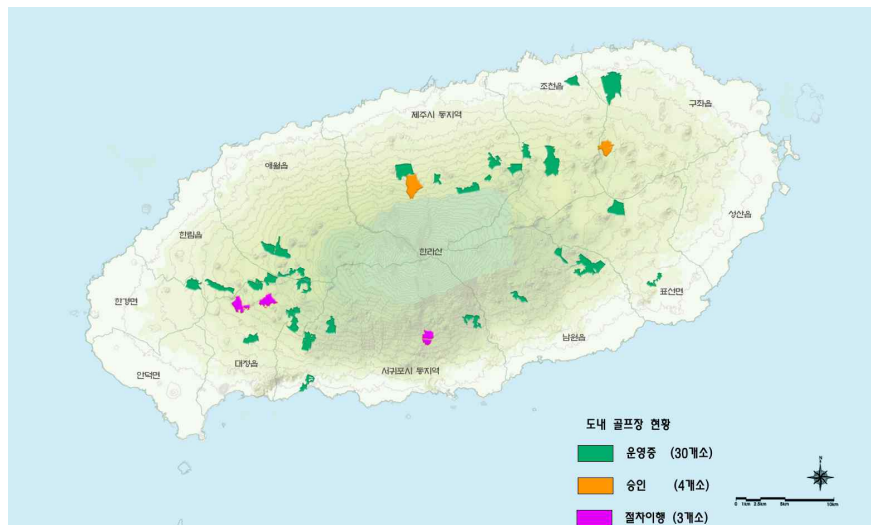


그림 2-95 골프장 현황

비고 : 부영CC, 라헨느 골프장은 운영중으로 표시

## 5) 올레길

- ‘올레’라는 말은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며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2007년 제1코스 2007년 9월 8일 제1코스(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 총 15km)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 기준 26코스까지 개발되었음.
-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km 이내이며, 평균 소요시간이 5-6시간 정도임.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도 있는데,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지속적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기존 길을 탐사하고 걷기 좋은 길을 선별하여 서로 연결하여 코스를 만드는 형태이며, 필요한 경우 폭을 넓히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식으로 걷기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수행됨
- 코스별로 바다전망이 좋은 곳, 목장을 지나가는 곳, 오름을 오르는 등산기분을 낼 수 있는 곳, 계곡을 볼 수 있는 곳 등등 그 코스만의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각 올레에는 바닥이나 나무, 돌 등에 파란색 화살표가 끊임없이 표시되어 있어 초행자를 위한 배려를 하였음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 올레코스 중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 코스 정비와 표식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함
- 2007년 9월 1코스가 개발된 이후 2015년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올레길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며, 2014년의 경우 117만 6,000명이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같은 기간중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228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방문객의 약 10%가 올레길을 방문한 것임



그림 2-96 올레길 코스 현황도

## 6) 관광개발현황

- 도내 총 38개소의 관광개발사업장 중 일부준공하여 운영중인 곳이 23개소, 착공하여 공사 중인 곳이 9개소, 공사지연 중인 곳이 4개소이며 사업승인은 받은 곳은 2개소임
- 지역별로는 제주시 17개소, 서귀포시 21개소임

표 2-40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현황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38	17	21
일부준공 (운영중)	23	봉개관광지, 함덕관광지, 묘산봉관광지, 라운더마파크, 폴로승마리조트, 에코랜드, 아덴힐리조트, 셰프라인체험랜드, 라운프라이빗타운	중문관광단지, 표선민속관광지, 성산포(보광), 롯데리조트, 성산포(해양과학관), 남원관광지(1차,2차), 토산관광지, 미천굴관광지, 수망관광지, 한라힐링파크, 산천단(2차), 우리들매디컬, 테디벨리골프&리조트
착공	9	제주여성테마파크, 무수천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관광단지, 백통신원제주리조트, 핑크스비오토피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삼매봉
	4	오라관광지, 제주동물테마파크, 풍산드림랜드,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
사업승인	2	이호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주요행정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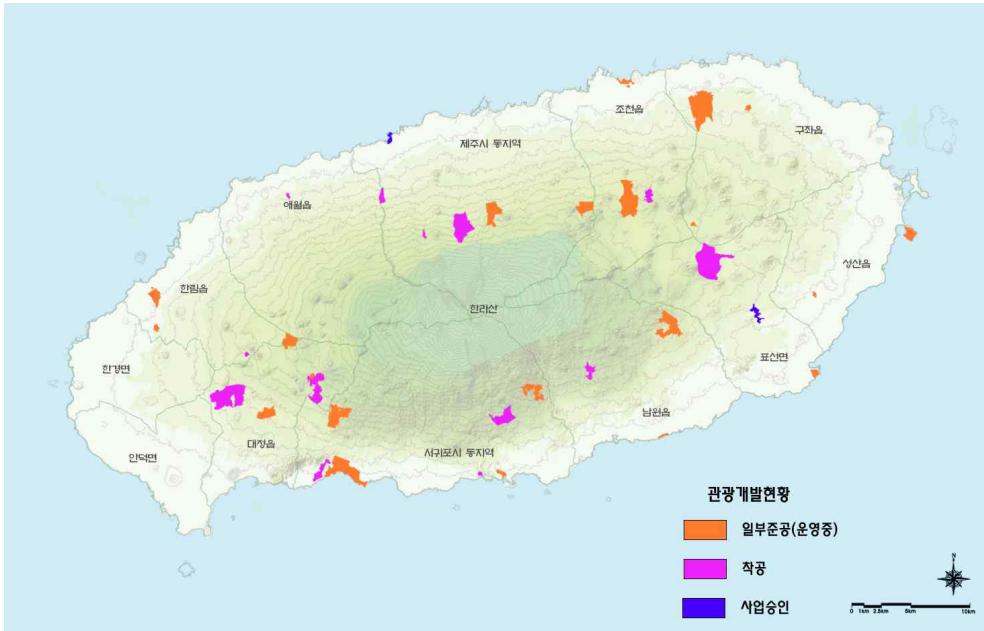


그림 2-97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위치도

## 7) 관광문화경관 관리현황

- 관광문화경관자원에 대한 관리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28개소로서 제주시 9개소(3,724천㎡)와 서귀포시에 19개소(15,249천㎡) 등 총 28개소(18,973천㎡)가 시설결정 되어 있음
-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설치가 이루어지므로 지정 및 개발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표 2-41 유원지 현황

구 분	시설결정 (개소)	면적 (천㎡)	시설결정 유원지
합 계	28	18,973	(28개소)
제주시	9	3,724	무수천, 산천단, 삼양, 이호, 협재, 김녕, 조천, 재릉, 함덕
서귀포시	19	15,249	중문, 강정, 오렌지파크, 천지연, 정방, 예래, 우보악, 삼매봉, 우리들메디칼, 송악산, 롯데리조트, 남원, 성산포해양, 색달온천, 표선민속, 테디벨리, 신화역사, 돈내코, 헬스케어타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0년 기준 총 51개소로 제주시 33개소(30,593천㎡), 서귀포시 18개소(17,736㎡)가 지정되어 있음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편입면적 10%~20% 미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인 곳에 지정될 수 있으며 최소개발면적은 3만㎡임

표 2-42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구 분	시설결정 (개소)	면적 (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합 계	51	48,329	(51개소)
제주시	33	30,593	제주대중골프장, 오라관광지구, 봉개휴양림관광지, 회천관광농원지구, 명도암관광휴양목장, 라헨느리조트, 여성테마파크, 캐슬렉스제주골프장, 그랑블리조트, 블랙스톤리조트, 라온 더 마파크, 제주 프시케 테마파크, 제주경마장, 엘리시안컨트리클럽, 애버리스골프리조트, 광지관광지구, 로드랜드컨트리클럽, (주)뇌호흡교육, 이어도컨트리클럽, 묘산봉관광지구, 세화송당온천관광지구, 춘강메가파크, 제주 폴로 승마리조트, 제주트리빅 리조트, 세프라인체험랜드, 동물테마파크, 미니랜드, 돌문화공원, 크라운컨트리클럽, 비치힐스리조트
서귀포시	18	17,736	생각하는 정원, 라온골프클럽, 유리의 성,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신흥관광지구, 수망관광지구, 더클래식골프&리조트,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제주위미영상관광휴양지구, 미친굴관광지구, 용머리관광지구, 나인브릿지골프장, 캐슬렉스제주골프장, 핀크스골프장, 소인국테마파크, 한라힐링파크, 블랙나이트리조트, 토산관광지구(사인빌), 정석비행훈련원,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2.2.5 야간경관

- 제주시 신시가지의 간선도로에는 간판정비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간경관이 양호한 편임
- 해안변은 단일 대형의 건축물 및 나홀로형태의 건축물이 과도한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2-98 야간경관

## 2.3 경관 사례지구 분석

### 2.3.1 경관 및 관리계획(2009)의 경관사업

#### 1) 경관시범사업 :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시범지역(test sites) 작업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5개 시범사업지역이 선정됨
- 제안된 시범사업의 사전검토를 통해, 우선 1-2개 경관개선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경관개선효과를 토대로 향후 타 시범사업 및 유사한 경관개선사업의 합리적인 방향설정 작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제안된 5개 시범사업지역은 경관개선시범사업에서 제시된 계획으로 시행되지 않음
  -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 산지천변 연속 보행로 조성사업
  -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안 정비 사업
  - 천지연 폭포입구 경관개선사업
  - 탑동 서부두 횡집거리 공공미술 사업
- 조천리 경관개선사업은 마을 가로중심으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조천리의 마을진입로 개선, 비석거리 복원, 조천리 공부방 개선, 조천성당 개선, 안내판 디자인,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그림 2-99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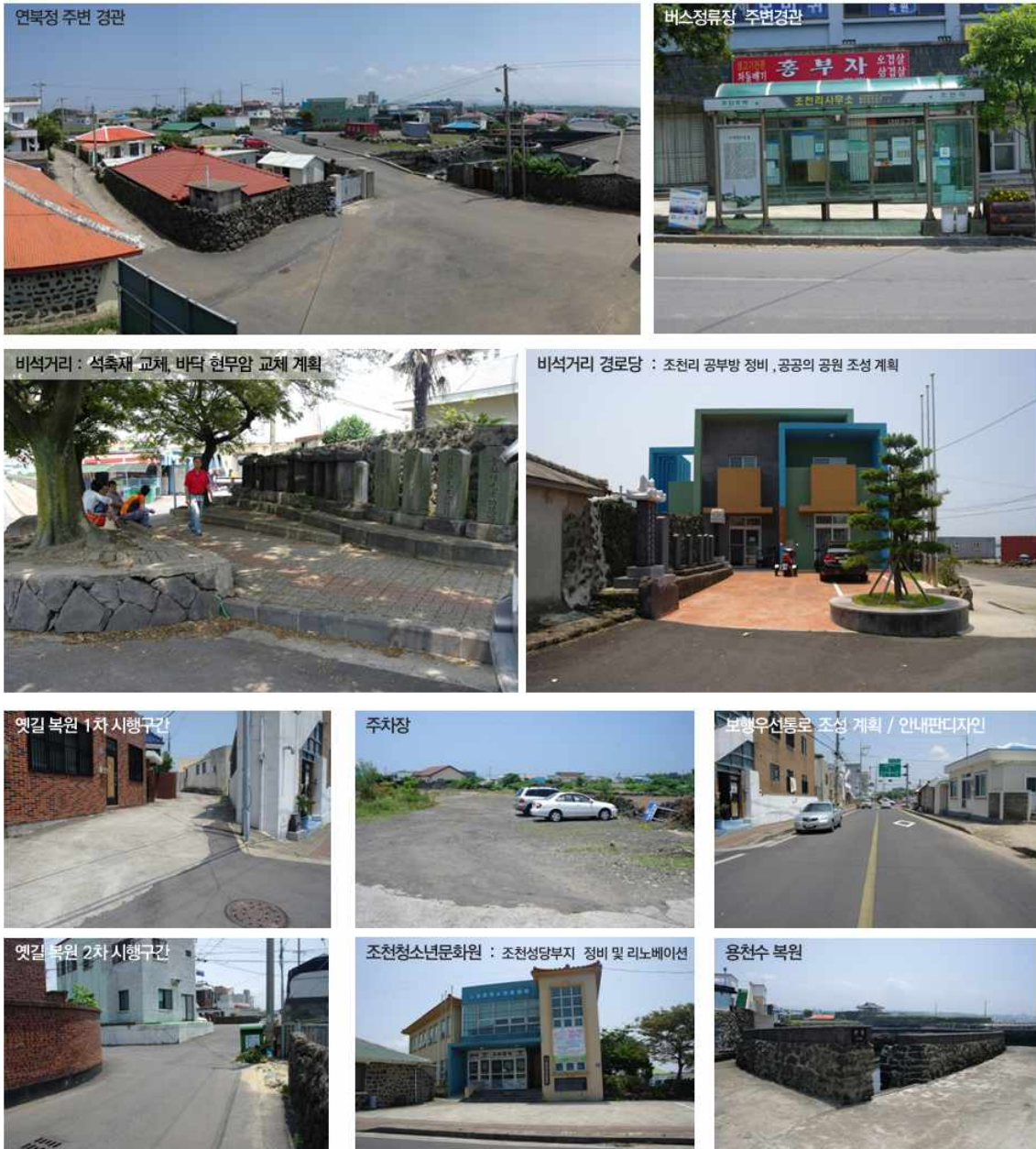


그림 2-100 조천리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현황

## 2) 경관후속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에서 후속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은 일부만 계획이 수립됨
-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제주옥외광고물 문화 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제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도로 안내시설 등 디자인개발, 제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사업이 후속으로 제안된 사업임

표 2-43 후속사업 현황

후속사업 제시	계획수립	비고
구도심 골목길 녹화	-	-
마을입구 인상 만들기	-	-
마을 공가/폐가 활용	-	-
마을별 경관보존수목 지정과 관리	-	-
마을 연못과 물길 복원	-	-
재료 가이드라인 개발	-	-
경관색채 관리시스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3.3.15
글꼴 계획을 통한 안내판 이미지 개선	-	-
가로시설물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제주특별자치도, 2012.2
보행자용 안내판 체계 개발	-	-
옥외광고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제주옥외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제주특별자치도, 2013.2.9
야간 조명 안정화 및 활성화	-	-
버스 관련 디자인 개선 사업	제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3.2.8
택시 관련 디자인 개선 사업	제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3.2.8
자전거 관련 통합 디자인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도로 안내시설 등 디자인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13.5.19

### 2.3.2 가로경관 사례 지구 분석 : 제주시 이도2지구단위계획구역

#### 1) 일반적 현황

- 제주시 이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4년 2월 제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주시 이도2동 799-2번지 일원에 945,522㎡의 면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있는 중앙로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 계획되어졌음
- 신시가지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이 남향이 되도록 가구를 계획하였고, 지형조건과 기존 밀집주택군을 고려하고 모든 택지는 반드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였음.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82만 8,833㎡의 녹지를 대상으로 일반용지 50만4,793㎡, 공공시설용지 29만4,039㎡가 조성되어, 2,560세대 1만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음.
  - 세부적인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일반건설용지 64.5% 중 체비지는 6.2%로 80년대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체비지 비율이 낮은 사례에 속함.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35.5%가 조성되었는데, 도로가 2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공원이 3.9%였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도2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취락지의 정비와 무질서한 난개발방지라는 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제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와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시가지 형성을 통해 도시 전체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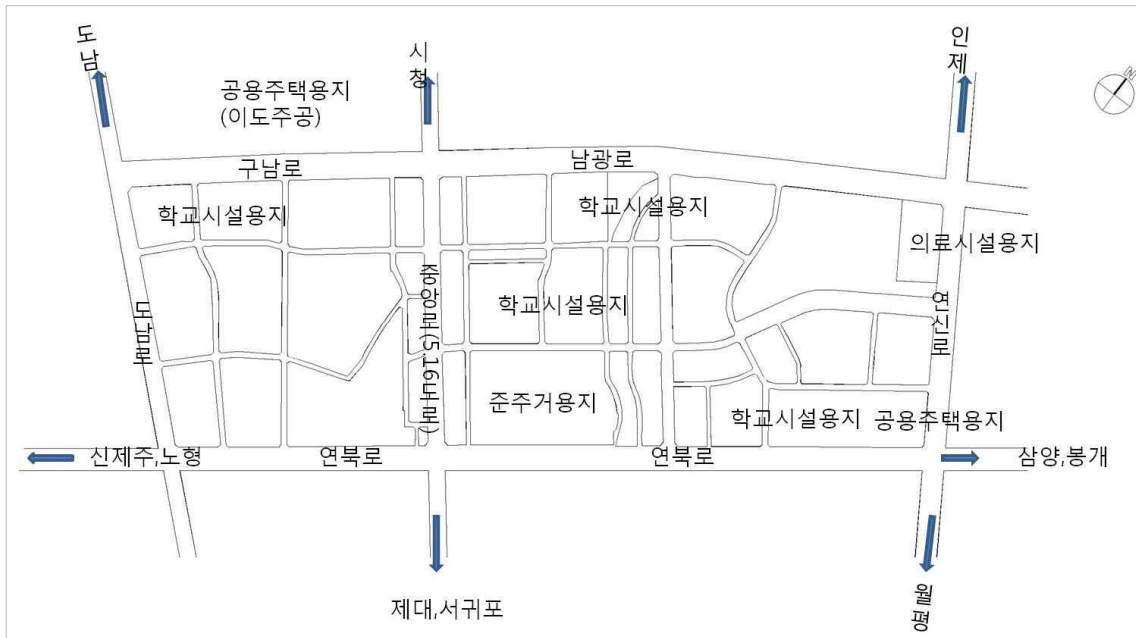


그림 2-101 이도2지구 전체 현황도

## 2) 지구단위계획 현황

### (1) 가구 및 획지계획

- 중앙로에 면한 가구는 차량이 이면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1열로 구성하되, 기존 건축물이 입지한 필지는 2열로 구성되어 있음. 환지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변화감 있는 외부공간 창출을 위해 도로에 접한 정도에 따라 획지가 분할되어 있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업무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획지의 규모는 165~2,810㎡로 계획되어 있음
- 획지의 합병은 최대 획지구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 및 환경악화방지를 위해 획지의 분할은 불허하고 있음. 중앙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맞벽건축을 권장하고 있음

### (2) 건축물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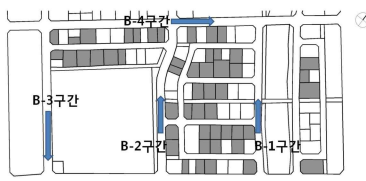









- 중앙로의 상업용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간선도로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적절한 용도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가로경관 형성 및 주택용지의 상업수요 충족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적격용도,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도는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시설의 입지를 배제하고 있음
- 중앙로변의 보행환경개선 및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음. 또한 이면도로변에 활발한 보행활동을 통한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음. 연도의 건축물은 건축물 전면을 간선도로를 향하도록 하고, 가각에 접한 대지 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벽면의 방향이 도로 방향과 일치하도록 배치하고 있음

###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지붕은 경사지붕 및 패러페트로 설치하도록 하고, 패러페트로 설치시에는 옥상정원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지붕의 경사도를 30°~60° 범위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옥상부분의 냉각탑,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는 3면 이상

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로변의 건축물은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1층 바닥높이는 보도와 20cm 이하로 하여 보행흐름 및 보행약자의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1층 개구부의 높이와 층고는 인접 건축물과 일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표 2-44 조사대상지 현황도

A 블록				
				
A-1	A-2	A-3	A-4	
				
폭10m 도로구간으로, 준 주거부분의 건축물이 없어 개방감이 확보되어 있음	폭20m의 보차분리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좌측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대비	폭18m의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좌측에 초등학교 위치해 있음	폭12m 도로로 가로로 단지를 관통하는 직선도로이나 교통량은 그다지 많지 않고, 도로 중간에 초등학교가 위치함	
B 블록				
				
B-1	B-2	B-3	B-4	
				
산지천과 인접한 10m폭의 도로와 산지천으로 건물군과 녹지축이 양립해 있음	폭18m 도로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좌측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음	폭10m의 차량이동이 많은 가로로, 학교로 인한 오픈공간으로 인식되어 개방감 확보	폭12m 도로로, 가로로 단지를 관통하는 직선도로로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됨	
C 블록				
				
C-1	C-2	C-3	C-4	
				
폭35m도로로 차량 이동량이 가장 많은 연북로에서 시각적 개방감이 가장 높음	폭8m도로로, 보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층의 높이제한으로 시각적인 개방성 확보	폭15m 도로로, 단지를 관통하는 직선도로이며,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음	산지천과 인접한 10m폭의 도로와 산지천으로 건물군과 녹지축이 양립해 있음	
※ ■부분은 조사 대상 건축물이며, □부분은 나대지임.				

### 3) 가로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디자인 구성요소 분석

#### (1) 1차적 디자인 구성요소

##### 가. 수평형상

- 먼저 수평적인 매스의 변화감을 느끼게 하는 형상으로 건축물의 수평적 구조와 관련된 형상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공간활용이 효율적인 박스형의 경우가 조사대상 건축물 전체의 58.22%로 과반수가 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장방형은 36.52%, 절단형이 6.16%를 차지하고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순수 기능 해결을 위해 박스형과 장방형 형태의 공간효율이 높은 형태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쪽으로 주차진입을 하게 되어 있어 위계가 높은 도로쪽은 변화있는 형태로의 접근 및 단조로움, 개방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가로변 건물군의 통일성은 유지하고 있음
-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관제어요소로는 가구의 획지계획 조건, 용적률 및 높이를 들 수 있는데, 특히 가구의 획지분할 규모 및 세장비는 수평형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도2지구에서는 가구의 획지세장비가 1:1.2~1.5로 부지의 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워 대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박스형의 수평적 형상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획지병합을 한 경우나 분할한 경우 1:1.4~1.7로 대지의 형상에 따라 장방형의 수평형상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며, 대지가 도로의 교차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시야 및 인지성 확보를 위해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한 형상으로 계획되어짐

##### 나. 수직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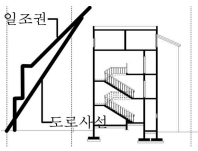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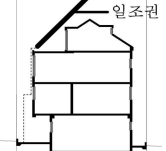
- 수직적인 매스의 변화감을 느끼게 하는 형상으로 건물의 수직적 구조와 관련된 수직형상은 일반형이 82.1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상부 일부 돌출형, 상층부분 층단형은 8.22%, 상층부분 층단형 2.74%, 불규칙형은 6.85%로 조사됨. 이러한 건축물의 형상이 연속된 가로변을 형성할 경우에 통일적이며 조화로운 가로경관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조상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이 법적으로 형태를 좌우할 수 있는 도로사선제한, 정남 일조권, 그리고 3층의 층수제한에 대하여 도로폭 및 적정한 건축물의 배치를 만들면 상층으로 갈수록 층이 생기는 형태는 적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법적 사항은 복합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적인 적용을 하여도 건축물의 매스형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매스유형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층단형의 경우 일조권에 의한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생겨나는 형상으로, 일부 도로에 면한 주차 시 그 면적을 일조권 방향으로 면적을 차지하게 되어 층단형 형상이 생긴 경우로 판단됨. 하지만 법적인 사항에서 일조권 9.0m 이하부분의 이격거리가 1.5m로 변경되어 법적인 제약으로 인한 층단형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수직적 형상은 경관제어 요소에서 높이,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한 규제요소를 통해 제한 받고 있음. 이도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각각의 규제높이는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적용되고 있음
- 단독주택용지 용적률의 경우 150%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200%로 제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대상지는 50% 적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하여 수직형상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유리한 일반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 공간의 극대화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의 경제적인 면이나, 건축물에

대한 규모에 대한 기본정리 그리고, 순수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형상이 자유로웠고, 법적인 사항보다 작게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형상이 상부일부 돌출형이나 층단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45 디자인 구성요소의 유형별 분포 현황

	구분	유형	사례	건물수	비율(%)
수평 형상	박스형			85	58.22
	장방형			52	36.52
	절단형			9	6.16
	자유형	—	—	0	0.0
수직 형상	일반형			120	82.19
	상부 돌출형			12	8.22
	상부 층단형			4	2.74
	불규칙형			10	6.85
지붕 형상	평지붕			1	0.68
	박공형			57	39.04
	볼트형			3	2.05
	외경사형			2	1.37
	박공+ 평지붕			75	51.37
	볼트+ 평지붕			3	2.05
	불규칙형			5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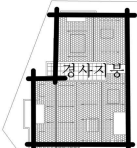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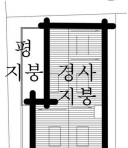
표 2-46 일반형과 상부층단형 도면사례

	일반형	상부층단형
내용	<p>정남일조로 남측 전면도로의 경우 일조권 영향이 적음</p> <p>도로폭이 8.0m 도로폭이나 3층의 층수제한으로 인한 높이의 영향이 적음</p>	<p>필지면적이 소형일 경우, 일조권방향으로 주차를 두어 일조권에 의한 이격거리를 공유하는 배치를 하고 있음</p>
사례	 	 

#### 다. 지붕형상

- 건축물의 최상부 형상과 관련이 있는 지붕형상의 경우 박공형상지붕이 90.41%로, 박공지붕이 39.04%, 박공지붕과 평지붕 복합형이 51.37%동, 볼트형과 외경사형이 각각 2.05%, 1.37% 그리고 불규칙형이 3.42%로 조사되었음. 이는 다락이라는 공간이 만드는 기능적인 면이 있기도 하나, 조사 대상지의 외관형태에 관한 제약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제17조 건축물의 형태 항목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지정되어 있음. 경사지붕 속의 공간은 건축주의 요구 및 취향에 의해 다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높은 천정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뉘짐. 지붕 속의 공간은 외관상 내부공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형상적으로 지붕을 만들어야 하는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붕이라는 통일적 요소로 계획되고 있음
- 이도2지구에서 발견된 특성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상의 법적제약에 의한 적용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경사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음. 경사지붕에 대한 건축사의 판단에 따라 박공형, 볼트형, 외경사형 등 여러 유형이 조사가 되었음. 복합형인 박공+평지붕, 볼트+평지붕의 경우 복합적 디자인에 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조권이라는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결론지어진 경우도 조사되었음. 이러한 지붕형상은 지붕형태에 다양함을 부여하고, 수직형상에 대하여서도 상부에 층단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7 박공형, 박공형+평지붕 도면사례

	박공형	박공형+평지붕
내용	<p>이도2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박공형 디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p>	<p>일조권에 의한 후퇴된 매스로 층단형 매스를 만들어 내고, 지붕층에 자연스럽게 평지붕을 만들어 냄</p>
사례	 	 

(2) 2차적 디자인 구성요소

표 2-48 2차적 디자인 구성요소의 유형별 분포 현황

	구분	유형	사례	건물수	비율(%)
입면 유형	일반형			68	46.58
	수평형			68	46.58
	수직형		—	0	0.00
	불규칙형			10	6.85
입면 패턴	반복 배열형			88	60.27
	대칭형			16	10.96
	중심형			14	9.59
	불규칙형			28	19.18
가로와 건축물의 접속 유형	일반형			54	36.99
	전면 후퇴형			26	17.81
	상층부 후퇴형			1	0.68
	저층부 후퇴형			65	44.52
출입구 위치	중심			48	32.88
	가장자리			36	24.66
	양쪽			27	18.49
	중심과 가장자리			8	5.48
	내부			27	18.49

### 가. 입면유형

- 입면유형의 경우 일반형, 수평형이 46.58%, 6.5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불규칙형이 6.8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 1층은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2, 3층은 주거용도의 시설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으로 계획되어져 2, 3층이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진입을 위한 도로변이나 개구부가 남향으로 위치가 정해지고, 1개층의 평면을 가지고 2, 3층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획일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직형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3층이라는 법적인 제약과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직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대상지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부지면적, 같은 법적 적용을 받는 필지이기에 법적인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3층에 건물주를 위한 주거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들은 건축물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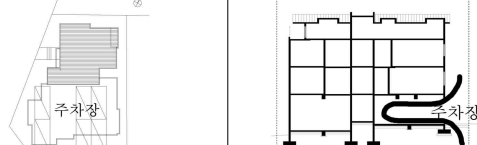
### 나. 입면패턴

- 건축물의 입면패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 구간에서 반복배열형이 60.27%, 대칭형과 중심형이 10.96%, 9.59% 그리고 불규칙형이 19.18%로 나타났다. 반복배열형과 대칭형 그리고 중심형과 같은 통일성이 강한 입면패턴이 80.82%를 차지하여 가로경관에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입면구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입면패턴을 추구하는 경향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선택 또는 디자인적 의미에서 복잡한 주변환경과 구별되려는 성격의 부여라기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임대성이 강한 기능들이 1, 2, 3층으로 적층되면서 입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임대의 형식은 경제적 능력 및 경제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주의 현실적 생각을 건축사가 반영하면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적으로 건축디자인의 결정이 건축주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도 현실적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다. 가로와 건축물의 접속유형

- 건물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가로와 건축물의 접속유형의 조사로서, 가로와의 접속은 차량에 대한 법적인 접속 방법이 형태나 건축물의 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차량의 주차에 의한 저층부 후퇴형이 44.52%, 차량으로 인해 건축물이 후퇴되거나 옆으로 밀린 일반형이 36.99%, 전면후퇴형이 17.81% 그리고 상층부 후퇴형이 0.68%로 조사됨
- 가장 많은 사례가 조사되고 있는 저층부 후퇴형의 경우는 건축물의 가로변과의 접속 특성상 주차면적과 상층부의 효율적인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에서 많이 나타남

표 2-49 전면부 후퇴형, 저층부 후퇴형 도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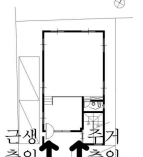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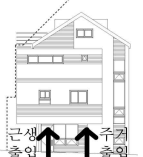
	전면부 후퇴형	저층부 후퇴형
내용	도로에 면하여 주차를 해결하고, 일조권의 이격거리와 공유하여 주차를 해결하고 건축물은 주차공간을 제외한 전면 후퇴형 건축물 사례	건축물의 가로변과의 접속 특성상 주차면적과 상층부의 효율적인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유형으로 조사됨
사례		

- 법적인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주차방법(자주식), 용도 등에 의해 1층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차장인데, 가구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1대의 주차장을 갖는 순수 단독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가진 곳이 대부분이므로 기본 2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함. 또한 주차방식이 직각주차방식으로 밖에 허용되지 않아 도로경계선에서 기본적으로 5m를 확보해야 하므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이 적정 유형이 되고 있음. 일반형의 경우에는 1층에 상업적 기능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상업기능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경우임.

#### 라. 출입구 위치

- 출입구의 위치와 관련한 유형은 중심에 둔 경우는 32.88%, 가장자리의 경우에는 24.66%, 이 2개의 경우가 57.4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주거용도가 주된 건축물일 경우 계단실을 중심으로 한 출입구의 위치로 인해 각 주거의 기능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층부분에 상업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업기능으로의 주진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하기 위하여 출입구의 위치를 가장자리에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2층 이상의 주거용도의 공간으로의 진입이 가장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출입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됨

표 2-50 출입구 양쪽 내부 도면사례

	양쪽	내부
내용	1면도로에 면하여 2개소의 출입구를 만들어 내고, 근생부분과의 출입구 분리를 하는 대안으로 조사됨	1층의 출입구와 관련하여 근생부분과의 출입공유를 피하고, 주차장으로 인한 저층부가 후퇴된 부분에 출입구 설치
사례		

### (3) 3차적 디자인 구성요소

#### 가. 외벽재 및 지붕재

- 건축물의 표면을 이루는 외벽재의 경우 타일마감이 30.82%, 드라이비트마감이 48.63%로 두 마감재가 이루는 비율이 79.45%에 달하고 있음. 이는 기존 도시지역의 건축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재와 차이가 없으며, 신도시로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외벽재료의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석재인 화강석, 제주관석 등으로 외벽을 마감하는 경우는 13.70%로 조사되었다. 마감재의 선택은 임대용 건물, 자가건물 등 건축주의 건축물 활용방법 및 경제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건축주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의식향상으로 인해 제주관석 등 향토적 재료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제주석 및 화강석으로 마감되는 사례들이 10m 이상의 가로변에서 많이 조사되는 이유는 건축물의 상업적 특성을 가미하여 형성되고 있는 가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외벽재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건축물의 벽체에 단일재료로 사용된 경우보다 2개 이상의 외벽재가 혼합된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단층의 경우는 단일재료로 마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2층 이상의 경우들은 건축물의 입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짐에 따라 입면의 분절에 따른 스

케일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외벽재로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1층 기능이 상업시설로 분리가 되는 경우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구분을 지어주는 방법으로 재료의 혼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조사됨.

- 지붕재의 경우는 지붕과 벽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외벽재료와 다른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조사된 재료는 기와 51.37%, 아스팔트 싱글이 34.93%로 조사됨. 대부분 건축물의 지붕형태가 박공지붕이므로 이러한 지붕형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와를 선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될 때는 기와 대신에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 들어 징크 및 칼라강판 등 금속재가 13.01%(19동)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모더니즘적 디자인에 부응하기 위해 아스팔트 싱글이나 기와에 비해 고가이지만 현대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금속재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나. 색채

- 색채는 이도2지구단위계획으로 기본적인 색채계획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도지구 건축물의 색채계획 기본방향은 조화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도2지구단위계획지침의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주시의 독자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정한 색을 기조로 하되, 원색(5R, 5Y, 5G, 5P)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주조색은 제시된 색상 범위 내에서 고명도(7.5~8.5), 저채도(1.5~2.5)의 색상을 선택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시키고, 보조색은 주조색과 유사한 계열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에서 계획할 수 있음. 강조색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저명도(1.5~2.5), 고채도(5.5~9.0)의 원색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지붕색은 외벽과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되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기와 등 지붕재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의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2-51 외벽, 지붕마감과 색채의 유형별 분포 현황

	구분		사례	건물수	비율(%)
외벽재	타일			45	30.82
	목재			1	0.68
	석재			20	13.70
	드라이비트			71	48.63
	조립식패널			1	0.68
	비닐사이딩			8	5.48
지붕재	청글			51	34.93
	기와			75	51.37
	금속			19	13.01
	석재			1	0.68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채	R계열	적색	27.40	10.96	18.49
		주황			
	B계열	청색	0.00	0.00	0.68
		자주			
	Y계열	황색	36.30	7.53	2.74
		황녹			
	G계열	녹색	0.68	0.00	0.68
		녹청색			
	W계열	백색	35.62	17.12	8.90
회색					
없음			0.00	64.38	68.49

자료 : 박철민, 가로경관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 분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2007.9

## 2.4 경관관련 계획 및 법

### 2.4.1 관련 계획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 국토형성의 기본목표는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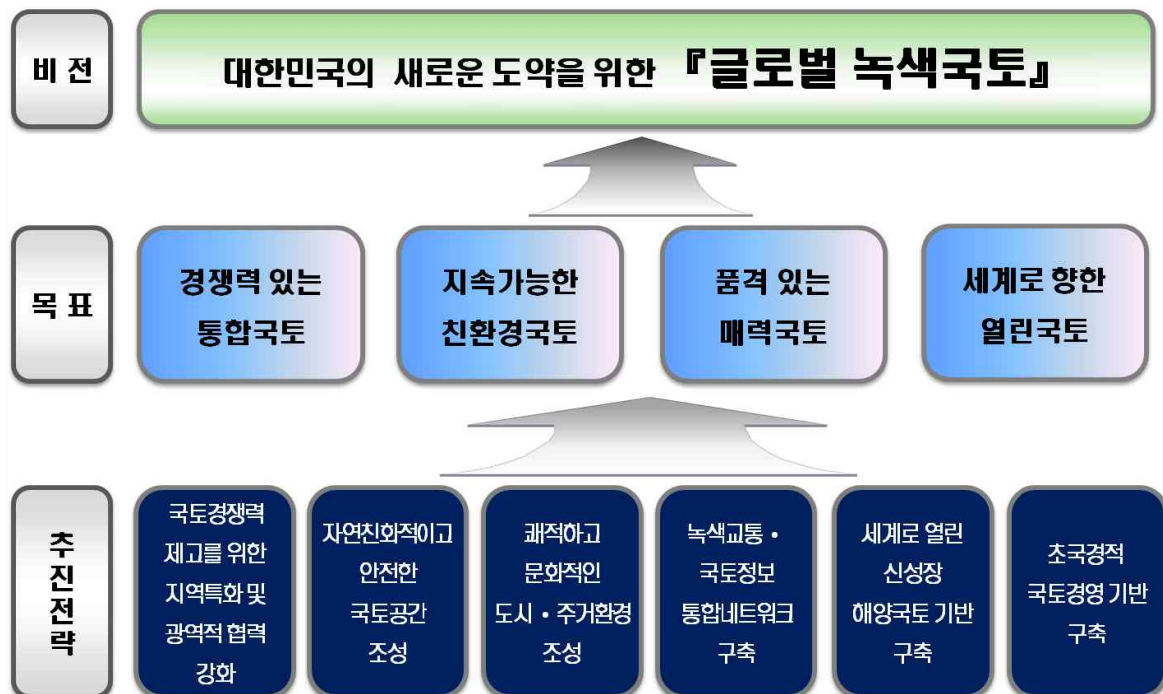


그림 2-102 계획의 기본 틀

##### (2)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방향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 기반 강화
-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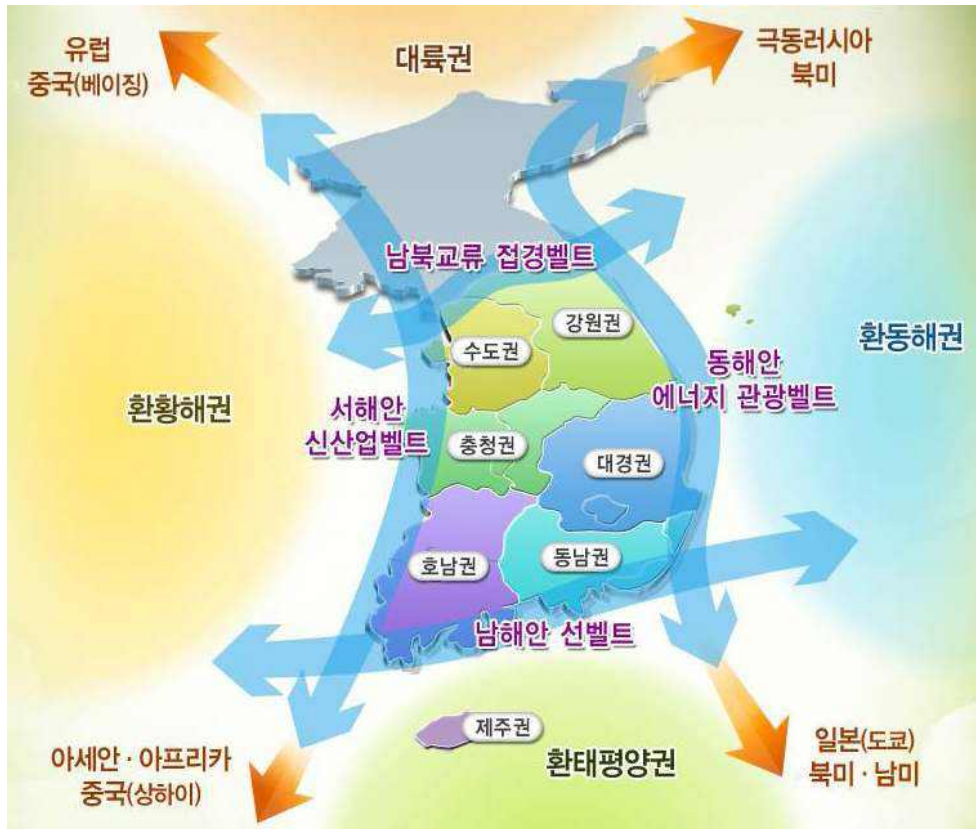


그림 2-103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3) 추진전략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가. 추진과제 : 江·山·海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①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

- 품격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
  - － 계획과 설계의 통합, 지역별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설정,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집 보급, 가로 및 간판 정비,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추진
- 녹색국토 형성을 위해 국가조망점(주요 명승, 주요 강·산·해중우수조망점)과 지역 조망점(주요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주요 가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
  - － 경관조망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점을 국가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국가조망점별 전략조망경관을 설정하고 경관 훼손을 관리
- 강·산·해 등 경관·생태 우수지역을 연결하는 국토녹색길 조성
  - －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문화시설이 융합된 국토녹색길 조성
  - － 생태형, 여가형, 건강형, 역사·문화형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간행태 및 생태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국토녹색길을 2020년까지 5,000km 조성
- 국토녹색길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제도적·정책적 전략 추진
  - － 장기 국토녹색길 기본계획, 실행계획 성격의 전국 국토녹색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관련 공간계획에 국토녹색길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 － 국토·광역·지역·도시 등 공간위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우선적으로 4대강, 백두대간, 동·서·남해안 등 연안, 옛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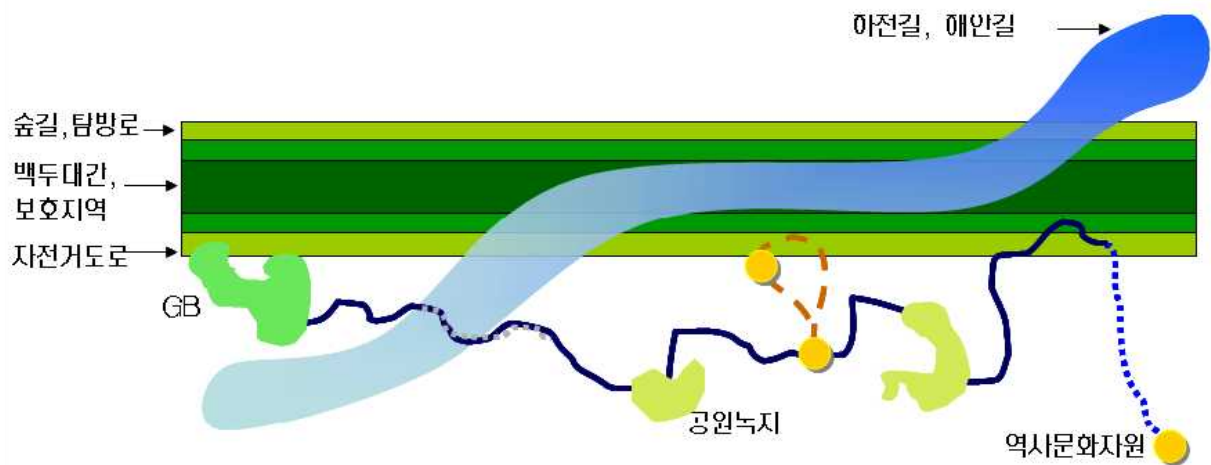


그림 2-104 국토녹색길 개념도

#### (4) 추진전략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가. 추진과제 :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 ① 한국적 문화이미지를 표현하는 도시경관 형성

- 도시의 주요 조망대상의 스카이라인, 조망축, 천공차폐율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제도 등을 정비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경관계획 심의 강화, 지자체 조례에 의한 개별 건축물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 거리 조망 확보를 위한 각종 교통안내·안전시설물, 대형광고판 등 각종 교통시설물과 가로시설물의 통합정비
-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계획을 작성하고 중심거점이나 거리를 정비
  -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징중심거리, 도시뒷골목 생활거리, 광장, 주요유적지 주변 등을 정비
  - 전통건축·도시의 공간특성과 이미지를 현대화하여 계승한 건축물, 주택보급확대
  - 한국적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적 형태, 재료, 색채 등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5) 권역별 발전방향 : 제주권

- 비전 :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국제자유도시
- 기본목표
  - 국제교류·관광·문화 중심의 관광휴양지역화
  -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확보 지역
  - 청정환경,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성장의 모범지역
- 권역의 발전방향
  -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 공간구조 개편
  - 국제자유도시 기반 육성
  -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청정환경 보전 및 녹색성장도시 실현
  - 모범적 자치시스템 구축

## 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 가. 기본목표, 중점과제

- 기조전략 : 대중국 공략 :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으로써 중국 시장에 주목
-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 국제적 경제거점이 되기 위한 제주의 산업 기반 및 정주환경을 개선
- 관광·휴양경쟁력 강화 : 관광·휴양거점으로써 제주가 갖는 경쟁력 극대화
-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 지역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출하고 개방성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 융복합을 도모



그림 2-105 제주의 전략 방향

### 3)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 (1)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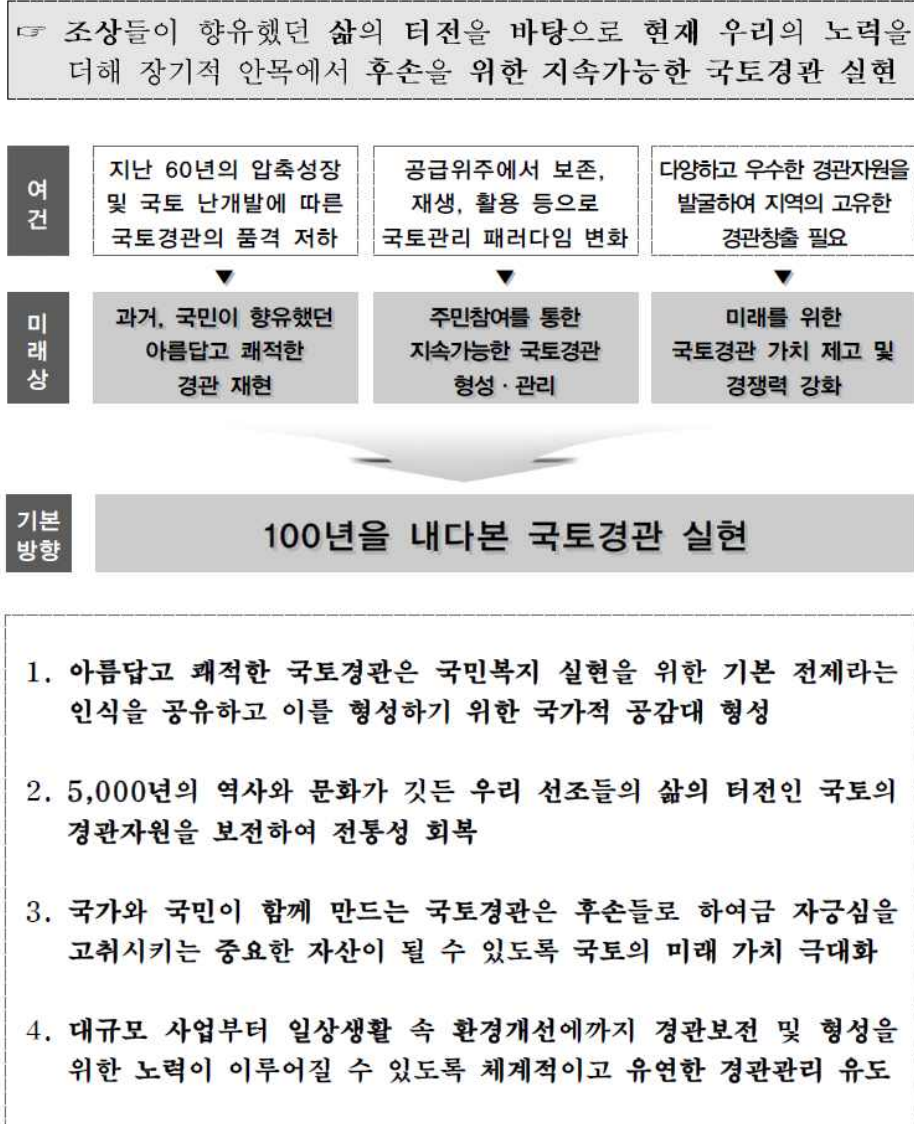


그림 2-106 국가 경관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 (2) 중장기 추진계획

- 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 기반구축 및 정착
  - 국토경관 미래상 정립, 국민 경관인식 개선 및 참여활성화, 국가 선도사업 추진, 국토경관 R&D로 드맵 마련 및 추진, 행정지원 확대 및 경관제도 개선
-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 내실화 및 활성화
  - 국민 주도의 경관관리 실천, 경관사업 확대 시행, 기술개발 보급 및 확산, 경관행정 및 경관분야 전문성 제고
-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 체계화 및 고도화
  - 지속가능한 지역경관관리 실현, 민·관 협력 활성화, 국가 경관경쟁력 강화

#### 4)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 (1) 목적

-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해안경관 관리범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서·남해안권에 적용
-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역방향으로 2,000m 내외를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지역별로 지형·입지·조망범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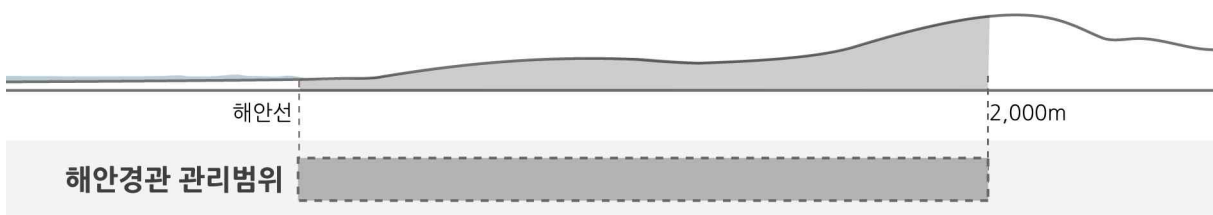


그림 2-107 해안경관 관리범위

- 도서 등의 특정지역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역방향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3)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표 2-52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구분	내용	
기본 방향	해안선과 자연 상태의 해안경관은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시에는 송림, 녹지대 등의 완충공간을 보전하고,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은 개선하여 친환경성을 확보	
	해안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해안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저층개발을,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층개발을 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함으로써 해안의 개방성을 확보	
	해안공간은 공공이용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며,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의 동선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	
	해안에 디자인이 복잡한 시설물이 난립하여 혼잡스러운 경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안의 간결성을 확보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경관을 창출	
	해안지역의 독창적인 경관요소를 보전·관리하며, 지역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함	
기본 원칙	해안의 자연경관 보전	㉠ 해안의 자연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해안의 자연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해안으로 조성한다. ㉡ 해안변 송림, 자연수림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해안과 인공적인 경관 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한다. ㉢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한다.
	해안의 개방성 높임	㉠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하는 등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 해안에서 조망 시 차폐도를 높이는 판상형의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타워형 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방성 높은 형태를 권장한다. ㉢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해당구간에는 건축선을 넓게 지정하여 개방성을 증진한다.
	해안의 공공 이용성 높임	㉠ 해안선 주변에는 차량위주의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연속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 해안선까지 접근이 가능한 보행자우선의 공공접근 동선을 조성하는 등 해안으로의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 해안방향으로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 건축물의 전면공지를 공공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안의 시각적 질 향상	㉠ 가로등, 펜스, 조형물, 게이트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지역성을 고려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고 기능미, 단순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 공공시설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과도한 색상의 돌출색을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해안경관 창출	㉠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및 공간 주변 지역에는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된 가로를 조성한다. ㉡ 동일가시권 내 지역에서 건축물은 지붕 및 외관의 형태와 색채를 자연적·인공적인 여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해안에 설치되는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지역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리도록 한다.

표 2-53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일반사항	<p>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은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p> <p>이 구역에서는 해안경관을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을 적용</p> <p>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해안선 보호구역(5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각 구역별 거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정할 수 있음</p>
해안선 보호구역	정의
	<p>해안선으로부터 5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선과 해안경관을 보호하고 공공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역</p> <p>① 개발 및 건축물의 신축 시 해안선 보호구역(50m)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p> <p>② 이격된 공간은 공공 보행통로, 산책로, 광장 등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p> <p>③ 송림 및 사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공간을 조성한다.</p> <p>④ 방파제·방조제·호안·해안도로·항만시설·어항시설 등의 기반시설물 조성 시 주변 경관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⑤ 규모가 작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벤치, 휴지통 등의 공공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다.</p> <p>⑥ 해안에 연접하여 대규모로 개발되는 워터프런트 및 마리나 개발 등은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⑦ 자연해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에 의한 「자연해안 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개발사업을 시행한다.</p>
해안선 중점관리구역	정의
	<p>해안선으로부터 10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형태·색채 등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구역</p> <p>①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저층 개발을 지향한다.</p> <p>②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의 높이를 제어한다.</p> <p>③ 통경, 스카이라인을 신중히 고려하여 고층건축물의 입지를 계획한다.</p> <p>④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 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을 확보한다.</p> <p>⑤ 대지 내 전면공지의 방향은 해안방향으로 조성한다.</p> <p>⑥ 외부공간은 차량 위주의 공간이 아닌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p> <p>⑦ 상업시설(숙박시설, 펜션, 횃집 등)은 경관저해 요소를 최소화 한다.</p> <p>⑧ 건축물의 높이·배치·형태·지붕·색채·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p>
해안선 연접관리구역	정의
	<p>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구역</p> <p>①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중층 이하의 개발을 지향한다.</p> <p>② 해안의 배후지역에 양호한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경우 조망대상에 대한 시곡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p> <p>③ 배후지역이 산지의 경우 5부 능선까지 시곡면 규제를 적용한다.</p> <p>④ 공공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해안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p> <p>⑤ 공공·기반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한다.</p> <p>⑥ 건축물의 색채·지붕형태·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되도록 유도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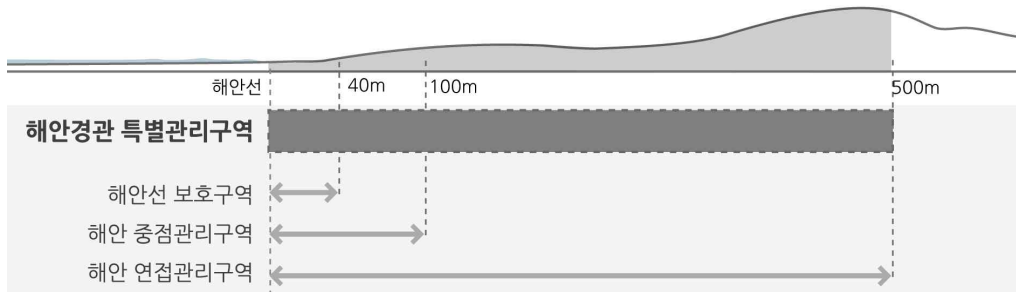


그림 2-108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의 구분

## 5) 제주건축기본계획



그림 2-109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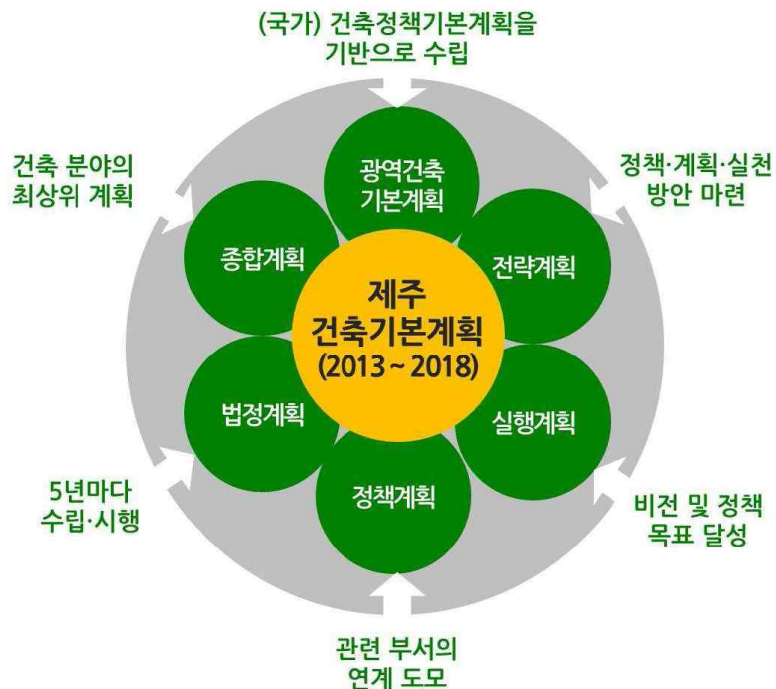


그림 2-110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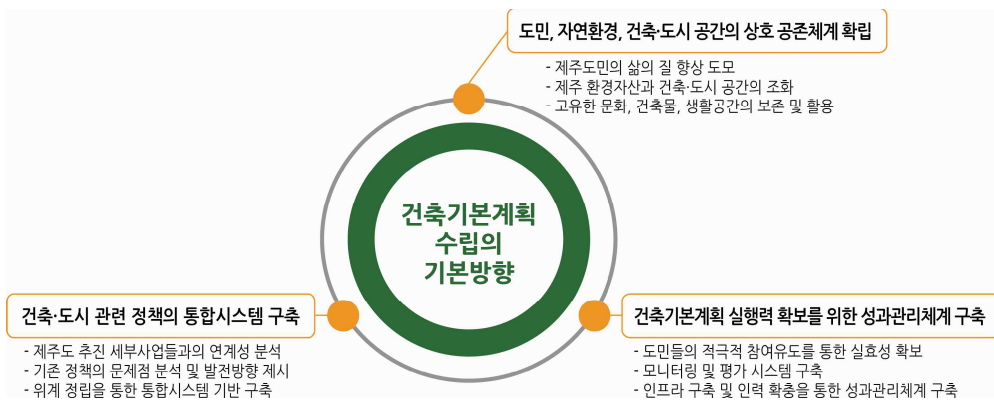


그림 2-111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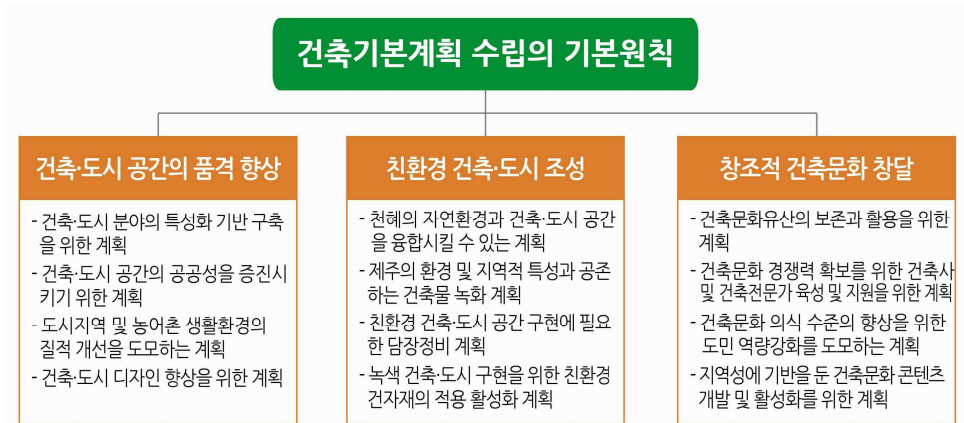


그림 2-112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기본원칙

표 2-54 제주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과제

비전	건축문화와 함께하는 품격도시 제주		
목표	건축·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건축의 특성화를 통한 국제화 기반 구축 -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li> <li>- 건축·도시 생활환경 개선</li> <li>- 노후·불량건축물 성능 개선</li> <li>-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li> <li>- 도서지역 특성화를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건축물 활성화 대책 수립</li> <li>- 건축물 녹화공간 조성의 활성화</li> <li>- 주거지 담장정비사업 추진</li> <li>- 친환경건자재의 생산 지원 및 적용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li> <li>-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li> <li>- 건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제주건축문화축제의 활성화 및 국제건축비엔날레 개최</li> <li>- 제주건축지원센터 및 건축 박물관 설립</li> </ul>
지원과제	품질관리	제도적·행정적 실행계획	상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품질관리방안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방안의 개선</li> <li>- 건축·도시 관련 조직의 통합관리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관련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li> </ul>
중·장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변 및 중산간지역의 개발관리방안 마련</li> <li>- 해안변 및 중산간지역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li> </ul>		

## 6)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2

### (1) 계획의 성격

- 국가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권 연안관리 기본방향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
- 연안관리에 공간계획 개념을 적용한 신 연안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계획
-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계획
- 연안 관련 타 법률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의 연계 및 체계화 계획
- 연안 관련 타 법률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의 연계 및 체계화 계획

### (2)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육역 설정 기준

- 연안육역 설정은 일주도로(12번국도)를 범위 설정의 주요기준으로 설정
  - 일주도로(12번국도)가 해안선과 500m 이상 이격된 지역의 경우, 경작지 및 녹지 활용이 우세한 지역은 육역한계를 500m로 설정
-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육역 설정
- 해안선에서 500m 안쪽에 오름이 나타나는 지역은 오름을 기준으로 설정
- 연안선 정보구축이 안된 도서지역은 제외(국토해양부 기준 적용)

### (3) 연안해역 설정

가. 연안해역 설정 : 「연안관리법(제2조)」 상 기준 적용

- 연안관리법」 상 연안해역(바닷가+바다)을 대상으로 설정
- 바닷가 : 해안선에서 지적공부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 바다 : 해안선(만조수위선)에서 영해 외측한계(12해리)까지 사이

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해역 설정 기준

- 기본적으로 「연안관리법」 상 연안해역 설정(법 제2조)기준 적용
- 행정구역상 추자면(추자군도) 경계를 해역설정 기준으로 적용
- 제주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하는 사수도를 해역경계로 설정
- 연안선 정보구축이 안된 도서지역은 제외(국토해양부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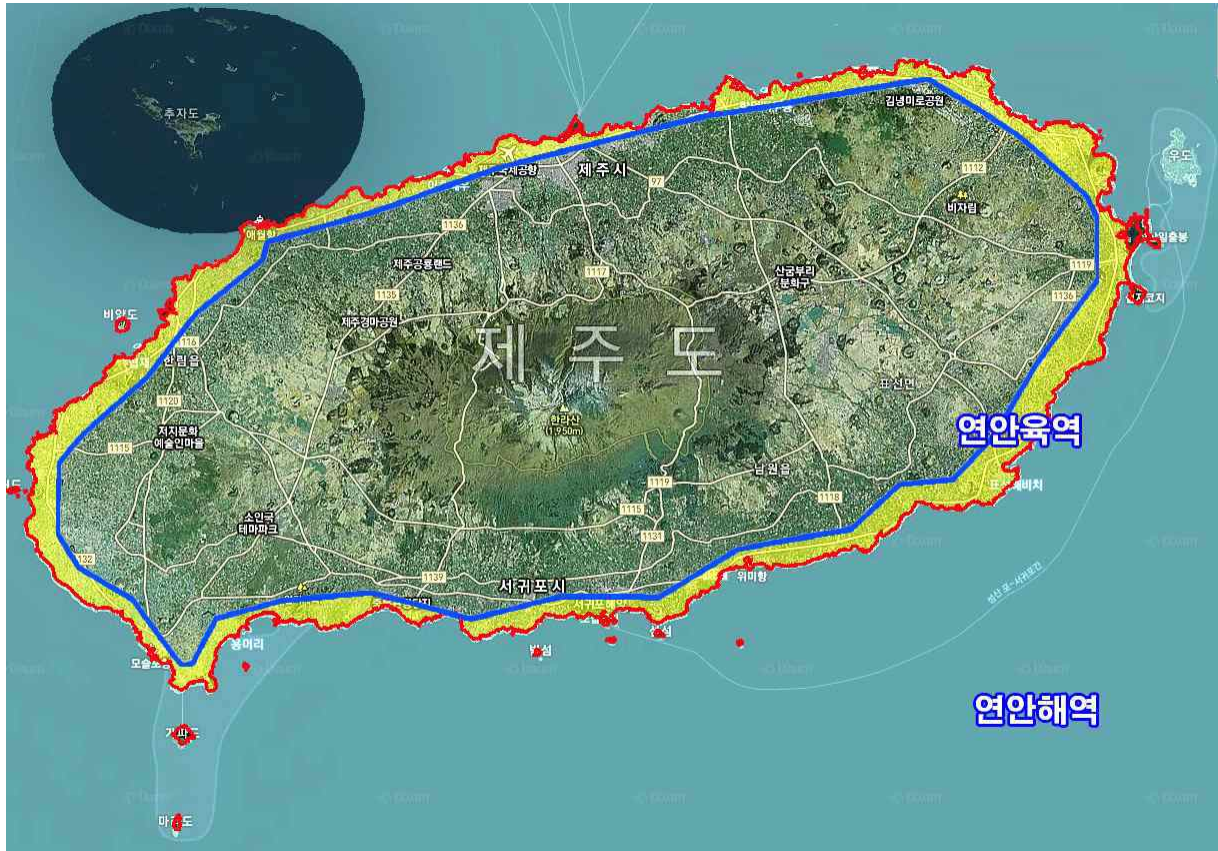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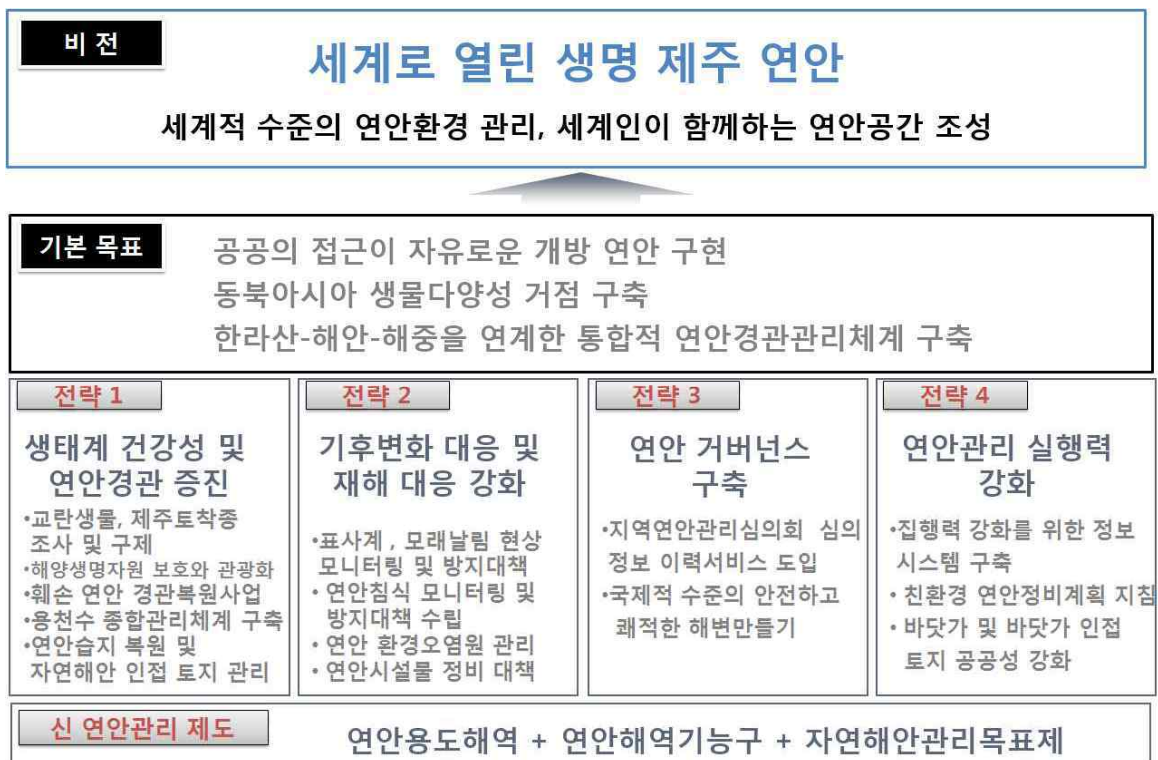


그림 2-113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육역 범위

#### (4)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5) 제주 신 연안용도해역제도 적용

### 가. 연안용도해역

- 연안용도해역은 기존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을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 4개 해역으로 개편함
  - 이용연안해역 : 연안 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특수연안해역 : 연안 해역 중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나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보전연안해역 : 연안 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관리연안해역 : 연안 해역 중 연안용도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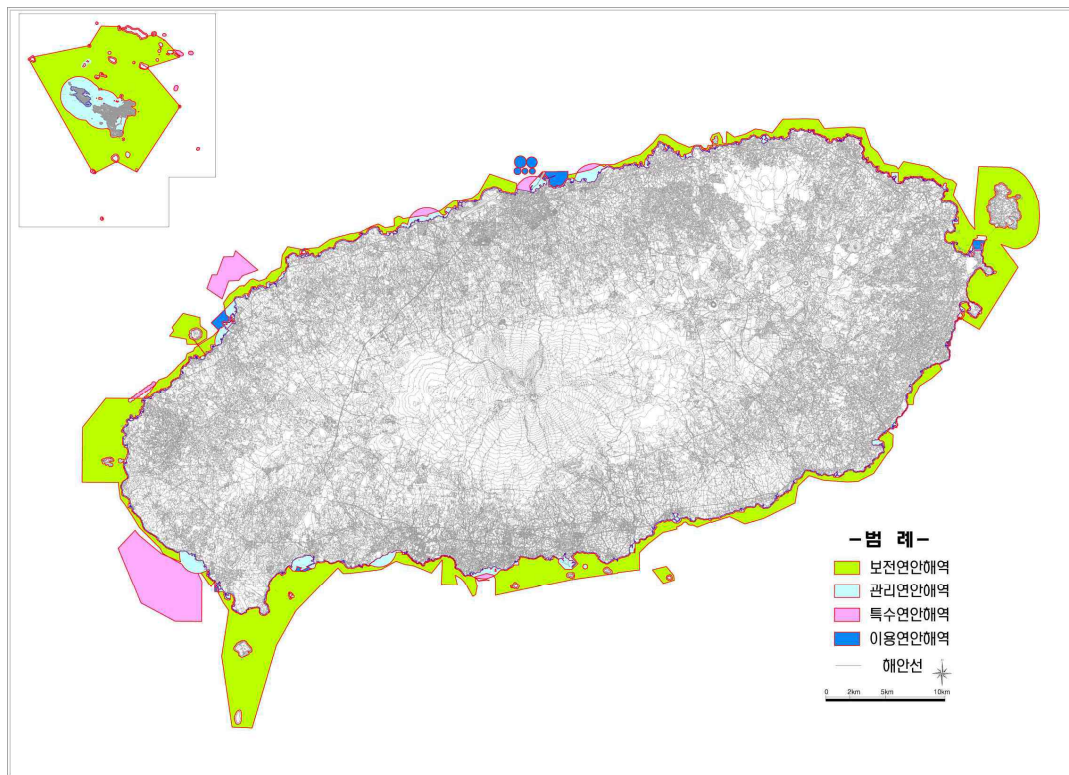


그림 2-114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용도해역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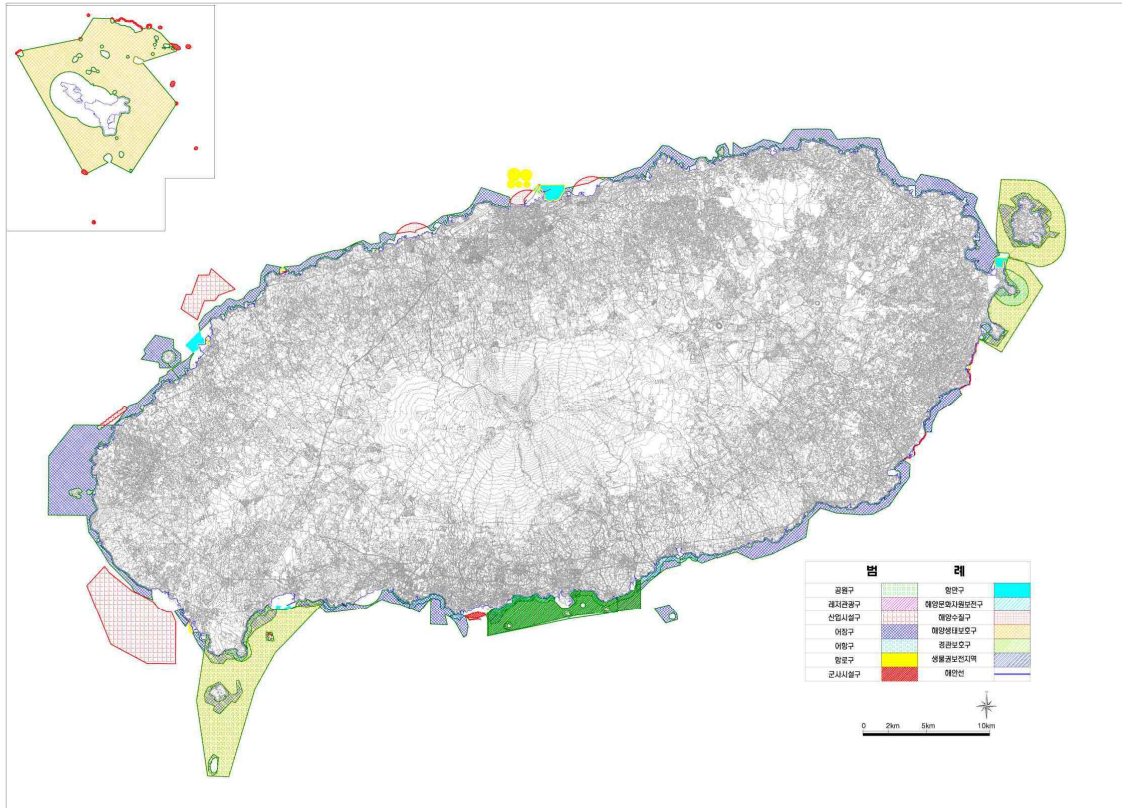


그림 2-115 제주특별자치도 연안해양 기능구 총괄도

#### 나. 자연해안관리목표제

- 자연해안 목표관리를 통하여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수요를 조정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
- 연안침식 등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연안경관 보호 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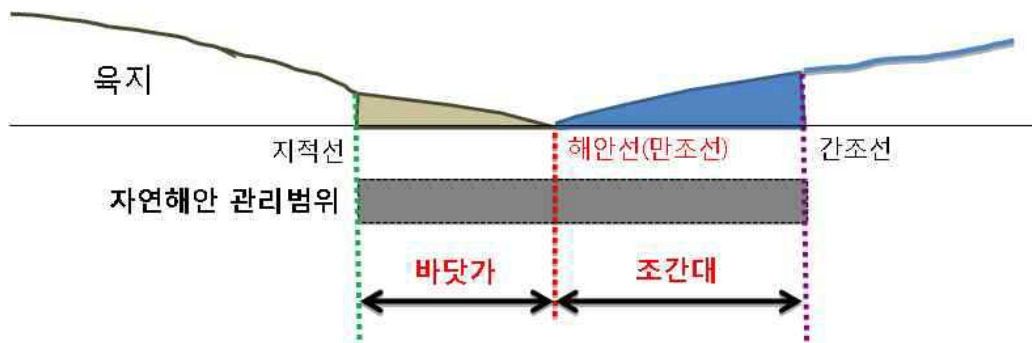


그림 2-116 자연해안관리 대상 및 범위

### 7) 2020도시디자인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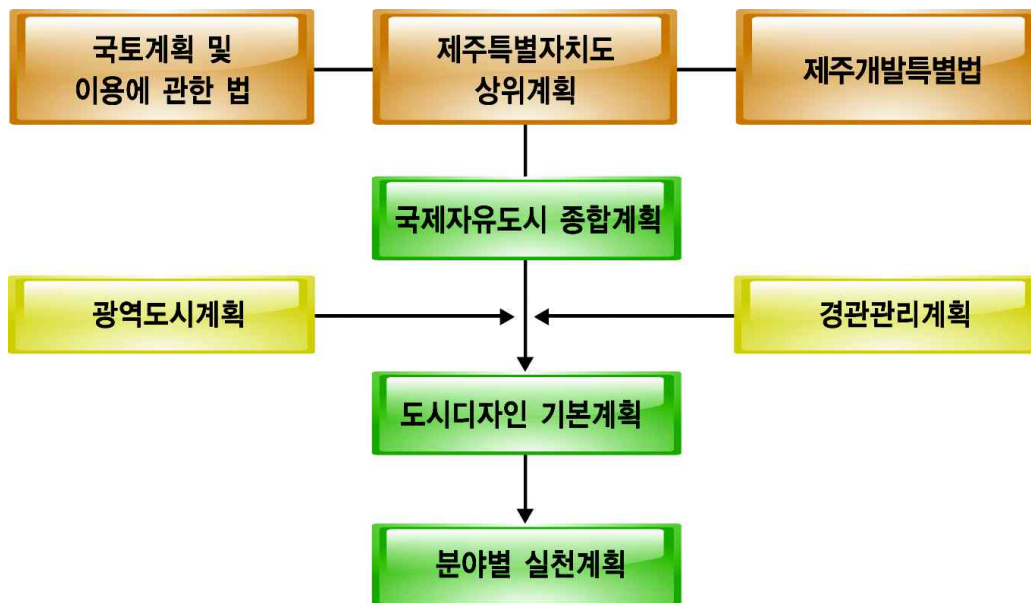
#### (1) 수립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계획의 수립
- 제주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 국제관광지로서 글로벌 브랜드전략 및 운영체제 구축
-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운영시스템 마련
-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역량을 모으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2) 기본계획의 위계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광역도시 및 경관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본으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중점사업 제시 및 제도적 행정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 (3) 제주도시디자인의 전략

- 도시디자인의 6대 전략
  - 충허미(充虛美) : 채우고 비우는 디자인
  - 일상미(日商美) : 일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디자인
  - 자연미(自然美) :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적인 디자인
  - 치유미(治癒美) :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디자인
  - 정체미(正體美) : 정위(定位) 즉,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디자인
  - 조화미(調和美) : 두드러지기 보다는 주변에 조화되는 디자인

## 「서사적 문화 풍경을 담은 자연도시」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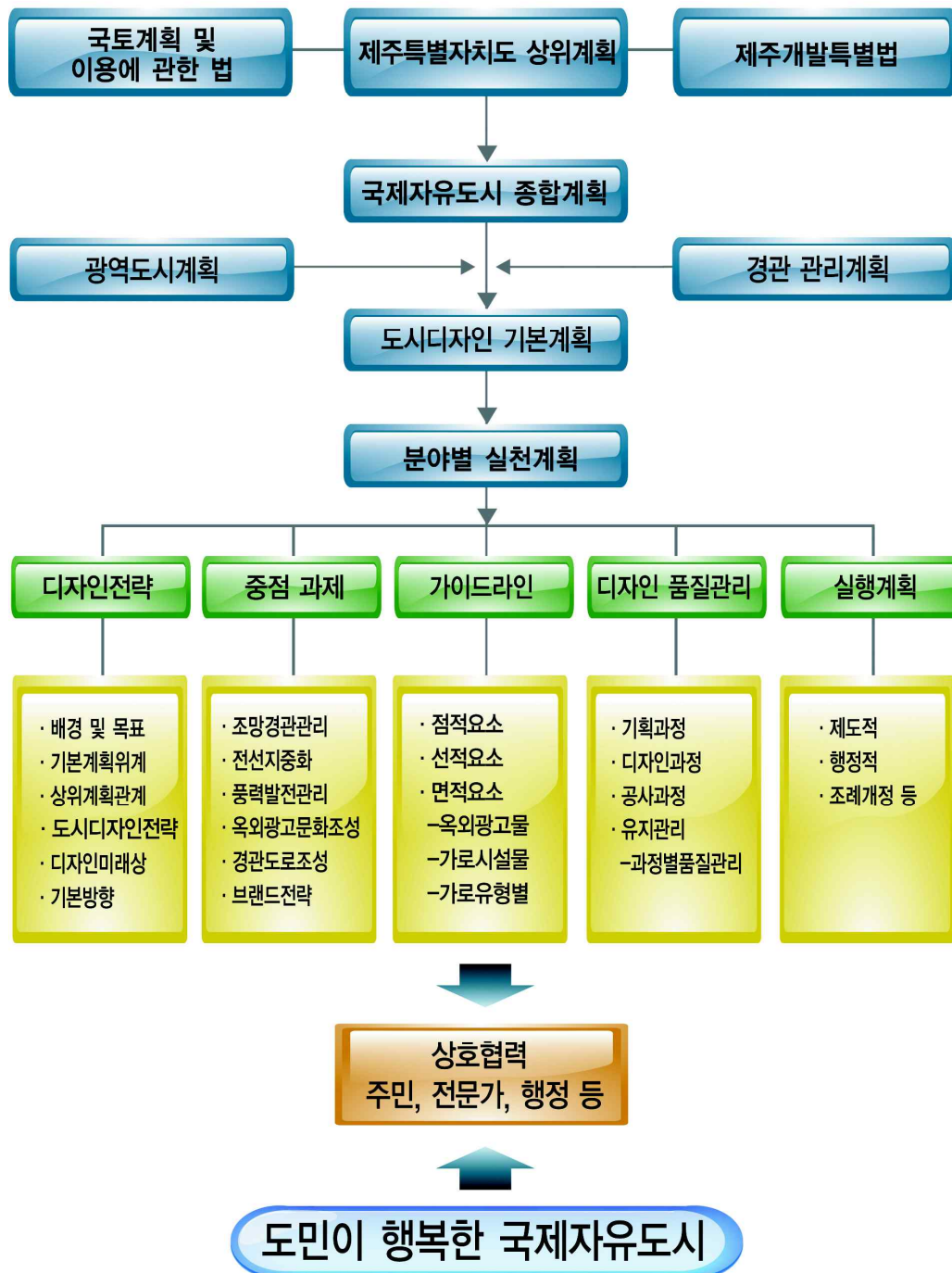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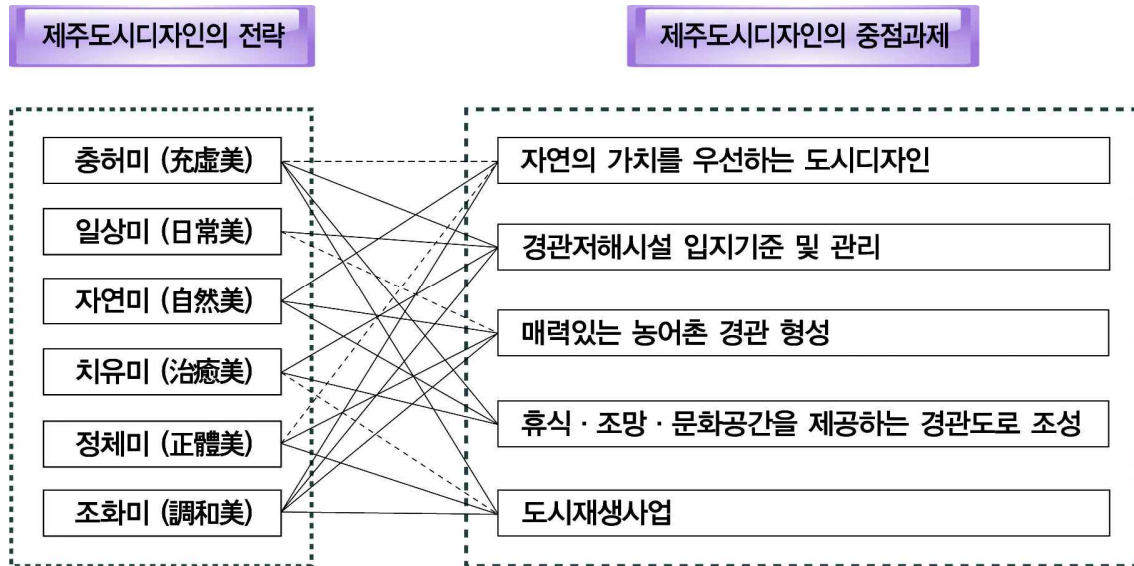
그림 2-117 기본계획의 구성

### (4) 기본계획의 방향

- ① 제주도시디자인은 인간중심적인 환경 조성이 우선
- ② 제주 도시디자인의 공공성과 기능성의 개선 필요
- ③ 제주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디자인의 정체성 형성
- ④ 도시디자인의 일관성 필요

- ⑤ 제주 도시디자인의 핵심은 고유의 자연환경 활용과 조화
- ⑥ 도시디자인 체계적 전략수립, 실행, 평가 메커니즘 구축 필요
- ⑦ 제주 도시디자인의 통합적 전략 필요

#### (5) 중점과제



##### 가.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디자인

- 전략적 시각통로 관리계획 수립
- 풍경조망을 위한 건축물 고도기준 관리
- 도시경관 자원관리 위한 경관특성도 수립 운영

##### 나. 경관저해시설 입지기준 및 관리

- 전선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경관관리 기준 수립
- 국제자유도시의 도시기반시설(SOC) 조성
- 빛 공해 방지, 친환경의 야간경관 조명
- 국제 관광도시 위상에 맞는 옥외광고문화 형성
-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 제주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무질서한 색채 개선

##### 다. 휴식 · 조망 ·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관도로 조성

- 테마별 경관도로 조성
- 제주형 자전거 도로 조성
- 도시공원(녹화) 네트워크화
- 제주 상징 공간 / 거리 만들기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 2011.6

(1) 제주경관관리 관련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경관자원 발굴 및 DB 구축
  - － 경관자원의 유형화  
: 한라산, 오름, 스카이라인, 수경관, 해안경관,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 생태경관 등으로 유형화
  - － 경관자원 발굴 및 분포조사  
: 해녀의 해산물 채취와 잠수(지역고유의 특이 경관), 제주마, 하르방, 꽃자왈, 숨골, 송이, 동굴, 해저 경관, 무속신앙, 5.16도로 건설역사, 일출과 낙조, 철새의 비상, 검독수리 비행, 노루의 사랑 등 제주민의 일상생활과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분포를 조사  
: 특히,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홍보하고, 관광 프로그램과 지역경제를 연동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될만한 경관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
  - － 경관자원가치평가 및 자원DB구축  
: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자원 등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DB를 구축  
: 현재 작성된 경관보전등급도에 경관자원 가치평가가 반영된 경관자원도를 추가. 제주도의 경관특성을 보여주는 주요 조망점 선정. 주요 관리대상 조망축 설정  
: 경관자원 DB는 기구축된 GIS데이터에 경관자원 DB를 연동. 각 경관자원의 속성 DB가 연동(속성 : 경관유형, 물리적 형상, 소재, 자원가치, 관리방법 등이 되도록 작성
- 경관자원의 보전 및 복원의 강화
  - －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 주요 자연자원(한라산, 국유림, 효돈천, 영천, 오름, 하논습지 등)은 개별법에 의한 보전 및 관리를 적극 도모  
: 주요 조망점과 경관통제선, 조망권역 설정을 통한 경관지구(예 : 오름, 경관지구, 중산간경관지구 등)의 설정으로 지역별 시각적 경관영향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
  - － 훼손경관자원의 조사와 복원
- 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 － 효율적 자연경관심의제도 운용  
: 도시지역의 경우 디자인 심사제도 도입을 검토(미국의 경관디자인심사제도는 역사적 환경보전 문제에서 기성시가지의 전략적 경관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시스템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관리  
: 경관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기초한 제주경관계획수립
  - － 경관 M.A제도 및 경관 Advise제도 도입  
: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과 종합적 설계관리를 위하여 실무경험과 조정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를 경관 Master Architect로 임명해 개발의 경관성을 제고하는 경관 M.A제도 혹은 경관 Advise제도의 도입을 검토
  - － 제주도경관조례 제정  
: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제주도 경관조례제정
  - － 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및 지역활성화  
: 경관모니터링제도 도입  
: 경관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도모. Photo Island등 경관안내판의 설치에 기초한 경관자원의 홍

보 강화

: 경관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발굴 및 강화. 농촌경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협약 및 경관직불제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화. 경관마을 지정 등을 통해 경관우수마을 발급 및 주민참여 유도

## (2) 행정적·제도적 측면 정책제언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추진 중)에서 지정하고 있는 경관지구 의 등급별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오름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9)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2000

### (1) 제주오름의 가치유형

- 제주오름의 가치
  - 인문적 가치
  - 식물·생태적 가치
  - 지형·지질적 가치
  - 경관적 가치
  - 생태관광적 가치
  - 산림의 환경자원적 가치

## 10) 2013 IBM스마터 시티 챌린지 제주

### (1) 방향

“제주 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제주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고안하고, 그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임

### (2) 권고안

- 5가지 전략적 권고안을 도출하였으며,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행을 위한 16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해당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1. 가치 중심의 대상 설정 및 인식 형성: 제주가 프리미엄 관광지이자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라는 인식 형성 필요. 특수 목적 관광객과 프리미엄 제품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권고
  2. 체험 중심의 디지털(온라인)화: 특수 목적 관광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온라인 상에서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함
  3. 도민 중심의 협업: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의 산발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도민 참여를 위한 협업
  4. 소규모 기업 집단화를 통한 규모의 확대: 규모의 경제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벤치마킹으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이 필요
  5. 개발과 보전의 균형에 대한 비전 공유: 제주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개발과 보전 간 균형 필요

### (3) 결론

- 해당 권고안을 실행함으로써, 제주가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인식되고, 관광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통한 제주 경제의 다각화 및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보존과 경제 개발간의 균형이라는 도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권고안 1 : 가치 중심의 대상 설정 및 인식 형성
  - 제주를 프리미엄 관광지이자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로 인식 형성. 특수 목적 관광객과 프리미엄 제품을 목표로 설정
- 권고안 2 : 체험 중심의 디지털(온라인)화
  - 특수 목적 여행객들을 위해 실제 체험을 디지털로도 흥미진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함
- 권고안 3 : 도민 중심 협업
  - 정부, 기업, 지역사회 단체 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에서 지속적인 도민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도민 중심 협업
- 권고안 4 : 소규모 기업 집단화를 통한 규모의 확대
  -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벤치마킹으로 모범 사례를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기업가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
- 권고안 5 : 개발과 보존의 균형에 대한 비전 공유
  - 제주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개발과 보존간의 균형

### (4) 범위 및 기대효과

#### 가. 범위

1. 해외투자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존 환경보전 규제에 대한 제주의 이행 사항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열린 의사소통을 추진한다. 이것은 “사실 보고서(Fact Book)”의 형태의 책자를 발간하여, 타운 홀 미팅이나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
2. 도, 시민, 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주의 개발과 보존 간의 균형에 대한 통합된 비전을 도출함

#### 나. 기대효과

- 관광업이 환경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게 됨
- 보존 우선순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짐
-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감소함

### Ⅲ.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인식조사



### Ⅲ.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인식조사

#### 3.1 국내 사례조사

##### 3.1.1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경관 조성
-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 조성
- 미래지향적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연출
- 경관관리구역
  - 경관기본관리구역 : 서울다운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 경관중점관리구역 : 중점적인 경관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
  - 경관관리구역 설정단위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그림 3-1 미래상 및 목표



그림 3-2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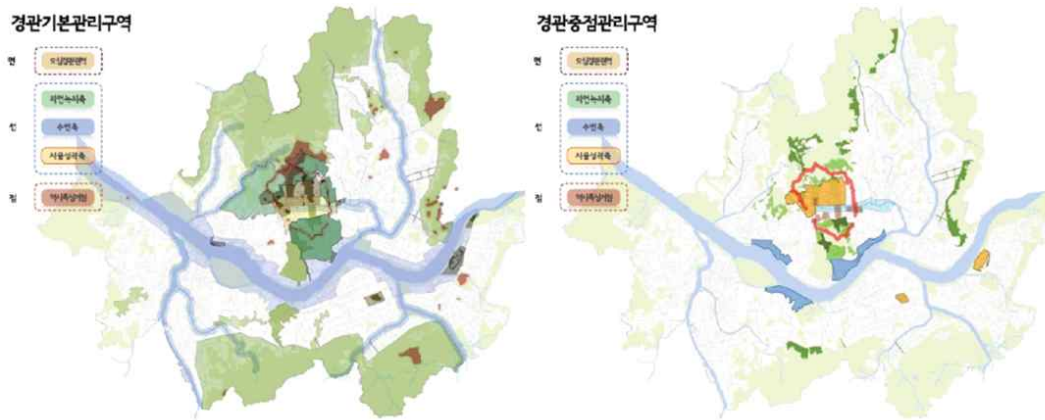


그림 3-3 서울특별시 경관관리구역



그림 3-4 주요전략 및 경관형성기준

### 3.1.2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 종합적인 권역별 계획을 위해서 관측, 경관거점계획을 선행하고, 그것을 권역별 경관계획의 목표 및 경관 키워드 경관 형성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자원의 경관형성 지침에 반영
- 경관관리구역
  - 경관기본관리구역 : 관련계획(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경관 유형별 영향권역 도출
  - 경관중점관리구역 : 경관관련 사업, 협정 등으로 관리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 경관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

## 초록과 낭만이 흐르는 살고 싶은 멋진 도시 COLORFUL DAEGU

초록빛 대구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강한 도시
걸고싶은 대구	보행자와 자전거를 배려하는 도시
조화로운 대구	서로 다른 경관요소의 조화를 고려하는 도시
알기쉬운 대구	길찾기가 쉬운 도시
이야기가 있는 대구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도시
함께 가꾸는 대구	주민참여를 통해 가꿔나가는 도시

그림 3-5 미래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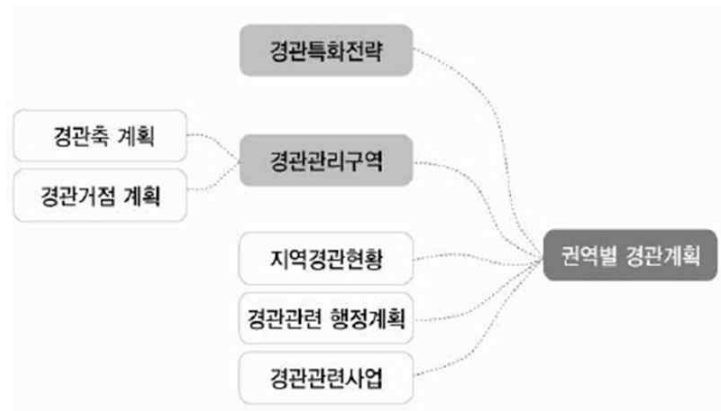


그림 3-6 계획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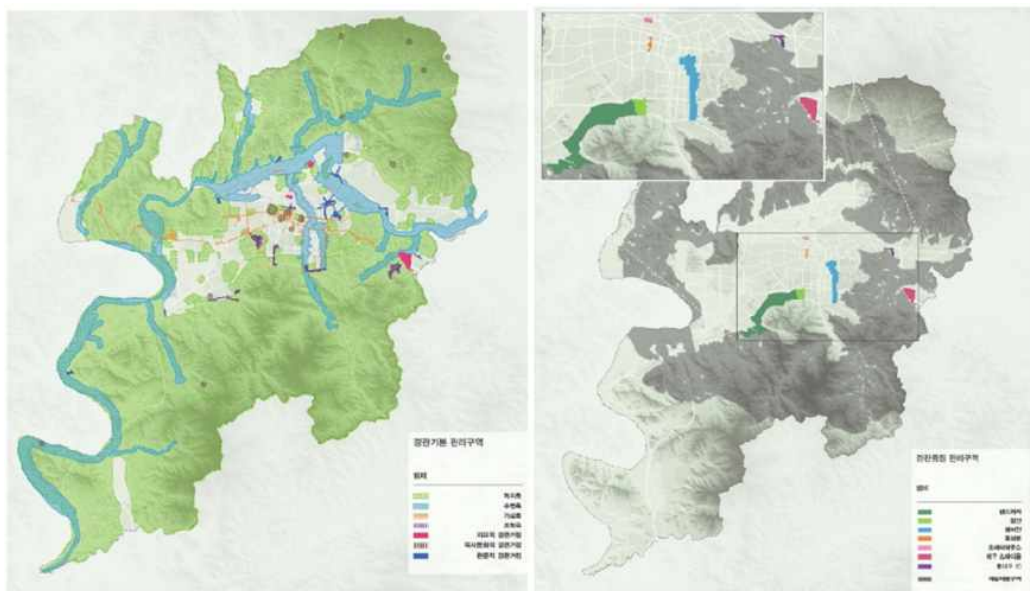


그림 3-7 대구광역시 경관관리구역

### 3.1.3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 부산시의 경관시점과 경관대상의 속성을 고려한 경관구조별 접근에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유형1: 경관역(Urbanscape Zone), 유형2: 경관축(Urbanscape Spine), 유형3: 경관핵(Townscape Landmark/Icon)

표 3-1 부산광역시 경관유형

유형		내용
경관역	테라스형	구릉지경관을 이루고 있는 지역, 주변 산지에 연계되어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인 산록부 평지부에서 보았을 때 경관적으로 강한 영향권에 속한 지역
	지구형	일정한 범역 속에서 용도와 형상이 동질성을 가진 지역 도로, 자연환경 등에 의한 분리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회랑형	형상이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진 선형으로 축을 이루는 지역 좌우측에는 산지와 기개발지 등에 의한 수직적 요소로 어느 정도 차폐된 지역
경관축	녹지축	금정산맥계 금정산맥계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의 핵심 녹지축
		일반연계축 공간조건별 각종 공원녹지 및 도시여가시설을 연계하는 녹지축
	수변축	해변 자연공원과 유원지를 연결하는 수변녹지체계
		해안변 개발 거점 : 신거점, 기존거점
	도심축	하천 하천변 개발거점 : 신거점, 기존거점
		간선가로 간선가로 및 주변부
경관핵	랜드마크형	자연환경형 녹지(산정), 공원, 수변/도서
		역사문화형 면형, 선형, 점형
		도시시설형 인프라, 시설군, 단일시설
	결절점	도시관문 김해공항, 경부/남해/대경고속도로 진입부, 부산역(광장), 국제연안터미널, 노포동터미널 등
		인터체인지 북부산IC, 서부산IC 등
		주요교차로 서면R, 연산R, 안락R, 수영R, 대남교차로, 하단교차로 등



건축물, 광고물 난립 등 역사·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발

- 제주지역의 문화자원보존지구는 11개소로 0.35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음. 제주시는 제주향교, 관덕정, 오현단, 삼성혈, 삼양동선사유적, 별방진, 절부암지구이며, 서귀포시는 숲섬, 서귀진지, 대정성지, 수산진성지구 임
- 그러나 문화자원보존지구 주변 지역의 보존을 위한 경관적 관리 체계가 미약한 실정임

### 3.1.6 진해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 진해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전통경관지구를 진해시의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중권역 중앙동 일대에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이미지 제고 및 로터리 주변의 경관형성에 기여

### 3.1.7 진주시 경관계획

- 진주시의 경우 대표적 경관요소인 진주성주변 조망경관관리에 있어서 조망점으로 간주하여 분석
- 양각이 12~9도면 매우 순수한 회화적 전경이 되며, 산정상에서의 평균 양각은 8.9도임을 고려하여 양각 검토
- 조망대상이 평면적인 경우, 부감의 목표점은 부각  
-8~ -10도의 범위가 중심영역임을 고려하여 부감을 검토
-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규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이격거리와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한 양각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양각을 적용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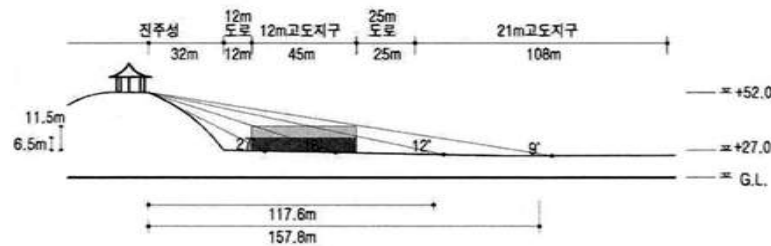


그림 3-10 북장대에 대한 양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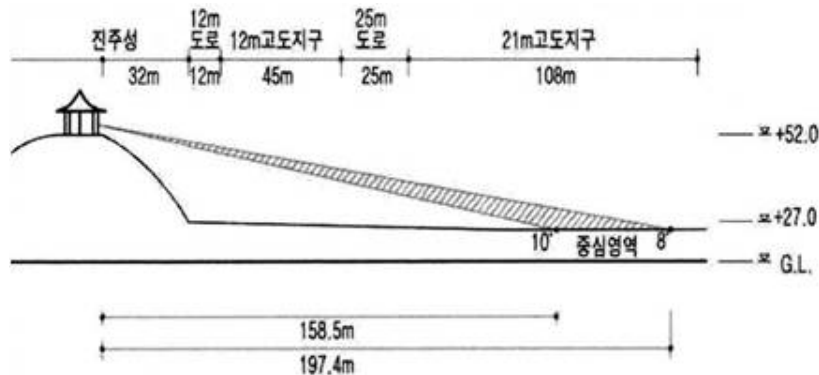


그림 3-11 북장대에서 본 부각에 의한 주요 가시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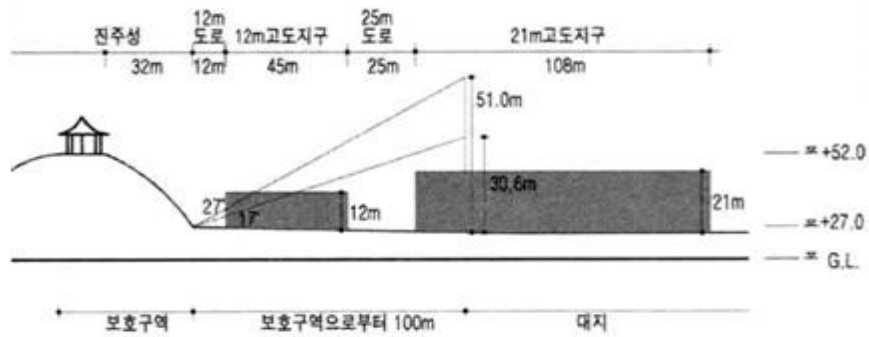


그림 3-12 문화재보호구역의 양각적용검토

- 양각의 분석에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현재의 개발실태에서 볼 때 불가능하며 가능한 가로 등을 통한 시각회랑에서 얻도록 함
- 진주성과 구릉지의 높이제한은 부감경에 의해 8~10도 범위내에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때 막힘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 이들 지역은 경관관리 중점구역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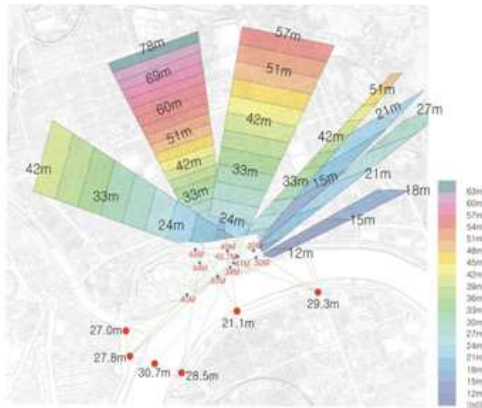


그림 3-13 진주성 주변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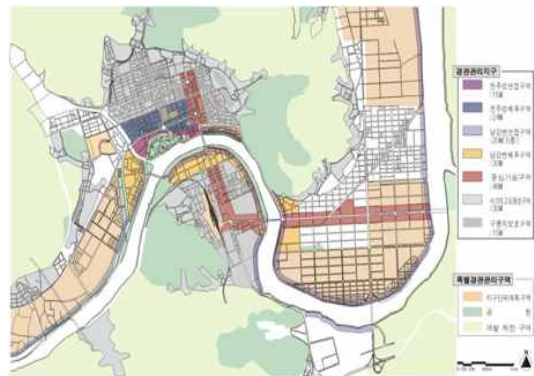


그림 3-14 경관지구 고도조정의 내용

## 3.2 국외 사례조사

### 3.2.1 전원경관

- 독일은 전원경관이 제주와 유사하며 농촌마을들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음
-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방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며, 토지의 압축개발은 프랑크푸르트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15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일의 농촌마을 경관

- 오스나브뤼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답게, 구도심의 중심부는 시청사와 주변 중세형의 건축물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광장과 시장, 카페거리 등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단순한 가로등 디자인, 전봇대 없고, 돌로 된 가로바닥 패턴, 풍부한 녹지조성 등이 조화된 경관을 형성함



그림 3-16 오스나브뤼크 주요 경관

### 3.2.2 수변경관

- 독일 뒤셀도르프는 라인강과 인접하여 서쪽으로 네덜란드, 남쪽으로 쾰른과 접해 있으며 라인베스트팔렌 공업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독일 내 함부르크와 함께 해외상사와 은행 등이 있고, 철강·화학·기계·식품·기호품·금속가공·전자공업 등이 발달함
- 옛날 라인강의 항만을 재개발한 곳이며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들과 항만을 테마로 한 가로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 3-17 독일 뒤셀도르프 항만지구 주요 경관

- 독일 함부르크(Hamburg)는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이며, 유럽의 중심 항구임
- 도시적 경관특성으로는 장크트 미하엘리스 교회, 르네상스풍의 시청사, 독일연극관, 미술공예박물관, 레페르반의 변화가 등이 있으며 특히, 유럽 최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하펜시티를 추진 중에 있음
-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들의 색채 등은 다르지만, 이질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되고 있으며, 수변공간 주변에는 신규건물들이 많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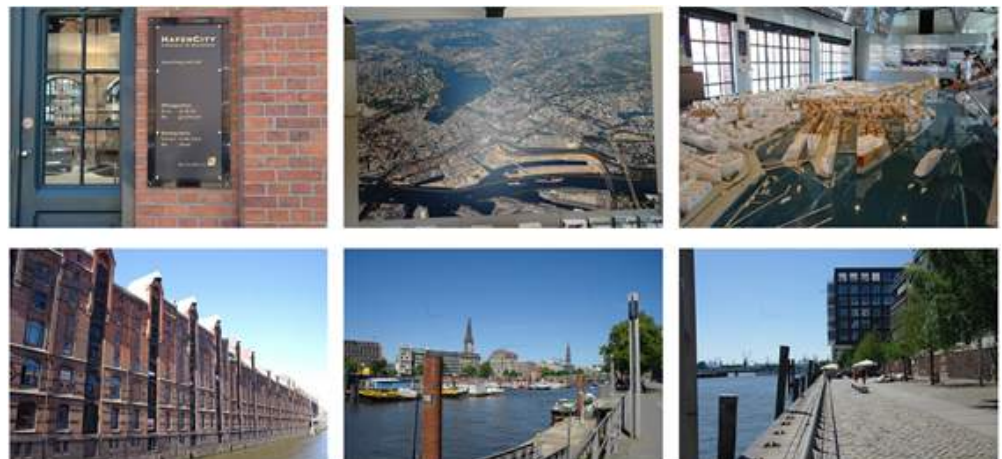


그림 3-18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수변 도시재생 사업

### 3.2.3 습지경관

- 미국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은 188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로 인해 에버글레이즈 절반 이상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여 생태계 내 많은 동식물종이 멸종함
- 30년이란 기간을 설정하여 물 채우기 작업과 수몰지역 매입과 강 주변에 범람원 지역을 형성함
- 2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에버글레이즈연합'이 참여함
- 미국의 불사치가 생태보전지역은 1895년 댐건설 이후 자연습지의 본격적인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로 계속적인 개발로 인해 황폐화 됨

-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습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생태적 명소로 거듭남
- 홍콩의 Wetland Park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큰 습지를 정비하여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임
- 아이들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자연생태계와 인문적 요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경관을 창출함
- 시민들이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 뿐 아니라 생태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체계화하는 노력 필요
- 습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의 정비 필요



그림 3-19 미국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사례

### 3.2.4 세계문화유산경관

- 독일 쾰른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에 위치하며 라이나우항, 독일공업항 등 4개의 라인강 항구가 위치하며, 철도가 발달된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음. 도시구조는 중앙역, 대성당, 광장, 보행공간과 쇼핑가인 호에(Hohestr)거리 등이 구도심의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 쾰른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주변부를 도심재개발하려고하자 유네스코에서 높은 건축물 건립을 반대하여 유지됨. 현재도 전 세계의 관광객들과 자국민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자원임
- 대성당 주변에는 분수대, 안내표지판(광장에 설치된 바닥동판), 도심내 쾰른성당을 디자인하여 넣은 엠블렘 등 있음
- 쾰른 도심에는 쾰른대성당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첨탑을 가진 건물들이 건축경관을 형성함
- 오래된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옛건물의 일부나 대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 Kolumba Museum(Peter Zumthor : 2007)을 찾았고 Kolumba Museum은 친구가 조화를 이루는 건물임



그림 3-20 독일 쾰른 도심 주요 현황

- 독일 에센(Essen)은 독일의 대표적 공업도시로서 라인강과 지류 루르강의 북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9개 구역(stadtbezirke)과 50개 동(Stadttei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강업과 무기·기관차·농업기계·화학·섬유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음
- 에센의 졸페어라인(zollverein)은 1988년 석탄 산업의 쇠퇴로 공장이 폐쇄되자 이곳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성한 성공적 사례임
- 독일 브레멘은 독일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중세부터 한자동맹의 주요도시로서 상업 및 물류중심지로 발달
- 구시가지의 중세 교회,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 마르크트 광장 시청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역사경관을 형성함



그림 3-21 졸페어라인 탄광 재개발 현황

- 역사가로 경관으로 비트어 거리(Böttcherstr)는 중세 수공업자의 거리를 복원(1926~1930)하여 중세 시대 상가·술집·여관·서점·극장 등이 복원된 형태임
- 슈노어 지구는 구시가지로 세계 2차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아 15~16세기 중세거리의 풍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카페, 레스토랑, 골동품, 악세서리 매장 등이 있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

### 3.2.5 문화재·역사경관

- 일본 나라시에서는 유적지 및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시가지경관 관리를 하고 있음
- 유적지 가는 길(안내표지판, 주변공원)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과 건축물들은 전통성과 나라이미지를 강화하고 사슴들이 공원을 거닐고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뿐만아니라 전원도시의 분위기를 형성함. 유적지 입구는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유적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특성을 유지하고 유적을 돋보이게 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의 유적지와 어울리는 통일된 디자인의 시설물을 설치함
- 나라역 앞에는 나라의 역사적 내력을 알 수 있는 분수대가 있어 랜드마크 요소가 되고 있고 시 전체에 대한 일관된 느낌을 형성하고 있음. 시가지는 자연재료를 활용하거나 연속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질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음
- 유적지와 시가지 사이는 충분한 녹지를 두어 완충지역을 확보하고 주변 시설물의 규모를 제어하여 유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 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가지를 형성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와 재질에 일관성을 갖도록 함
- 유적지와 연계성이 있는 디자인요소를 활용하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함

### 3.2.6 구도심 경관

- 독일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하이델베르크대학(Heidelberg Universität), 학생감옥, 하이델베르크성(Schloss Heidelberg), 카를 테오도르 다리, 철학자의 길 등 수 많은 문화유산을 가진 관광지역임
- 도심 내에는 세련되고 창의적이며, 과하지 않은 상가들이 많이 있고, 복잡하지 않은 간판, 건축선 정렬,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벽면 및 지붕 색채로 구성됨
- 하이델베르크는 구도심의 오래된 도시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건축물, 광장, 좁은 골목길, 돌을 바닥재료로 이용하여 중세시대의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기후의 영향을 고려한 박공 지붕(경관형성 및 다락 공간활용성 제고)으로 인해 일련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3-22 하이델베르크성에서 바라본 도시의 원경 및 근경

- 스위스 바젤은 프랑스 및 독일과 접경을 하는 도시로서 스위스 바젤슈타트주에 위치하며 인구 약 18만명 규모로 상업 및 공업도시임
- Schaulager 벽면과 외벽은 독특하며 주변도로는 시케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의 재료도 독창적이고 세련됨

- Novartis Campus 건축물은 세련된 메스와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도 주변과 어울리게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3 스위스 바젤의 알프스 실루엣을 살린 벽면, 도로 및 담장



그림 3-24 스위스 바젤의 Novartis 건물, 미관을 고려한 낙수물 공간

- 스위스 베른(Bern)은 스위스의 수도로서 인구 약 12만으로 도시구조는 중심의 아래강 둘러싸인 해발 고도 500m 내외에 위치함
- 특히, 베른은 도시 전체가 중세적인 분위기를 가지며 도심 내 연방의사당·정부청사·시청사·대성당·미술관 등이 분포하고 있음
  - 구시가지는 11개의 분수가 있고, 17~18세기에 형성된 아케이드 형태의 도시 구조는 매우 특징적임
- 구시가지의 특징적 경관은 분수대이며 트롤리버스, 트램, 아케이드형 건축물 등은 베른이 가지는 독특한 도시경관임



그림 3-25 스위스 베른 시내 구도심 및 주요 스트리트몰

### 3.2.7 시민참여 경관 조성

- 스위스 인터라켄은 스위스 중부 베른주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관광도시로 1128년경 건설되면서 세계적으로 피서지, 등산기지 등으로 발전하였고, 섬유·고무·시계 산업이 발달함
-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자연경관 및 산악자원임

- 산악열차의 역사는 100년 이상이며 현재 전세계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
- 알프스의 일부로써 만년설 등을 가져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주변과 조화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경관조성을 위해 베란다나 창틀에 화분을 걸고 있음



그림 3-26 스위스 산악경관 및 숙박시설들

### 3.2.8 경관제도

#### 1) 유럽

- 유럽의 중요 경관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은 도시농촌계획법, 프랑스는 토지점용계획과 역사적 가구보존법, 독일은 연방자연보호법 · 농업조항과 경승지계획제 등이 있음

<p>영국 경관제도</p> <p>시빅어메니티법(1967년)</p> <p>도시전원계획법(1971년)</p> <p>도시전원어메니티법(1971, 1974년 개정)</p> <p>주거법(1965년)</p> <p>대런던의회(Greater London Council)조례</p> <p>어메니티를 위한 단체(Amenity Society)설립</p> <p>고건축보험협회(1877년)</p> <p>내셔널트러스트(1894년)</p> <p>시빅트러스트(1957년)</p>	<p>프랑스 경관제도</p> <p>역사적가구 보존법(1962년)</p> <p>토지이용방향에 관한법률(1967년)</p> <p>-도시기본계획 (SDAU : Shema directeur d'admenagement et d'urbanisme)</p> <p>-토지이용계획 (POS : plan d'occupation des sols)</p>	<p>독일 경관제도</p> <p>토지이용계획(F플랜)</p> <p>지구상세계획(B플랜)</p> <p>도시계획촉진법(연방법)</p> <p>연방건축법</p> <p>연방자연보호법(1976년)</p> <p>→경승지계획(Landschaftsplan)</p> <p>지역경관보전조례(Gesamtanlagenschutz)</p> <p>보전지구조례(Erhaltungssatzung)</p> <p>경관협정(Vertranliche Regelungen)</p>
---	--	---

표 3-2 국외 경관제도

영국	영국도시개발은 허가 제도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건축행위는 높이·실루엣·색채·질감·장식 등이 경관적 측면에서 검토됨 역사적 건물을 고려한 스카이라인보호가 도시 경관관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런던시에서는 1968년에 28개의 표준전망(Standard View)을 지정하여 템즈강 다리, 공원, 기타 오픈스페이스에서 조망되는 전망을 향상시키고 있음
프랑스	경관통제선 제정 - 파리지퓨조(Fuse aux deprotection) 경관통제선에 의한 가치 있는 역사 경관보존 및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유도 프랑스에 있어서 경관의 보호 및 창조는 토지이용계획(POS)에 의해 상세한(고도규제, 건축선제도, 조망확보, 용적률 규제, 휘사드 규정 등)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	도시경관을 의도적으로 형성 : 도시경관조례, 지구상세계획 기존경관보존목적 : 지역경관보존, 보존지구조례 지구상세계획에 의한 관리제도 :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높이규제, 건축물비례, 건축물위치, 건축 형식 등을 결정 경관협정 :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정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결성

## 2) 미국

- 미국의 중요 경관관리제도를 살펴보면, Zoning제, 연방, 주, 지방단체의 조례나 법률이 있음

표 3-3 미국의 경관관리제도

도시미운동 (City Beautiful Movement)	-시카고박람회(1893년)를 계기로 출발
지역지구제(Zoning)에 의한 경관관리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 -개발단위계획(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개발권 이양제(TDR : Transfer Development Right)
조망보호규제유형	-기념물조망(Monument View) : Austin, Denber, WashingtonDC -자연조망확보형(LandscapeView) : Denber, Pittslourg -어반·코리더형(UrbanCorridor) : New urban North Carolina
도시별 경관관리운동	-뉴욕 : 장려조닝(Incentive Zoning) 특별조닝(Special Zoning) -보스톤: 역사적 중요 건조물, 랜드마크, 사적 가로의 보존정비, 간판 광고물 규정 등 -샌프란시스코 : 종합계획(Master Plan)에 의한 도시디자인계획 책정

표 3-4 미국의 유형별 경관 관리 방향

자연경관 관리	구릉지관리 : 환경보호측면과 미적인 측면의 보호 및 강화, 경사변경의 최소화 오픈스페이스 관리 : 중요한 생태지역 경관, 문화적 가치가 있는 토지보전 역사지구관리 : 역사적 자원의 소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제공
수변 관리	하와이주의 경관규제 : 해안선 및 해변의 공공이용보장(리조트호텔, 건물 등의 해변 점유화, 난개발 방지) 워싱턴주의 수변관리법 및 관리지침 : 지방정부가 수변 마스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판단기준 제공
조망권 확보	하와이주의 간판규제 : 각 지방정부의 환경특성 반영(간판재료, 색채규제, 유도) 하와이주의 건축선규제(뷰콘규제) : 원추상의 선축라인을 규제하여 상징경관이 항상 도시에서 조망 되도록 시야의 범위 안에 있는 건물 높이를 규제
도시생활 관리	하와이주의 아로아타위 특별구 규칙 : 건축물규제(높이, 건축선후퇴, 녹지공간, 경계관리, 조망회랑 등)

### 3) 일본

- 일본의 중요 경관제도를 살펴보면, 종합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등이 있음

표 3-5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경관관리제도	시사점
	[경관시책을 실현하는 구체적 수법]
<p>풍치지구(1929년)</p> <p>미관지구(1933년)</p> <p>고도보존법제정, 전통환경조례 (1950년대 후반)</p> <p>경관조례제정(1971년)</p> <p>지구계획(1980년)</p> <p>도시경관관리 운용체계</p> <p>-자연환경보전에서의 어프로치</p> <p>-역사적 환경보전을 위한 어프로치</p> <p>-공공공간 정비를 위한 어프로치</p> <p>-규제·유도를 위한 어프로치</p>	<p>단체정비형(Spot형)</p> <p>-점적인 요소(문화재, 조각 등)를 보존·정비</p> <p>연도정비형(Street)형</p> <p>-가로변의 경관정비</p> <p>조망확보형(View Corridor형)</p> <p>-주요 조망점의 시각적 보존</p> <p>지구지정형</p> <p>-경관형성·보존을 위한 지구를 지정하여 경관규제시행</p> <p>전역컨트롤형</p> <p>-행정구역전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관기준을 적용하여 경관형성유도</p>

### 3.3 시사점

구분	주요내용	시사점
국내	<p>서울시</p> <p>- 계획 관련 : 경관계획의 구성에 있어 경관기본관리구역,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p> <p>- 실행 관련 : 경관사업에 있어 협의체 구성 및 협정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p>	<p>- 계획 관련 : 관리구역에 대하여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음</p> <p>- 실행 관련 : 경관사업(협정)에 있어 기존 주민조직을 검토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p>
	<p>대구시</p> <p>- 계획 관련 : 경관관리구역 및 권역별 경관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도로써권역별 경관계획도 작성</p> <p>- 실행 관련 : 권역도를 중심으로 한 지침 활용방안 제시</p>	<p>- 계획 관련 : 권역설정에 있어 행정단위를 반영하여 행정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종합적 권역계획도 작성</p> <p>- 실행 관련 : 권역도를 중심으로 한 지침 활용방안 제시</p>
국외	<p>독일</p> <p>- 도시계획과 경관계획간 운영체계 측면에서의 선진적 사례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이 각각 경관생태계획 및 녹지정비 계획과 연계되어 도시관리의 효과가 증대됨</p>	<p>- 주요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제도, 경관조례 등의 계획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p>
	<p>일본</p> <p>-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비교적 발전되어 있음</p> <p>-경관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조례 운영시까지 적극적인 주민참여방안을 수립</p>	<p>-경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기존 경관조례의 추가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p> <p>-경관사업의 진행에 있어 경관협정을 권장하여 자연스러운 주민참여를 유도</p>

### 3.4 인식조사

#### 3.4.1 조사개요

##### 1) 목적

- 제주도의 경관특성을 살려 개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예전과 경관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제주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2009년 계획 수립시 설문의 비교를 통해 인식차이를 확인

##### 2) 대상

- 미래비전계획 도민계획단 100부, 제주도민 300부, 관광객 200부

##### 3) 시기

- 도민계획단 2015년 8월 15일 ~ 9월 21일
- 제주도민 및 관광객 2015년 9월 4일 ~ 9월 21일

##### 4) 방법 및 분석

- 도민계획단-우편조사, 제주도민 및 관광객-직접배포 및 회수
- 엑셀 및 SPSS통계처리 프로그램 이용

##### 5) 내용

구분	도민, 도민계획단	관광객
경관인식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 중산간 개발에 따른 경관 해안변 경관, 주요간선도로 경관, 제주경관의 만족도 제주의 선호하는 자연경관,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 상징적인 경관,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할 요소	제주경관의 만족도 제주의 선호하는 자연경관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 상징적인 경관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할 요소
그룹별 항목	경관계획 수립 경관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 경관관련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관광활동, 제주 방문횟수 제주 숙박 여부, 숙박 지역 숙박 유형, 숙박지 선택 이유 관광하거나 예정인 지역 제주 방문 목적
일반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주거형태	성별, 연령, 거주지역

#### 3.4.2 도민

##### 1)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 311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72명(55.3%), 남성 139명(44.7%)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90명(28.9%), 30대 74명(23.8%), 50대 68명(21.9%), 20대 41명(13.2%), 60대 이상 38명(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178명(57.2%), 제주시 읍면지역 50명(16.1%), 서귀포시 동지역 47명(15.1%), 서귀포시 읍면지역 36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20년 이상 174명(55.9%), 15~20년 미만 36명(11.6%), 1~5년 미만 33명(10.6%), 10~15년 미만 31명(10.0%), 5~10년 미만 28명(9.0%), 1년 미만 9명(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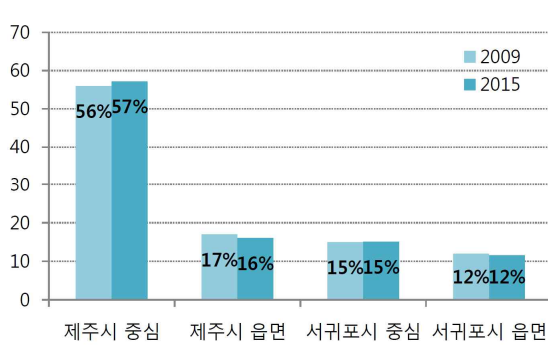


그림 3-27 응답자의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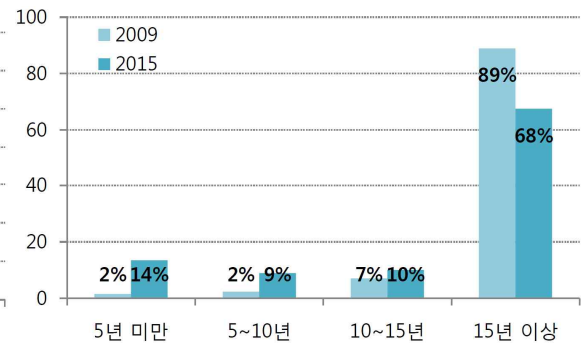


그림 3-28 현재거주지역의 거주기간

-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39명(44.7%), 아파트 78명(25.1%), 다세대주택 55명(17.7%), 연립주택 29명(9.3%), 상가겸용 9명(2.9%), 기타 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9	44.7
	여성	172	55.3
연령	20대	41	13.2
	30대	74	23.8
	40대	90	28.9
	50대	68	21.9
	60대 이상	38	12.2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178	57.2
	제주시 읍면지역	50	16.1
	서귀포시 동지역	47	15.1
	서귀포시 읍면지역	36	11.6
거주기간	1년 미만	9	2.9
	1~5년 미만	33	10.6
	5~10년 미만	28	9.0
	10~15년 미만	31	10.0
	15~20년 미만	36	11.6
	20년 이상	174	55.9
주거형태	단독주택	139	44.7
	다세대주택	55	17.7
	연립주택	29	9.3
	아파트	78	25.1
	상가겸용	9	2.9
	기타	1	0.3
합계		311	100.0

## 2) 제주에 거주하면서 경관에 대해 느끼는 사항

-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 보존 및 경관관리를 위해 개발과 보존 지역을 구분 필요 158명(50.8%), 제주도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적극적 추진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이 각각 62명(19.9%), 도민에게 큰 실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 24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7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도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적극적 추진	62	19.9
지역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	62	19.9
자연 보존 및 경관관리를 위해 개발과 보존 지역을 구분 필요	158	50.8
도민에게 큰 실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	24	7.7
기타	5	1.6
합계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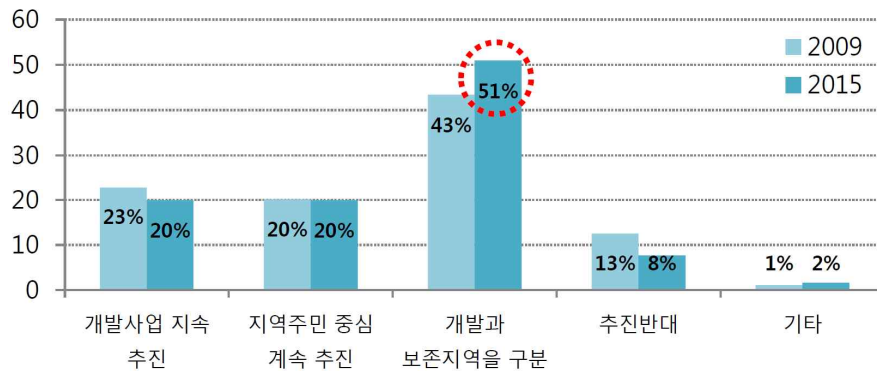


그림 3-29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 해안가에 들어서고 있는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제주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해 바다가 보이지 않아 조망점을 훼손함 116명(37.3%),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방식이 경관을 훼손함 95명(30.5%), 활력 있는 거리의 모습이 만들어짐 39명(12.5%), 새로운 건축물이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짐 32명(10.3%), 원색의 색채가 경관을 훼손함 19명(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 제주 해안의 시설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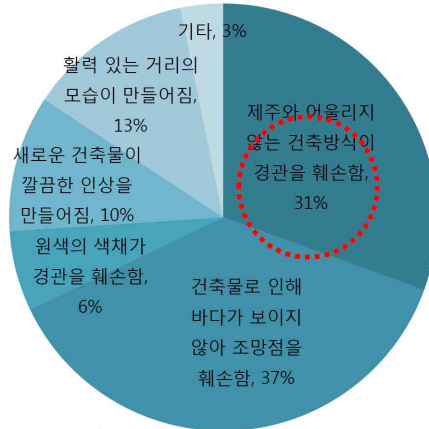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방식이 경관을 훼손함	95	30.5
건축물로 인해 바다가 보이지 않아 조망점을 훼손함	116	37.3
원색의 색채가 경관을 훼손함	19	6.1
새로운 건축물이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짐	32	10.3
활력 있는 거리의 모습이 만들어짐	39	12.5
기타	10	3.2
합계	311	100.0

- 중산간에서의 개발행위의 수요 증가가 제주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나홀로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됨 108명(34.7%),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짐 90명(28.9%), 중산간의 수평적 조망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52명(16.7%), 개발로 인해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짐 36명(11.6%), 새로운 건축물이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 냄 18명(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9 중산간 개발행위 증가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나홀로식 개발로 경관이 훼손됨	108	34.7
중산간의 수평적 조망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52	16.7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짐	90	28.9
새로운 건축물이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 냄	18	5.8
개발로 인해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짐	36	11.6
기타	7	2.3
합계	311	100.0

그림 3-30 중산간 개발행위 증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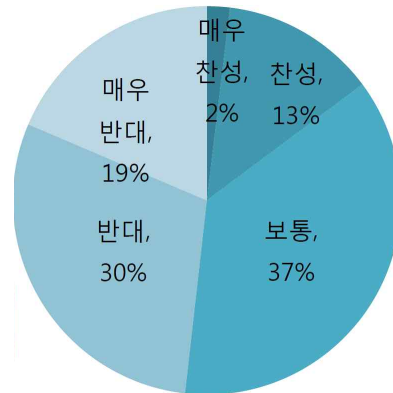


- 주요 간선도로인 평화로, 산록도로, 변영로, 남조로를 중심으로 한 골프장, 리조트,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 150명(48.2%), 보통 115명(37.0%), 찬성하는 편 46명(14.8%)으로 나타남

표 3-10 주요 간선도로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찬성	6	1.9
찬성	40	12.9
보통	115	37.0
반대	92	29.6
매우 반대	58	18.6
합계	311	100.0

그림 3-31 주요간선도로 주변  
개발에 대한 인식



-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 195명(62.7%), 없다 116명(37.3%)으로 나타남
- 제주 경관을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평소 제주도의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 78명(40.0%), 제주도만이 가진 특별한 경관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70명(35.9%), 많은 아파트와 큰 건물을 볼 때 13명(6.7%), 시끄럽고 복잡한 도로 경관을 볼 때 11명(5.6%), 늘 보이던 한라산과 바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9명(4.6%), 신문, 방송에서 제주도 경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7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소 제주도 경관에 대해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거에 비해 생각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평소 제주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제주만의 특별한 풍경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147명(47.3%), 만족하는 편 127명(40.8%), 불만족 하는 편 37명(11.9%)으로 나타남
- 제주도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8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만족은 더 높아짐

- 제주 경관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 77명(60.6%),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 28명(22.0%),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10명(7.9%), 유명한 경관으로 소문이 나서 6명(4.7%), 비교적 중저층 높이의 건물이 조화롭게 보여서 5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95	62.7
아니오	116	37.3
합계	311	100.0

표 3-12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평소 제주도의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	78	40.0
제주도만이 가진 특별한 경관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70	35.9
신문, 방송에서 제주도 경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늘 보이던 한라산과 바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7	3.6
	9	4.6
많은 아파트와 큰 건물을 볼 때	13	6.7
시끄럽고 복잡한 도로 경관을 볼 때	11	5.6
기타	7	3.6
합계	195	100.0

표 3-13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36	11.6
만족	91	29.3
보통	147	47.3
불만족	34	10.9
매우 불만족	3	1.0
합계	311	100.0

표 3-14 제주 경관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	77	60.6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10	7.9
유명한 경관으로 소문이 나서	6	4.7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	28	22.0
비교적 중저층 높이의 건물이 조화롭게 보여서	5	3.9
기타	1	0.8
합계	127	100.0

-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물 때문 25명(67.6%), 제주도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5명(13.5%), 상징적인 요소가 없어서와 밀집되고 개성 없는 고층 건축물이 각각 2명(5.4%)으로 나타남

표 3-15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도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5	13.5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물 때문	25	67.6
상징적인 요소가 없어서	2	5.4
밀집되고 개성없는 고층 건축물	2	5.4
기타	3	8.1
합계	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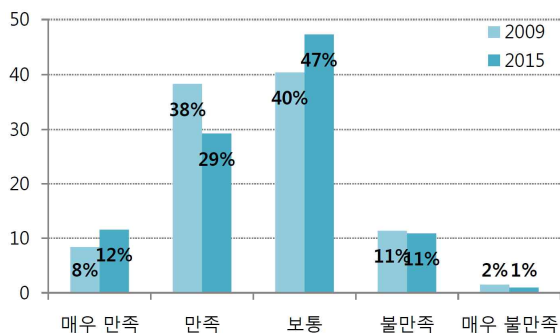


그림 3-32 제주도 경관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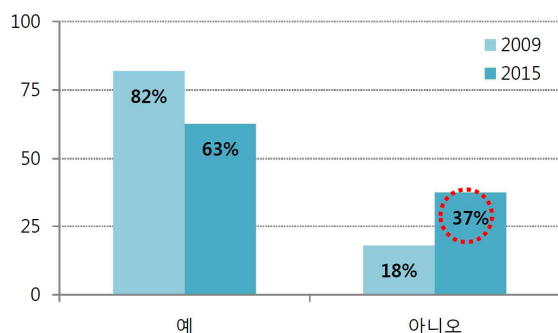


그림 3-33 평소 제주도 경관에 대한 생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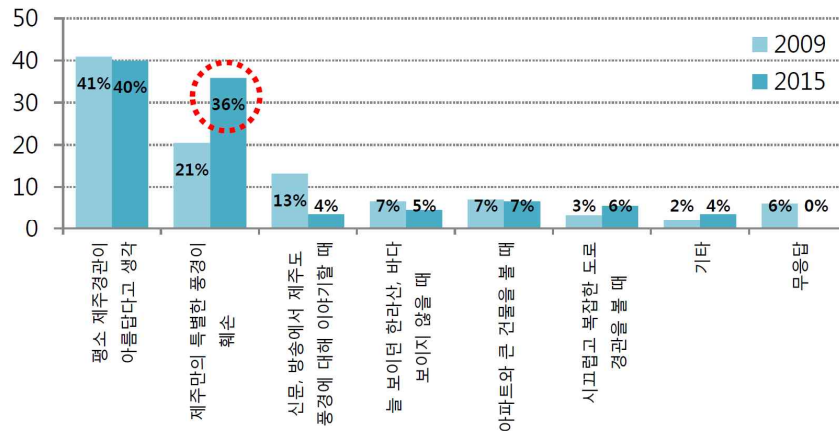


그림 3-34 제주도 경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

- 제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으로는 한라산 115명(37.0%), 바다전경 57명(18.3%), 오름, 성산일출봉이 각각 41명(13.2%), 해안도로 24명(7.7%), 해수욕장, 우도가 각각 8명(2.6%), 폭포 4명(1.3%), 주상절리, 산방산, 섭지코지가 각각 3명(1.0%), 용두암 2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6 제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

구분	빈도(명)	비율(%)
한라산	115	37.0
오름	41	13.2
성산일출봉	41	13.2
바다전경	57	18.3
해안도로	24	7.7
중문단지	1	0.3
주상절리	3	1.0
산방산	3	1.0
해수욕장	8	2.6
우도	8	2.6
섭지코지	3	1.0
폭포	4	1.3
사라봉	1	0.3
용두암	2	0.6
합계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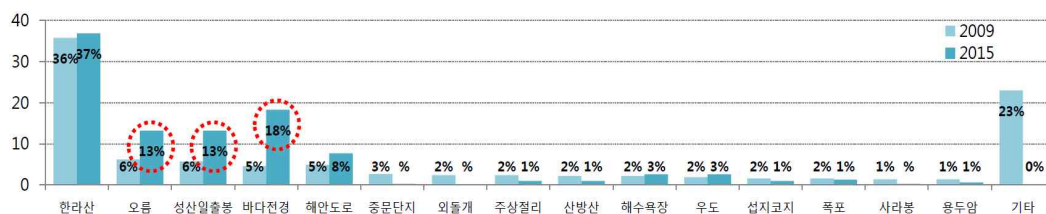


그림 3-35 제주에서 선호하는 경관

- 제주 경관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주차 81명(26.0%), 송전탑 54명(17.4%), 고층건축물 50명(16.1%), 나홀로식 관광지 34명(10.9%), 해안도로 주위의 건물 25명(8.0%), 해안가 양식장 24명(7.7%), 복잡한 도시구조 17명(5.5%), 원색의 건물 12명(3.9%), 도로간판 6명(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7 제주 경관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

구분	빈도(명)	비율(%)
고층건축물	50	16.1
송전탑	54	17.4
해안가 양식장	24	7.7
복잡한 도시구조	17	5.5
도로간판	6	1.9
나홀로식 관광지	34	10.9
무질서한 주차	81	26.0
원색의 건물	12	3.9
해안도로 주위의 건물	25	8.0
기타	8	2.6
합계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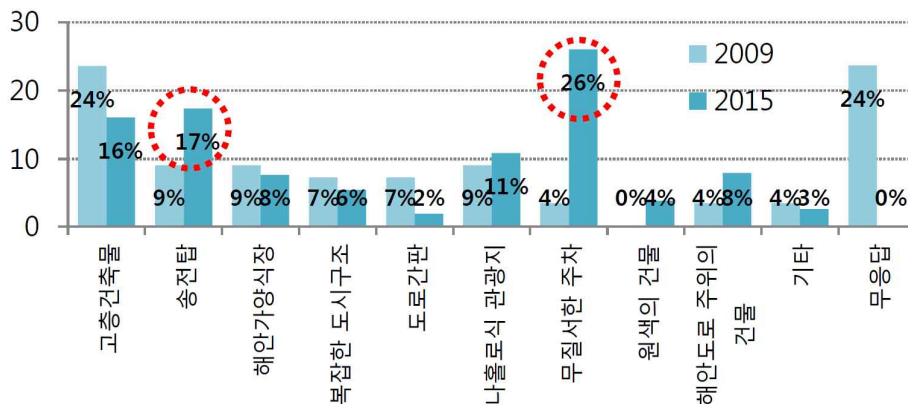


그림 3-36 제주도에서 불만족스러운 경관

- 제주의 상징적인 경관은 제주의 중심에 있는 한라산 128명(41.2%),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 풍경 65명(20.9%), 부드러운 곡선의 능선을 보유한 오름 42명(13.5%), 초가집과 돌담이 있는 제주의 전통가옥 31명(10.0%),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 27명(8.7%), 말과 소가 보이는 넓은 목장 9명(2.9%), 농업문화유산인 밭담과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가 각각 3명(1.0%), 제주를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축물 2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8 제주의 상징적인 경관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의 중심에 있는 한라산	128	41.2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 풍경	65	20.9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	27	8.7
부드러운 곡선의 능선을 보유한 오름	42	13.5
초가집과 돌담이 있는 제주의 전통가옥	31	10.0
농업문화유산인 밭담	3	1.0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	3	1.0
말과 소가 보이는 넓은 목장	9	2.9
제주를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축물	2	0.6
기타	1	0.3
합계	311	100.0

- 제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로는 관광지 안내표지 88명(28.3%), 상업간판 74명(23.8%), 휴게시설 50명(16.1%), 버스 색채, 버스정류장의 대중교통 디자인 41명(13.2%), 주요도로의 가로수 27명(8.7%), 임시광고물 22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9 제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

구분	빈도(명)	비율(%)
관광지 안내표지	88	28.3
버스 색채, 버스정류장의 대중교통 디자인	41	13.2
상업간판	74	23.8
휴게시설	50	16.1
임시광고물	22	7.1
주요도로의 가로수	27	8.7
기타	9	2.9
합계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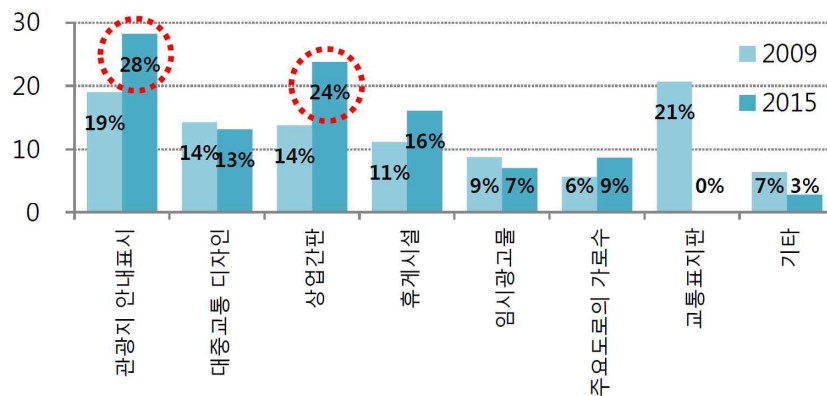


그림 3-37 제주도에서 개선해야할 공공시설물

### 3) 경관계획 수립 관련

- 경관계획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 203명(65.3%), 해안도로, 교량 등의 교통로 및 보행자 환경 등 도로정비 29명(9.3%), 대규모 건축물, 단지 등 개발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22명(7.1%), 전신주, 송전탑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 정비 19명(6.1%), 간판 광고물 거리 정비 등 공공디자인 개선 14명(4.5%), 상징적인 건축 또는 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 13명(4.2%), 건축물의 형태, 색채, 높이, 재료 등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7명(2.3%), 임시 시설물 규제 방안 마련 2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0 경관계획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	203	65.3
간판 광고물 거리 정비 등 공공디자인 개선	14	4.5
해안도로, 교량 등의 교통로 및 보행자 환경 등 도로정비	29	9.3
전신주, 송전탑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 정비	19	6.1
대규모 건축물, 단지 등 개발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22	7.1
건축물의 형태, 색채, 높이, 재료 등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7	2.3
상징적인 건축 또는 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	13	4.2
임시 시설물 규제 방안 마련	2	0.6
기타	2	0.6
합계	311	100.0

-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256명(82.3%), 불필요하다 55명(17.7%)으로 나타남

표 3-21 경관 관련 계획·사업에 대한  
도민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필요	256	82.3
불필요	55	17.7
합계	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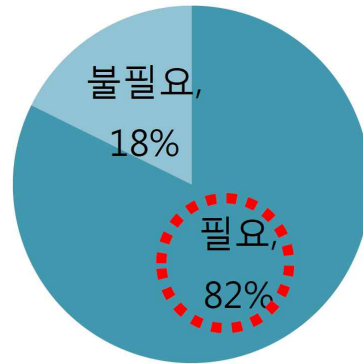


그림 3-38 경관계획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 83명(32.4%), 주민 자발적으로 주민 협의체 구성과 마을 만들기 운동 방식의 참여 72명(28.1%), 간접적인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 참여 방식 51명(19.9%), 관 위주의 협의체 구성과 경관사업에 주민이 참여 43명(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2 적절한 도민 홍보 및 교육 방식

구분	빈도(명)	비율(%)
주민자치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	83	32.4
주민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과 마을 만들기 운동 방식의 참여	72	28.1
관 위주의 협의체 구성과 경관사업에 주민이 참여	43	16.8
간접적인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 참여 방식	51	19.9
기타	7	2.7
합계	2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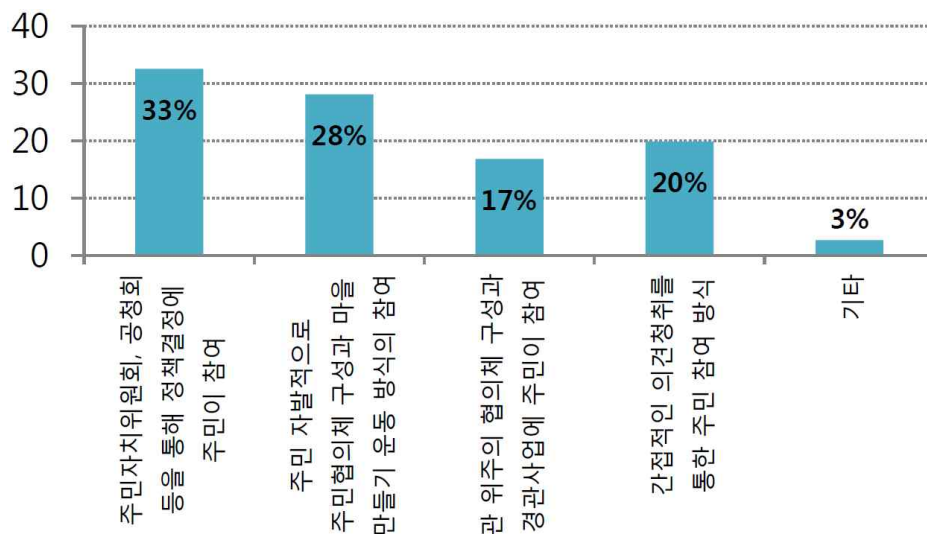


그림 3-39 적절한 홍보 및 교육방식

- 제주 경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으로는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 11명(42.3%), 규제 강화 및 무분별한 개발 금지 6명(23.1%), 꽃자왈 등 중산간 개발 규제, 쓰레기처리, 해안가 정비(카페촌 등)가 각각 2명(7.7%), 구 도심 정비(도시미관 등), 도로 및 교통정비, 철탑 및 전신주 지중화가 각각 1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3 제주 경관에 관한 건의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꽃자왈 등 중산간 개발 규제	2	7.7
구 도심 정비(도시미관 등)	1	3.8
규제 강화 및 무분별한 개발 금지	6	23.1
도로 및 교통정비	1	3.8
쓰레기처리	2	7.7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	11	42.3
철탑 및 전신주 지중화	1	3.8
해안가 정비(카페촌 등)	2	7.7
합계	26	100.0

### 3.4.3 관광객

#### 1)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 204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12명(54.9%), 남성 92명(45.1%)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67명(32.8%), 20대 65명(31.9%), 40대 30명(14.7%), 50대 26명(12.7%), 60대 이상 16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116명(56.9%), 영남권 45명(22.1%), 충청권 18명(8.8%), 호남권 13명(6.4%), 강원권 12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4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92	45.1
	여성	112	54.9
연 령	20대	65	31.9
	30대	67	32.8
	40대	30	14.7
	50대	26	12.7
	60대 이상	16	7.8
	합계	204	100.0
지 역	서울/수도권	116	56.9
	강원권	12	5.9
	충청권	18	8.8
	호남권	13	6.4
	영남권	45	22.1
합계		2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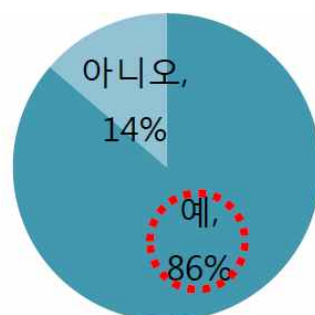
## 2) 제주를 관광하면서 경관에 대해 느끼는 사항

-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 176명(86.3%), 없다 28명(13.7%)으로 나타남

표 3-25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76	86.3
아니오	28	13.7
합계	204	100.0

그림 3-40 관광객의 제주도 경관 생각여부



- 제주 경관을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평소 제주도의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4명(7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도만이 가진 특별한 경관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21명(11.9%), 신문, 방송에서 제주도 경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14명(8.0%), 많은 아파트와 큰 건물을 볼 때와 시끄럽고 복잡한 도로 경관을 볼 때가 각각 7명(4.0%), 늘 보이던 한라산과 바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1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6 제주 경관에 대해 생각하게 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평소 제주도의 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	124	70.5
제주도만이 가진 특별한 경관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21	11.9
신문, 방송에서 제주도 경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14	8.0
늘 보이던 한라산과 바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1	0.6
많은 아파트와 큰 건물을 볼 때	7	4.0
시끄럽고 복잡한 도로 경관을 볼 때	7	4.0
기타	2	1.1
합계	1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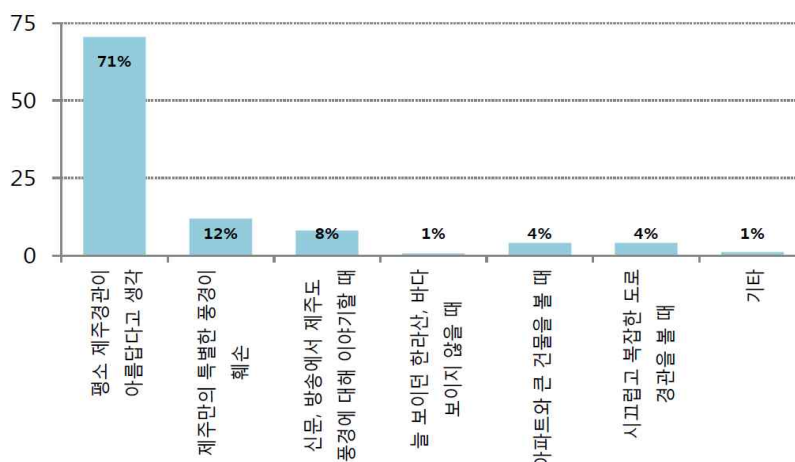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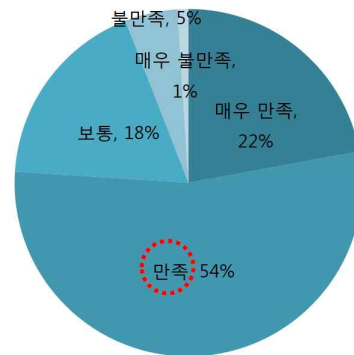
그림 3-41 관광객의 제주도 경관을 생각하게 된 계기

-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 155명(76.0%), 보통 37명(18.1%), 불만족 하는 편 12명(5.9%)으로 나타남

표 3-27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45	22.1
만족	110	53.9
보통	37	18.1
불만족	10	4.9
매우 불만족	2	1.0
합계	204	100.0

그림 3-42 관광객 경관 만족도



- 제주 경관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명(5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 53명(34.9%),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8명(5.3%), 유명한 경관으로 소문이 나서 7명(4.6%), 비교적 중저층 높이의 건물이 조화롭게 보여서 3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8 제주 경관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	80	52.6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어서	8	5.3
유명한 경관으로 소문이 나서	7	4.6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	53	34.9
비교적 중저층 높이의 건물이 조화롭게 보여서	3	2.0
기타	1	0.7
합계	152	100.0

-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물 때문 6명(60.0%), 제주도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4명(40.0%)으로 나타남

표 3-29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도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4	40.0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및 시설물 때문	6	60.0
합계	10	100.0

- 제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으로는 바다전경이 49명(2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안도로 35명(17.2%), 한라산 29명(14.2%), 우도 26명(12.7%), 성산일출봉 21명(10.3%), 오름 16명(7.8%), 주상절리 10명(4.9%), 섭지코지 7명(3.4%), 폭포 4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0 제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경관

구분	빈도(명)	비율(%)
한라산	29	14.2
오름	16	7.8
성산일출봉	21	10.3
바다전경	49	24.0
해안도로	35	17.2
중문단지	2	1.0
외돌개	2	1.0
주상절리	10	4.9
산방산	1	.5
해수욕장	2	1.0
우도	26	12.7
섬지코지	7	3.4
폭포	4	2.0
합계	2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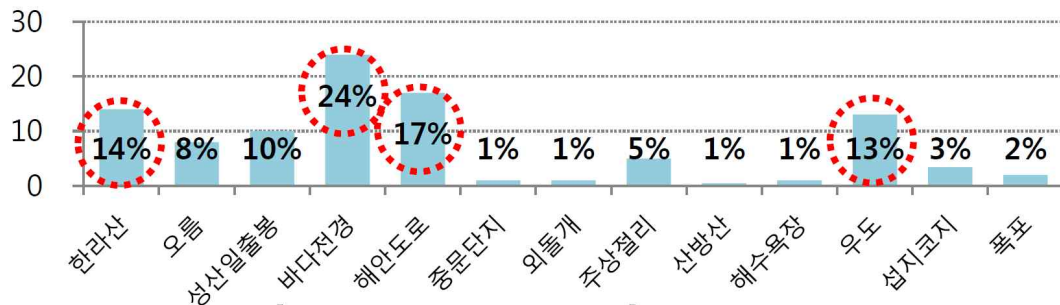


그림 3-43 제주도에서 선호하는 경관

- 제주 경관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주차라는 응답이 56명(2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홀로식 관광지 26명(12.7%), 복잡한 도시구조 25명(12.3%), 고층 건축물 22명(10.8%), 송전탑 20명(9.8%), 해안도로 주위의 건물 18명(8.8%), 도로간판과 원색의 건물이 각각 6명(2.9%), 해안가 양식장 5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1 제주 경관에 불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는 요소

구분	빈도(명)	비율(%)
고층건축물	22	10.8
송전탑	20	9.8
해안가 양식장	5	2.5
복잡한 도시구조	25	12.3
도로간판	6	2.9
나홀로식 관광지	26	12.7
무질서한 주차	56	27.5
원색의 건물	6	2.9
해안도로 주위의 건물	18	8.8
기타	20	9.8
합계	2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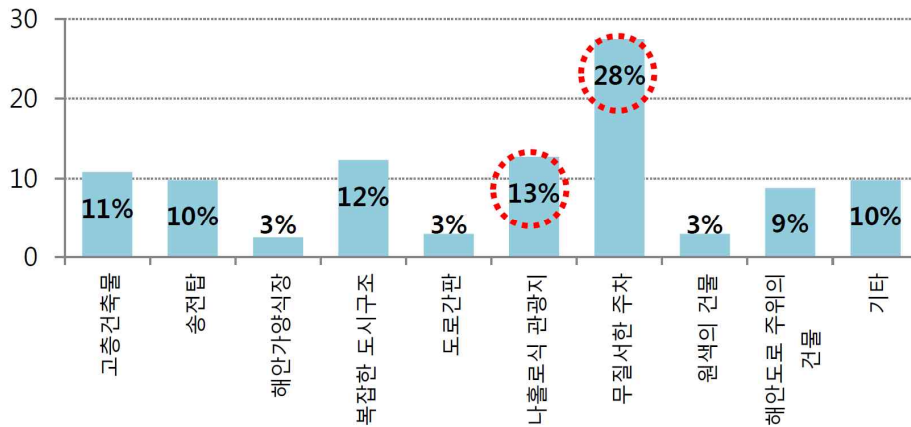


그림 3-44 제주도에서 불만족스러운 경관

- 제주다운 상징 경관은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 풍경이라는 응답이 58명(2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의 중심에 있는 한라산 57명(27.9%),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 28명(13.7%), 초가집과 돌담이 있는 제주의 전통가옥 24명(11.8%), 부드러운 곡선의 능선을 보유한 오름 21명(10.3%), 말과 소가 보이는 넓은 목장 9명(4.4%),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 4명(2.0%), 농업문화유산인 밭담과 제주를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축물이 각각 1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2 제주다운 상징 경관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의 중심에 있는 한라산	57	27.9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 풍경	58	28.4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전원적 풍경	28	13.7
부드러운 곡선의 능선을 보유한 오름	21	10.3
초가집과 돌담이 있는 제주의 전통가옥	24	11.8
농업문화유산인 밭담	1	0.5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	4	2.0
말과 소가 보이는 넓은 목장	9	4.4
제주도를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축물	1	0.5
기타	1	0.5
합계	204	100.0

- 제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로는 상업간판이라는 응답이 50명(2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지 안내표지 42명(20.6%), 버스 색채, 버스정류장의 대중교통 디자인 38명(18.6%), 임시광고물 29명(14.2%), 휴게시설 27명(13.2%), 주요도로의 가로수 8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3 제주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

구분	빈도(명)	비율(%)
관광지 안내표지	42	20.6
버스 색채, 버스정류장의 대중교통 디자인	38	18.6
상업간판	50	24.5
휴게시설	27	13.2
임시광고물	29	14.2
주요도로의 가로수	8	3.9
기타	10	4.9
합계	2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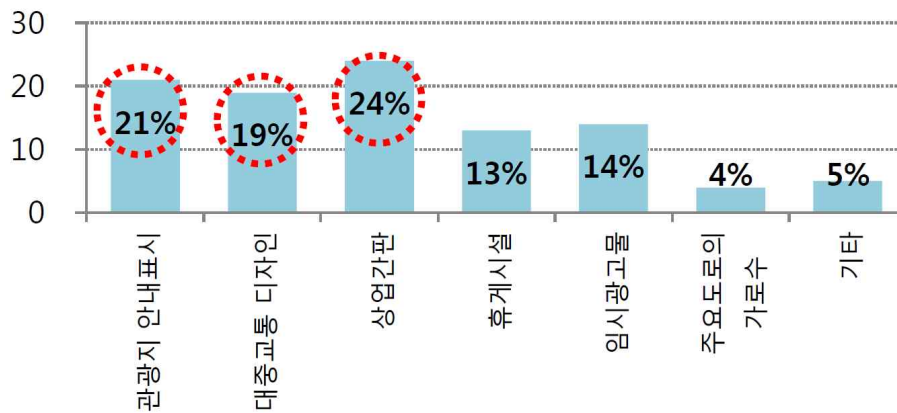


그림 3-45 제주도에서 개선해야할 공공시설물

### 3) 제주 관광활동

- 제주를 방문한 횟수에 대해서는 2~3회가 107명(5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5회 38명(18.6%), 처음 28명(13.7%), 5~6회 18명(8.8%), 7회 이상 13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 숙박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남(204명)
- 숙박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동지역 106명(32.5%), 제주시 동지역 92명(28.2%), 서귀포시 읍면 지역 69명(21.2%), 제주시 읍면지역 59명(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4 제주 방문 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처음	28	13.7
2~3회	107	52.5
4~5회	38	18.6
5~6회	18	8.8
7회 이상	13	6.4
합계	204	100.0

표 3-35 숙박한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시 동지역	92	28.2
제주시 읍면지역	59	18.1
서귀포시 동지역	106	32.5
서귀포시 읍면지역	69	21.2
합계	326	100.0

표 3-36 머물렀거나 머물 예정인 곳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시 동지역	105	24.6
제주시 읍면지역	85	20.0
서귀포시 동지역	139	32.6
서귀포시 읍면지역	97	22.8
합계	426	100.0

- 숙박의 유형은 콘도미니엄/펜션/민박이 94명(4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호텔 41명(20.1%), 게스트하우스 31명(15.2%), 특급호텔 26명(12.7%), 친구/친지집 6명(2.9%), 모텔/여관 3명(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숙박지 선택의 요인에 대해서는 숙소나 숙소주변에서 보이는 좋은 경관이라는 응답이 54명(2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48명(23.6%), 유명 관광지와 가까이 있어서 34명(16.7%), 숙소 내부에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17명(8.4%), 조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16명(7.9%), 친인척 및 지인이 거주 7명(3.4%), 자주 이용하는 장소 6명(3.0%), 입소문난 숙소라서 3명(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광시 머물렀거나 머물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동지역 139명(32.6%), 제주시 동지역 105명(24.6%), 서귀포시 읍면지역 97명(22.8%), 제주시 읍면지역 85명(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7 숙박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특급호텔	26	12.7
관광호텔	41	20.1
콘도미니엄/펜션/민박	94	46.1
게스트하우스	31	15.2
모텔/여관	3	1.5
친구/친지집	6	2.9
기타	3	1.5
합계	204	100.0

표 3-38 숙박지 선택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숙소나 숙소주변에서 보이는 좋은 경관	54	26.6
유명 관광지와 가까이 있어서	34	16.7
가격이 저렴해서	48	23.6
숙소 내부에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17	8.4
조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16	7.9
입소문난 숙소라서	3	1.5
자주 이용하는 장소	6	3.0
친인척 및 지인이 거주	7	3.4
기타	18	8.9
합계	203	100.0

- 금번 제주 방문의 가장 주된 목적은 휴가/휴양여행 및 관광이 176명(8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혼여행, 친구/친지 방문 8명(3.9%), 비즈니스 회의/거래처 방문 7명(3.4%), 레저/스포츠 활동과 올레 탐방이 각각 3명(1.5%), 컨벤션/학술세미나 참석과 가족 및 친지행사 방문이 각각 2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9 제주 방문의 가장 주된 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휴가/휴양여행 및 관광	176	86.3
비즈니스 회의/거래처 방문	7	3.4
신혼여행, 친구/친지 방문	8	3.9
컨벤션/학술세미나 참석	2	1.0
가족 및 친지행사 방문	2	1.0
레저/스포츠 활동	3	1.5
올레 탐방	3	1.5
기타	3	1.5
합계	204	100.0

- 제주 경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으로는 무분별한 투자 유치 및 난개발 제한이 11명(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로 및 표지판 정비 5명(17.9%), 쓰레기통 확충, 간판 및 조명 정비가 각각 3명(10.7%), 해안 정비(쓰레기 등) 및 화장실 개선이 각각 2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0 제주 경관에 관한 건의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간판 및 조명 정비	3	10.7
건축물 규제	1	3.6
구도심 경관의 부조화	1	3.6
도로 및 표지판 정비	5	17.9
무분별한 투자 유치 및 난개발 제한	11	39.3
쓰레기통 확충	3	10.7
해안 정비(쓰레기 등)	2	7.1
화장실 개선	2	7.1
합계	28	100.0

## IV. 기존계획 검토



## IV. 기존계획 검토

### 4.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 4.1.1 경관 및 관리계획

##### 1) 계획의 용어 분석

- R은 통계계산(statistical computation) 및 자료의 시각화(data visualization)을 위한 공개용 소프트웨어로 경관 및 관리계획의 용어빈도를 시각화함
-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경관, 제주, 사용, 유도, 권장, 재료, 설치, 관리, 색채, 주변 순임
- 어떤 행위나 지침에 대한 사용, 유도, 권장으로 금지, 지양에 대한 규제의 언어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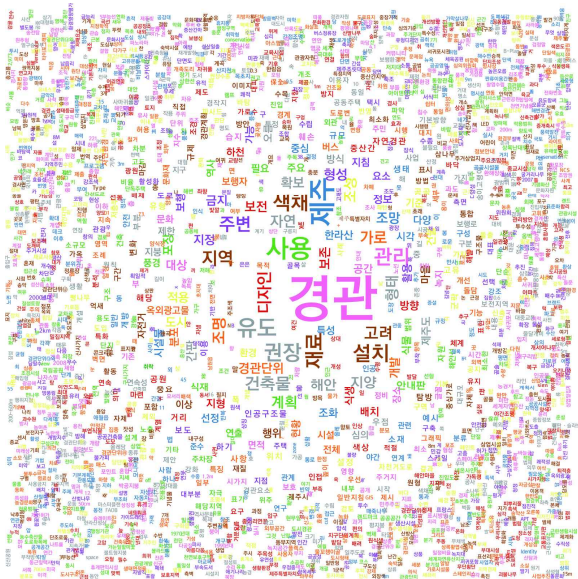


그림 4-1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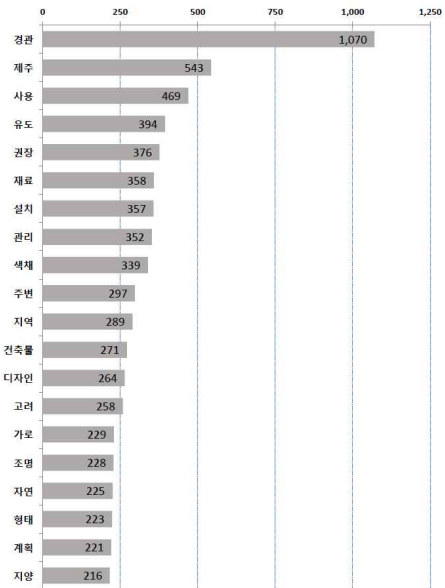


그림 4-2 경관계획 용어빈도

- 1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경관, 분포, 식물, 제주, 건축물, 우점, 지역, 보전, 주변, 형태 순으로 나타남
- 2부는 용어는 경관, 분포, 제주, 디자인, 풍경, 保全, 공간, 제주도, 가치, 자연 순으로 나타나고, 이념과 방향성에 관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디자인, 풍경, 공간, 가치, 역사, 관계, 변화, 삶, 의미 등의 용어가 보임
- 3부는 더욱 세부적인 부문별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용어는 경관, 사용, 제주, 유도, 권장, 설치, 색채, 관리, 재료, 고려 순으로 나타남
- 4부에서는 경관, 디자인, 사업, 제주, 고려, 안내판, 검토, 설계, 경로, 산지천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경관계획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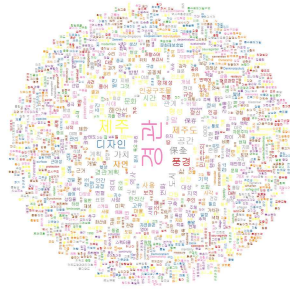


그림 4-4 경관계획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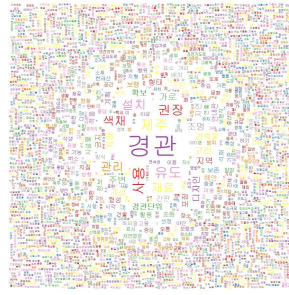


그림 4-5 경관계획 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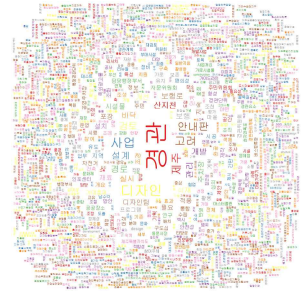


그림 4-6 경관계획 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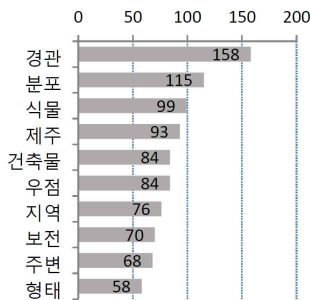


그림 4-7 경관계획 1부  
용어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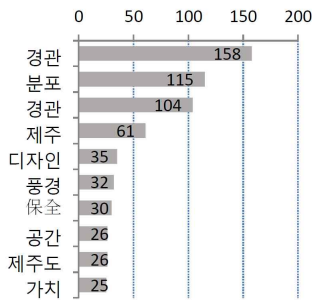


그림 4-8 경관계획 2부  
용어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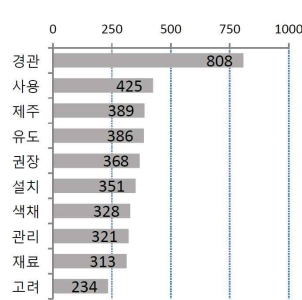


그림 4-9 경관계획 3부  
용어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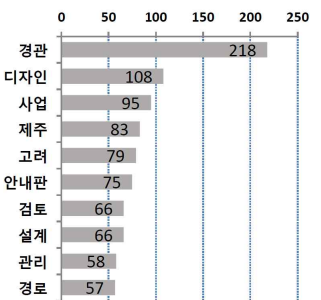


그림 4-10 경관계획 4부  
용어빈도

## 2) 경관 및 관리계획의 개선사항

### (1) 관리보전지역 등과의 연계성

-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관리보전지구 지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경관지구의 경우는 오름주변 경관등급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관리보전지역 등급도 현실화하도록 함
-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기준과 경관미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점수 부여(중복성)
- 경관단위의 크기가 대규모로 구분되어 개별필지 민원 대응 미흡
  - 시각적흡수능력 대신 해발고도에 따른 경관권역 사용
- 경관보전지구 행위제한 반영
  -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경관단위 반영(자연환경현황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해발고도에 따라 설정)
-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기획단 해안경관관리가이드라인(2011.5) 내용 반영
  -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중점관리구역( 100m), 해안연접관리구역(500m)

표 4-1 경관권역의 유형

구분	내 용	경관권역
A권역	A-1 : 해발고도 600m이상 (절대보전구역의 자연환경보전) A-2 : 해안선으로부터 내륙방향으로 50m 경계선	(4점)
B권역	B-1 : 200m이상 ~ 600m 미만 (제주 고유자연 경관의 원형지역) B-2 : 해안선 으로부터50m이상~ 해안선으로부터 내륙방향으로 500m 경계선	(3점)
C권역	C : 해안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 방향 1.2km 경계선 이상~ 200m미만 (자연자원 보전과 거주민의 생활관습을 배려한 지역)	(2점)
D권역	D : 해안선으로부터500m이상~ 해안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방향 1.2km미만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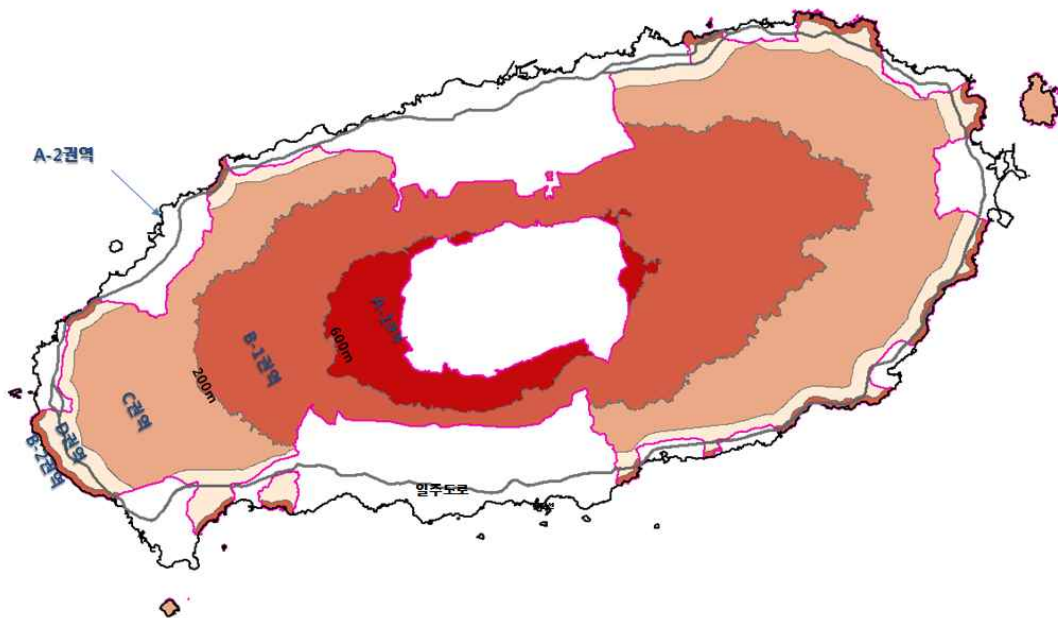


그림 4-11 경관권역 설정 예시도

## 4.1.2 경관지침

### 1) 지침의 용어 분석

- 경관관리지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유도, 권장, 준수, 경관, 금지, 사용, 재료, 설치, 색채, 조명 순으로 나타남
- 지침의 성격상 유도, 권장, 준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재료와 색채, 조명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남
- 자의적 해석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예시-지양 : 가급적 금지사항으로 허용소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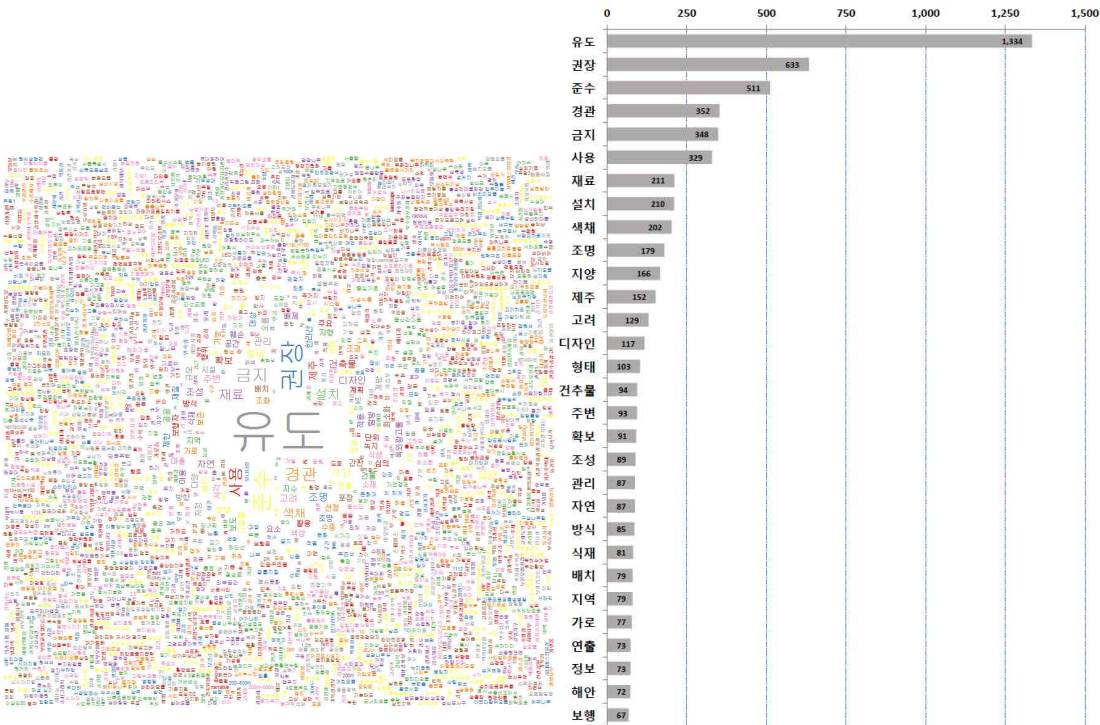


그림 4-12 경관지침

그림 4-13 경관지침 용어빈도

### 2) 경관지침의 개선사항

#### (1) 지양의 모호한 해석

- 경관지침에서 행위의 '지양'에 대한 조항은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모호한 의미를 부여하므로 단서조항 제시 필요
- 공간 유형의 구분 기준 필요
  - 경관단위 다 (해안일주도로~한라산 방향 12.km 경계선 이상 : 중산간, 시가지), 경관단위 라 (해안선이상 해안일주도로 1.2km 경계선 미만 : 중산간, 해안, 시가지), 경관단위 마 (부속도서 및 해수면 : 해안, 도서)로 구분
  - 중산간 경관과 해안 경관을 구분하는 목적은 해발고도에 의해 지역을 나누어 상이한 관리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산간마을, 해안마을 경관의 미세한 특성에 의한 차별적이되 탄력적인 지침으로 제주도 취락경관을 관리하기 위함임. 즉 해당마을의 특성적 분류일 뿐이며 마을의 종류를 이분화하지 않음 (경관 및 관리계획, 2009)
  - 해발고도와 무관하더라도 자연환경적 조건, 입지, 생업의 종류 등에 의해 [중산간적(的)]특성이 드러나는 마을을 포함함. 애월읍 수산리가 그 예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임

- 마을의 특성은 해안일주도로와 중산간로 인접도로, 주요이용도로, 생활권으로 마을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음



그림 4-14 모호한 중산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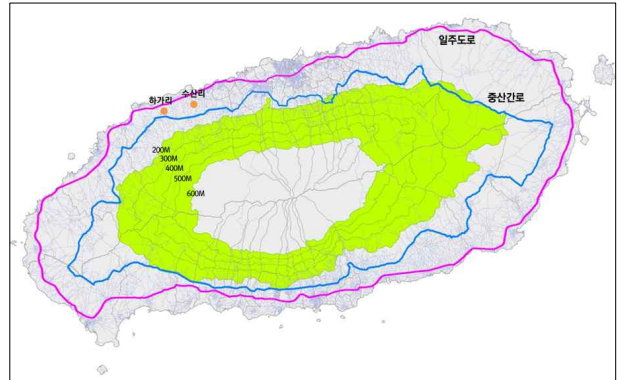


그림 4-15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현황

## (2) 오름의 전반적인 경관관리 기준 마련

- 오름 자체의 개별적 관리는 물론 오름과 오름 사이지역, 오름 주변지역을 인공개발경관의 간섭으로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제주 원풍경을 지속하도록 함
- 특히 동부오름군락에서의 경관지침에 따른 경관심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애초에 정한 원칙들이 개발의 압력으로 흔들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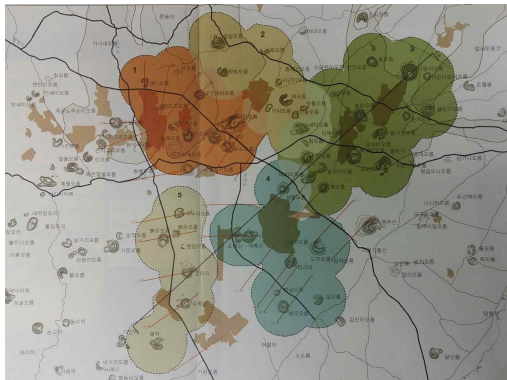


그림 4-16 동부오름군락



그림 4-17 동부오름군락군 초지현황

## (3) 오름과의 관계성

- 제주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변, 단변으로 단면도로 확인하였고, 동부오름군락은 별도로 분석하였음
- 제주지역은 중앙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림 4-18 남-북 단면도



그림 4-19 서-동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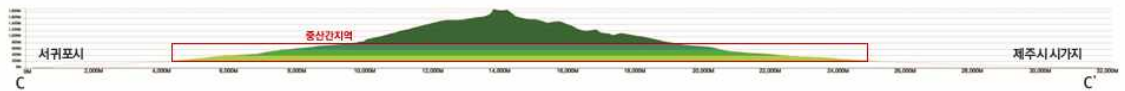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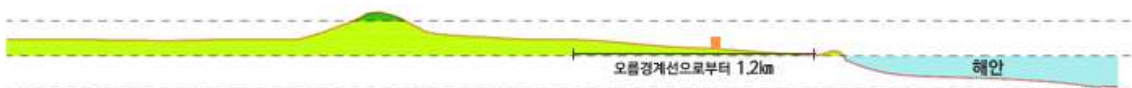
그림 4-20 제주시 시가지를 기준으로 한 단면도



그림 4-21 동부오름군락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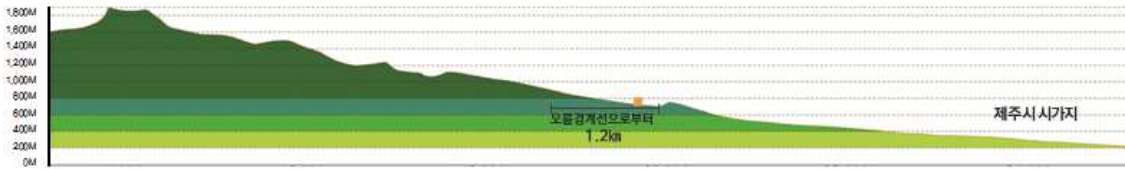
#### 가. 해안변

- 해안변인 경우 오름 비고(31m) : 오름이 해변에 위치하여 사업대상지의 해발고도가 높아 건물이 입지하면 오름을 압도하게 되는 경우임



#### 나. 중산간

- 한라산의 영향으로 사업대상지가 인접 오름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여 건물이 입지하면 오름과의 관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임



#### 다. 동부오름군락

- 특정경관단위 중에서 동부지역 오름 군락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높이를 4m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관심의를 통해 높이를 완화받고 있는 경우임



#### (4) 행정지원 기구의 설치

- 경관지침에서는 동부지역 오름 군락내에서의 소규모 축사설치 등과 같이 특정경관단위 지정목표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생업에 직결된 소규모 개발행위의 심의 제 절차를 돕기 위해 도청내 행정지원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그러나 현재 별도의 행정지원 기구를 설치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동부오름군락의 행정지원 기구 등의 별도의 조직 설치보다는 기존의 경관위원회 등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관련된 내용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경관요소별 기 수립된 계획을 지침과 연동하여 운용

- 재료, 색채, 디자인 등 경관 및 관리계획 이후 후속사업으로 제시되어 수립된 계획과 매칭하여 적용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6) 지역별 주요 조망점

- 100개의 주요 조망점이 수려한 경관지점으로 선정된 당초계획의 의도와 다르게 통제점으로 운영하려 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필요
  - 예를들어 기존의 100대 조망점에서의 가시권분석으로 경관관리 다양화 도모
- 현재 제시되는 경관심의 자료는 사업 전후의 경관변화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점들만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함
  - 향후에는 사업전후의 경관변화와 사업으로 인해 사업지역 주변의 경관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를 심의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체크리스트 작성시 사업전후의 경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관시물레이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임

#### (7) 개방지수

- 경관단위별로 개방지수를 주요조망대상 방향별로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2층, 8m 이하 건축물은 제외). 좌향, 절성토 등
  - 개방지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의시 잘못 산정된 개방지수를 볼 수 있음

- 개방지수는 경관단위별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절차와 심의는 혼란이 있어, 심의도서를 제출하고 심의 이전에 경관관리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항목들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체크리스트 확인 과정 도입

#### 4.1.3 기존계획의 평가

##### 1) 기존계획의 정통성 및 연계성

- 경관관리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관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경관관리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임
- 따라서 기존계획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계획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제주지역의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공공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 경관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2) 경관 및 관리계획의 엄격한 적용

-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관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최초의 엄격한 적용이 완화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제주지역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개발수요의 증가에 기인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정경관단위에서 개발수요 증가는 우려되는 수준임

##### 3) 기존계획의 보완

- 제주지역의 자연경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계획의 엄격한 적용도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곳은 공공에서 매입을 하거나 꽃자왈처럼 공유개념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동부오름군락지의 경우 경관이 우수하고 중점경관단위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대상지내의 사유지인 경우 토지세금을 50% 할인해 준다거나 매입을 해나간다거나 이러한 조치들을 공공에서 해 나가야 할 것임

### 4.2 경관심의 자료분석

#### 4.2.1 자료 분석

##### 1) 기 개발된 대규모 개발사업

-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경관자원 중요도 기준 설정 필요
  - 개발사업지가 오름보다 해발이 높은 지역에 입지한 경우, 지형지물에 의해 오름이 조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 제11호 규정에 의거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서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 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3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2층 8m로 제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 2009. 10. 제주특별자치도』 상 바닷가에서 바

- 라보는 해안경관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안변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한라산 조망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해안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4-22 해안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한라산조망저해



그림 4-23 해안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한라산 조망저해



그림 4-24 스카이라인 저해 : 이호유원지

- 경관 조망점 기준설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 2009. 10. 제주특별자치도』 상 100대 조망점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변에서의 연속적인 경관 및 오름에서의 부감(높은 곳에서 내려다봄)경관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경관평가의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그림 4-25 주요도로변에서의 개발사업지 경관 (아덴힐리조트)



그림 4-26 부감경관(새별오름에서 바라 본 아덴힐리조트)



그림 4-27 부감경관(새별오름에서 바라 본  
에버리스골프장)



그림 4-28 부감경관 (오설록전망대에서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및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허가된 기개발사업지에 대한 문제
  - 200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거 경관단위를 설정하여 경관단위별 일반 지침에 맞는 경관계획을 하고 있으나 2009년 10월 이전 기허가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른 규제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그림 4-29 기개발 사업장 경관



그림 4-30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색채계획

## 2) 시사점 도출

- 경관심의를 득한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및 색채 등 경관관리계획 지침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경관심의 이전 승인 및 허가를 득한 개발사업은 관리를 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필요
  - ex) 아덴힐리조트, 캐슬렉스제주, 에버리스골프장, 우리들CC, 엘레시안골프장 등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 2009. 10. 제주특별자치도』 상 100대 조망점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주요도로변(제2산록도로, 1100도로, 5·16도로, 남조로, 서성로, 번영로, 중산간도로 등) 통행시 차량에서의 조망권, 일주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에 따른 조망권, 주요관광지 및 오름에서의 조망 등 조망권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필요
- 개발사업지에서 지형지물에 의해 조망되지 않는 오름으로 인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지에서 경관자원의 중요도에 대한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로변에서 한라산방향으로의 경관
  - 주요도로변에서 해안으로의 경관
  - 해안에서 한라산방향으로의 경관
- 해안변 개발사업시행으로 바닷가와 육지로 이어지는 자연경관자원의 연속성 확보 필요

### (1) 경관심의 제도

가. 명문화된 경관심의 기준 부재(경관심의위원의 주관에 따른 경관심의 결정)

- 현재 경관심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 2009. 10. 제주특별자치도』에 의거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을 중심으로 경관심의가 운영 및 결정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경관관리지침), 2009. 10. 제주특별자치도』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 신청서류에 대하여 명시하여 명

문화하고 있음

- 경관심의시 신청서류 외 투자유치의 타당성 검토, 주차장 수요분석, 상수, 오수, 우수 등 기타 서류에 대하여 경관심의시 요청하고 있어 경관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경관심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를들어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차이나 비온드 힐 관광단지 조성사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나. 경관자문 및 심의대상 불명확(「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상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필요)

-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심의 기준 적용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1호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 당초 원형보전녹지지역에서 조성녹지지역으로 1㎡의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 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상 경미한 변경 범위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1㎡의 토지형질 변경도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음

다. 경관심의 인력구성에 대한 한계

#### ① 경관심의 위원회 구성의 한계

-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참으로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온 고유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지형 및 자연환경에 대한 경관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다른 지역의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주에 맞는 경관심의 위원회 구성에 한계점이 보임
- 경관 관련 전문분야로서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토목, 조경, 환경, 교통 등으로 다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일부 편중되어 있으며, 경관심의시 분야별 참석여부에 따라서 심의내용에 따른 조건사항이 상당 부분 달라짐

#### ② 경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

- 일반적으로 경관담당 공무원은 경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며, 보통 1년 ~ 2년에 1번 ~ 2번씩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관계획 및 심의 등에 익숙하지 않는 경관담당 공무원 등이 경관업무를 맡기 때문에 경관업무의 지속적 연계 및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운 실정임

라. 경관심의 운영의 비효율성

#### ①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필요

- 경관심의시 조건사항에 대한 재심의시 조건사항 위주의 경관재심의 진행이 필요하나, 1차 재심의에 대한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2차 심의를 받을 경우 재심의에 대한 의견 위주로 심

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분야별 참석여부에 따라 재심의시 변경계획(안)이 아닌 당초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경관심의가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경관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결과를 다음번 경관심시시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나, 심의 조건사항 외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또 다시 조치계획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음

### 3) 개선방안

#### (1) 기 개발된 대규모 개발사업

- 200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이전 기 허가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른 규제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신청 등에 따라 부대조건사항으로 권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발사업지에서 중요경관자원의 순위를 체크리스트하고,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바닷가 및 해상에서 바라보는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안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건축물 높이와 폭, 개방지수, 모양, 재료, 색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경관심의 제도

##### 가. 경관심의 기준 명확히 확립

##### ① 경관위원회 심의 서류 준비시 많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절감

- 경관위원회 사전검토 자문 단계 도입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과 같이 사전에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별표2. 심의 또는 자문 신청서류(제15조 관련) 등을 우선 준비하여 경관위원회 자문 시행

##### ②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통일

- 사전검토 자문 단계를 거친 경우,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함
-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재심의), 반려중 하나 선정
  - －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 －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 재검토(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재심의)
  - － 반려 : 관련법규 위반 및 심의요건 등이 불충분한 경우

##### ③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일 통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과 같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당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및 통보하여 불필요한 오해 불식

나. 경관심의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체크리스트 도입

- 정성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로 전환 :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만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진행
-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전환하여 경관체크리스트가 마련된다면, 경관위원회 심의시 객관성, 효율성, 투명성 등 확보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안)

사업명 : \_\_\_\_\_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1. 오름	오름 경계선에서 1.2km이내에 위치하는가?			
	특정경관단위에 해당하는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오름 정상에서의 경관적 검토 반영			
2. 개방지수	개방지수를 준수했는가?			
3. 높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건축물 높이관련 계획 및 규정에 준수 여부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를 오름 높이의 3/10 이내로 적용			
	하천의 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4. 조망점	경관지침의 조망점에서 대상사업과 보호할 경관 자원 검토 여부			
5. 경관시뮬레이션	사업대상지 인근 주요도로 오름 정상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반영 여부			
6. 좌향	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향하나 시각통로의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 여부			
	근경과 원경의 고려 여부			
7. 기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가?			

**[사업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림 4-31 경관심의 체크리스트(안)

## V. 기본구상



## V. 기본구상

### 5.1 경관관리 미래상

#### 5.1.1 경관이미지 검토

- 경관관리를 위하여 기존(2009년) 경관관리계획 수립이후의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2020년까지의 관리 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슈와 관련내용들을 정리함
- 경관관리 2020년의 주요이슈로는 우선 기존계획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의 땅과 필지들이 가진 독특한 지문을 먼저 고려하였음. 독특한 지문에는 한라산과의 경관적인 관련성, 파노라마 경관등이 관련됨
  - 제주올레, 돌담, 안거리·밖거리 등과 같은 고유의 공간에 대한 고려, 관광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안변, 해안도로 등도 경관관리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임
  - 현재 도내 중산간에는 개발사업들이 입지함에 따라 과도한 중산간 개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관리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음
- 또한 지역의 중요한 변화인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 및 개발수요도 고려해야 하며,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존중해야 함
- 경관의 미래상과 이미지 설정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자체적인 특성과 최근의 여건변화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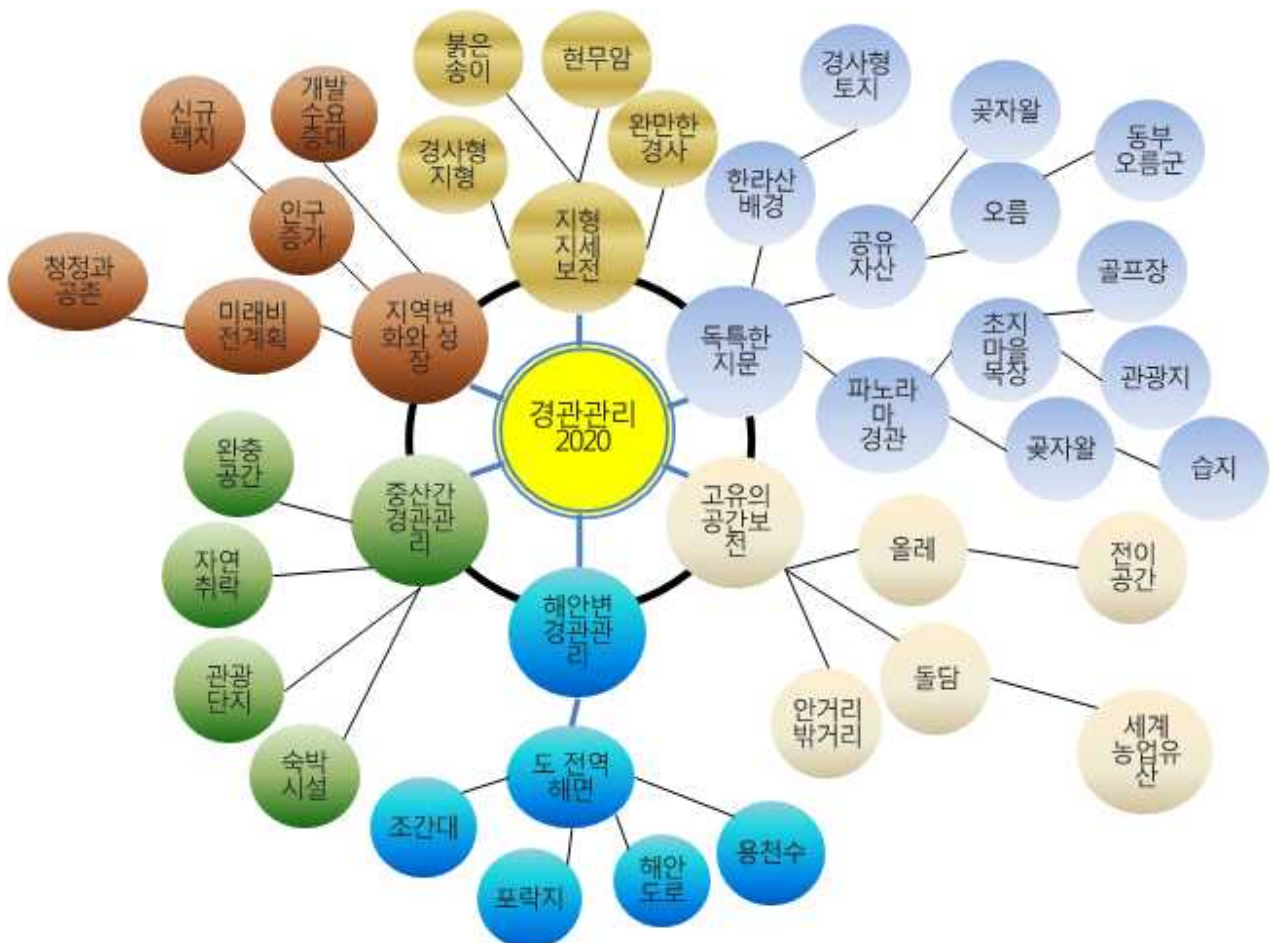


그림 5-1 여건분석 현황

### 5.1.2 미래상

- 시간과 공간이 서사적으로 연결된 풍경, 즉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현재가 되는 풍경을 뜻함
- 이는 과거가 지속적으로 땅에 새겨온 기억들을 존중하고 보전하면서, 새로운 욕망이 덧씌워져가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풍경임
- 또한 공간적으로 이곳과 저곳이 연결된 풍경을 뜻하며, 이는 지역별 자연풍경과 문화풍경의 차이가 존중되고 그것들이 순리적으로 연결된 풍경
- 여기에 ‘문화’가 부각되는 인류학적인 것임. 문화는 제도 속에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가치가 되며, 공동체와 구성원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함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미래상

##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 구축

### 목표

미래상을 이루기 위한 2020년까지 중기적인 목표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경관

### 목표1.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제주도의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해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창출  
중산간지역의 계획허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획일적 규제체계에서 유연한 허가체계에서의 경관 창출

### 목표2. 해안변 개발 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해안선에서 해안도로까지 해안변 내 도민이 정립한 지켜야할 생태·환경·인문적 자원에 대한 매력있는 경관 창출  
해안변 및 수변공간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전·이용에 대한 관리 틀 마련

### 목표3.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계획허가제가 확정되고 제도화되기 전에는 기존에 재정비 중인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을 청정과 공존의 이미지에 맞게 강화  
한라산, 세계자연유산지구, 오름, 하천, 습지 등에서 절대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선별을 통해 자연경관의 가치 향상

### 목표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제주의 특징적인 자연·인문경관의 권역 설정을 통한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경관 창출  
공공의 성격을 지닌 구조물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로 품격 있는 경관 창출

## 목표5. 미래변화를 고려한 개발 및 경관 관리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서 매력적이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  
 제주도만의 자연, 인문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타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경관 창출  
 읍면지역, 시가지, 비시가지 등 전체지역의 동질감 있는 경관형성으로 수준 높은 지역경관 창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상생하는 도시경관 관리

## 5.2 추진전략

### 5.2.1 목표별 추진전략

-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경관목표와 연계한 경관 14대 전략을 수립

목표 1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 전략1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정립
		▶ 전략2	개발과 보전의 유연한 허가 체계 구축
목표 2	해안변 개발 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 전략3	해안변 경관 및 개발수요 관리
		▶ 전략4	수변공간(하천, 습지, 용천수 등) 유지 및 지속성 확보
목표 3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 전략5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 전략6	난개발 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도모
목표 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전략7	제주다운 경관의 상징 오름 경관관리기준 활용
		▶ 전략8	역사문화공간 유지 및 거점공간화
		▶ 전략9	품격 있는 지역문화경관 창출 및 연계
		▶ 전략10	주요도로변 가로경관관리
목표 5	미래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고려	▶ 전략11	신규 개발사업의 계획허가제 도입
		▶ 전략1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 전략13	시가지와 읍면지역이 상생하는 도시경관 형성
		▶ 전략14	주민참여(교육 및 홍보)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 5.2.2 세부추진전략

### 목표1. 중산간 경관 유지 및 지속성 확보

전략	세부 추진전략	권역	축	거점	중점
전략1.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 선계획, 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관리방향 설정</li> <li>• 개발구역과 주변의 친환경적 이용</li> <li>• 단위시설물(송전탑, 공용화기지구 등)의 통합적 관리</li> </ul>	○			○
전략2. 개발과 보전의 유연한 허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별 차별적 관리 및 이용설정</li> <li>• 중산간지역에서 서귀포와 제주의 기 도시화된 지역의 차등 적용</li> </ul>	○ ○			

### 목표2. 해안변 개발 수요 억제 및 수변공간 유지

전략	세부 추진전략	권역	축	거점	중점
전략3. 해안변 경관 및 개발수요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변 개발등급 설정</li> <li>• 해안변 블루벨트 도입</li> <li>• 해안변 소규모 건축물, 경관 위해 시설물의 관리</li> </ul>	○ ○ ○			
전략4. 수변공간(하천, 습지, 용천수 등) 유지 및 지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습지 등의 생태환경 보전</li> <li>• 시가지 인접 수변의 위해 시설물 관리</li> <li>• 수변공간의 공공 기능성 확보 (열린공간 확보)</li> </ul>		○ ○	○	○

### 목표3. 환경자원 보전을 고려한 공간전략

전략	세부 추진전략	권역	축	거점	중점
전략5.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곳자왈, 특정 오름, 중산간 등의 행위제한</li> <li>• 곳자왈 개발 지양</li> <li>• 오름경관 보존 및 개발시 배제</li> </ul>				○ ○ ○
전략6. 난개발 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간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li> <li>• 해안변 경관심의 강화</li> <li>• 곳자왈 생태체험공간화 및 공원화</li> </ul>	○			○

목표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전략	세부 추진전략	권역	축	거점	중점
전략7. 제주다운 경관의 상징 오름 경관관리 기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름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li> <li>동부오름군락의 경관관리 강화</li> <li>서부오름군락의 경관관리</li> </ul>	○			○ ○
전략8. 역사문화공간 유지 및 거점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덕정, 삼성혈 등의 역사문화공간의 보존</li> <li>세계자연유산지구의 보전 및 열린 경관 형성</li> <li>공공공간의 지역성 확보 및 경관 요소의 연계</li> </ul>			○ ○	○ ○
전략9. 품격 있는 지역문화경관 창출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사업</li> <li>공공건축물 녹화사업 추진</li> <li>중점경관단위 구역 지원단 설치 및 운영(경관위원회)</li> </ul>	○ ○			○
전략10. 주요도로변 가로경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간선도로(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변영로, 남조로)의 가로경관 관리</li> <li>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도로 경관관리</li> <li>해안 일주도로 주변의 인공물 관리</li> </ul>		○ ○ ○		

목표5. 미래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고려

전략	세부 추진전략	권역	축	거점	중점
전략11. 신규 개발사업의 계획허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의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li> </ul>				○
전략12.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지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li> <li>중산간, 해안, 시가지 경관 창출</li> </ul>	○ ○			
전략13. 시가지와 읍면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망권 확보를 위한 전선지중화 방안</li> <li>읍면지역 및 농·산·어촌 특화경관 조성</li> <li>지역에 부합하는 경관 요소별 계획 연계</li> </ul>	○ ○ ○			
전략14. 주민참여(교육 및 홍보)에 의한 지속 가능한 경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자원 및 의사 조사의 체계화</li> <li>도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관산업 창출</li> <li>경관관리계획의 홍보 및 학습프로그램 가동</li> </ul>	○	○	○	○

## 5.3 기본구상

### 5.3.1 경관골격

-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도 전체에 대한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여 설정
-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방법을 제시

#### 1) 경관권역(면)

-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설정
- 기 계획(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2009)에서 설정된 기본경관단위를 활용
-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형특성별 기본경관단위’를 설정. 해당지역 자연경관특성, 마을 분포 현황, 인공구조물 배포 현황, 해발고도 등을 기준으로 제주 전역을 5개 경관단위로 구분

#### 2) 경관축(선)

- 동질한 경관이 선형으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설정
- 조망을 확보하거나, 하천, 해안, 도로 등의 경관요소를 기준으로 설정함

#### 3) 경관거점(점)

- 공공적 성격을 지고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수한 경관을 지니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함
- 주요 경관자원 현황과 경관조례 등을 기준으로 경관거점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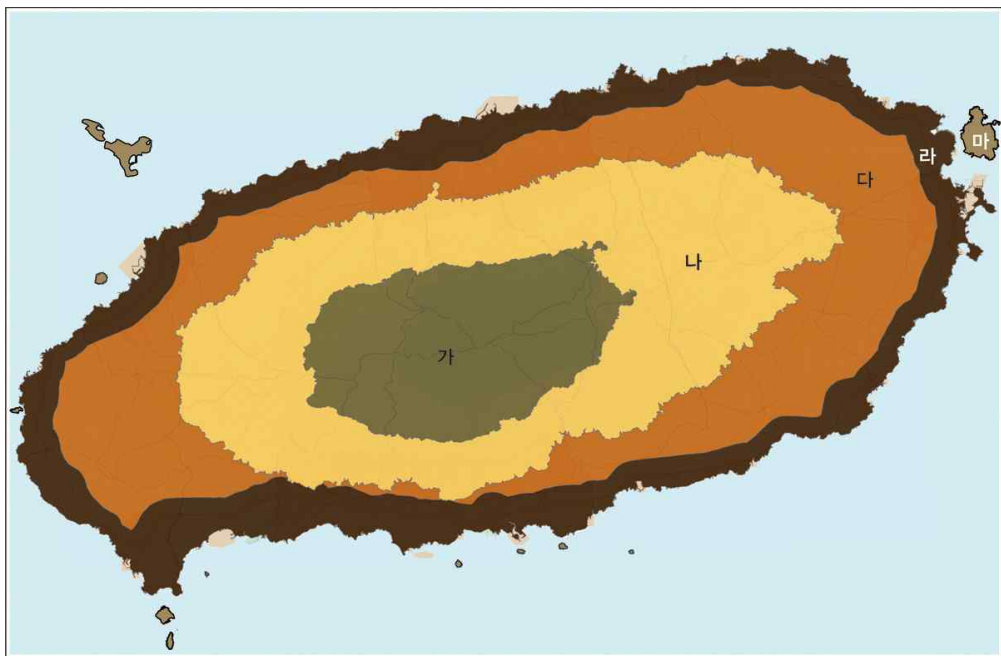


그림 5-2 경관권역(면)



그림 5-3 경관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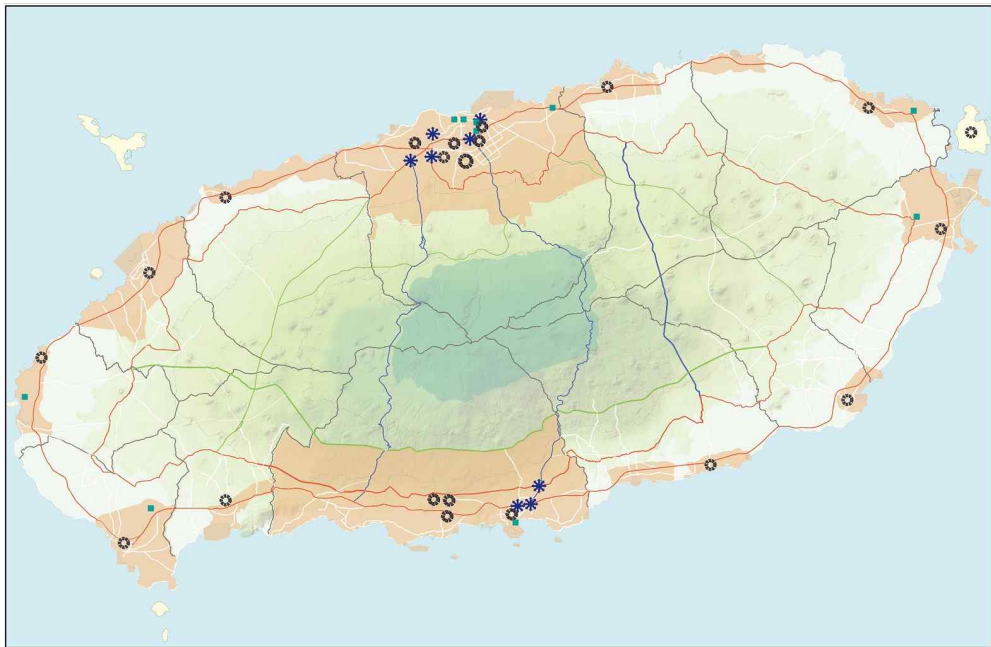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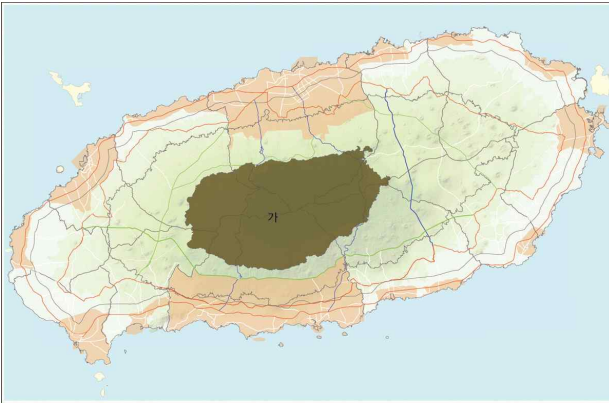
그림 5-4 경관거점(점)

### 5.3.2 경관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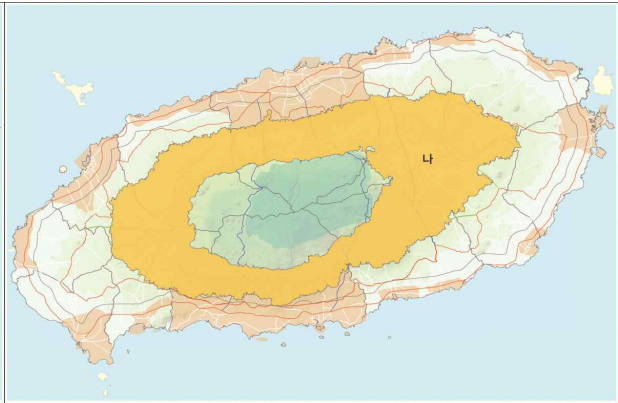
#### 1) 경관권역 설정

- 경관특성 : 지역적 경관특성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지형적 특성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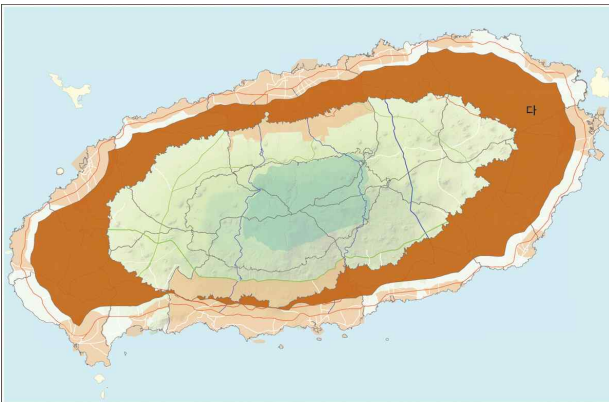
경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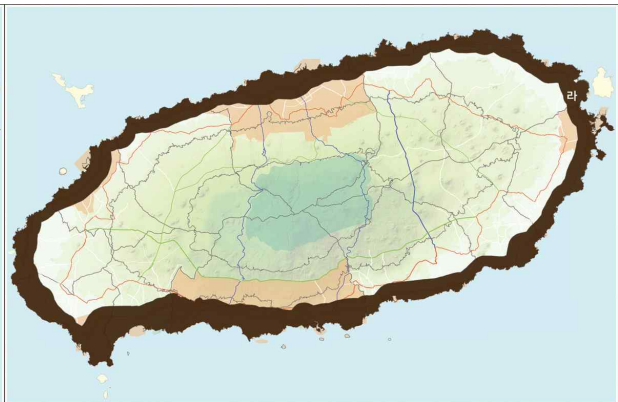
경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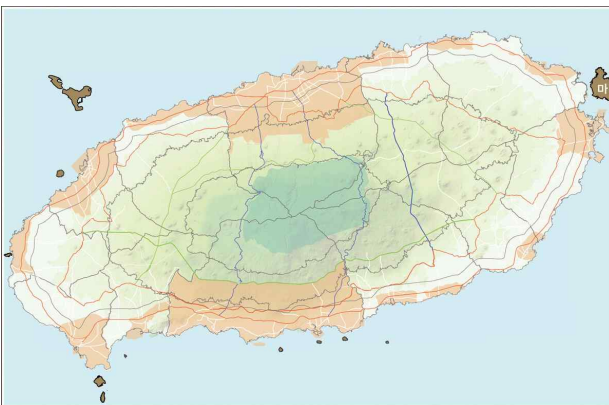
경관단위㉢



경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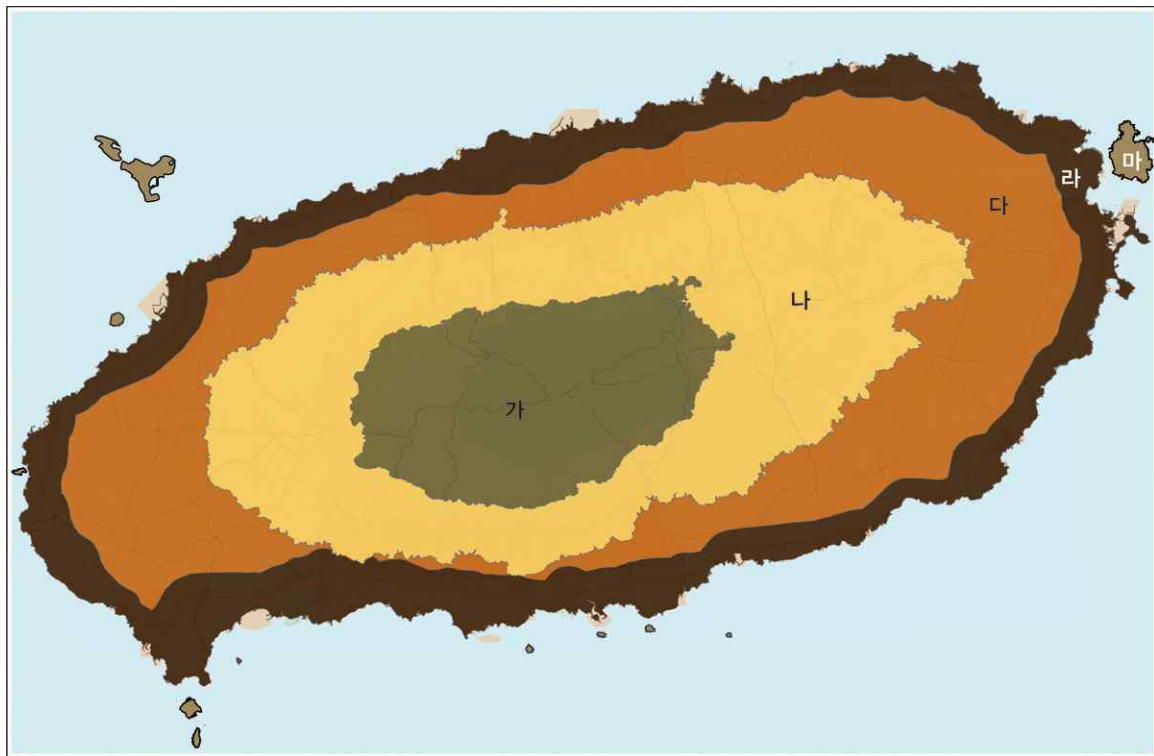
경관단위㉤



## 2) 경관권역 설정 기준

구분	해당지역	비고
경관단위㉓	한라산	해발고도 600m 이상
경관단위㉔	중산간	200m이상 600m 이상
경관단위㉕	중산간·시가지	해안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방향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 미만
경관단위㉖	중산간·해안·시가지	해안선으로부터 해안일주도로 1.2km 경계선
경관단위㉗	해안·도시	부속도서 및 해수면

## 3) 경관권역 개념도



#### 4) 경관권역별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구분	기본방향	기본구상
경관단위㉔	자연생태의 보고인 매력적인 생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보전구역의 자연환경보존</li> </ul>
경관단위㉕	중산간을 중심으로 한 전원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고유 자연경관의 원형이며 대상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곳자왈, 오름밀집지역, 목초지 등의 보존</li> <li>•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경관심의대상구역 지정</li> <li>•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이며 자연 랜드 마크인 오름 자체의 보존, 오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자연지형, 원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높이 기준 제안</li> <li>• 이용량이 높은 주요 도로 주변 경관성 향상</li> </ul>
경관단위㉖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공생하는 시가지 및 생태전원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곳자왈 등 제주 특유의 자연자원 보존과 거주민의 생활관습을 배려한 양호한 생활환경과의 조화</li> <li>• 해당지역 거주민 공통의 자산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형성 필요</li> <li>• 고유의 자연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건축물의 고도 기준 제안</li> <li>• 한라산과 해안으로의 전망을 고려한 인공구조물의 좌향, 개방정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마감재 사용</li> <li>• 주요 도로 주변 경관성 향상</li> </ul>
경관단위㉗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시가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과 해안으로의 전망을 고려한 인공구조물 좌향</li> <li>• 곳자왈 등 자연자원의 보존</li> <li>• 고유의 자연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건축물의 고도 기준 제안</li> <li>• 과도한 매립금지, 해안선에 연접한 자동차도로 개설 금지</li> <li>• 일주도로변 식재방법 개선 등 경관성 향상</li> </ul>
경관단위㉘	지역민의 삶을 함유하는 해안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로부터의 진입 시 경관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개방, 재료, 색채, 형태 제안</li> <li>• 해안마을 특성, 해안변 경관, 거주민의 주요 생업활동 등을 고려한 지침 제안</li> <li>• 해수면에 축조되는 인공구조물의 경관관리</li> </ul>

### 5.3.3 경관축

#### 1) 경관축 설정

##### (1) 하천경관축

- 수변경관과 조망의 경관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
- 지방하천을 하천경관축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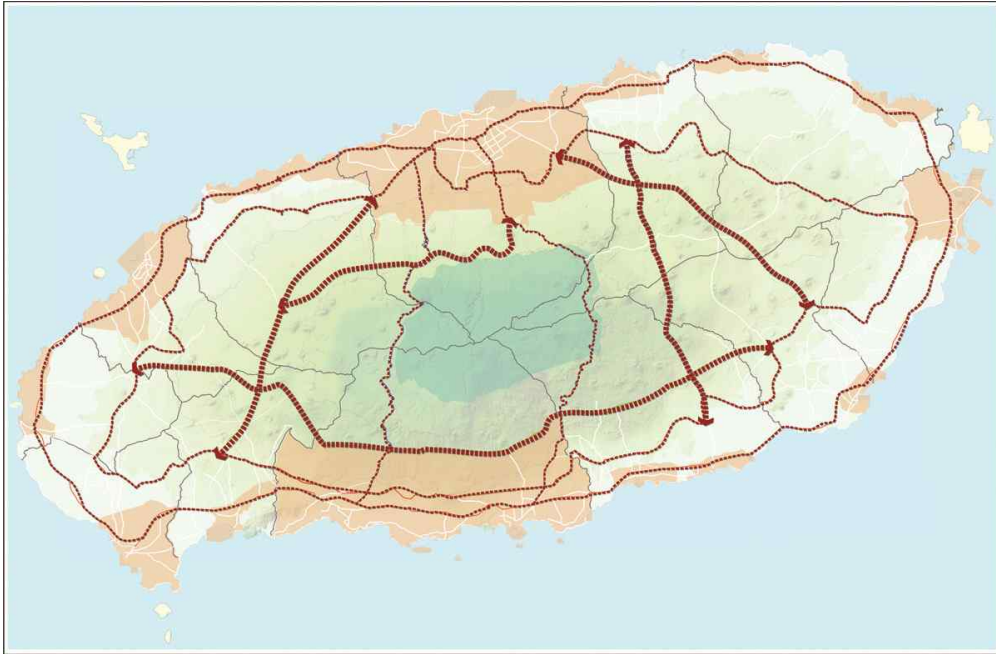
##### (2) 해안경관축

- 해안선에서 일주도로 사이에서 돌담, 해안 및 한라산 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 (3) 주요도로축

- 해안경관과 한라산 조망 경관이 뛰어난 도로
- 세계자연유산과 오름군락 관통도로
- 제주고유의 중산간 풍광을 경험할 수 있는 도로로서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를 주요도로로 선정



## 2) 경관축 설정 기준

-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수변, 랜드마크, 상징적 건축물이나 구조물, 시가지의 중심가로 등을 검토하여 경관축 설정

구분	경관축	설정기준
하천경관축 (60)	삼수천, 대용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한림천, 용포천, 문수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귀덕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적용기준한 경관심의대상 (제주시)
	창고천, 신례천, 중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송천, 가시천, 안좌천, 천미천, 진평천, 예래천, 중문천, 색달천, 대포천, 화수천, 동화수천, 도수천, 고지천, 공산천, 약근천, 세조천, 영남천, 연의천, 생수천, 서흥천, 호근천, 원계천, 동흥천, 보목천, 상호천, 영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적용기준한 경관심의대상 (서귀포시)
해안경관축 (2)	일주서로, 도령로, 서광로, 동광로, 조천우회로, 일주동로	도 전역의 해안을 선회하는 지방도 1132호
	해안선으로부터 100m 내외 구역/보전연안해역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안중점관리구역/「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보전연안해역
주요도로축 (5)	평화로	서부지역관광을 위한 고속화도로 (지방도 1135호)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지방도 1115, 1117호선으로 한라산을 선회하는 도로
	번영로	세계자연유산지구 및 동부오름군락을 관통하며, 산굼부리, 성읍민속마을 등 동부지역 관광을 위한 고속화도로 (지방도 97호)
	남조로	동부오름군락, 역새밭, 방목장 등 고유한 제주 중산간 풍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경관도로 (지방도 1118호)

### 3) 경관축별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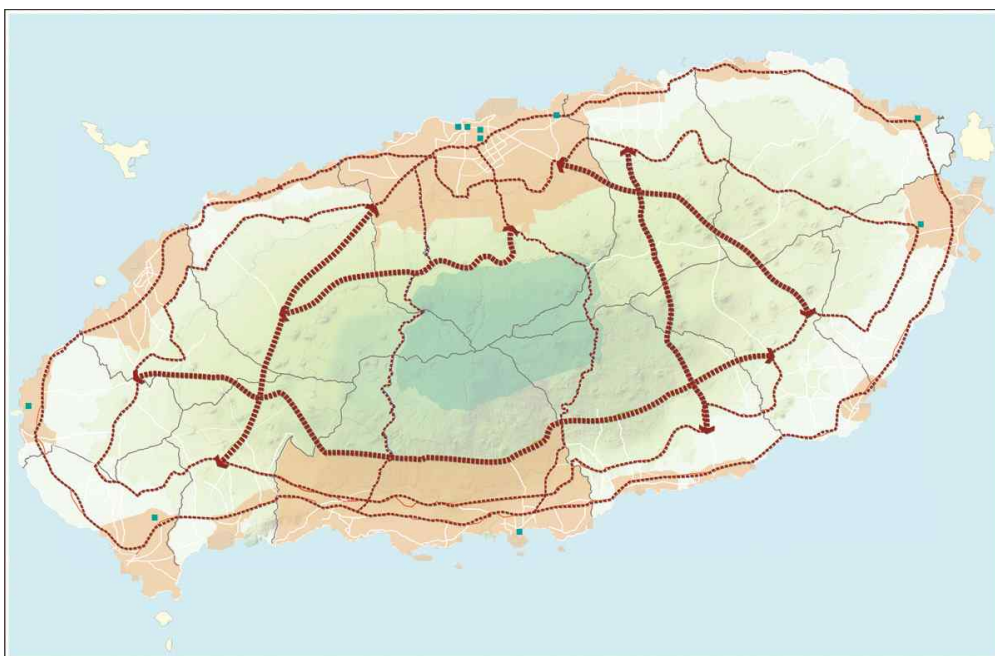
구분	기본방향	기본구상
하천경관축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의 생태 복원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류축의 보전과 조망 관리</li> <li>• 하천 주변 인공물 및 훼손부 관리</li> <li>• 시가지를 관통하는 본류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li> </ul>
해안경관축	해안경관 보호를 위한 해안변의 보전, 관리, 복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변 소규모 건축물, 경관위해시설물의 관리</li> <li>• 해안변 접근성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li> <li>• 해안 생태이미지의 보전</li> </ul>
주요도로축	주간선도로 상징성 및 정체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선도로에서의 조망 보전</li> <li>• 시가지 통과구간 주변부 관리</li> </ul>

#### 5.3.4 경관거점

##### 1) 경관거점 설정

###### (1) 역사문화경관거점

-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우선적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자원보전지구를 경관거점으로 설정



###### (2) 관문경관거점

- 주요 시경계부나 관문시설로 지역의 진입부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동지역의 주요 로터리



## 2) 경관거점 설정기준

- 주요 경관자원 특성 등에서 주요 거점을 검토하여 경관거점 설정

구분	경관거점	설정기준
역사문화 경관거점 (11)	제주향교지구, 관덕정지구, 오현단지, 삼성혈지구, 삼양동 선사유적지구, 하도리 별방진지구, 용수리 절부암지구	문화자원보전지구(제주시)
	보목동 숲섬지구, 서귀진지지구, 보성리 대정성지지구, 수산진성지구	문화자원보전지구(서귀포시)
관문 경관거점 (7)	공항입구 교차로,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제주시 주요도로축의 진입부 교차로 및 회전교차로
	비석거리교차로, 중앙로터리, 동문로터리	서귀포시 주요도로축의 진입부 교차로 및 회전교차로
공공시설 경관거점 (24)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지방합동청사, 구좌읍사무소, 애월읍사무소, 조천읍사무소, 한림읍사무소, 남원읍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성산읍사무소, 우도면사무소, 추자면사무소, 한경면사무소, 안덕면사무소, 표선면사무소	주요 관광서 및 공공시설
	동문시장, 민속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종합경기장, 강창학 종합경기장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인구밀집장소

## 3) 경관거점별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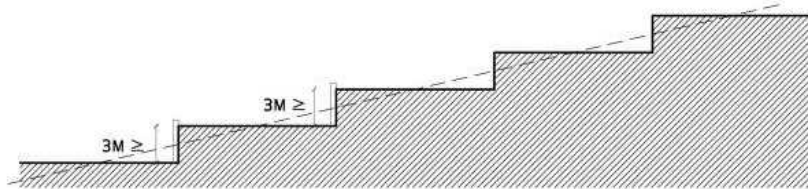
구분	기본방향	기본구상
역사문화 경관거점	역사문화자원의 연계거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성과 문화가치 보전</li> <li>• 역사문화자원을 배려하는 주변부 관리</li> <li>•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과의 스카이라인 관리 및 왜소화 방지</li> </ul>
관문 경관거점	시가지내 주요 진입부를 인식시켜주는 관문경관의 거점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문경관거점 주변의 친환경성 요소 보전</li> <li>• 지역에 맞는 상징적 경관요소를 도입</li> <li>• 공공시설물의 관리</li> </ul>
공공시설 경관거점	주요 공공시설의 커뮤니티 거점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적 이미지 보전</li> <li>• 주변부 공공시설과 연계성을 지니는 이미지 형성</li> <li>•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경관 창출</li> </ul>



## 5.4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 5.4.1 부지조성 : 절성토

- 지형과 지세, 특히 미시적 지형의 변화와 기존의 지문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인공구조물 계획시 기존 지형의 변화선과 지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성함으로서 인공구조물의 직선화, 거대화 지양할 것
- 조성대지 레벨을 최소화 (절토와 성토의 합이 3M 이하)



### 5.4.2 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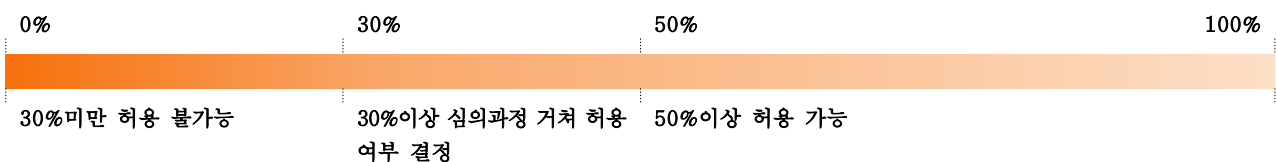
- 좌향은 공공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여 풍경의 공유를 강조하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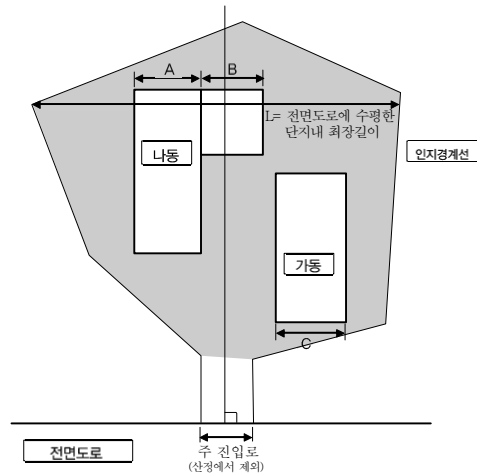
#### 1) 통경축

- 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향한 시각통로의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하나 대상 인 공건축물과 인접한 경관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2) 개방지수

- 개방지수는 제주 전역 어디에서나 한라산을 조망 가능한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는데 목적이 있음
- 인접도로, 조성대지의 형상, 기능, 기후조건(향, 일조, 풍향과 풍속 등)등에 의하여, 방사선 방향에서 일정 각도가 있는 경우 건물의 일정 개방지수를 확보할 것
- 개방지수 기준 =  $[1 - (A + B + C + \dots + n) / L] \times 100$
- 전면도로가 직선이 아닌 경우, 전면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두 점을 잇는 선을 전면도로로 간주하여 처리
- 조성대지의 형상, 기능 등에 따라서 건물의 장축을 기준으로 처리하되 세장비도 고려
- 임승빈(2008)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보아 개방지수 40%정도에서 경관미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는 완만한 증가경향을 보이므로 개방지수는 최소 40%정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봄





### 5.4.3 높이

-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풍경으로 인식하는 거리의 한계) 이내 구역 구조물의 높이는 오름 높이의 3/10 이내로 함
  - 오름의 대상 : 전체 오름
- 하천의 경계(도로경계 혹은 제방경계)선 기준 45도 사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층 이하, 8m 이하의 구조물은 행위제한에서 제외

### 5.4.4 형태

- 제주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의 매스는 최대한 분절을 원칙으로 함
- 구조물의 재료, 색채 등은 별도의 공동규범을 따름
  -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제주특별자치도, 2013)과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제주특별자치도, 2012)에 따름
- 거대구조물의 경우에는 지하화하거나 기존 지형의 형상을 고려한 인공 언덕으로 조성 권장
- 제주도의 자연환경(해안, 바다, 섬, 바람, 오름, 고자왓지대, 습지, 돌 등)에 적합한 모티브를 개발/적용하여 가로시설물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축
- 기능 통합과 모든 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배려’디자인을 추구하며, 미래지향적 트렌드를 반영한 곡선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

### 5.4.5 재료

- 재료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모든 인공물의 형태와 표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구조물의 물성을 드러내며 경관의 인상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경관요소임
- 제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재료와 친환경적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며 빛과 바람에 순응하는 재료 사용
- 염해, 호우, 바람 등 자연 재해요인과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주변 경관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시설물 기능에 맞는 적절한 물성을 갖춘 재료 사용

#### 5.4.6 식생

##### 1) 원 식생의 보존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생태계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가능한 3등급 이하의 토지라 할지라도, 2차림이나 조림지가 아닌 자연림(원식생)군락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원 식생 군락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색해야 함
- 주요 보존 대상이 되는 자연식생지 유형
  - 해안식생 및 연안습지
  - 하천변 상록 난대림
  - 꽃자왈 지대의 자연 수림
  - 중산간 초지대의 식생
  - 중산간 및 고지대 습지
  - 오름의 원식생
  -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의 식생대
  - 정기적인(매 5년 주기) 제주도 전역(전체 경관단위)의 식생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식생자원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
- 식생자원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 식생분포 현황과 변화추이
  - 식생분포 현황도 작성
  - 식생훼손의 원인 조사와 방지대책 제안

##### 2) 조경용 식물

-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경 식재 행위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법에 있어서 제주 고유의 풍토와 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 공공영역: 가로수, 가로녹지, 도시공원, 지정 관광지, 공공 건축물의 조경 등
  - 민간영역: 주택(아파트)단지, 대형 관광객 유치시설 내 조경 등
- 조경 식재 시 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종의 선정은 해당 경관단위별 권장수종을 참고하여 활용함
  - 조경 식재 관련 인허가 진행시, 식재 수종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함
  - 제주의 향토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가?
  - 식재지역의 미기후를 비롯한 생육환경에 대한 고려는 충분한가?

#### 5.4.7 경관색채

- 제주도의 가로시설물 색채는 권역별(도심, 중산간, 해안), 시설물별로 분석하여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주도의 가로시설물 색채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관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인공도색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채사용 권장
- 채도가 높은 색채사용 지양
- 도시기반시설의 적용대상 중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중점으로 두어 디자인 지침을 수립. 보도, 자전거도로, 도로, 시설물, 옹벽, 교량의 각 시설의 유형별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지침 및 규정 제시

- 형태계획 :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모티브를 개발/적용하여 가로시설물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축. 기능 통합과 모든 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배려’디자인을 추구하며, 미래지향적 트렌드를 반영한 곡선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
- 색채 및 재질계획 : 수려한 자연경관의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색채계획으로 경관적 차원의 심미성을 확보하고 시·지각체계에 따른 질서가 있고 균형감이 있는 색채적용으로 제주도 가로시설물의 기능성 강화
  - 색채 : 시설물의 외관에서 가장 넓은 면적(약 70%이상)을 차지하는 주조색과 면적의 약30% 미만을 차지하는 보조색, 약 10% 미만인 강조색을 도심지역, 중산간지역, 해안지역으로 설정
  - 재질 :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내구성과 내식성이 강한 재질과 트렌드를 반영한 친환경적 재질을 각 시설물의 기능에 따라 적용
- 조명계, 휴식계, 위생계, 교통계, 안전계, 정보계, 기타시설물을 표준디자인, 기본디자인으로 분류
- 규격 및 형태, 자재 및 재질, 색상 및 마감, 제작/설치시 유의사항을 적용

#### 5.4.8 지역별 주요 조망점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의 조망점100은 통제적 차원으로 경관심의단계에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서귀포 시가지, 남원읍, 성산 일대 중산간 권역에서는 한라산으로 가시권이 확보되지만 해안으로는 대부분 비가시권으로 나타나 경관심의의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지 못함
- 오름에서의 가시권은 거의 모든 점에서 확보되어 개발행위,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경관관리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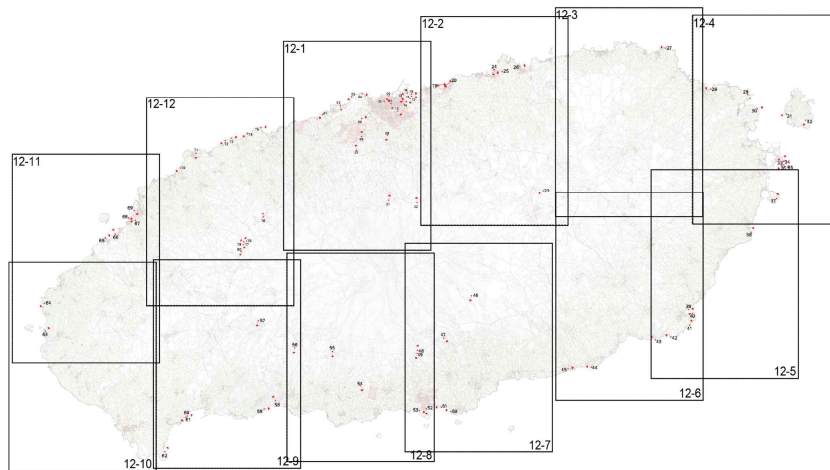


그림 5-8 기존 조망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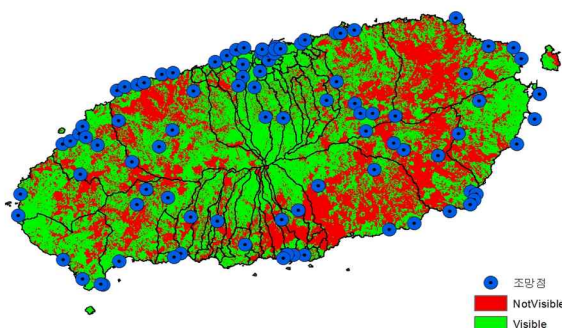


그림 5-9 조망점에서 본 가시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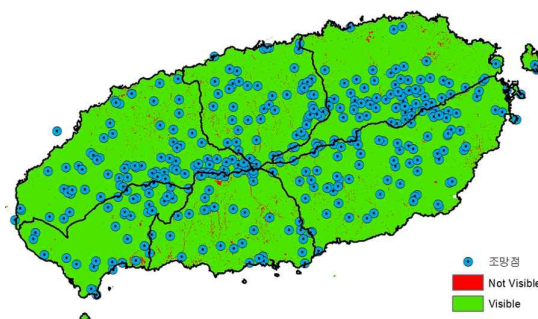


그림 5-10 오름에서 본 가시권 분석

## 5.5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 5.5.1 경관권역의 일반지침

#### 1) 전체지침의 체계

구분			경관단위㉔	경관단위㉕	경관단위㉖	경관단위㉗	경관단위㉘
개방지수			●	●	●	●	●
절 성 토			●	●	●	●	●
재 료			●	●	●	●	●
취락	중산간 마을	올레	—	●	●	●	
		가옥	—	●	●	●	
		봉천수(못)	—	●	●	●	
		팽나무와 댛돌	—	●	●	●	
	해안 마을	올레	—	—	—	●	●
		가옥	—	—	—	●	●
		용천수	—	—	—	●	●
		팽나무와 댛돌	—	—	—	●	●
		항구	—	—	—	●	●
		도시기반시설	—	—	—	—	●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	—	—	●	●	—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	●	—
가로	농로		●	—	—	—	—
	시설접근로		●	—	—	—	—
	중산간 마을	마을진입도로	—	●	●	●	—
		마을안길	—	●	●	●	—
	해안 마을	마을진입도로	—	—	—	●	●
		해변도로 /해안도로	—	—	—	●	●
		마을안길	—	—	—	●	●
	구시가지	중심가로	—	—	●	●	—
		골목	—	—	●	●	—
	신시가지	중심가로	—	—	●	●	—
생산과 저장	경작지경관		—	●	●	●	●
	시설경관		—	●	●	●	●
돌문화	올레담		—	●	●	●	●
	밭담		—	●	●	●	●
	산담과 분묘		—	●	●	●	●
	잣성		—	●	●	●	—
	환해장성		—	—	—	●	—
	방사탑		—	—	—	●	—
하천	치수	중·상류	—	●	●	—	—
		하류	—	—	●	●	—
	친수	중·상류	—	●	●	—	—
		하류	—	—	●	●	—
	조망	중·상류	—	●	●	—	—
		하류	—	—	●	●	—
자연 식생	수림지	한라산	●	—	—	—	—
		고지대 오름	●	—	—	—	—
		중산간 오름	—	●	—	—	—
		저지대 오름	—	—	●	—	—
		해안가 오름	—	—		●	●

		꽃자왈 오름	—	●	●	—	—
		하천변 상록수림	—	●	●	●	—
		해안가 수림	—	—	—	●	●
	초지	중산간 초지	—	●	●	—	—
		해안 초지	—	—	—	●	●
	습지	고지대 습지	●	—	—	—	—
		중산간 습지	—	●	—	—	—
		저지대 습지	—	—	●	—	—
		연안 습지	—	—	—	●	●
조경 식재	녹지 및 공공오픈 스페이스	도로변 녹지	●	●	●	●	●
		목초·과수재배지	—	●	●	●	●
		오름 식재	—	●	●	●	●
		도시공원	—	—	●	●	—
	대지안의 조경	한라산관리시설지	●	—	—	—	—
		대규모 시설지	—	●	●	●	●
		개별대지	—	●	●	●	●
	권장수종 예시	교목	●	●	●	●	●
		관목	●	●	●	●	●
		지피·초화류	●	●	●	●	●
바닥 포장	선형포장	생태탐방로	●	●	●	●	●
		자전거도로	—	●	●	●	●
		해안 산책로	—	—	—	—	●
		시가지 보도포장	—	—	●	●	—
		마을 안길 포장	—	●	●	●	●
	면형포장	주차장	●	●	●	●	●
		대규모 시설지	—	●	●	●	—
		주거단지	—	—	●	●	—
경관색채			건축물	—	●	●	●
			지붕	—	●	●	●
			옥외광고물	—	●	●	●
옥외광고물			관광지	—	●	●	●
	주거지	일반주거지	—	●	●	●	●
		주거상업지	—	●	●	●	●
		상업지	—	●	●	●	—
			역사문화지	—	●	●	●
			간판특화지	—	●	●	—
야간경관			녹지	—	●	●	—
			주거지	—	●	●	●
			주거상업지	—	●	●	●
			상업밀집지	—	●	●	—
			역사문화지	—	●	●	●
			관광특화지	—	●	●	●
			도로일반	—	●	●	●

## VI. 경관계획



## VI. 경관계획

### 6.1 경관계획 수립방향

#### 1) 경관계획의 방향

- 기본구상에서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본구상 내용, 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제주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방안을 제시

#### 2) 경관계획의 체계

- 경관관리계획은 인공구조물로서 땅과 풍경을 변형시킨다기보다, 기존의 땅과 풍경의 조건이 인공구조물을 변형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즉, 인공풍경은 환경의 힘에 종속되어야 함
- 일정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바탕으로 제주 전 지역을 경관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행위 지침을 마련.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형특성별 경관권역<sup>1)</sup>’을 설정하고, 이와 함께 특정지역을 제주만의 자연경관특성, 역사 문화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목표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함께 관리

구분		해당지역	비고
경관권역	경관단위㉓	한라산	해발고도 600m 이상
	경관단위㉔	중산간	200m이상 600m 이상
	경관단위㉕	중산간·시가지	해안일주도로로부터 한라산방향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 미만
	경관단위㉖	중산간·해안·시가지	해안선으로부터 해안일주도로 1.2km 경계선
	경관단위㉗	해안·도서	부속도서 및 해수면
권역축	하천경관축	지방하천 60개소	
	해안경관축	해안선으로부터 500m	해안선 보호구역(5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주요도로축	평화로, 제1, 2 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해발고도 200~600m 사이의 평화로, 제1, 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의 경계선에서 1.2km이내
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문화자원보전지구	제주향교지구, 관덕정지구, 오현단지구, 삼성혈지구, 삼양동 선사유적지구, 하도리 별방진지구, 용수리 절부암지구, 보목동 숲섬지구, 서귀진지구, 보성리 대정성지지구, 사산진성지구
	관문경관거점	광장	공항입구 교차로,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비석거리교차로, 중앙로터리, 동문로터리
	공공시설경관거점	공공건축·공공공간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지방합동청사, 구좌읍사무소, 애월읍사무소, 조천읍사무소, 한림읍사무소, 남원읍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성산읍사무소, 우도면사무소, 주자면사무소, 한경면사무소, 안덕면사무소, 표선면사무소, 동문시장, 민속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종합경기장, 강창학 종합경기장
중점경관관리구역		오름군락	평화로, 산록로, 번영로, 남조로, 녹산로, 비자림로, 중산간도로 및 오름군락을 관통하는 군도로부터 연속적으로 중첩되어 조망되는 오름군으로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 이격된 구간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
		습지 및 자연연못	물영아리오름, 제주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동백동산습지
		세계자연유산지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평화로, 남조로, 서성로, 산록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내부 구역
주요 경관위해요소		건축물의 높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
		도로개설 및 부대시설	2차선(15미터)이상 도로개설 및 그 보대시설에 관한 사항(가로수 식재, 교량, 옹벽설치 등)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단위㉗에 해당하는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향후 개발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가능

- 1) 지형특성별 경관권역은 해당지역 자연경관특성, 마을 분포 현황, 인공구조물 배포 현황, 해발고도 등을 기준으로 제주 전역을 5개 경관단위로 구분

## 6.2 경관권역 계획

### 6.2.1 경관단위㉔ 권역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해발고도 600m 이상
-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보전구역의 자연환경 보존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기본원칙**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보존을 원칙으로 함

##### (1) 목표

- 보전 : 제주자원 및 문화중심인 한라산 경관 유지
- 관리 : 한라산의 중심성을 존중하고 사유지 매입
- 형성 : 탐방로 등의 제한적 활용

##### (2) 보전방향

- 한라산이 가진 경관적, 문화적 가치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감

##### (3) 관리방향

- 전국에서 사유지가 없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사적행위 최소화

##### (4) 형성방향

- 탐방로 등과 같은 제한적 이용을 위해 탐방로 폭을 최소화하도록 함

#### 3) 주요경관

구분	대분류	세부경관자원	비고
보존	절성토량		
	자연식생	한라산 자연식생대, 고지대오름,	
	습지	1100고지습지, 물장오리분화구(해발 880m), 물칫분화구(해발 670m)	
관리	개방지수		
	재료		
	가로	농로, 시설접근로	
	조경식재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대지안의 조경	
	바닥포장	선형포장, 면적포장	
형성	생산과 저장	경작지 경관, 시설경관	

## (1) 보전과제

### 가. 절성토량

- 대지조성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보존하여 절성토, 옹벽, 석축 등의 설치를 지양하며, 절성토에 의한 토사량의 이동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자연식생

#### ① 수립지

##### □ 한라산 자연식생대

- 경관단위 ㉔지역은 해발 600미터 이상의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한라산의 자연식생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경관관리의 목표로 설정함
- 따라서 한라산 국립공원 및 천연보호구역의 자연식생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금지 (문화재보호 및 국립공원 관리 관련 법 우선 적용)
- 한라산 자연식생대별 주요 경관관리 내용
- 관목림대(1400m 이상) : 등산로 추가 개설 금지, 훼손지 복구
- 고산침엽수림대(구상나무림, 1400m 이상) : 등산로 추가 개설 금지, 훼손지 복구
- 온대활엽수림대(신갈,서어,줄참나무림, 800~1400m) : 도로개설 금지, 시설물 설치 제한
- 상록활엽수림대(600~900m) : 도로개설 금지, 시설물 설치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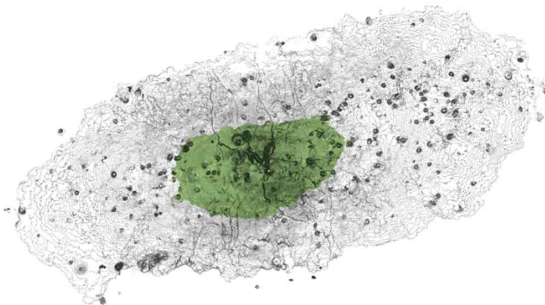


그림 6-1 한라산 국립공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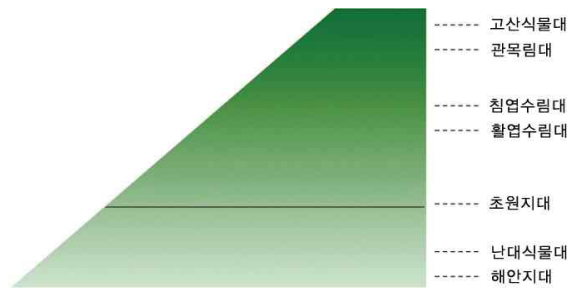


그림 6-2 식생대단면 다이어그램

#### ② 고지대 오름

-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 오름은 전체 오름의 25%인 92개에 달함
- 고지대 오름 역시 한라산 자연식생대의 일부이므로 원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접근
- 따라서 고지대 오름의 원식생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금지
  - － 개방형 생태탐방로 : 추가 등산로 성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설 금지
  - － 관리형 생태탐방로 : 부분적인 식생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그 노선 및 설계제원을 검토하여 주변식생에 악영향이 없도록 보전자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개설 여부 결정

#### ③ 습지

-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습지 및 자연연못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보존 자

원이므로 습지 자체 및 주변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관관리 시행

- 1100고지습지, 제주시 봉개동의 물장오리분화구(해발 880m) 및 조천읍 고래리의 물찻분화구(해발 670m)가 고지대 습지에 해당
- 고지대 습지보존을 위해 가급적 조사 및 연구목적의 탐방활동만 허용
  - － 개방형 탐방로 개설 금지
  - － 경관과 지형을 훼손하는 인공물 설치 금지
- 기조성된 1100고지습지의 경우 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현 상태 유지

## (2) 관리과제

### 가. 개방지수

- 주요 조망대상 방향으로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서 개방지수를 50%이상 유지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한라산, 오름, 해안 이외 별도의 조망대상을 설정토록 하며, 관련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되, 2층, 8m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함

### 나. 재료

- 인공구조물의 외장마감재는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재료(자연재료 및 재활용재료)만을 사용함

### 다. 가로

#### ① 농로

- 자연지형과 지세를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의 지문을 존중한 농로조성, 농경과정, 방목풍경 등이 최소적 고유문화경관이라는 인식 하에 주위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함

#### ② 시설 접근로

- 자연지형과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의 지문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절성토에 의한 토사 이동량이 없도록 접근로 조성
- 주변 식생 및 생태기반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설치, 투수·식물생육 가능한 지역재료 사용

### 라. 조경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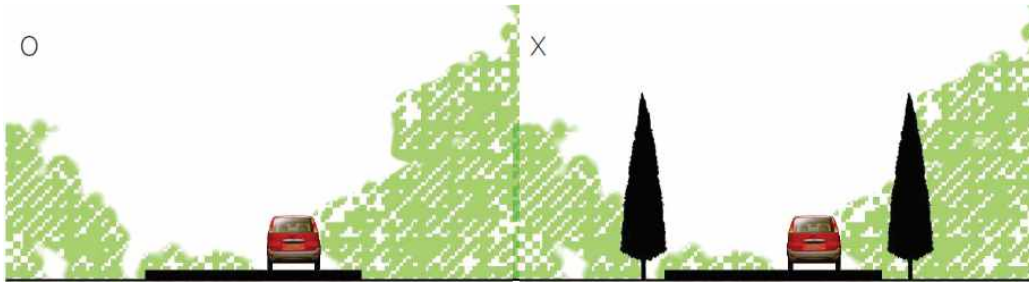
#### ①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 □ 한라산 식생복구

- 한라산 자연식생 보존과 함께 등산로 주변을 포함한 식생 훼손지 복구 시행
- 한라산 관리영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의 훼손지 식생복구공사는 관련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원식생이 복원될 수 있는 생태복원방식으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관리부와 협조체계 구축
- 보전자원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의견 청취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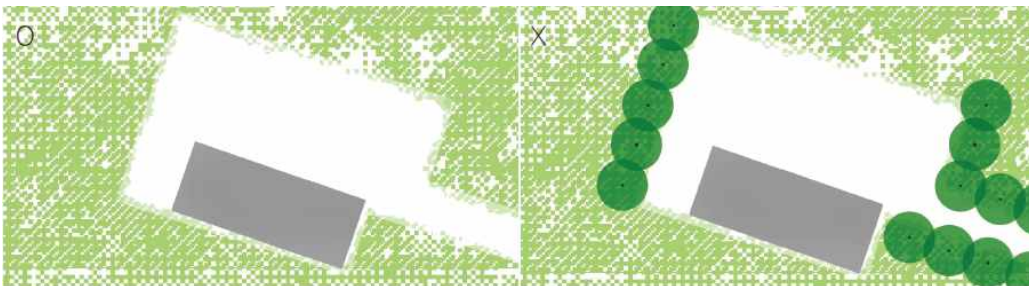
## □ 도로변 녹지관리

- 한라산 국립공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1100도로(지1139호)와 5·16도로(지1131호)는 한라산 자연식생경관을 가장 잘보여주는 경관통로의 역할을 함
- 따라서 도로변 녹지 조성시 원식생을 교란시키는 인위적 식재행위 금지
- 기존 식생 중 한라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일부 이질적 수목을 제거하여 경관의 질을 향상



## ② 대지안의 조경

- 한라산 경관과 자연식생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금지
- 기존의 휴게소,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국립공원부대시설 주변에 인위적 조경 식재 최소화
- 식재 행위 시 주변의 식생을 고려하여 이질적 수종 배제



구분	권장 수종 예시	비고
교목류	서어나무, 졸참나무, 층층나무, 산벚나무, 때죽나무 등	한라산 자생식물
관목류	가막살나무, 정금나무, 참꽃나무 등	한라산 자생식물
지피·초화	제주조릿대, 애기나리, 관중 등	한라산 자생식물

표 6-1 권장 수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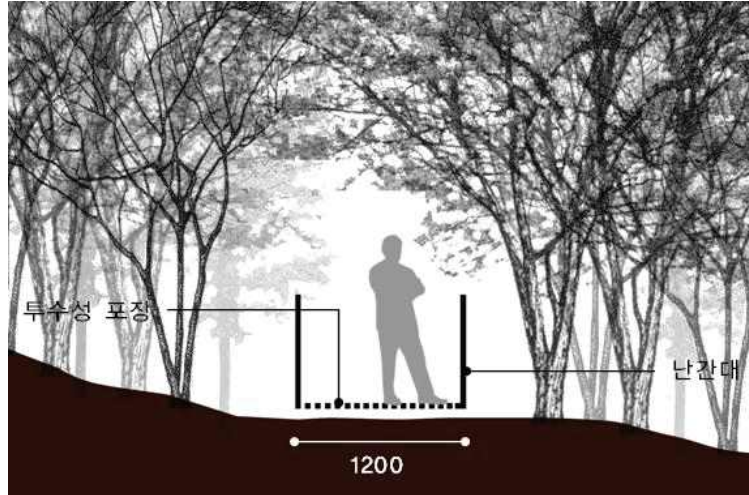
## 마. 바닥포장

### ① 선형 포장

- 선형의 포장이라 함은 보도, 산책로, 탐방로 등 길을 따라 연속되는 포장면을 의미
- 선형의 포장면은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므로, 설계제원(폭, 재료, 색상) 선택에 있어서 경관 관리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한라산 지역에 생태탐방로 개설시 주변 식생 및 생태기반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의 설계제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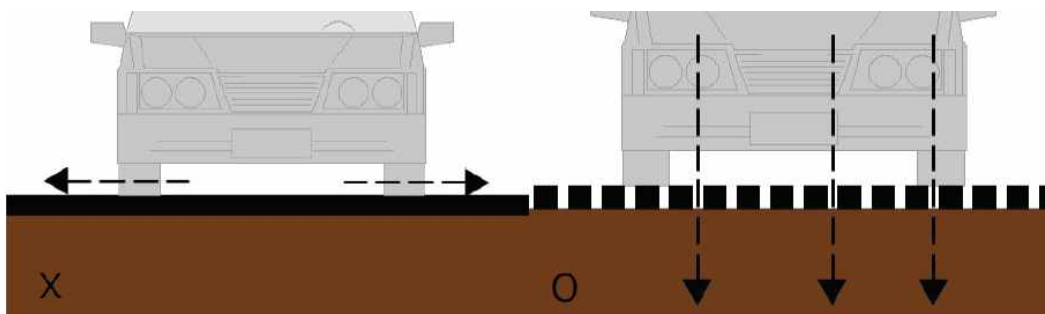
- 제한형 생태탐방로 개설시 설계 권고 기준

- 폭 : 1.2m 이하
- 재료 : 투수·식물생육 가능한 지역재료 사용
- 형식 : 토양유실이 우려되거나, 계단이 필요한 급경사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탐방로 포장을 하고, 주변 식생보존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설치하여 동선 유도



## ② 면적 포장

- 면적 포장이라 함은 광장, 주차장, 마당 같이 일정한 영역을 특정한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
- 면적 포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과하는 공간에 이루어지므로 포장면을 형성하는 재료의 물성, 색상, 패턴이 미시적 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포장면의 재료나 시공방법에 따라 빗물 침투여부가 결정되므로, 생태적 식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적의 공간의 경우 투수성 소재 활용하도록 유도
- 국립공원내의 휴게소,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공사 시 투수성 소재 활용



## (3) 형성과제

### 가. 생산과 저장

#### ① 경작지 경관

- 농경과정, 방목풍경 등이 회소적 고유문화경관으로 유지되기 위한 경관생산자 독려시스템 마련
- 농한기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계절경관 형성

## ② 시설 경관

- 생업과 직결된 오래된 창고, 축사 등의 규모, 입지, 토속적 형태는 문화경관으로 인정하고 보전함
- 표준개량공법에 의한 신축을 지양하고 토속적 시공법을 존중하고 지원함



## 6.2.2 경관단위④ 권역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제주 고유 자연경관의 원형이며 대상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곳자왈, 오름밀집지역, 목초지 등의 보존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경관심의대상구역 지정
-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이며 자연 랜드 마크인 오름 자체의 보존, 오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자연지형, 원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높이 기준 제안
- 이용량이 높은 주요 도로 주변 경관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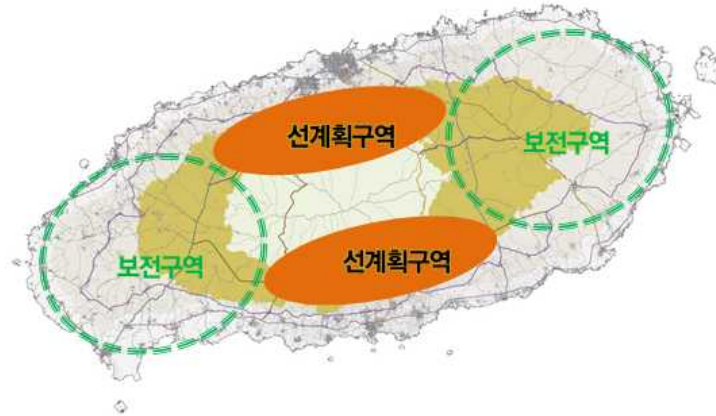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 기본원칙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개발금지(지구단위구역 지정제한 등의 규제)에 대한 기준의 정량적인 특정기준에 근거한 개발

- 보전 : 제주지역의 완충기능을 하는 중산간의 기능 유지
- 관리 : 개발수요의 억제 및 개발수요 조절
- 형성 : 고유의 공간(돌담, 잣성, 경작지) 및 기능을 존중



## (2) 보전방향

- 중산간이 제주에서 가진 기능과 존재의 이유를 고려하여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잠식 및 경관적 가치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함

## (3) 관리방향

- 인구증가 및 다양한 개발수요를 고려하지만 중산간에서는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고려하되 최소한의 시설 및 장기적으로는 총량제 개념에서 개발수요를 조절함

## (4) 형성방향

- 기존 취락, 골프장, 관광지, 건폐지들은 중산간 고유의 기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중산간의 입지적 기능적 위상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행위에 엄격히 관리하도록 함

## 3) 주요 경관

구분	대분류	세부경관자원	비고
보존	절성토량		
	자연식생	수림지, 초지, 습지	
관리	개방지수	-	
	재료	-	
	취락-중산간마을	올레, 가옥, 봉천수, 팽나무와 땃돌	
	가로-중산간마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하천	치수, 친수, 조망,	
	조경식재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대지안의 조경	
	바닥포장	선형포장, 면적포장	
	경관색채	건축물, 지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관광지, 일반주거지, 주거상업지, 상업지, 역사문화지, 간판특화지	
	생산과 저장	경작지 경관, 시설경관	
형성	돌문화	올레담, 밭담, 산담과 분묘, 잣성	
	야간경관	녹지, 주거지, 주거상업지, 역사문화지, 관광특화지, 도로일반	

## (1) 보전과제

### 가. 절성토량

- 대지조성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 3.0m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초과시 절성토 계획서를 제출함

### 나. 자연식생

#### ① 수림지

##### □ 중산간 오름 식생의 보존과 관리

- 해발 200~600m에 이르는 중산간 오름은 전체 오름의 약 46%인 171개가 분포
- 중산간 오름의 원식생은 온대낙엽활엽수림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는 참억새를 비롯하여 띠풀, 곰솔, 조림된 삼나무, 편백 등 다양한 유형의 식생군이 혼합되어 있음
- 해당 오름의 현황에 따라 자연천이방식과 관리천이(수시·정기)로 구분하여 식생관리 시행 (오름관리기본계획에 의함)
- 식생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식생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시행 유도
- 오름의 원경관과 원식생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방식의 조림행위 금지

##### □ 꽃자왈 식생의 보존·관리

- 꽃자왈 지대는 제주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환경이므로 원지형과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함
- 현재 주요 꽃자왈 지대는 관리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개발행위에 노출되어있음
-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행위

구분	행위 제한 유형
부지 조성 관련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제한, 인공물 설치 제한, 도로개설 제한
개별 자원관련	팽나무 등 수목, 식물의 굴취 및 반출 행위 금지 현무암, 송이 등 화산분출물 채취행위 금지

표 6-2 행위 제한 유형

##### □ 하천변 상록난대림의 보존·관리

- 제주도의 하천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 수계를 형성하면서, 대부분 건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풍부한 상록난대림의 보존가치가 중요함
- 깊은 하상과 주변의 풍부한 상록난대림은 제주 하천경관의 큰 특징이므로 경관관리계획의 초점은 이 하천의 원형보존과 주변의 상록난대림 보존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하천 원형 및 하천변 상록난대림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개발행위 제한함

구분	행위제한 유형
지형 훼손	주차장 설치, 건축물 설치, 휴게공간 조성 등
식생 훼손	수변 보도개설, 식생·바위채취행위, 인공호안조성

표 6-3 하천 행위 제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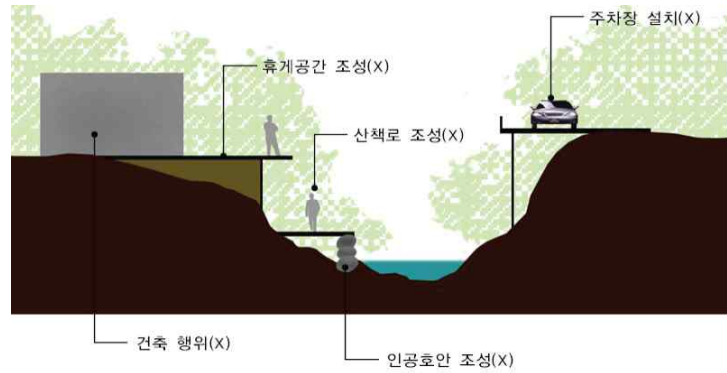


그림 6-4 행위제한 하천별 개발 유형

## ② 초지

- 중산간 지역에 산재된 난대상록활엽수림, 온대낙엽활엽수림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펼쳐진 억새군락 보존

## ③ 습지

-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습지 및 자연연못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보존자원 이므로 습지자체 및 주변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
- 대표적인 중산간 습지인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 분화구(2000.12.5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관리
- 해발 200미터 이상의 중산간 지역 습지 및 자연연못은 물순이못 등 17개소 분포
- 생태적으로 민감한 습지에 대하여 제한된 탐방활동만 허용
- 조사 및 연구목적의 탐방활동
- 전문가이드를 동반하는 소규모 생태탐방활동

## (2) 관리과제

### 가. 개방지수

- 주요 조망대상 방향으로의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서 개방지수를 50% 이상 확보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한라산, 오름, 해안 이외 별도의 조망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함. 단, 2층, 8m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임
- 풍경의 공유를 위한 일정 개방지수의 준수와 함께 필로티 등의 설치를 통한 보행자수준에서 느끼는 건축물 저층부 개방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나. 재료

- 중산간 지역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 유도
- 천연재질의 향토재료 사용 유도
- 반사가 심한 금속패널,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금지
- 자연 재료에 페인트 도장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 금지

## 다. 취락

### ① 중산간마을

#### □ 올레

- 개별가옥 진입도로의 확폭에 의해 소실, 변형, 왜곡 개축된 올레담의 복원·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실시



그림 6-5 올레담의 소실

#### □ 가옥

- 조화롭지 못한 구조·형태의 대문 및 표준화된 의장요소의 무계획적 설치 지양



그림 6-6 중산간 취락경관에 조화롭지 못한 대문

#### □ 봉천수(못)

- 조경시설물의 과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못의 원형 복원
- 기성품으로 제작된 표준화된 인공데크 및 정자의 설치 지양



그림 6-7 시설물 과다설치

그림 6-8 원형 보존되는 봉천수

#### □ 팽나무와 댛돌

- 지역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생육개선사업 및 보전사업 시행
- 도로확폭에 의한 제식 및 이식 지양
- 팽나무 주위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지정재료사용에 의한 팽나무 주변 정비
- 과도한 휴게편익시설 설치를 절제하여 마을쉼터로서의 댛돌 원기능 회복



그림 6-9 절제되어 정비된 팽나무 그림 6-10 원형으로 유지되는 팽나무와  
주변 땃돌

## 라. 가로

### ① 중산간마을

- 마을의 취락경관구조는 관통하는 간선도로유무, 진입도로의 형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도로 및 가옥군으로부터의 접근성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는 공공건축물들은 마을경관 전체를 지배하는 돌출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지역 공공시설 접근도로의 보행성, 도로표면의 기능적, 시각적 질에 대한 개선으로 제주마을 고유의 가로경관을 창출한다.

#### □ 마을진입도로

- 간선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생활영역을 분절하는 경우 감속을 고려한 도로표면 개선

#### □ 마을안길

- 확포장시 마을안길포장의 일반지침7 에 의한 개선으로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

## 마. 하천

- 섬의 생성과정을 보여주는 제주도의 하천은 굴요하천83으로 하상이 깊고 하곡이 발달하여 그 자체가 미려한 경관자원
- 중산간 부분의 상류, 중류는 생태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주거지역에 근접한 하류는 원경의 한라산, 중경의 오름과 관계를 맺는 보행녹지축으로 조성되어, 근경으로 관리되어야 함
- 단, 건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하천정비를 지양하고, 자연절벽과 하천바닥을 최대한 활용, 원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제주형 하천정비방안 마련이 천변경관관리계획 이전에 선행되어야 함

### ① 치수

#### □ 현황

- 하상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의한 하류지역 과부하 유발
- 부분적 구간별 하천정비에 의한 하류 병목현상

#### □ 세부지침

- 자연형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지역 범람을 예방
- 연장과 교폭을 확장하는 교량개량사업 시행

- 복개 구조물 및 상자형 배수구 철거
- 하천단면의 자연원형 복원

## ② 친수

### □ 현황

- 근접 개설되는 마을진입로가 하천면적 축소 및 암벽붕괴 요인

### □ 세부지침

- 접근로 설치시 규모를 제한하며(0.6m~0.9m), 자연친화적 재료 및 시공법 선정
- 대형차량진입도로를 이설 혹은 우회시키며, 농로 등을 이용한 생태관광학습산책로 조성

## ③ 조망

### □ 현황

- 제1산록도로는 교량 3개소, 제2산록도로는 교량 8개소에 의해, 한라산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주요하천과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도로를 조망점으로 하는 경관이 탁월함
- 교량하부의 건천과 상록활엽수림의 수관이 독특한 중산간 원풍경으로서 경관 가치 큼
- 노견 정차 감상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 잦음

### □ 조망유형별 세부지침

조망 유형	조망 위치	조망 대상	세부지침
필지 내 조망	인접 필지 내부	하천	인공구조물의 좌향은 가급적 하천 직교 방향
교량 조망	교량 상부	하천+천변	교량(교각, 난간 등 포함)의 형태, 재료, 규모의 체계적 관리 하천의 특징등을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최소규모)

표 6-4 하천 조망유형별 세부지침

## 바. 조경식재

### ①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 □ 중산간 도로변 가로녹지

- 비자림로(지1112호), 제1산록도로(지1117호), 제2산록도로(지1115호), 남조로(지1118호), 서성로(지1119호), 평화로(지1135호) 등 중산간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변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적용함
- 이 도로들은 제주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중산간 초지대, 오름군, 한라산, 해안을 조망하는 중요한 경관통로이므로 이들 경관요소들의 조망을 저해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위적 가로수 식재 배제
- 기능이 상실된 구간의 방풍림 제거하여 오름·한라산 조망 확보
- 간선도로변에 인공적·인위적 느낌의 초화연출행위 지양



그림 6-11 방풍림의 개방으로 조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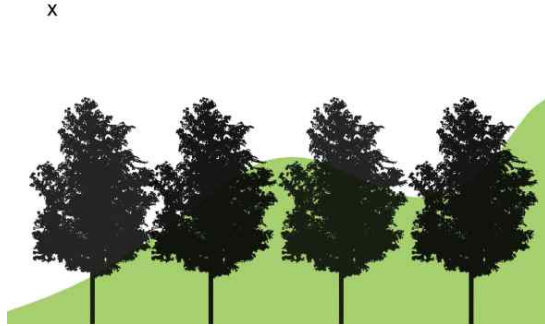


그림 6-12 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 □ 오름에서의 식재 행위

- 휴게 공간 등 오름 탐방로 상에 식재가 필요한 경우 주변에 분포하는 동일종으로 식재
- 오름 탐방로 양측의 인위적 초화연출 행위 금지

#### □ 목초지 및 과수재배지 (경작지)

- 중산간 지대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목초지 및 경작지도 경우에 따라 중요한 경관자원이 되므로 경관관리 대상으로 인식함
- 제주의 향토정서와 부합하고 고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목초지 및 경작지는 보전함
- 새롭게 조성되는 목초지 및 과수재배지의 식재 행위 시 목초 종류 및 과수재배품종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변식생 교란여부를 사전에 검토함

### ② 대지안의 조정

#### □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지의 조정

- 경관적·생태적 교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질적 수종 식재 배제
- 경관단위별 권장수종을 참고로 하여 지역적 정서와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대지내 자연지반녹지율을 최소 30% 이상(50% 이상 권고) 확보하여 생태적 생육기반 조성

#### □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

- 개별 인허가시 권장 수종을 참고하여 향토수종 식재 권고

### ③ 권장수종 예시

구분	권장 수종 예시	비고
교목	산벚나무, 왕벚나무, 때죽나무, 굴거리나무, 층층나무, 당단풍, 산딸나무, 곰솔, 편백, 팽나무, 비자나무, 윤노리, 조록나무, 머귀나무, 황벽나무, 멸구슬나무, 푸조나무, 굴거리나무, 예덕나무 등	중산간 자생식물
관목	제주조릿대, 탐라산수국, 팽팡나무, 제주참꽃, 털진달래, 사철나무 등	중산간 자생식물
지피/초화	참억새, 띠풀, 관중, 고사리, 애가나리, 원추리, 백화등, 송악, 자금우, 백량금 등	중산간 자생식물

표 6-5 권장수종 리스트

## 사. 바닥포장

### ① 선형포장

- 선형의 포장이라 함은 보도, 산책로, 탐방로 등 길을 따라 길이로 연속되는 포장면을 의미
- 선형의 포장 면은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므로, 설계제원 (폭, 재료, 색상) 선택에 있어서 경관 관리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 오름 탐방로 포장

- 중산간 오름에 생태탐방로 개설시 주변 식생 및 생태기반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의 설계제원 필요
- 오름 탐방로 개설시 설계 권고 기준
- 폭 : 1.2m 이하
- 재료 : 투수·식물생육 가능한 지역재료 사용
- 형식 : 토양유실이 우려되거나, 계단이 필요한 급경사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탐방로 포장을 하고, 주변 식생보존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설치하여 동선 유도

#### □ 중산간 지역의 자전거 도로 포장

-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는 중요한 선형의 경관요소이므로 특히 재료 및 색상 선정이 중요함
- 지역재료를 사용하여 가급적 투수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체구간을 일관성 있게 조성
- 포장소재의 색상은 '재료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 □ 중산간 마을의 마을안길 포장

- 사용재료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관요소별 지침을 참고

### ② 면적포장

- 면적 포장이라 함은 광장, 주차장, 마당 같이 일정한 영역을 특정한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
- 면적 포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과하는 공간에 이루어지므로 포장면을 형성하는 재료의 물성, 색상, 패턴이 미시적 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포장면의 재료나 시공방법에 따라 빗물 침투여부가 결정되므로, 생태적 식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적의 공간의 경우 투수성 소재 활용하도록 유도
- 경관적으로 중요한 중산간지역의 대형시설의 경우 차량도로를 제외한 모든 포장공간에 투수성 포장 권장
- 포장소재의 색상은 '경관색채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현무암, 송이, 제주흙 등 원재료의 고유 색상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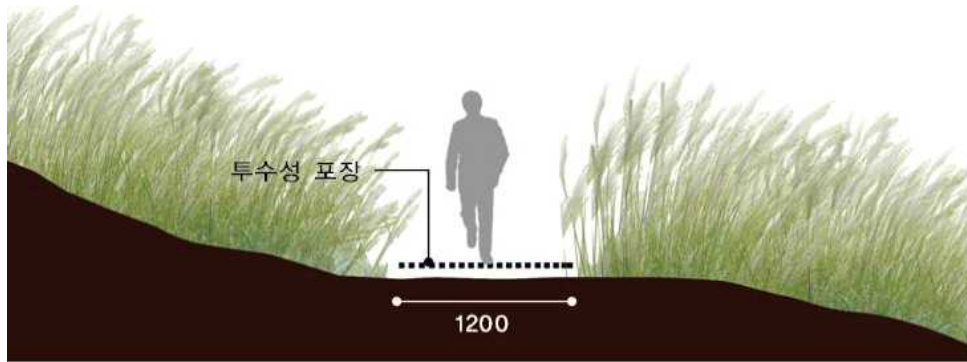


그림 6-13 오름 탐방로 단면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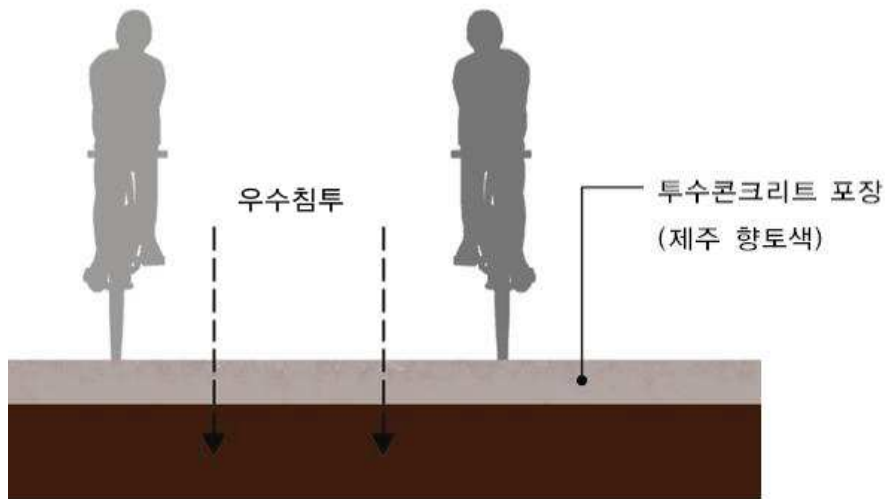


그림 6-14 자전거도로의 단면예시

#### 아. 경관색채

##### ① 색채현황

- 중산간의 지붕, 돌담 등의 생활경관 색채가 경관의 중심을 이룸
- 테마 관광지 및 골프장 진입부의 안내판과 구조물에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배타적 색채가 자주 노출됨
- 색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붕, 대문,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고채도의 색상이 혼재됨
- 옥외광고물의 경우 자극적인 색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도로변 경관의 저해요소로 작용함
- 취수탑, 지붕, 물 저장고 등에 그려진 슈퍼그래픽에 사용된 고채도 색상은 경관의 일관성을 저해함
- 중산간 마을은 대부분 고채도의 지붕색을 이루고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롭지 못함



그림 6-15 중산간지역의 도로변 경관

## ② 공통지침

- 자연 녹지 경관과 조화되며 녹지를 돋보이게 하는 색채 사용
- 건물, 가옥, 표지판의 시각적 명료성과 정보 표시를 위한 강조색은 최소한 면적 활용 유도
- 건축물의 지붕, 벽면, 대문 색채는 중산간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심 요인이므로 차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 색조합의 예시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적합한 색채조합 선택 유도
- 중산간지역은 돌담이 특히 많은 지역이므로 돌담과 어울리는 색채 사용 유도
- 중산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주조, 보조, 강조색을 선정하여 건물, 시설물에 선별적 사용 유도
- 주조색: 중산간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중, 저채도의 차분하고 온화한 색채 유도
- 보조색: 차분한 느낌의 주조색 사용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조색과 명도대비가 나타나는 중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경관의 활력과 장소의 변별력을 위한 색채 유도
- 강조색: 중산간 장소별 작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중,고채도의 활기차고 개성 있는 색채를 사용하되 주조색과 보조색에 비해 최소한의 면적에 색채적용 유도
- 명도대비가 강한 배색 권장
- 채도 대비가 강한 배색 적용 지양

## ③ 세부지침

### □ 건축물

- 재료 고유의 질감과 색채 사용 권장
- 돌담 현무암 색과 잘 어울리는 배색 유도
- 산림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건물은 저채도, 중·저명도의 주조, 보조, 강조 색상 유도
-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위하여 시각적 자극이 없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색채 권장
- 건축물 기준색'적용시 장소와 사용재료의 성격에 맞게 색채 오차허용범위를 허용 (오차범위 허용: 채도 0.5, 명도 1.0)



그림 6-16 경관단위④ 건축물색채 적용 예시

#### □ 지붕

- 지붕은 도장을 하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권장
- 지붕색은 세부적으로 재료별 권장 색채 제시 및 관리 유도
- 지붕의 재료 특성과 도장 방법에 따라 색채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
-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 사용 지양

	컬러강판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점토기와
지붕재료				

그림 6-17 경관단위④ 지붕권장색채

## □ 옥외광고물

- 지역별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색채 사용으로 정보요소로서의 활력과 개성을 살림
- 관광지, 주거지, 역사문화지, 간판특화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권장색채 제시
- 건물 외장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선정
-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재료색 그대로 드러냄을 유도
- 면적이 큰 간판의 경우 고채도 원색에 가까운 색 사용 자제
- 정보가시거리가 넓지 않은 지역으로서 극단적인 채도, 명도 대비의 색채는 지양
- 관광지
  - 조명색: 네온사인 지양, 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간접조명색 사용
  - 과도한 크기나 장식으로 인한 색채의 혼재 지양
  - 상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재질 혼합사용 권장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 사용 권장
- 주거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옥외광고물 배색 유도
  - 과도한 크기나 장식으로 인한 색채의 혼재 지양
  -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의 색채 사용 유도
- 역사문화지
  - 과도한 혼합을 배제한 간결한 색채사용 유도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색채 사용으로 시각적 자극 피함
  -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색 사용 권장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 사용 권장
- 간판특화지
  - 다양한 색채 적용이 쉬운 플렉스 재료 사용 권장
  - 코팅 철판·슬라브판 소재의 자체색 사용 권장
  - 상점 개성에 맞는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사용
  - 네온사인의 적절한 활용으로 야간에도 색채 유인성 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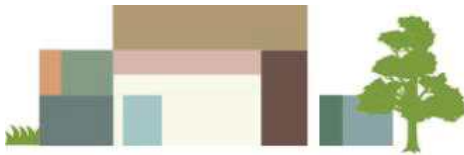


그림 6-18 관광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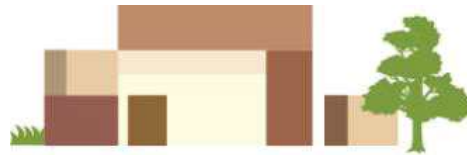


그림 6-19 주거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20 역사문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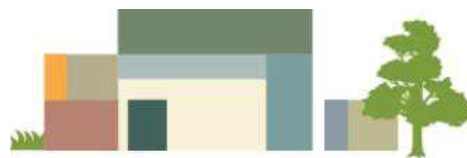


그림 6-21 간판특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자. 옥외광고물

### ① 관광지

- 지역 및 업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질 사용 권장
- 획일화된 크기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작고 다양한 간판 배치 유도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 준수
- 제주의 자연 재료(목재, 제주돌)나 그 특성을 지닌 형태의 재료 사용 유도
- 판류이용 간판의 경우 판류 전체에 조명 사용하는 방식 금지
- LED 등 에너지 효율과 조도가 높은 광원 사용 권장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최소의 크기·개수로 설치 권장

### ② 일반주거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며 과도한 크기의 시각 요소 사용 금지
- 보행시 인지가 빠른 돌출형 간판 권장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다양한 재질의 혼합사용 권장
- 실사 이미지 사용 자제 유도
- 제주의 자연 재료(목재, 제주돌)나 그 특성을 지닌 형태의 재료 사용 유도
- 광원 직접노출 방식 사용 자제 준수
- 판류형 간판에 전체 조명설치 금지
- 최소의 크기·개수의 간판 설치 권장

### ③ 주거상업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며 과도한 크기와 자극적인 시각 요소 사용 금지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적절히 설치 유도
- 지역 및 상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질 사용
- 내부 조명 방식을 택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 권장
- 광원 직접노출 방식 사용 자제 준수
- 최소의 크기·개수로 설치 권장

### ④ 상업지

- 자유롭고 재미있는 형태의 간판 권장

- 건축물과 연관성있는 간판 형태 유도
- 경쾌하고 다이내믹한 스타일 연출 유도
- 활기찬 느낌의 다채로운 색상 유도
- 내부 조명 방식을 택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 사용 권장
- LED 등 품질 좋은 광원 사용 권장

#### ⑤ 역사문화지

- 과도한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형태 권장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배색 유도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의 적절한 사용 유도
-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 사용 유도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 반사되는 소재보다 시각적 반사자극이 적은 소재 사용 유도
- 유연성원단 소재 사용 자제 준수
- 광원 직접노출 방식 사용 금지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⑥ 간판특화지

- 입체형 문자보다 평면 문자 간판 권장
- 손글씨나 스텐실 등 손맛이 느껴지는 타이포그래피 사용 유도
- 플렉스 재료 지양, 코팅 철판·슬라브판 등 근·현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소재 권장
-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권장
- 네온사인을 지양하고 노란색 스포트라이트, 백열등 같은 생활 조명 권장
- 개별 상점의 특성을 표현하도록 간판개수 제한 완화

### (3) 형성과제

#### 가. 생산과 저장

##### ① 경작지 경관

- 경관구조의 단절을 초래하는 택지조성, 간선도로개통 등에 대한 심의 강화
- 농경과정, 방목풍경 등이 회소적 고유문화경관으로 유지되기 위한 경관생산자독려시스템 마련
- 농한기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계절경관 형성

##### ② 시설 경관

- 마을 입구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미관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생적 이미지 부여

- 생업과 직결된 오래된 창고, 축사 등의 규모, 입지, 토속적 형태는 문화경관으로 인정하고 보전함
- 표준개량공법에 의한 신축을 지양하고 토속적 시공법을 존중하고 지원함

## 나. 돌문화

- 화산섬의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돌문화는 제주도 대표적 문화상징
- 척박한 농경지를 일궈낸 밭담, 중산간 오름 능선에 집단적으로 자리 잡은 무덤과 산담, 중산간 목축활동을 대표하는 조형요소인 잣성 등은 제주도 원풍경을 주도하는 문화경관요소로서의 관리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계획

### □ 올레담

- 공가발생 및 가옥 구조의 변형으로 전통돌담의 축조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대식 재료의 혼합적 사용에 의한 구축 증가
- 기형적으로 왜곡된 유사 돌담의 신축을 규제하고 돌담 쌓기 장인 <돌챙이>에 의한 전수교육의 체계화
- 마을안길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차량진입목적의 골목확포장에 의한 올레 훼손 최소화
- 일정구간 올레보전의무를 마을자치규약으로 향약화 유도

### □ 밭담

- 토지소유의 경계, 우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방풍막 기능 등 고유한 농경문화경관
- 도시화, 농업형태의 변화, 비닐하우스 재배 등 새로운 경작형태의 출현에 의하여 훼손이 가속화
- 훼손시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고, 부분적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자원보전과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GIS를 활용한 밭담관리시스템을 구축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체계에 의한 돌담의 문화자원화 추진 등이 요구됨

### □ 산담과 분묘

- 경작지의 분묘는 동일한 공간내 산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독특한 제주도 문화풍경이자 고유한 방목문화의 산물로 보존가치가 높음
- 분묘군락을 개발사업대상지 선정 시 제외하여 강제 이장 및 훼손 방지하고 문화경관자원으로 보전
- 연고자 미상의 개별 분묘들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 잣성

- 제주 중산간지대의 목축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자 조선시대 목마장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경관

- 전국의 역사유물 중 최장 길이의 선형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나 관리부족으로 훼손 위기
-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교육 및 현장체험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다. 야간경관

### ① 녹지

- 중산간 녹지는 인공적인 빛의 느낌을 지양
- 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온한 조명 연출 유도
- 오름 경관의 보존을 고려한 하향 조명 유도
- 달빛, 별빛의 인지를 저해하지 않는 은은한 조명 연출 유도
-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장파장 계열의 조명 사용 권장
- 수목이 우거진 곳의 보행로는 낮은 블라드등이나 3m 정도의 가로등 설치 준수
- 오름 입구와 산책로 조명 시 상향 조명을 지향하여 빛공해를 최소화 유도
- 주요 오름 인근의 옥외광고물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② 주거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유도
- 도로에 접한 가옥의 주변의 조도를 전체 조도보다 밝게 연출하여 야간 보행 시 방향유도와 장소안내 역할 유도
- 옥외광고물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웜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3럭스) 준수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설치 유도

### ③ 주거상업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권장
-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건물의 색과 조명색 동일한 연출 유도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웜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5럭스) 유도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준수
- 주택 진입부에 스텝라이트, 낮은 블라드등 설치 권장

### □ 일반건축물

- 건물과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 연출을 하되 조명기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시공

- 원색계열의 조명 색상이 건물면적을 크게 점거하는 조명방식 금지
- 건축물의 색상과 주변 건물 조명 색상을 고려한 색상 선택
- 휘도에 의한 주변 건축물 빛 침해 금지
- 광원의 직접 노출로 수면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도
- 건축물 경관조명 연출시 라인 직접 조명방식 사용 금지
- 판류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판 전체 조명 설치 금지



그림 6-22 건축물 라인 조명방식 사용금지 그림 6-23 판류형 옥외광고물 조명 설치 주의

#### □ 생활 공원

- 쾌적하고 활동감 있는 생활 공원 조명 연출
-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도 적용
- 벤치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함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도 유도
- 벤치와 파고라 주변은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 사용 유도

#### ④ 역사문화지

- 역사적 건축물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조화를 도모하여 야경을 통해 지역의 역사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조명 권장
- 부드러운 조명연출로 문화재의 품위를 높이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킴을 유도하며 업라이트 조명 연출 유도
- 주변 건축물은 문화재 조명을 돋보이도록 은은한 빛으로 연출 준수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문화재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게 휘도와 연색성 고려
- 문화재 광원은 고효율성 램프를 선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온도 유지
- 문화재 주변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루버 등 장착
- 문화재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석재, 목재)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 확보하며 직접부착방식 금지
-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조명 사용 금지
-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 직접 노출 방식 금지

- 진입부에 동선을 유도하는 바닥 매설형 조명 권장
- 문화재 진입부와 주변 보행로는 문화재 조명을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은은한 진입부 보행로 조명 유도

#### ⑤ 관광특화지

- 휘도의 적절한 규제: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 금지
- 관광 보행 경로 유도 조명 설치
- 광공해 수준의 지나친 조명 금지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 경관조명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조명 권장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한 연출 유도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 연출 유도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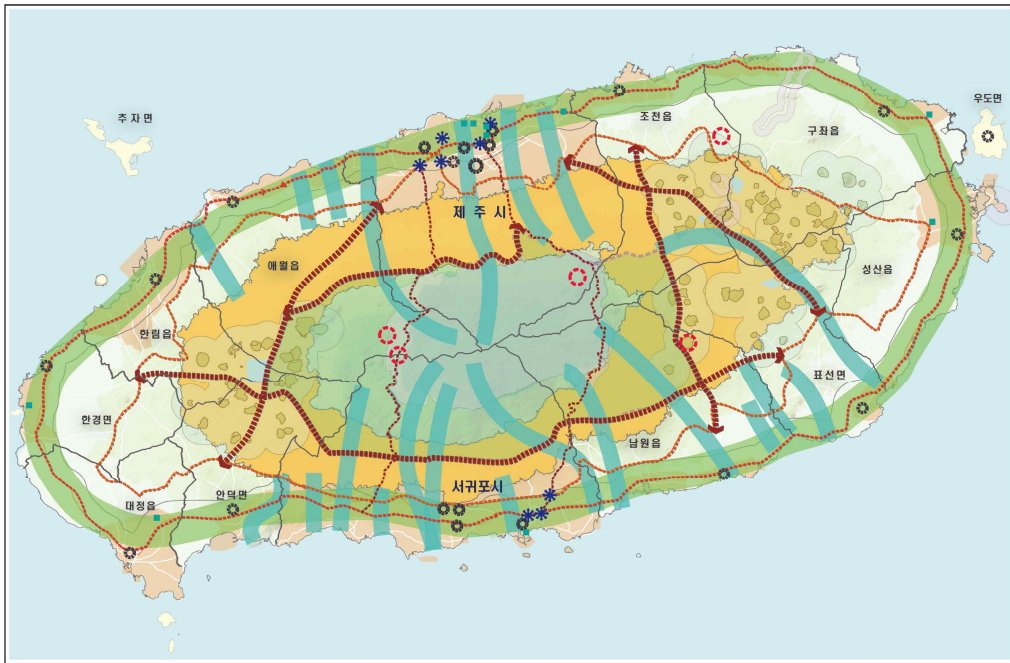
#### □ 주제공원 조명

- 유적 및 예술품의 재질과 색상을 돋보이기 위한 램프 권장
- 생태 보전지역에는 최소한의 조명 권장
- 생태 수변공원의 수면에는 어둠을 지켜 주변의 빛을 수면에 반사 유도하는 간접 조명방식 채택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 선택 유도
- 체육공원은 각각의 스포츠에 필요한 조도로 안전을 확보하되,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글레어 방지 유도
-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 금지

#### ⑥ 도로일반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 방식, 간격, 높이 등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
-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 지점에는 밝은 조도 유지 권장
- 도로의 주요 결절부 지점에 조도 높임 권장
- 주요 교차로: 교차 지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조도 유지
- 중산간 지역 도로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ut off 방식 조명을 사용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빛이 퍼지지 않도록 유도
- 조도가 5~20럭스가 되도록 연출

- 교차로 녹지 섬의 적절한 경관 조명 권장
- 도로 진입부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진입부 강조



### 6.2.3 경관단위㉔ 권역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곳자왈 등 제주 특유의 자연자원 보존과 거주민의 생활관습을 배려한 양호한 생활환경과의 조화
- 해당지역 거주민 공통의 자산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형성 필요
- 고유의 자연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건축물의 고도기준 제안
- 한라산과 해안으로의 전망을 고려한 인공구조물의 좌향, 개방정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마감재 사용
- 주요 도로 주변 경관성 향상

\* 경관단위 ㉔는 수평측량기준(해안일주도로 1.2km경계선 이상)과 수직측량기준(해발고도 200m미만)에 의하여 설정되므로 경관단위 ㉔와의 경계선(해안일주도로 1.2km경계선)과 경관단위 ㉔(해발고도 200m미만)와의 경계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포함하게 된다. 이 영역은 경관단위 ㉔, ㉔, ㉔의 관리기준을 중첩 적용하여, 항목별로 강도가 높은 기준에 의해 관리된다.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기본원칙** 절대적 보존가치가 가변하지 않는 틀에서의 개발을 지향

- 보전 : 중산간의 기능적인 연속성을 고려하고 곳자왈 등의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 관리 : 도시지역내 면적, 선적, 거점경관 관리
- 형성 : 기존 도심 및 마을의 정비 및 재생시 자연경관에 순응

## (2) 보전방향

- 중산간의 기능이 연속되는 곳자왈 및 자연녹지 등은 중산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전해야 할 것이며, 돌담(밭담, 산담, 갯성)은 세계농업유산 등재 등을 고려하여 보호해야 함

## (3) 관리방향

- 중산간마을 및 취락지구, 도심의 주거지는 신축 수요 및 개조, 재생의 수요가 많음에 따라 이러한 행위시 자연경관 및 권역별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자연녹지지역내 단독주택을 제외한 무분별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숙박시설은 금지해야 할 것임

## (4) 형성방향

- 취락의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 및 정비를 지속하되 권역별 경관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것들과 지문에 순응하도록 유도해야 함

# 3) 주요경관

구분	대분류		세부경관자원	비고
보존	절성토량			
	자연식생		수림지, 초지, 습지	
관리	개방지수			
	재료			
	취락	중산간마을	올레, 가옥, 봉천수, 팽나무와 땃돌	
		구시가지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가로	중산간마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구시가지 중심가로		
		신시가지 중심가로		
	하천		치수, 친수, 조망,	
	조경식재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대지안의 조경	
	바닥포장		선형포장, 면적포장	
	경관색채		건축물, 지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관광지, 일반주거지, 주거상업지, 상업지, 역사문화지, 간판특화지	
형성	생산과 저장		경작지 경관, 시설경관	
	돌문화		올레담, 밭담, 산담과 분묘, 갯성	
	야간경관		녹지, 주거지, 주거상업지, 상업밀집지, 역사문화지, 관광특화지, 도로일반	

## (1) 보전과제

### 가. 절성토량

- 대지조성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 3.0m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나. 자연식생

### ① 수립지

#### □ 중산간 저지대 오름식생의 보존·관리

- 해안을 포함한 저지대 오름은 전체 오름의 약 29%인 105개 분포
- 마을과 인접한 오름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탐방이나 경작활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을 전제로 한 관리방안 수립 (수시관리)
- 식생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식생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시행
- 주요 식생인 곰솔군락을 비롯하여 원식생 보존에 중점을 둠
- 조망확보를 위한 수목벌채 금지
- 탐방객 편의시설은 오름 기저부 등 경관훼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시설물(벤치, 쉼터 등)이 과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어야 함
- 오름관리기본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07)에 의해 오름 정상부에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휴게공간, 전망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함(면적, 개소 최소화)
- 인위적인 방식의 오름 조립행위 금지 (생태적 복구방안 마련)

#### □ 꽃자왈 식생의 보존·관리

- 꽃자왈 지대는 제주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환경이므로 원지형과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향
- 현재 주요 꽃자왈 지대는 관리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개발행위에 노출되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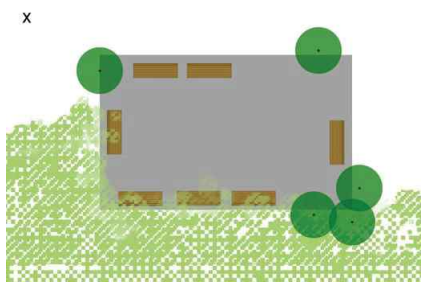


그림 6-25 대형 휴게공간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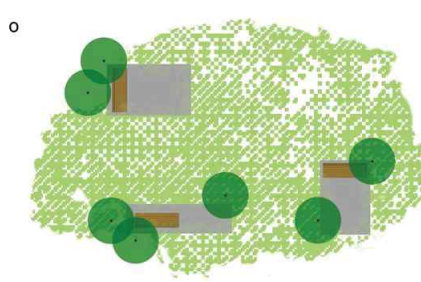


그림 6-26 소규모 공간으로 분산 배치

-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행위

구분	행위 제한 유형
부지 조성 관련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제한, 인공물 설치 제한, 도로개설 제한
개별 자원 관련	팽나무 등 수목, 식물의 굴취 및 반출 행위 금지 현무암, 송이 등 화산분출물 채취행위 금지

표 6-6 행위 제한 유형

#### □ 하천변 상록난대림의 보존·관리

- 제주도의 하천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 수계를 형성하면서, 대부분 건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풍부한 상록난대림의 보존가치가 중요함
- 깊은 하상과 주변의 풍부한 상록난대림은 제주 하천경관의 큰 특징이므로 경관관리계획의 초점은 이 하천의 원형보존과 주변의 상록난대림 보존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하천 원형 및 하천변 상록난대림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개발행위 제한함

구분	행위 제한 유형
지형 훼손	주차장 설치, 건축물 설치, 휴게 공간 조성 등
식생 훼손	수변 보도개설, 식생, 바위채취행위, 인공 호안 조성

표 6-7 행위 제한 유형

#### ② 초지

- 중산간 지역에 산재된 난대상록활엽수림, 온대낙엽활엽수림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펼쳐진 억새군락 보존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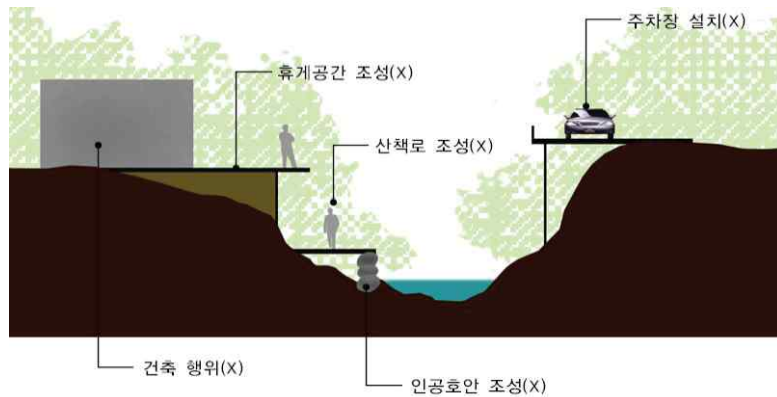


그림 6-27 행위 제한 대상 하천변 개발 유형

#### ③ 습지

-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습지 및 자연연못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보존 자원이므로 습지자체 및 주변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관관리 시행
- 생태적으로 민감한 습지에 대하여 제한된 탐방활동만 허용
- 조사 및 연구목적의 탐방활동
- 전문가이드를 동반하는 소규모 생태탐방활동

#### (2) 관리과제

##### 가. 개방지수

- 주요 조망대상 방향으로의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서 개방지수를 30% 이상 확보 함<sup>11)</sup>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한라산, 오름, 해안 이외 별도의 조망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함. 단, 2층, 8m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함
- 풍경의 공유를 위한 일정 개방지수의 준수와 함께 필로티 등의 설치를 통한 보행자수준에서 느끼는 건축물 저층부 개방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나. 재료

- 천연재질의 향토재료 사용 유도
- 반사가 심한 금속패널,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금지
- 자연 재료에 페인트 도장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 금지

#### 다. 취락

##### ① 중산간마을

###### □ 올레

- 개별가옥 진입도로의 확폭에 의해 소실, 변형, 왜곡 개축된 올레담의 복원·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실시

###### □ 가옥

- 조화롭지 못한 구조·형태의 대문 및 표준화된 의장요소의 무계획적 설치 지양

###### □ 봉천수(못)

-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못의 원형 복원
- 기성품으로 제작된 표준화된 인공데크 및 정자의 설치 지양

###### □ 팽나무와 땃돌

- 지역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생육개선사업 및 보전사업 시행
- 도로확폭에 의한 제식 및 이식 지양
- 팽나무 주위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지정재료사용에 의한 팽나무 주변 정비
- 과도한 휴게편익시설 설치를 절제하여 마을쉼터로서의 땃돌 원기능 회복

##### ②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

###### □ 현황

-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들의 과도한 밀집
- 제주도 민가의 전통적 가옥방식에서 벗어난 이질적 외래의장요소의 혼재
-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의 등장에 의한 도로의 주차장화

###### □ 기본방향

- 가옥의 독립적, 돌출적인 외관계획을 지양하고, 가옥 군의 조화로운 집합경관 형성을 유도
- 필지 간 경계에 전통방식의 돌담설치를 권장하여, 연속성과 조화를 확보하는 경관적 요소로 활용

- 주거지와 더불어 근경으로 경험되는 자연경관, 역사경관의 공유를 중요시함
- 건축물의 기능적 결합, 부설시공,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비
- 신축에 의한 단지 조성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의 개선을 우선시 함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내용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경관관리 세부지침 반영

#### □ 세부지침

- 배치
  - 지정규모 범위 내 합필에 의한 신축일 경우도 저층부의 매스를 분절하여 마을 안길의 스케일을 훼손하지 않음
  - 인접필지의 기존 주택과 대지 내 공지를 가급적 통합하여 공지의 활용도를 높임
  - 제주고유의 독특한 분동배치방식을 가급적 준수하여 문화경관을 지속시킴
- 규모
  - 합필시 오래된 땅의 흔적(지문)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조경계획, 바닥패턴계획 등을 고려함
  - 합필에 의한 대규모 신축시, 지역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출입위치, 개구부 방식 등을 계획함
  - 인접필지의 주택의 평균 층수 및 규모에 비해 대형화되는 경우 시각적 완화를 돕는 재료와 색채선정으로 돌출경관형성을 지양함
- 저층부
  - 1층에 점포를 설치할 경우 인접필지의 거주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포의 종류 및 이에 수반되는 설비, 주차방식 등에 대하여 공공성을 고려함
  - 대지 내 공지는 마을안길의 레벨과 가급적 차이를 두지 않음
- 보행환경의 활성화
  - 보행속도로 경험되는 가로환경의 공간, 스케일, 표면 관리
- 외관
  - 지역 전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동질적 외장재 사용을 권장
  - 지붕형태, 외장재 및 색채는 일반지침을 적용하되, 인접필지 단독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증개축의 경우라도 건물 전·후·측면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재료 및 색상 사용

#### 다.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 ① 현황

- 제주시의 스케일과 지형을 거스르는 공동주택단지의 확장
-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자연경관요소와의 부조화 (녹시율 부족, 위압감 형성)

-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에 따른 건축물 배치 및 형태로 인한 조망차폐
- 유사층고에 따른 일률적인 스카이라인 (조망경관 저해)

## ② 기본방향

- 설계경기를 통한 창의적 디자인 유도
-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인접단지와의 단절을 지양
- 제주도의 지형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설계유도
- 고층화, 고밀화 지양. 저층, 중층, 고층의 다양한 조합 권장 및 의무화



그림 6-28 단지조성 예시

-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의 반복을 금지하고 다양한 형태 및 단위평면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관개선 유도
- 경제적 측면에서 외면되었던 다양한 단위평면의 계획을 권장하여 입면과 연계된 창의적 외관디자인 유도
-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하되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
- 완만한 구릉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사지, 주요 커뮤니티 가로 주변 등과 같은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계획
- 도시적 차원에서 주거단지와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폐쇄적인 단지형 배치 지양
- 가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도형이나 중정형과 같은 배치 형태 활용
- 소규모 공동주택과 기존 취락지와의 조화를 위해 스케일, 재료등에 의한 경관연속성 확보
- 수익성 위주의 점적 개발형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기법과 정비수법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개발
- 근경으로 경험되는 자연경관, 역사경관의 공유
- 단지배치
  - 남향위주의 획일적인 일자배치를 지양하고, 변화있고 다양한 외부공간의 흐름 및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배치계획이 되어야 함
-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비
- 신축 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의 개선

### ③ 세부지침

#### • 적용범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류를 따르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다중주택(단독), 공관(단독), 연립주택(공동), 기숙사(공동)등은 지침적용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세대 주택(공동)은 다가구 주택(단독)과 건축법적 구분에 의한 차이 외에 경관적 특성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지침을 적용

#### • 대지조성계획

- 기존 지형과 지문의 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지 및 도로 계획과 설정 및 절·성토 등의 최소화
- 단지의 경계부분의 급격한 단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가급적 자연 경사면으로 계획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옹벽, 데크, 피트 등의 조성시 조경계획 수립하여 경관요소로 활용
- 단지조성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순응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지나친 절·성토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게 함
- 한라산 · 해안 · 오름 등 자연축과 도시축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 공원, 하천 등으로의 열린 배치로 자연환경을 적극 도입
- 시각적 통로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 보행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위치선정시 조망대상을 고려하여 위치 및 배치
- 도시의 연속적 흐름을 고려, 단지과 도시가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 건축물 배치
- 높은 구릉지나 경사가 급한 경우 가능한 밀도가 낮은 테라스하우스 조성
- 완만한 경사가 있는 구릉지는 테라스형 주거시설과 타워형 또는 연립형 주거시설을 복합 배치
- 폐쇄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의 획지 분할
- 주동의 길이나 블록의 획지 길이를 조절하여 시각축이나 시각회랑을 확보



그림 6-29 단지배치 예시



그림 6-30 단지조성 예시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분할가능성이 계획된 경우는 예외

-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최고층수를 지정.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
- 층수의 다양화, 저층, 중층, 고층의 일정비율 준수 의무화, 경관심의시 반영비율 심의
- 단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창의적 설계개념에 따라 탑상형 부분에 한하여 허용높이 이상 허용가능

- 규모

- 인접필지의 주택보다 층수 및 규모가 현저히 클 경우 심의에 의해 지정된 채로 및 색채의 사용으로 돌출 경관 형성을 억제
- 합필에 의한 대규모 신축일 경우 진출입 위치, 주차방식, 개구부 방식 등에 주민의 의견 반영

- 저층부

- 1층에 점포를 설치할 경우 인접필지의 거주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포의 종류 및 이에 수반되는 설비, 주차방식 등에 대하여 거주민의 의견 반영
- 공동주택과 복합되는 2층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보행의 쾌적성 증진을 위해 1층부에 아케이드 설치 권장
- 전면가로나 보도에 면한 주상복합건물의 1층부는 외벽의 일정비율 이상을 개구부로 확보 (예: 벽면적의 1/2이상)
- 주상복합건물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은 가로에 면하게 하고 상층부의 주거동은 가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후퇴시켜 가로의 폐쇄감을 방지하고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 입면, 매스 단위평면의 다양화, 단순반복 금지
- 입면과 연계된 다양한 단위평면 디자인 유도
- 심의시 입면, 매스, 단위평면의 다양화 항목 반영여부 기술 의무화
- 단위세대 크기당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평면·입면설계 의무화 유도
- 동질적 의장재료 사용권장
- 형태계획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계획 개념 적용
- 외벽 그래픽의 색채와 형태는 단순하게 계획하며 슈퍼그래픽 지양
- 독립된 주거동의 외벽면에는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 등의 표기금지
-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 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
- 건설업체 명, 브랜드 명, 심볼, 로고 등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에만 문자 조각 형태로 명기

- 주차공간

- 단지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지상공간의 보행화와 녹지화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건축물내(지하주차장, 피로티 등)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
- 주차장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야 함

라. 가로

- ① 중산간마을

- 마을진입도로

- 간선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생활영역을 분절하는 경우 감속을 고려한 도로표면 개선

## □ 마을안길

- 확포장시 마을안길포장의 일반지침에 의해 바닥포장을 개선하여 경관을 연속시킴

## ② 구시가지 중심가로

### □ 현황

- 도시문화활동이 집중되는 상업화된 중심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함
- 무계획적이거나 개발필지위주의 공사로 보행폭, 레벨,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보행도로가 불연속적임
- 건축물의 다양한 접도방식에 의한 저층부의 혼잡성
- 난잡한 가로 시설물들에 의한 불량경관 형성
- 불법노상주차에 의한 보행환경 악화
- 골목, 이면도로, 이면가구내부 관리부재에 의한 슬럼화

### □ 기본방향

- 보행환경의 활성화 : 보행속도로 경험되는 가로환경의 공간, 스케일, 표면 관리
  - 중심가로에서 접속되는 골목을 가구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장하고, 가구내부에는 보행자를 위한 소규모 공공마당 확보
  - 골목으로 유도하는 사인체계를 최소화 하고 파사드의 연속성, 바닥 포장재 및 조경시설물의 연출에 의한 보행 친화적 골목문화 환경 조성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함
- 새로운 건축유형의 개발
  - 양측 노변기능의 상호보완을 고려한 저층부 권장·제한 용도지정
  - 가로변 프로그램 재구성 및 3차원적 공간조직 형성에 의한 제주고유의 상업가로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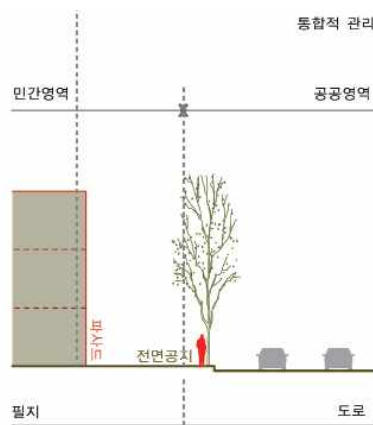


그림 6-31 가로환경의 기본요소

- 상층부는 다양한 거주·숙박형태를 지원하는 체류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하층부는 문화예술관련 용도와 결합된 상업시설로서 보행에 적합한 가로경관 형성
- 상하층부 경계 수평면은 연속적인 인공데크로 조성되도록 리모델링을 권장하여 보행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주상복합 문화환경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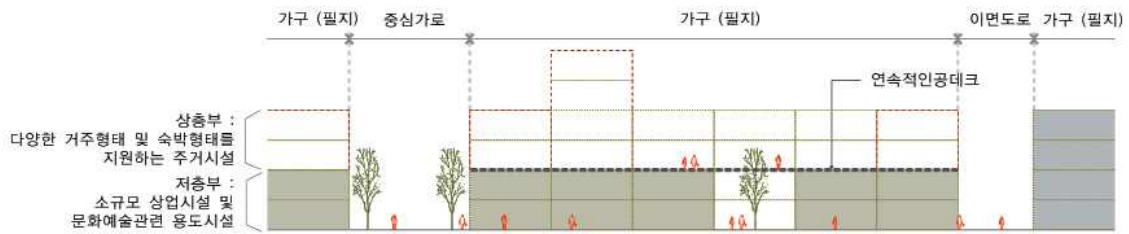


그림 6-32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관리

#### □ 세부지침

##### • 적용범위

- 보행전용가로, 보행중심의 보차병용가로, 차량중심의 보차병용가도로 분류되는 중심가로의 유형 중 도시활동의 핵심이 되는 보행중심의 보차병용가로를 대상으로 함

##### • 가로환경의 경관계획대상요소

구분	도로					필지			건물				
	교통체계	바닥포장	공공시설물	조경	public space	규모 및 형태	주차장	open space	입면	형태	출입구	sky-line	부착물
부분	-	○	◆	○	●○◆	●	●○◆	●○◆	●	●	●	●	●◆

● : 건축 ○ : 조경 ◆ : 공공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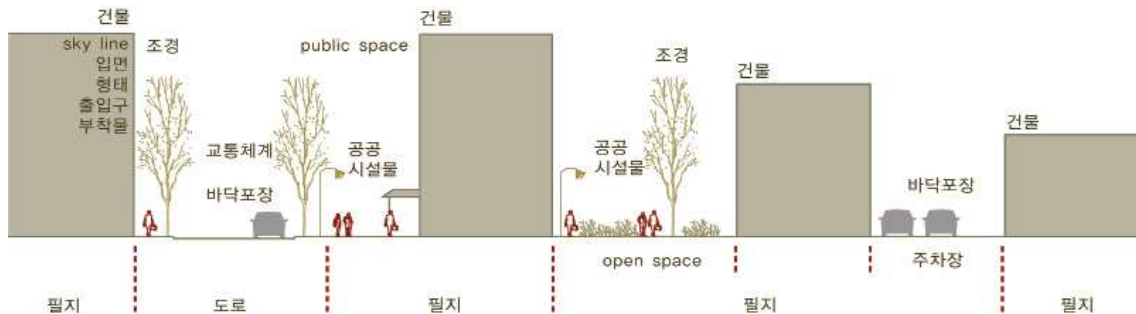


그림 6-33 가로환경의 경관계획대상요소

#### 중심가로

##### • 보행로

-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보행로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필지구분과 상관없이 저층부의 공지 및 보행로를 연속시킴

##### • 차로

- 차량 감속 및 통행량 제한을 위해 도로의 사행화 및 일방통행구간 지정을 권장하며, 차량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최소한의 정차가능구역을 계획함

#### 중심가로변 필지

##### • 건축지정선

- 구시가지 중심가로의 고유한 스케일과 공간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접건물의 벽면선

- 을 존중하여 건축하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전면공지를 최소화하는 건축지정선을 마련토록 함
- 대형필지의 건축후퇴선에 의해 노출되는 기존·신축 건물의 측벽면도 facade의 일부로서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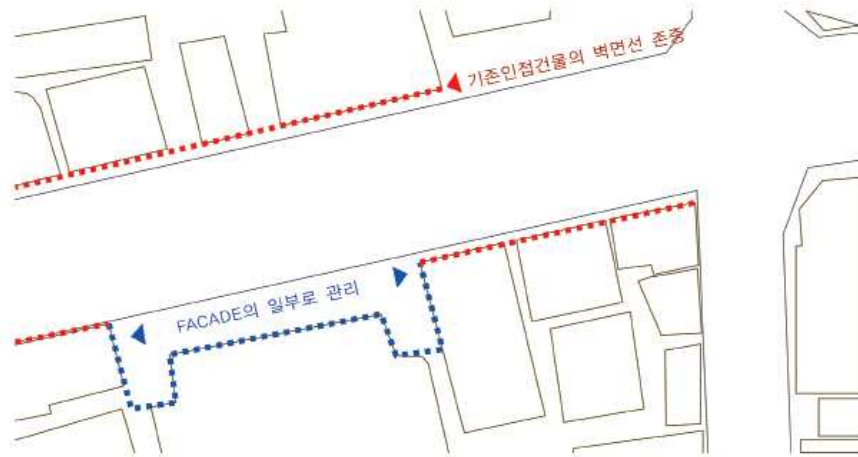


그림 6-34 건축지정선 설정의 기준

- 대지 내 공지
  - 개별건물의 진출입이나 전이공간 등 사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면공지들을, 보행자들의 이동과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장소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선형으로 연결된 개별 공지들을 하나의 오픈스페이스로 통합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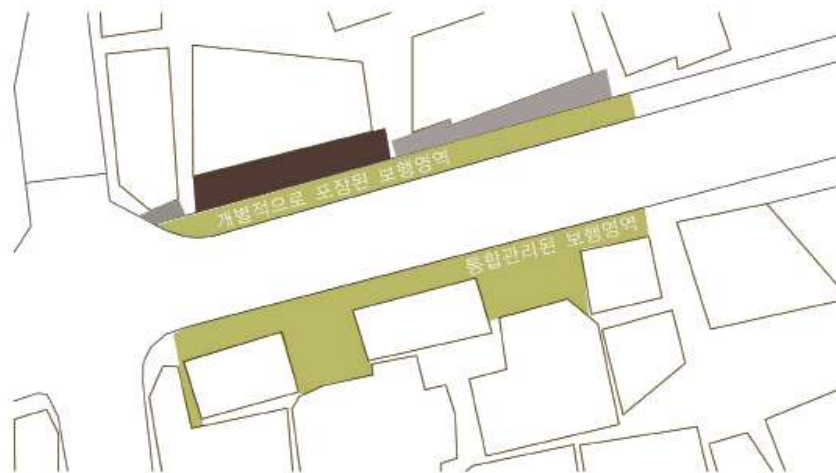


그림 6-35 보행영역의 통합관리

- 건폐율
  - 저층부(2층이하) 접지 건폐율을 별도 지정하여 개방성을 높임(개방지수와 동시적용)
  - 지정규모 이상의 합필에 의한 공동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저층부들을 통합, 연계한 상층부 데크의 설치는 예외적용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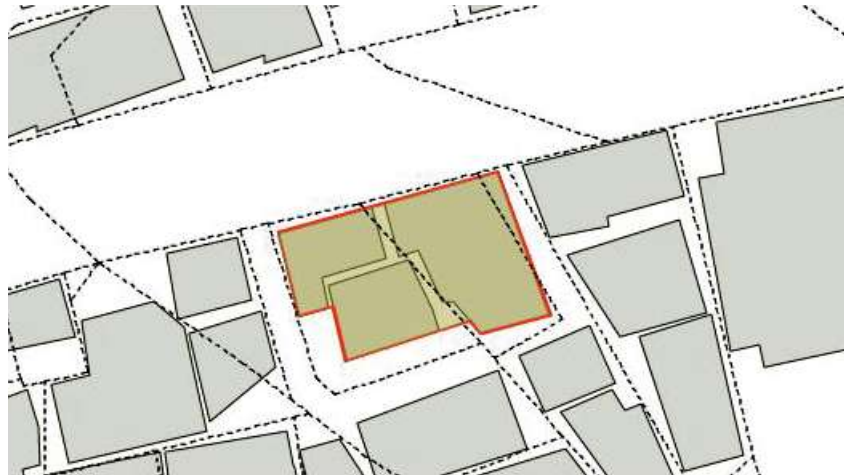


그림 6-36 필지의 관리

- 파사드

- 중심가로와 접속되는 골목내부로 보행자 동선을 연장하여 facade의 가용성을 극대화함
- 가로변 파사드의 개방도(파사드 전체면적/오픈되어 있는 면적)와 투시도(파사드 전체면적/투시가능한 면적)를 극대화하여 중심가로의 보행로와 이면가구 내 공간들간의 소통을 돕고 가용 파사드 연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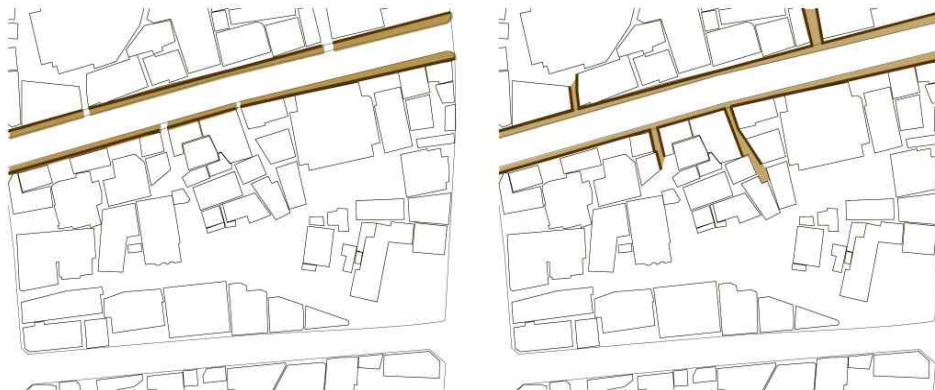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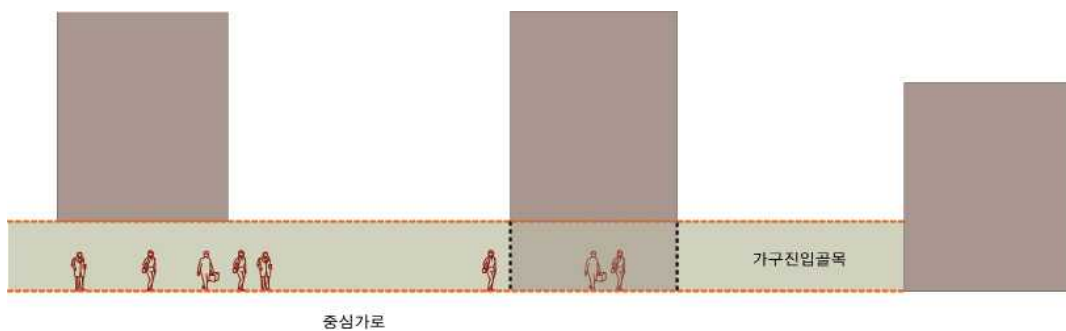


그림 6-37 가용 파사드의 연장 및 골목의 활용



중심가로

그림 6-38 저층부 파사드의 개방도

- 맞벽·측면공지 차폐

- 신축 시 맞벽 설치 권장을 제도화하고, 증개축시 측면공지 차폐 등을 유도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저하하는 틈새공간 발생을 최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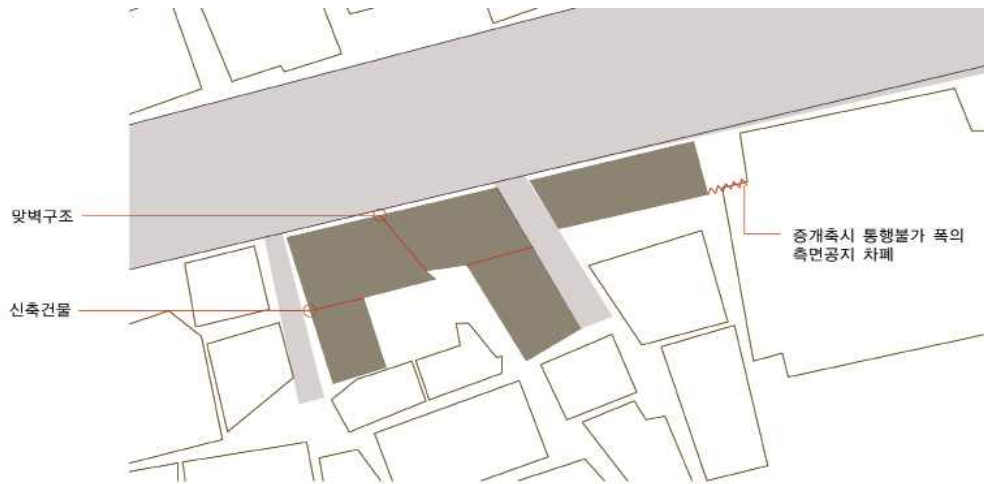


그림 6-39 맞벽 설치·측면공지의 관리

### 이면가구

- 공지
  - 막다른 골목에 접한 필지의 경우, 대지 내 공지(필로티 하부 포함)를 인접필지의 공지와 연계하여 이면도로에 이르는 공공의 통과골목의 활용을 권장, 유도함
- 맹지
  - 접도하지 않는 가구내부의 맹지는 지자체가 매입하여 지역공공공간으로 활용하되, 지적경계 등 지문을 철저히 보전하여 인접대지와 대규모로 공동개발 되는 것을 규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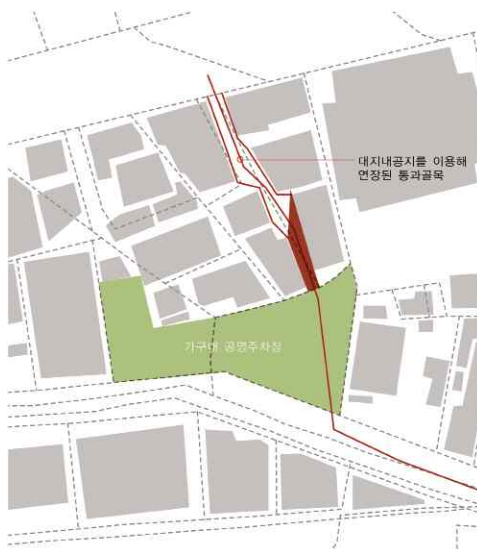


그림 6-40 골목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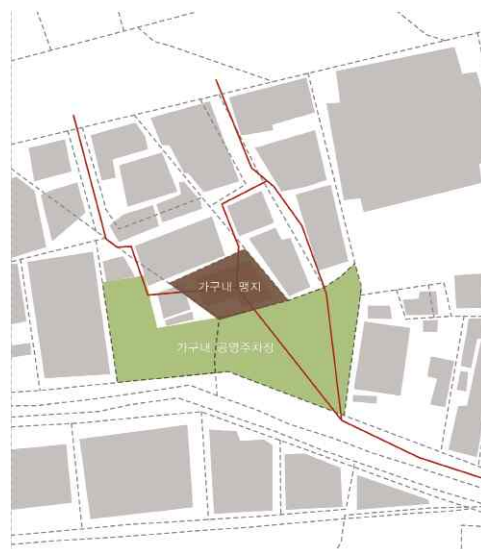


그림 6-41 가구 내 맹지의 관리

### 이면도로

- 주차

- 중심가로변 필지에 한하여 필지 내 확보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만큼의 주차대수를 가구 내 공영주차장 내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 유도함
- 중심가로를 제외한 도로변의 필지 및 이면가구들의 필지에 한하여, 필지 내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
- 이면도로의 유희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중심가로의 보행성을 회복하고 접속골목들을 정비하여 가구내부를 활성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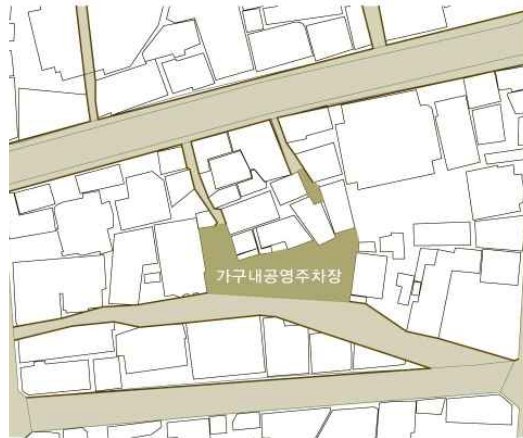


그림 6-42 가구 내부의 활성화와 이면도로와의 연계

### ③ 구시가지 골목

#### □ 현황

- 격자형 가로체계 도입 이전에 형성된 유기적 구조의 도로 및 폭 2m 미만의 그물형 구조의 도로가 남아있는 제주 고유의 지문 경관
- 기존 시가지 저층 고밀도 단독주택지역의 골목을 대상으로 하되 경관개선시범사업으로 지정되거나 골목보존사업(가칭)등의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6-43 서귀포시 신시가지 가로체계



그림 6-44 서귀포시 중정로 주변 가로체계



마을경계  
현대화에 의한 격자형 도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격자형 도로  
유기적 구조의 도로  
그물형 구조의 도로

그림 6-45 제주시 연동 가로체계



마을경계  
현대화에 의한 격자형 도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격자형 도로  
유기적 구조의 도로  
그물형 구조의 도로

그림 6-46 제주시 산지천 주변  
가로체계

## □ 기본방향

- 골목의 형태와 땅의 경계를 지키되 법적 규제보다 주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합의에 의하여 생활터전에 대한 자긍심으로 관리가 지속되도록 함
- 도시가로와 형태적 특성이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전되고 있는 사례
  - 보스턴(Boston)시 블랙스톤(Blackston) 도시형태보전지구 : 골목의 형상이 문화재 보전 대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은 허용하되 골목의 형태변형은 금지됨
  - 노르망디(Normandy)지역 도시형태보전지구: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로체계
  - 보전과 함께 도시구조의 개선을 시도함



그림 6-47 도시형태보전지구 지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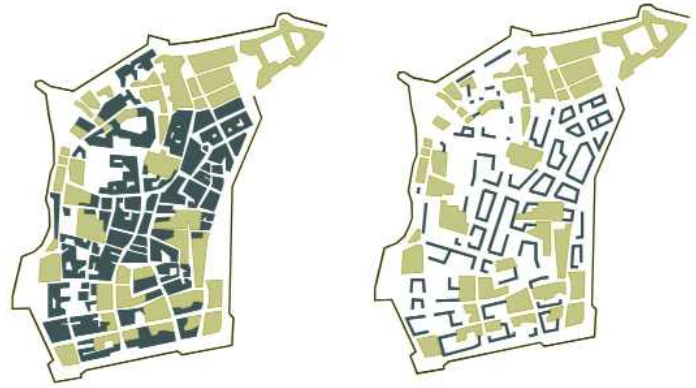


그림 6-48 도시형태의 보전사례

## □ 세부추진방향

- 경관시범사업
  - 제주시 구시가지 산지천 주변지역과 서귀포시 구시가지 중정로 주변 지역일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3.6 경관시범사업의 예시 참조)

- 골목특화마을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명품명소 브랜드사업> 등 기존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특화마을> 지정 사업을 추진함
  - 마을별 보존가치가 있는 골목들을 주민들이 선정하여 보존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 지원토록 함
  - 주민들의 거주형태, 정주성과 직결되는 '00동 00골목 지키기' 사업은 주민참여의지가 필수적임
- 골목길 보전지구 지정 및 골목 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대상지의 지형, 골목망, 필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가옥의 철거를 최소로 하고,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며 맹지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④ 신시가지 중심가로

##### □ 현황

-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 중심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함
-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 동일한 형태와 특성 없는 배치
- 풍경의 다양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가로경관
-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차량위주의 가로구성

##### □ 기본방향

- 보행자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 공공영역-민간영역의 통합관리
-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신시가지 가로 풍경 지양, 풍경의 다양성, 차이권장, 반복을 가능한 배제한 가로디자인
- 기존 취락지와 경관 조화유도
- 한라산·오름·해안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한 배치, 가로구성

##### □ 세부지침

##### 중심가로

- 보행로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보행로 통합계획, 관리하고 도시의 기능과 풍경의 연속성, 건축물 저층부의 연속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지상보행로를 네트워크화
  - 보차분리, 보행로와 차로의 3차원적 분리권장, 신시가지 가로변 신축건물의 인공데크 보행로 설치를 유도하고 연속된 보행 네트워크로 보행성이 극대화된 중심가로 조성
- 차로
  - 차량감속유도
  - 보행자 우선의 차도조성

## 가로변건축물

- 건축형태
  - 장기적 차원의 부지크기관리로 가로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 용도관리로 가로 입면의 다양함과 연속성 부여
  - 신축건물의 벽면선 통일과 저층부 층고를 맞추어 저층부의 연속성이 인지되는 3차원 인공 데크 보행로 조성 유도
  - 창조적 다양성, 차이 권장 특성 있는 신시가지 가로풍경조성
- 파사드·건물입면
  - 한라산, 오름, 해안을 향한 조망 존중 위한 파사드 개방도 증가
  - 가로변 파사드의 개방도와 투시도 극대화로 중심가로의 보행공간과 이면가로의 소통확대 유도
  - 대형필지의 건축후퇴선에 의해 노출되는 건물의 모든 벽면도 통합관리
- 오픈스페이스·도시공원
  - 보행로와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도시공원의 조성으로 연속된 보행네트워크의 가로경관 조성
  - 위치선정시 한라산·오름·해안으로의 조망고려
  - 획일적이고 상징성을 강조한 진입경관과 신시가지 랜드마크 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장기적이고 창조적인 풍경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신시가지 가로조성

## 마. 하천

### ① 치수

#### □ 현황

- 하상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의한 하류지역 과부하 유발
- 부분적 구간별 하천정비에 의한 하류 병목현상

#### □ 세부지침

- 자연형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지역 범람을 예방
- 연장과 교폭을 확장하는 교량개량사업 시행
- 복개 구조물 및 상자형 배수구 철거
- 하천단면의 자연원형 복원

### ② 친수

#### □ 현황

- 하천 복개에 의한 생태축의 단절
- 천변 공공부지 부족
- 천변 접근성 부족

#### □ 세부지침

- 건천의 풍경을 경관자원화 하는 하상의 보행루트 조성 시 인공구조물 설치 최소화
- 접근로, 산책로 설치 규모를 제한하며(0.6m-0.9m), 자연친화적 재료 및 시공법 선정
- 공공시설 설치 명목의 하류 인접 매립지 조성 금지
- 교량하부 유휴공간의 활성화

### ③ 조망

#### □ 현황

- 획일적으로 조성된 천변 보행로
- 하천의 주요경관을 독점, 사유화하는 특정건축물 난립
- 수변지역 내 위락·유흥시설 등이 점적으로 산발적 입지

#### □ 조망 유형별 세부지침

조망유형	조망위치	조망대상	세부지침
천변 보행로 조망	보행로	하천+천변	산책로와 하천의 경계부 식재 지양 하천경계(제방)선 기준 45도 사선제한 수변 위락·유흥시설 건축제한
필지 내 조망	인접 필지 내부	하천	인공구조물의 좌향은 가급적 하천 직교 방향
교량 조망	교량 상부	하천+천변	교량(교각, 난간 등 포함)의 형태, 재료, 규모의 체계적 관리

### 바. 조경식재

#### ①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 □ 중산간 도로변 가로녹지

- 중산간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변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적용함
- 이 도로들은 제주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중산간 초지대13, 오름군, 한라산, 해안을 조망하는 중요한 경관통로이므로 이 들 경관요소들의 조망을 저해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위적 가로수 식재 배제
- 기능이 상실된 구간의 방풍림 제거하여 오름·한라산 조망
- 간선도로변에 인공적·인위적 느낌의 초화연출행위 지양

o



그림 6-49 방풍림의 개방으로 조망 확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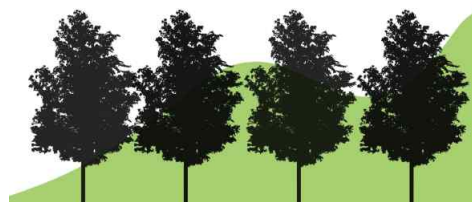


그림 6-50 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 저지대 오름에서의 식재행위

- 휴게 공간 등 오름 탐방로 상에 식재가 필요한 경우 주변에 분포하는 동일종으로 식재
- 오름 탐방로 양측의 인위적 초화연출 행위 금지

□ 도시공원의 조성

-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내에서 중요한 경관형성 요소임
- 도시공원은 그 내부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도시공원 자체의 입지와 형태도 전체적인 경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신규로 도시공원을 지정할 경우 경관적으로 중요한 한라산, 오름, 해안 등의 조망을 고려하여 적지 선정
- 지역의 오래된 경관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지문(地文)을 고려한 형태가 되도록 함
- 시가지 도시공원의 경우 포장면·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많이 확보하여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야 함

□ 목초지 및 과수재배지

- 중산간 지대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목초지 및 경작지도 경우에 따라 중요한 경관자원이 되므로 경관관리 대상으로 인식함
- 제주의 향토정서와 부합하고 고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목초지 및 경작지는 보전함
- 새롭게 조성되는 목초지 및 과수재배지의 식재 행위 시, 목초 종류 및 과수재배품종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변식생 교란여부를 사전에 검토함

② 대지안의 조경

□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지의 조경

- 경관·생태 교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이질적 수종 식재 배제
- 경관단위별 권장수종을 참고로 하여 지역적 정서와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대지 내 자연 지반 녹지율을 최소 30%이상 확보하여 생태적 생육기반을 조성함

□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 개별 인허가시 권장수종을 참고하여 향토수종 식재 권고

### ③ 권장수종 예시

구분	권장 수종 예시	비고
교목	가시나무, 곰솔, 구실잣밤나무, 굴거리, 동백, 먼나무, 목서, 아왜나무, 후박나무, 후피향나무, 팽나무, 녹나무, 담팔수, 참식나무, 비자나무, 조록나무, 멸구슬나무, 생달나무, 굴나무, 비목, 호랑가시나무 등	중산간 저지대 자생식물
관 목	꽃대강나무, 팽나무, 남천, 다정큼나무, 사철나무, 피라칸사스, 홍가시나무, 병솔나무, 식나무, 산가막살나무, 탐라산수국 등	중산간 저지대 자생식물
지피·초화	송악, 관중, 애기나리, 제주양지꽃, 참억새, 띠풀, 유채 등	중산간 저지대 자생식물

표 6-8 권장수종 리스트

## 사. 바닥포장

### ① 선형포장

- 선형포장이라 함은 보도, 산책로, 탐방로 등 길을 따라 길이로 연속되는 포장면을 의미
- 선형의 포장 면은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므로, 설계제원 (폭, 재료, 색상) 선택에 있어서 경관 관리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 오름 탐방로 포장

- 중산간 및 저지대 오름에 생태탐방로 개설시 주변 식생 및 생태기반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의 설계제원 필요
- 저지대 오름 탐방로 개설시 설계 권고 기준
  - 폭 : 1.2m 이하
  - 재료 : 목재데크, 고무판, 분쇄목 등 투수·식물생육 가능한 지역재료 사용
  - 형식 : 토양유실이 우려되거나, 계단이 필요한 급경사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탐방로 포장을 하고, 주변 식생보존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설치하여 동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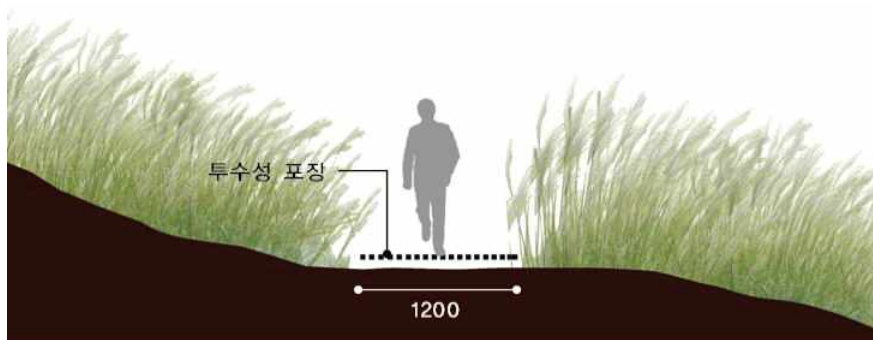


그림 6-51 오름 탐방로 단면구성 예시

### □ 중산간 저지대의 자전거 도로 포장

- 자전거도로 개설시 주변 경관자원 및 한라산, 오름, 해안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노선 지정
-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는 중요한 선형의 경관요소로 특히 재료 및 색상 선정이 중요함
- 지역재료를 사용하여 가급적 투수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체 구간을 일관성 있게 조성
- 포장소재의 색상은 요소별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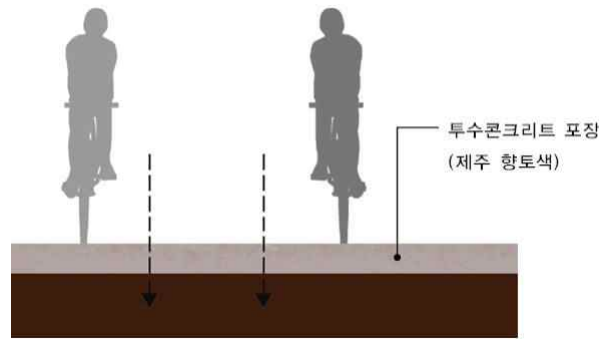


그림 6-52 자전거도로의 단면예시

#### □ 중산간 저지대 마을의 마을안길 포장

- 사용재료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관요소별 지침을 참고함

#### □ 시가지 가로 보도포장

- 현무암의 재질과 색채를 기본으로 하며, 상세한 예시는 경관요소별 지침에 따름

### ② 면적포장

- 면적포장이라 함은 광장, 주차장, 마당 같이 일정한 영역을 특정한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
- 면적포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과하는 공간에 이루어지므로 포장면을 형성하는 재료의 물성, 색상, 패턴이 미시적 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포장면의 재료나 시공방법에 따라 빗물 침투여부가 결정되므로, 생태적 식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적의 공간의 경우 투수성 소재 활용하도록 유도
- 경관가치로 중요한 중산간지역의 대형시설의 경우 차량도로를 제외한 모든 포장공간에 투수성 포장 권장
- 포장소재의 색상은 '3.3.5 재료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현무암, 송이, 제주 흙 등 원재료의 고유 색상 권장)
- 주거단지(아파트단지)내 포장면은 대지 내 생태 면적율이 0.3~0.6 되도록 바닥포장계획 수립
- 생태 면적을 산정은 환경부 제정 '생태 면적을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을 준용하여 적용함
- 포장방법에 의한 생태 면적율 가중치 적용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포장 유형
부분포장	0.5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전면 투수포장	0.3	자연지반위의 마사토, 자갈, 모래 포장
틈새 투수포장	0.2	틈새를 가지는 벽돌포장, 사교석포장 등
불투수 포장	0.0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포장

표 6-9 생태 면적율 적용기준

## 아. 경관색채

### ① 경관색채현황

- 도심의 수변 공간, 하천주변, 중심 가로, 주요 도로 주변, 주거지의 색채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장소별 색채인상이 혼재됨
- 대체로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의 색채가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관색채 계획 부재로 인한 혼란스러운 가로 체계 형성
- 주거지역에 고채도의 원색의 지붕의 밀도가 높으며 고채도의 색채가 주로 적용됨
- 아파트 외벽과 도심의 가로 벽에 슈퍼그래픽이 자주 배치되어 주변과의 색채 연속성을 저해
- 옥외광고물은 도심가로의 색채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고채도의 자극적인 색채가 집중됨
- 무질서한 고채도 색채의 아치, 배너, 가로시설물들로 인해 거리의 색채 안정성과 미관 저해

### ② 공통지침

- 도심의 다양한 색채가 차분하게 어우러지며 거리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향
- 건축물의 지붕, 벽면, 색채는 도심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심 요인이므로 여러 색과 어울리는 차분한 채도와 경쾌한 명도대비 색조합의 예시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적합한 색채조합 선택 유도
- 도심의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수, 쌈지공원 등 녹지 경관과 조화되는 차분한 색채 사용 유도
- 도심경관과 어울리는 주조, 보조, 강조색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선별적 사용 유도
  - － 주조색: 도심경관에 시각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 저채도의 차분하고 온화한 색채 유도
  - － 보조색: 차분한 느낌의 주조색 사용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조색과 명도대비가 일어나는 중채도 색채를 병렬하여 경관의 활력과 장소 변별력을 위한 색채 유도
  - － 강조색: 도심의 장소별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중,고채도의 활기차고 개성 있는 색채를 사용하되 주조색과 보조색에 비해 최소한의 면적에 색채적용 유도
- 명도대비가 강한 배색은 권장
- 채도 대비가 강한 배색 적용은 지양

### ③ 세부지침

#### □ 건축물

- 도심의 활력을 부여하는 상업지역과 차분한 색채를 부여하는 주거환경의 구분에 따른 적절하고 다양한 색채군 형성 권장
- 가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저채도의 건축물 기준색 형성
- 재료 고유의 색채와 질감 사용 권장
- 주조색과 보조색은 시각적 자극이 적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색채 사용
- 돌담의 현무암 색과 잘 어울리는 배색 유도
- 건축물 기준색의 색채허용 범위를 고려하여 적용 (오차범위 허용: 채도 0.5, 명도 1.0)



## □ 지붕

- 도심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지붕색채는 주거지역으로서의 특성과 사용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색채 유도
- 재료별 권장 색채를 제시 및 유도하는 지붕색채 적용과 관리
- 지붕의 재료 특성과 도장 방법에 따라 색채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
-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은 사용을 되도록 지양

	컬러강판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점토기와
지붕재료				

그림 6-53 지붕색채의 재료별 현황

## □ 옥외광고물

- 관광지, 주거지, 상업지, 역사문화지, 간판특화지역으로 나누어 각 권장색채 제시
- 지역별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색채 사용으로 개성을 살림
-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재료색을 그대로 드러냄을 유도
- 건물 외장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선정
- 면적이 큰 간판의 경우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색 사용 자제
- 대비가 강한 색채배색은 지양
- 관광지
  - － 네온사인인 제한적 사용,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명색 사용
  - － 왜곡된 크기나 장식으로 인한 색채의 시각적 자극 지양
  - － 상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재질 혼합사용 권장
- 주거지
  - －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상업지에 차분하고 안정적인 옥외광고물 배색 유도
  - － 왜곡된 크기나 장식으로 인한 자극적인 색채 혼재 지양
  - －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상업지
  - －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명색 사용
  - － 자유롭고 다양한 간판형태와 어울리는 산뜻한 옥외광고물 색 권장
  - － 건축물과 간판의 색채관계를 고려한 다채로운 색상 권장
  - － 경쾌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역사문화지
  - － 장식을 배제하며 간결한 색채사용 유도
  -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색채 사용으로 시각적 자극 피함
  - －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색 사용 권장
  -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 사용권장
- 간판특화지
  - － 다양한 색채 적용이 쉬운 플렉스 재료 사용 권장
  - － 코팅 철판·슬라브판 소재의 자체색 사용 권장
  - － 상점 개성에 맞는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사용
  - － 네온사인인 적절한 활용으로 야간에도 색채의 유인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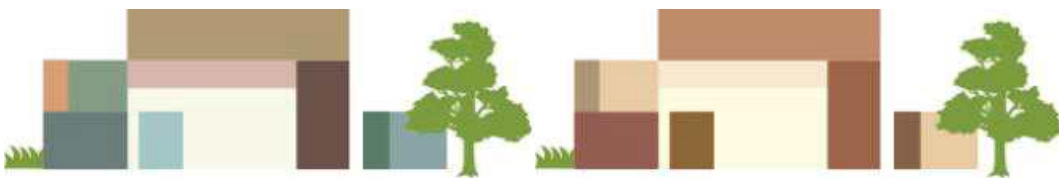


그림 6-54 관광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55 주거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56 상업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57 역사문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58 간판특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자. 옥외광고물

### ① 관광지

- 지역 및 상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질 사용 권장
- 획일화된 크기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작고 다양한 간판 배치 유도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 준수
- 네온사인을 지양하되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을 적절히 설치 유도
- LED 등 에너지 효율과 조도가 높은 광원 사용 권장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최소의 크기·개수로 설치 권장

### ② 주거지

#### □ 일반주거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며 과도한 크기와 시각 요소 금지
- 보행 시 인지가 빠른 돌출형 간판 권장
- 보행 시 위압감을 줄이는 작은 면적의 간판 권장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다양한 재질의 혼합사용 권장
- 상점명과 로고 위주의 간결한 디자인 유도

#### □ 주거상업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며 과도한 크기와 시각 요소 사용 금지
- 도보 시 인지가 빠른 돌출형 세로 간판 권장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다양한 재질의 혼합사용 권장
-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을 적절히 설치 권장

#### □ 상업지

- 경쾌하고 역동적인 간판 연출 유도
- 활기찬 느낌의 다채로운 색상 유도
- 내부 조명 방식을 택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 사용 권장
- LED 등 에너지 효율과 조도가 높은 광원 사용 권장

#### □ 역사문화지

- 장식 배제한 간결한 형태 권장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배색 유도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의 적절한 사용 유도
-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 사용 유도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 반사되는 소재보다 시각적 자극이 적은 소재 사용 유도
- 유연성 원단 소재 사용 자제 준수
- 광원 직접노출 방식 금지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 간판특화지

- 입체형 문자보다 평면 문자 간판 권장
- 손글씨나 스텐실 등 손맛이 느껴지는 타이포그래피 사용 유도
- 플렉스 재료 지양, 코팅 철판·슬라브판 등 근·현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소재 권장
-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권장
- 네온사인을 지양하고 노란색 스포트라이트, 백열등 같은 생활 조명 권장
- 개별 상점의 특성을 표현하도록 간판개수 제한 완화

### (3) 형성과제

#### 가. 생산과 저장

##### ① 경작지 경관

- 경관구조의 단절을 초래하는 택지조성, 간선도로 개통 등에 대한 심의 강화
- 농경과정, 방목풍경 등이 최소적인 고유문화경관으로 유지되기 위한 경관생산자 독려시스템 마련
- 농한기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계절경관 형성

## ② 시설 경관

### □ 창고·축사

- 마을 입구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미관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생적 이미지 부여
- 생업과 직결된 오래된 창고, 축사 등의 규모, 입지, 토속적 형태는 문화경관으로 인정하고 보전함
- 표준개량공법에 의한 신축을 지양하고 토속적 시공법을 존중하고 지원함

### □ 비닐하우스

- 경관관리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제주도의 지형과 특성에 맞는 장기적 디자인모형개발 필요
- 해안·오름경관을 고려한 배치
-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 나. 돌문화

### ① 올레담

- 공가발생 및 가옥 구조의 변형으로 전통돌담의 축조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대식 재료의 혼합적 사용에 의한 구축증가
- 기형적으로 왜곡된 유사 돌담의 신축을 규제하고 돌담쌓기 장인 <돌챙이12>에 의한 전수교육의 체계화
- 마을안길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차량진입목적의 골목확장 포장에 의한 올레 훼손 최소화
- 일정구간 올레보전의무를 마을자체규약으로 법제화 유도



그림 6-59 보존이 양호한 올레담

### ② 밭담

- 토지소유 경계, 우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방풍막 기능 등 고유한 농경문화경관
- 도시화, 농업형태의 변화, 비닐하우스 재배 등 새로운 경작형태의 출현에 의하여 훼손이 가속화
- 훼손 시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고, 부분적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자원보전과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GIS를 활용한 밭담관리시스템을 구축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체계에 의한 돌담의 문화자원화 추진 등이 요구됨



그림 6-60 보존이 양호한 밭담

### ③ 산담과 분묘

- 경작지의 분묘는 동일한 공간 내 산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독특한 제주도 문화풍경이자 고유한 방목문화의 산물로 보존가치가 높음
- 분묘군락을 개발사업대상지 선정 시 제외하여 강제 이장 및 훼손 방지하고 문화경관자원으로 보전
- 연고자 미상의 개별 분묘들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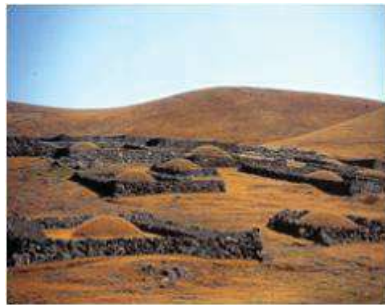


그림 6-61 경작지의 분묘



그림 6-62 경작지의 산담

### ④ 잣성

- 제주 중산간지대의 목축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자 조선시대 목마장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경관
- 전국의 역사유물 중 최장 길이의 선형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나 관리부족으로 훼손위기
-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교육 및 현장체험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그림 6-63 잔존하는 훼손위기의 잣성

## 다. 야간경관

### ① 녹지

- 녹지 경관의 보존을 고려한 간접조명 유도
- 녹지공간 주변 보행로 및 휴게 공간에 안락한 느낌의 간접조명 설치 권장
- 보행 안전성과 경로 안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조도 유도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준수
- 간접조명 또는 반간접조명으로 눈부심이 적은 부드러운 빛 연출 유도
- 녹지 주변의 보행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성과 경로 안내 역할을 하는 낮은 볼라드등 사용 권장
- 녹지 주변 휴게 공간은 은은한 바닥 조명 연출로 편안함 유도

### ② 주거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유도
- 도로에 접한 가옥의 주변의 조도를 전체 조도보다 밝게 연출하여 야간 보행 시 방향유도와 장소안내 역할 유도
- 옥외광고물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웜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3럭스) 준수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설치 유도
- 은은한 보행용 가로등 조명 연출 유도

### ③ 주거상업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권장
-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건물의 색과 조명색 동일한 연출 유도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웜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5럭스) 유도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준수
- 주택 진입부에 스텝라이트, 낮은 볼라드등 설치 권장

### □ 일반건축물

- 건물과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 연출을 하되 조명기구가 직접 노출되지 않게 유도
- 원색계열의 조명 색상이 건물면적을 크게 점거하는 조명방식 금지
- 건축물의 색상과 주변 건물 조명 색상을 고려한 색상 선택

- 휘도에 의한 주변 건축물 빛 침해 금지
- 광원의 직접 노출로 수면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도
- 건축물 경관조명 연출시 라인 직접 조명방식 사용 금지
- 판류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판 전체 조명 설치 금지



그림 6-64 건축물 라인 조명방식 사용금지    그림 6-65 판류형 옥외광고물 조명 설치 주의

#### □ 생활 공원

-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공원 조명 연출 권장
-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도 적용 유도
- 벤치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함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도 유도
- 파고라 조명은 파고라 내부를 은은하게 연출하며, 파고라 내부의 안전조도 유도
- 벤치와 파고라 주변은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 사용 유도

#### ④ 상업밀집지

- 건물과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 연출을 하되 현란한 조명(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 금지
- 색상의 변화, 점멸의 반복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을 주는 방식 금지
- 주변 건물과 조명 밝기의 차가 지나치게 크고,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 금지
- 옥탑부만 강조한 조명 금지
- 건축물의 빛의 레벨의 조화 유도
- 건축물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로운 계획 유도
- 전체 건축물과 옥탑부의 휘도차가 커서 야간경관 스카이라인을 훼손 금지

#### ⑤ 역사문화지

- 역사적 건축물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조화를 도모하여 야경을 통해 지역의 역사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조명 권장
- 부드러운 조명연출로 문화재의 품위를 높이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킴을 유도하며 업라이트 조명 연출 유도
- 주변 건축물은 문화재 조명을 돋보이도록 은은한 빛으로 연출 준수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문화재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게 휘도와 연색성 고려
- 문화재 광원은 고효율성 램프를 선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온도 유지
- 문화재 주변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루버 등 장착
- 문화재의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석재, 목재)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 확보 유도하며 직접부착방식 금지
-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조명 사용 금지
-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 직접 노출 방식 금지
- 진입부에 동선을 유도하는 바닥 매설형 조명 권장
- 진입부와 주변 보행로는 문화재 조명을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은은한 진입부 보행로 조명 유도

#### ⑥ 관광특화지

- 휘도의 적절한 규제: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 금지
- 관광 보행 경로 유도 조명 설치
- 화려한 조명 색채 금지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 경관조명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조명 권장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한 연출 유도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 연출 유도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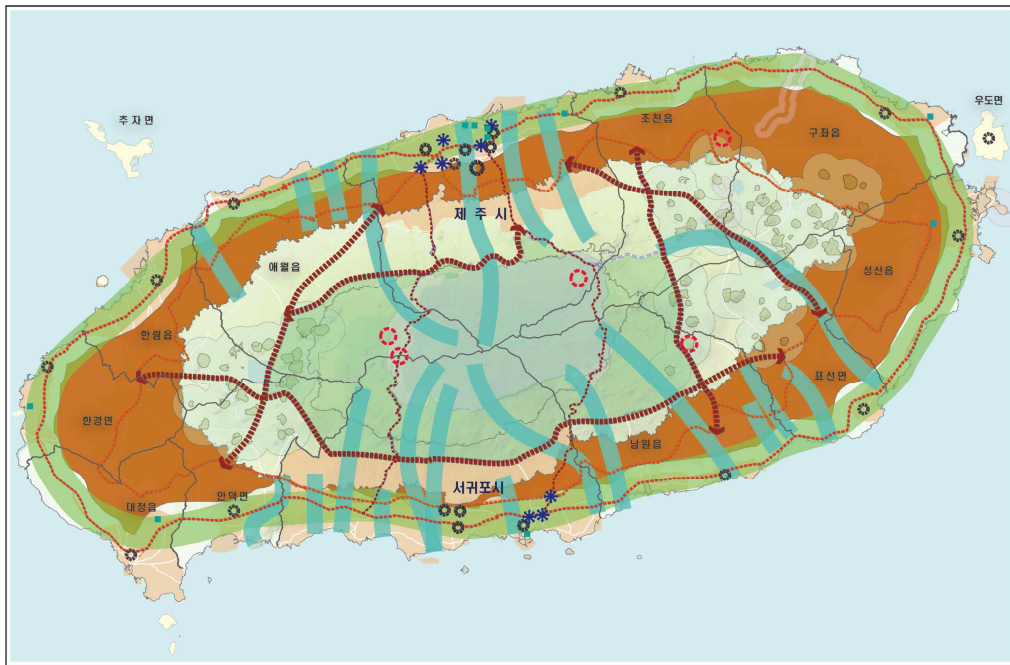
#### □ 주제공원 조명

- 유적 및 예술품의 재질과 색상을 돋보이기 위한 램프 권장
- 생태 보전지역에는 최소한의 조명 권장
- 생태 수변공원의 수면에는 어둠을 지켜 주변의 빛을 수면에 반사 유도하는 간접조명방식 채택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 선택 유도
- 체육공원은 각각의 스포츠에 필요한 조도로 안전을 확보하되,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글레이 방지 유도
-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 금지

#### ⑦ 도로일반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 방식, 간격, 높이 등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
-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구조가 가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 지점에는 밝은 조도 유지 권장

- 도로의 주요 결절부 지점에 조도 높임 권장
- 주요 교차로: 교차 지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조도유지
- 도로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ut off 방식 조명을 사용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빛이 퍼지지 않도록 유도
- 조도가 5~20럭스가 되도록 연출
- 교차로 녹지 섬의 적절한 경관 조명 권장
- 도로 진입부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진입부 강조



#### 6.2.4 경관단위④ 권역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해안선 이상 해안일주도로 1.2km경계선 미만
- 한라산과 해안으로의 전망을 고려한 인공구조물 좌향
- 꽃자왈 등 자연자원의 보존
- 고유의 자연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건축물의 고도기준 제한
- 과도한 매립금지. 해안선에 연접한 자동차도로 개설 금지
- 일주도로변 식재방법 개선 등 경관성 향상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기본원칙** 해안면 그린벨트를 통한 이용과 유도의 선별적 관리를 원칙으로 함

- 보전 : 해안의 주요도로변 경관보전을 위한 개발수요 억제
- 관리 : 한라산 및 해안의 조망 등을 고려한 경관관리
- 형성 :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관광객들의 활동 지원 도모

## (2) 보전방향

- 해안도로에서 바다에 면한 부분의 개발수요 억제와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성 있는 해안경관을 보전해야 할 것임

## (3) 관리방향

- 지형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라산 및 해안이 조망될 수 있도록 개방지수, 좌향 등을 고려하도록 유도해 나감

## (4) 형성방향

-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관광객들의 활동이 완만할 수 있도록 시설지간의 이동의 안전 및 경관적 우수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동성보다는 안전성 및 시케인 등을 활용하도록 함
- 시설지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개선은 유도함

## 3) 주요경관

구분	대분류		세부경관자원	비고
보존	절성토량			
	자연식생		수림지, 초지, 습지	
관리	개방지수			
	재료			
	취락	중산간마을	올레, 가옥, 봉천수, 팽나무와 땃돌	
		해안마을	올레, 가옥, 용천, 팽나무와 땃돌, 항구	
		구시가지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가로	중산간마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해안마을	마을진입로, 해안도로, 용천수	
		구시가지 중심가로	중심가로, 중심가로변 필지, 이면가구, 이면도로	
		구시가지 골목	구시가지 골목	
		신시가지 중심가로	중심가로, 가로변건축물	
	하천		치수, 친수, 조망,	
	조경식재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대지안의 조경	
	바닥포장		선형포장, 면적포장	
	경관색채		건축물, 지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관광지, 일반주거지, 주거상업지, 상업지, 역사문화지, 간판특화지	
형성	생산과 저장		경작지 경관, 시설경관	
	돌문화		올레담, 밭담, 산담과 분묘, 잣성	
	야간경관		녹지, 주거지, 주거상업지, 상업밀집지, 역사문화지, 관광특화지, 도로일반	

## (1) 보전과제

### 가. 절성토량

- 대지조성 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 3.0m 이하를 원칙으로 함
- 과도한 매립행위 지양

### 나. 자연식생

#### ① 수림지

##### □ 해안 저지대 오름식생의 보존·관리

- 해안을 포함한 저지대 오름은 전체 오름의 약 29%인 105개 분포
- 마을과 인접한 오름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탐방이나 경작활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관리방안 수립
- 식생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식생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시행
- 주요 식생인 곰솔군락을 비롯하여 원식생 보존에 중점을 둠
- 해안, 저지대 오름에 많이 분포하는 참억새, 띠 등의 초지식물은 오름의 식생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식물들이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조망확보를 위한 수목벌채 금지
- 탐방객 편의시설은 오름 기저부 등 경관훼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시설물(벤치, 쉼터 등)이 과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어야함
- 오름관리기본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07)에 의해 오름 정상부에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휴게공간, 전망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함(면적, 개소 최소화)
- 인위적인 방식의 오름 조림행위 금지 (생태적 복구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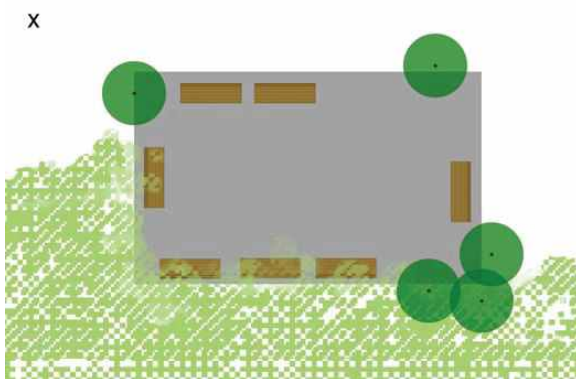


그림 6-67 대형 휴게공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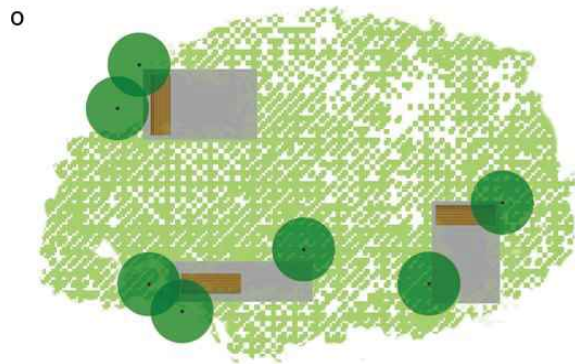


그림 6-68 소규모 공간으로 분산 배치

##### □ 해안 식생자원의 보존과 관리

- 해안선의 원지형, 해변 원식생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

- 해안가에 분포하는 해송(곰솔)군락지를 보존하고 훼손된 해송림의 식생복구방안 수립
- 해안가에 다수 분포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 및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식생자원 정기모니터링에 반드시 포함하여 변화추이 파악)

□ 하천변 상록난대림의 보존·관리 (경관단위 ㉔ 동일)

- 제주도의 하천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 수계를 형성하면서, 대부분 건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풍부한 상록난대림의 보존가치가 중요함
- 깊은 하상과 주변의 풍부한 상록난대림은 제주 하천경관의 큰 특징이므로 경관관리계획의 초점은 이 하천의 원형보존과 주변의 상록난대림 보존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하천 원형 및 하천변 상록난대림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개발행위 제한함

구분	행위 제한 유형
지형 훼손	주차장 설치, 건축물 설치, 휴게 공간 조성 등
식생 훼손	수변 보도개설, 식생, 바위채취행위, 인공 호안 조성

② 초지

- 해안 저지대 오름의 참억새, 띠풀 등의 초지식물을 보존함

③ 습지

-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습지 및 자연연못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보존 자원이므로 습지자체 및 주변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관관리 시행
- 생태적으로 민감한 습지에 대하여 제한된 탐방활동만 허용
- 조사 및 연구목적의 탐방활동
- 전문 가이드를 동반하는 소규모 생태탐방활동
- 해안사구 식물군락, 해안암석지군락, 해안풍충지군락 등의 식물자원을 보존함
- 연안습지의 개발행위 제한
- 제주해안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연안습지가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 행위 시 경관 위원회 및 보전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

(2) 관리과제

가. 개방지수

- 주요 조망대상 방향으로의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서 개방지수를 30% 이상 확보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한라산, 오름, 해안 이외 별도의 조망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함. 단, 2층이하, 8m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함

- 풍경의 공유를 위한 일정 개방지수의 준수와 함께 필로티 등의 설치를 통한 보행자수준에서 느끼는 건축물 저층부 개방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나. 재료

### ① 공통지침

- 해안지역의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 유도
- 천연재질의 향토재료 사용 유도
- 반사가 심한 금속패널, 반사유리, 칼라유리 사용금지
- 자연 재료에 페인트 도장 등 재료를 덧바르는 가공 금지

### ② 가로시설물 재료

- 시설물별로 고정된 재료설정을 하는 것 보다, 역사적, 장소 특성에 따라 지역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선택
-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 시, 샌드 블래스트(sand blast)를 적용하여 무광처리를 하여 시각적 간결성 유지
- 유리를 사용할 경우, 강화 유리를 허용하여 안전을 기하고, 스크래치 방지처리를 함
- 역사문화재 지역은 역사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재료 권장
- 해안 지역은 주변 해안경관과 동질적으로 조화되는 재료 사용 유도
- 가로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추구할 경우, 주변과 동질의 재료이거나 현무암, 나무, 등 천연재질의 재료 사용하여 시각적 일체감 유도
- 시설물별로 고정된 재료설정을 하는 것 보다, 역사적, 장소적 맥락에 따라 지역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선택 권장
- 자연 친화적이며 비정형적 형태, 부드러운 곡선 연출에 적합한 자연재료 선택 권장
- 인공재료는 가공이 비교적 용이하고 견고하므로 관광지역의 보행 안전시설에 선별적 사용 권장
- 가로시설물의 항목별 재료 적용은 항목별 디자인 재료 지침을 따름

### ③ 옥외광고물 재료

-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재료 사용
- 내구성 있으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선택
- 플렉스 사용 자제 유도
- 해안지역의 자연 재료 혹은 자연재료의 특성을 지닌 재료 사용 권장

## 다. 취락

### ① 중산간마을

#### □ 올레

- 개별가옥 진입도로의 확폭에 의해 소실, 변형, 왜곡 개축된 올레담의 복원·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실시

#### □ 가옥

- 조화롭지 못한 구조·형태의 대문 및 표준화된 의장요소의 무계획적 설치 지양

#### □ 봉천수(못)

-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못의 원형 복원
- 기성품으로 제작된 표준화된 인공데크 및 정자의 설치 지양

#### □ 팽나무와 댕돌

- 지역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생육개선사업 및 보전사업 시행
- 도로확폭에 의한 제식 및 이식 지양
- 팽나무 주위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지정재료사용에 의한 팽나무 주변 정비
- 과도한 휴게편익시설 설치를 절제하여 마을쉼터로서의 댕돌 원기능 회복

### ② 해안마을

#### □ 올레

- 전통주거경관의 보전
- 도로 확포장에 의해 소실, 변형, 왜곡된 올레 및 돌담의 정비

#### □ 가옥

- 지형특성 및 해안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건축물의 층고를 최소화하고 균집화 하여 조성
-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건축물 입지시 조망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계획심의 시 배치에 유의하도록 하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망쉼터 설치유도
- 주위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구조 및 형태의 대문 설치 지양,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권장
- 원칙적으로 해안도로 주변의 부지합필을 통한 다세대주택 건립, 대규모 펜션신축 지양
- 자연재료를 이용한 해안경관 개선
- 해안변 특화가로조성사업에 의한 보행로개선, 해안접근로 확보, 야간조명개선, 특화 뷰 포켓 조성
-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 설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형적인 고·저차의 정도, 주변의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 경관관리지침을 수립.

- 각 필지의 원 지적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개발을 위한 합필 지양
- 지붕의 재질은 지역의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및 형태로써 지역의 통일된 경관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재질로 선정, 현재 슬레이트+페인트의 지붕을 점진적으로 원재료로 개선유도
- 주거건물의 외벽은 해당지역의 분위기에 조화될 수 있는 재질을 권장하고 단색이 벽면에 빛의 음영에 의한 변화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
- 표고에 따른 건축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며 사이공간은 식재를 하여 전체적 조화유도
- 오픈스페이스와 면해 있는 건축물은 정면이 오픈스페이스의 중심을 향하도록 권장

#### □ 용천

- 조경시설물 설치지양, 자연 용천의 원형 복원, 활용정비 (주민공공시설)
- 미사용 용천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마을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공공공간 조성

#### □ 팽나무와 땃돌

- 지역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생육개선사업 및 보전사업 시행
- 도로확폭에 의한 제식 및 이식을 지양
- 팽나무 주위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지정재료사용에 의한 팽나무 주변 정비
- 과도한 휴게편익시설 설치를 절제하여 마을쉼터로서의 땃돌 원기능 회복

#### □ 항구

- 항구기반시설을 포함한 항구경관은 마을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효과를 증대라는 인식하에 마을입구로부터, 항구로부터 보행자우선의 접근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보를 통한 경관관리 필요
- 건축·조경·공공 통합디자인 관리
- 항만법이나 어항법을 기본으로 한, 항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시 단순기능 위주의 설치보다는 경관차원의 사전 협의제를 의무화
- 항구의 공공시설은 지형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강화와 외부방문객 친화시설로 유도 (공공건축물 일반지침참조)
- 토목구조물위주의 기반시설 설치시는 지형과 스케일 고려와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유도, 슈퍼그래픽위주의 경관 관리는 지양

### ③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

#### □ 현황

-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들의 과도한 밀집
- 제주도 민가의 전통적 가옥방식에서 벗어난 이질적 외래의장요소의 혼재
-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의 등장에 의한 도로의 주차장화

## □ 기본방향

- 가옥의 독립적, 돌출적인 외관계획을 지양하고, 가옥 군의 조화로운 집합경관 형성을 유도
- 필지 간 경계에 전통방식의 돌담설치를 권장하여, 연속성과 조화를 확보하는 경관적 요소로 활용
- 주거지와 더불어 근경으로 경험되는 자연경관, 역사경관의 공유를 중요시함
-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비
- 신축에 의한 단지 조성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의 개선을 우선시 함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내용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경관관리 세부지침 반영

## □ 세부지침

- 배치
  - － 지정규모 범위 내 합필에 의한 신축일 경우도 저층부의 매스를 분절하여 마을 안길의 스케일을 훼손하지 않음
  - － 인접필지의 기존 주택과 대지 내 공지를 가급적 통합하여 공지의 활용도를 높임
  - － 제주고유의 독특한 분동배치방식을 가급적 준수하여 문화경관을 지속시킴
- 규모
  - － 합필시 오래된 땅의 흔적(지문)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조경계획, 바닥패턴계획 등을 고려함
  - － 합필에 의한 대규모 신축시, 지역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출입위치, 개구부 방식 등을 계획함
  - － 인접필지의 주택의 평균 층수 및 규모에 비해 대형화되는 경우 시각적 완화를 돕는 재료와 색채선정으로 돌출경관형성을 지양함
- 저층부
  - － 1층에 점포를 설치할 경우 인접필지의 거주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포의 종류 및 이에 수반되는 설비, 주차방식 등에 대하여 공공성을 고려함
  - － 대지 내 공지는 마을안길의 레벨과 가급적 차이를 두지 않음
- 보행환경의 활성화
  - － 보행속도로 경험되는 가로환경의 공간, 스케일, 표면 관리
- 외관
  - － 지역 전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동질적 의장재 사용을 권장
  - － 지붕형태, 외장재 및 색채는 일반지침을 적용하되, 인접필지 단독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 증개축의 경우라도 건물 전·후·측면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재료 및 색상 사용

#### ④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 □ 현황

- 제주도의 스케일과 지형을 거스르는 공동주택단지의 확장
-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자연경관요소와의 부조화 (녹시율 부족, 위압감 형성)
-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에 따른 건축물 배치 및 형태로 인한 조망차폐
- 유사층고에 따른 일률적인 스카이라인 (조망경관 저해)

##### □ 기본방향

- 설계경기를 통한 창의적 디자인 유도
-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인접단지와의 단절을 지양
- 제주도의 지형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설계유도
- 고층화, 고밀화 지양. 저층, 중층, 고층의 다양한 조합 권장 및 의무화



그림 6-69 단지조성 예시

- 기존의 일률적인 형태의 반복을 금지하고 다양한 형태 및 단위평면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관개선 유도
- 경제적 측면에서 외면되었던 다양한 단위평면의 계획을 권장하여 입면과 연계된 창의적 외관디자인 유도
-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하되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
- 완만한 구릉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사지, 주요 커뮤니티 가로 주변 등과 같은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계획
- 도시적 차원에서 주거단지와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폐쇄적인 단지형 배치 지양
- 가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도형이나 중정형과 같은 배치 형태 활용
- 소규모 공동주택과 기존 취락지와의 조화를 위해 스케일, 재료등에 의한 경관연속성 확보

- 수익성 위주의 점적 개발형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기법과 정비수법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개발
- 근경으로 경험되는 자연경관, 역사경관의 공유
- 단지배치
  - 남향위주의 획일적인 일자배치를 지양하고, 변화있고 다양한 외부공간의 흐름 및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배치계획이 되어야 함
- 건축물의 기능적 결합, 부설시공,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비
- 신축 시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의 개선

#### □ 세부지침

- 적용범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류를 따르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다중주택(단독), 공관(단독), 연립주택(공동), 기숙사(공동)등은 지침적용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세대 주택(공동)은 다가구 주택(단독)과 건축법적 구분에 의한 차이 외에 경관적 특성이 유사하므로 동일한 지침을 적용
- 대지조성계획
  - 기존 지형과 지문의 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지 및 도로 계획과 설정 및 절·성토 등의 최소화
  - 단지의 경계부분의 급격한 단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가급적 자연 경사면으로 계획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옹벽, 데크, 피트 등의 조성시 조경계획 수립하여 경관요소로 활용
  - 단지조성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순응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지나친 절·성토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게 함
  - 한라산 · 해안 · 오름 등 자연축과 도시축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 공원, 하천 등으로의 열린 배치로 자연환경을 적극 도입
  - 시각적 통로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 보행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위치선정시 조망대상을 고려하여 위치 및 배치
  - 도시의 연속적 흐름을 고려, 단지과 도시가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 건축물 배치
  - 높은 구릉지나 경사가 급한 경우 가능한 밀도가 낮은 테라스하우스 조성
  - 완만한 경사가 있는 구릉지는 테라스형 주거시설과 타워형 또는 연립형 주거시설을 복합 배치
  - 폐쇄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의 획지 분할
  - 주동의 길이나 블록의 획지 길이를 조절하여 시각축이나 시각회랑을 확보



그림 6-70 단지배치 예시

그림 6-71 단지조성 예시

- 획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분할가능성이 계획된 경우는 예외
-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최고층수를 지정.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
  - 층수의 다양화, 저층, 중층, 고층의 일정비율 준수 의무화, 경관심의시 반영비율 심의
  - 단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창의적 설계개념에 따라 탑상형 부분에 한하여 허용높이 이상 허용가능
- 규모
  - 인접필지의 주택보다 층수 및 규모가 현저히 클 경우 심의에 의해 지정된 재료 및 색채의 사용으로 돌출 경관 형성을 억제
  - 합필에 의한 대규모 신축일 경우 진출입 위치, 주차방식, 개구부 방식 등에 주민의 의견 반영
- 저층부
  - 1층에 점포를 설치할 경우 인접필지의 거주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포의 종류 및 이에 수반되는 설비, 주차방식 등에 대하여 거주민의 의견 반영
  - 공동주택과 복합되는 2층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보행의 쾌적성 증진을 위해 1층부에 아케이드 설치 권장
  - 전면가로나 보도에 면한 주상복합건물의 1층부는 외벽의 일정비율 이상을 개구부로 확보 (예: 벽면적의 1/2이상)
  - 주상복합건물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은 가로에 면하게 하고 상층부의 주거동은 가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후퇴시켜 가로의 폐쇄감을 방지하고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 입면, 매스 단위평면의 다양화, 단순반복 금지
  - 입면과 연계된 다양한 단위평면 디자인 유도
  - 심의시 입면, 매스, 단위평면의 다양화 항목 반영여부 기술 의무화
  - 단위세대 크기당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평면·입면설계 의무화 유도

- 동질적 의장재료 사용권장
- 형태계획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계획 개념 적용
- 외벽 그래픽의 색채와 형태는 단순하게 계획하며 슈퍼그래픽 지양
- 독립된 주거동의 외벽면에는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 등의 표기금지
-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 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
- 건설업체 명, 브랜드 명, 심볼, 로고 등은 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입구 시설물에만 문자 조각 형태로 명기

- 주차공간

- 단지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지상공간의 보행화와 녹지화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건축물내(지하주차장, 피로티 등)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
- 주차장의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야 함

## 라. 가로

### ① 중산간마을

#### □ 마을진입도로

- 간선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생활영역을 분절하는 경우 감속을 고려한 도로표면의 개선

#### □ 마을안길

- 확포장시 마을안길포장의 일반지침에 의해 바닥포장을 개선하여 경관을 연속시킴

### ② 해안마을

#### □ 마을진입도로

- 마을진입도로의 확장 및 증설지양과 보행공간화
- 해안의 조망경관이 중시되는 주요도로변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적용
- 마을의 생활영역을 분절하는 관통도로의 경우 감속을 고려한 도로개선

#### □ 해변도로·해안도로

- 해안도로는 해안일주도로(지1132호)를 해변도로는 해안선과 해안일주도로 사이의 도로 중 취락지 외곽의 해안선과 가장 가깝게 면한 도로를 의미함
- 해안도로변 경관수려지에서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로를 정비하고 쉼터조성 시 기준지형 고려
- 해안경관으로의 접근성을 위해 해안도로를 따라 설치된 펜스 정비·관리 시 통합디자인 고려
- 해변도로 주변에 자전거도로, 가로공원, 산책로 등 공공공간 조성
- 조망포켓·파고라 설치
- 해안으로의 접근로 개설·정비
- 야간조명 설치·관리
- 올레코스 등 해안산책로 조성 시 인공구조물 설치 지양, 최소한의 안내표지 설치

- 해안선을 따라 자동차도로 개설 지양
- 해안도로를 기준으로 해안쪽은 경관을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개발필요시 공공목적에 부합되도록 권장 유도

### ③ 구시가지 중심가로

#### □ 현황

- 도시문화활동이 집중되는 상업화된 중심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함
- 무계획적이거나 개발필지위주의 공사로 보행폭, 레벨,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보행도로가 불연속적임
- 건축물의 다양한 접도방식에 의한 저층부의 혼잡성
- 난잡한 가로 시설물들에 의한 불량경관 형성
- 불법노상주차에 의한 보행환경 악화
- 골목, 이면도로, 이면가구내부 관리부재에 의한 슬럼화

#### □ 기본방향

- 보행환경의 활성화 : 보행속도로 경험되는 가로환경의 공간, 스케일, 표면 관리
  - 중심가로에서 접속되는 골목을 가구 내부로 자연스럽게 연장하고, 가구내부에는 보행자를 위한 소규모 공공마당 확보
  - 골목으로 유도하는 사인체계를 최소화 하고 파사드의 연속성, 바닥 포장재 및 조경시설물의 연출에 의한 보행 친화적 골목문화 환경 조성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함
- 새로운 건축유형의 개발
  - 양측 노변기능의 상호보완을 고려한 저층부 권장·제한 용도지정
  - 가로변 프로그램 재구성 및 3차원적 공간조직 형성에 의한 제주고유의 상업가로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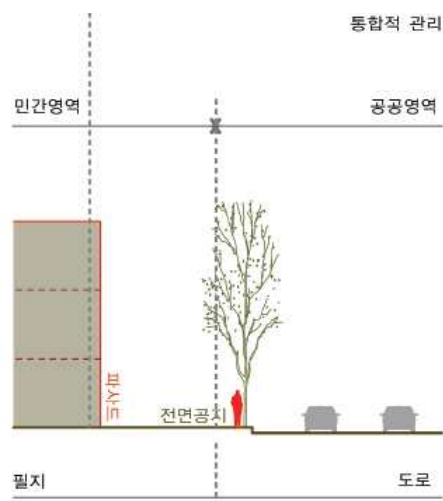


그림 6-72 가로환경의 기본요소

- 상층부는 다양한 거주·숙박형태를 지원하는 체류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하층부는 문화예술관련 용도와 결합된 상업시설로서 보행에 적합한 가로경관 형성
- 상하층부 경계 수평면은 연속적인 인공데크로 조성되도록 리모델링을 권장하여 보행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주상복합 문화환경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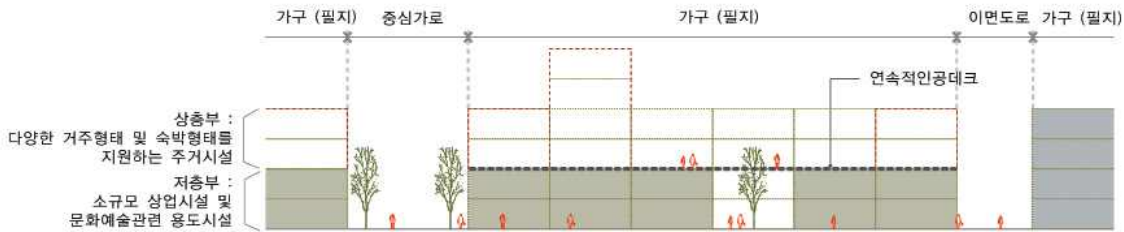


그림 6-73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관리

#### □ 세부지침

##### • 적용범위

- 보행전용가로, 보행중심의 보차병용가로, 차량중심의 보차병용가로로 분류되는 중심가로의 유형 중 도시활동의 핵심이 되는 보행중심의 보차병용가로를 대상으로 함

##### • 가로환경의 경관계획대상요소

구분	도로					필지			건물				
	교통 체계	바닥 포장	공공 시설물	조경	public space	규모 및 형태	주차장	open space	입면	형태	출입구	sky-line	부착물
부문	—	○	◆	○	●○◆	●	●○◆	●○◆	●	●	●	●	●◆

● : 건축 ○ : 조경 ◆ : 공공디자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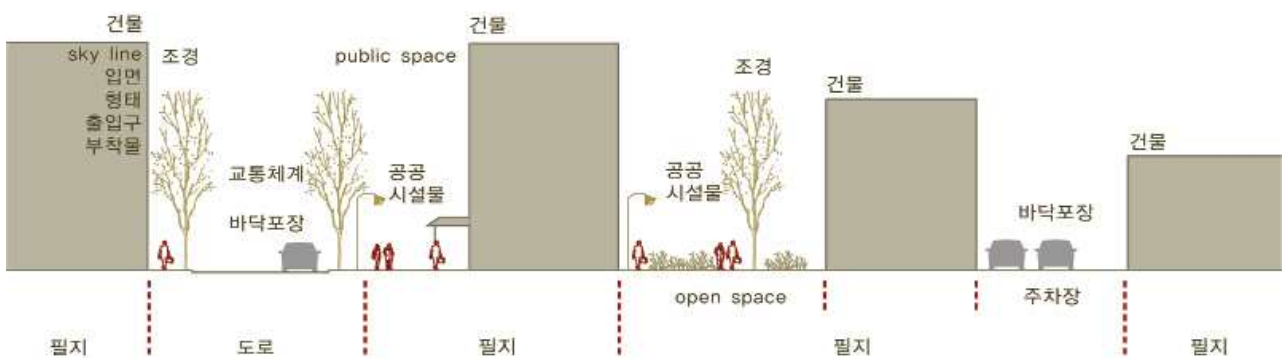


그림 6-74 가로환경의 경관계획대상요소

#### 중심가로

##### • 보행로

-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보행로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필지구분과 상관없이 저층부의 공지 및 보행로를 연속시킴

- 차로

- 차량 감속 및 통행량 제한을 위해 도로의 사행화 및 일방통행구간 지정을 권장하며, 차량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최소한의 정차가능구역을 계획함

### 중심가로변 필지

- 건축지정선

- 구시가지 중심가로의 고유한 스케일과 공간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접건물의 벽면선을 존중하여 건축하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전면공지를 최소화하는 건축지정선을 마련토록 함
- 대형필지의 건축후퇴선에 의해 노출되는 기존·신축 건물의 측벽면도 facade의 일부로서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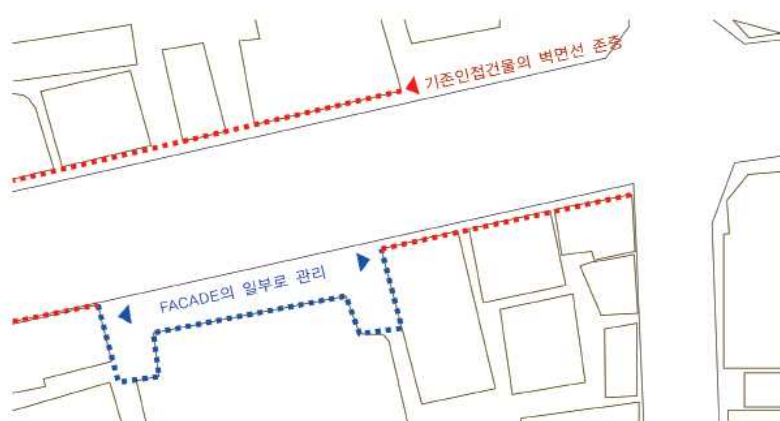


그림 6-75 건축지정선 설정의 기준

- 대지 내 공지

- 개별건물의 진출입이나 전이공간 등 사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면공지들을, 보행자들의 이동과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장소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선형으로 연결된 개별 공지들을 하나의 오픈스페이스로 통합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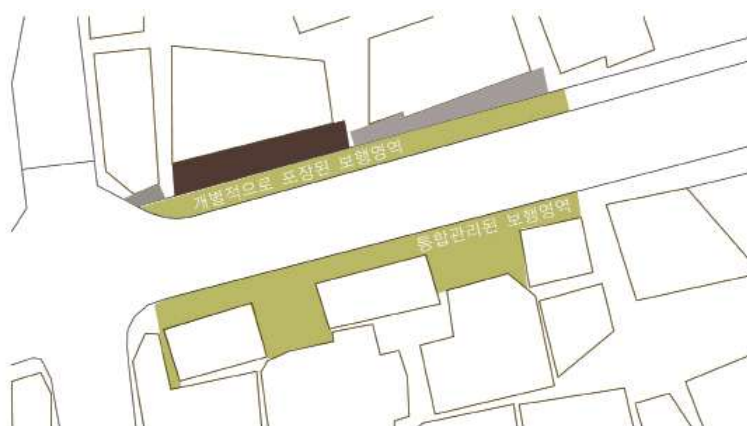


그림 6-76 보행영역의 통합관리

- 건폐율

- 저층부(2층이하) 접지 건폐율을 별도 지정하여 개방성을 높임(개방지수와 동시적용)
- 지정규모 이상의 합필에 의한 공동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저층부들을 통합, 연계한 상층부 데크의 설치에 예외적용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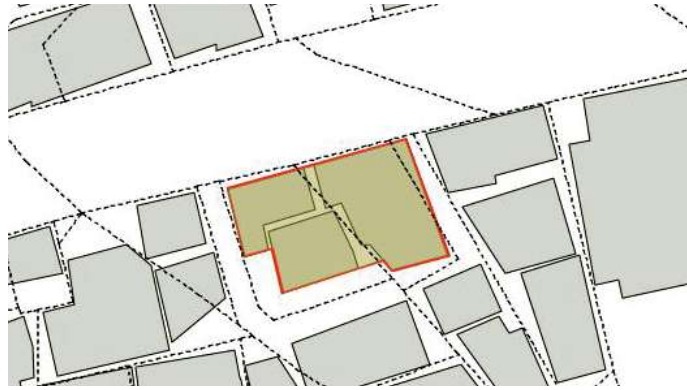


그림 6-77 필지의 관리

- 파사드

- 중심가로와 접속되는 골목내부로 보행자 동선을 연장하여 facade의 가용성을 극대화함
- 가로변 파사드의 개방도(파사드 전체면적/오픈되어 있는 면적)와 투시도(파사드 전체면적/투시가 가능한 면적)를 극대화하여 중심가로의 보행로와 이면가구 내 공간들간의 소통을 돕고 가용 파사드 연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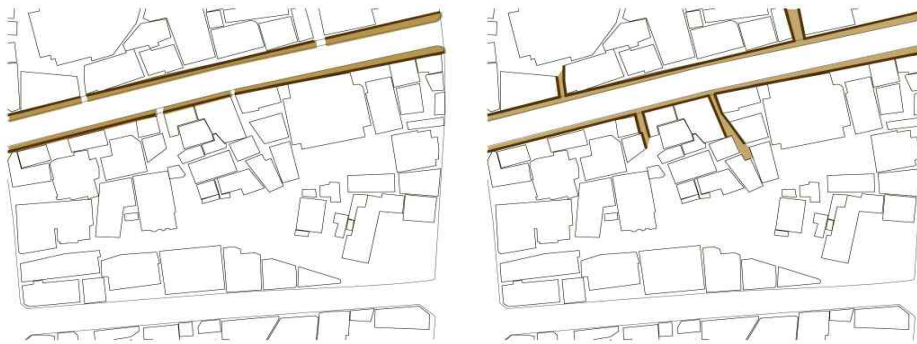


그림 6-78 가용 파사드의 연장 및 골목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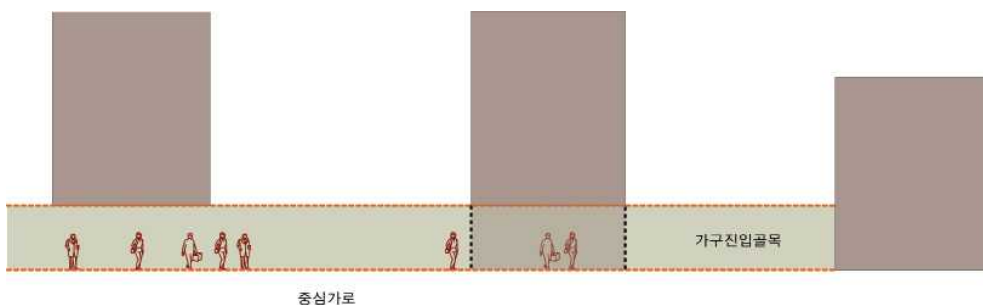


그림 6-79 저층부 파사드의 개방도

- 맞벽·측면공지 차폐

- 신축 시 맞벽 설치 권장을 제도화하고, 증개축시 측면공지 차폐 등을 유도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저하하는 틈새공간 발생을 최소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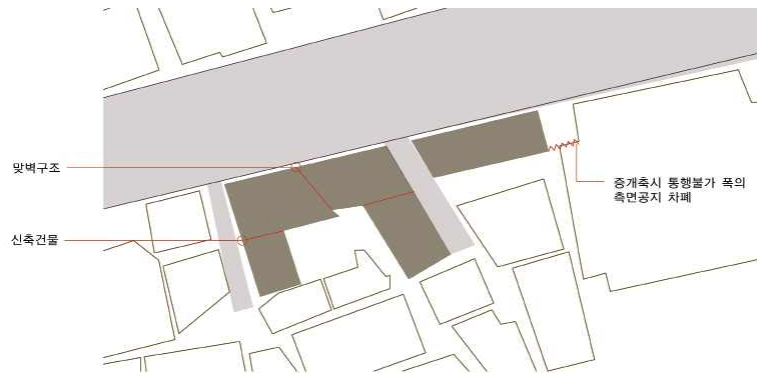


그림 6-80 맞벽 설치·측면공지의 관리

## 이면가구

- 공지

- 막다른 골목에 접한 필지의 경우, 대지 내 공지(필로티 하부 포함)를 인접필지의 공지와 연계하여 이면도로에 이르는 공공의 통과골목의 활용을 권장, 유도함

- 맹지

- 접도하지 않는 가구내부의 맹지는 지자체가 매입하여 지역공공공간으로 활용하되, 지적경계 등 지문을 철저히 보전하여 인접대지와 대규모로 공동개발 되는 것을 규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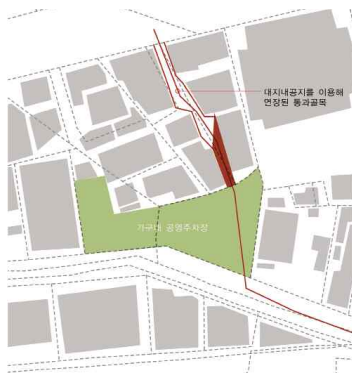


그림 6-81 골목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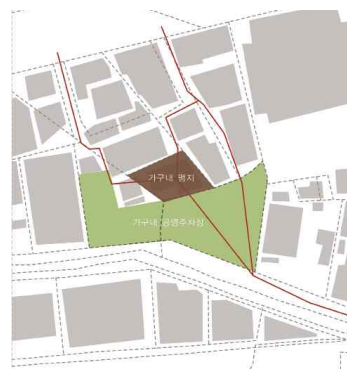


그림 6-82 가구 내 맹지의 관리

## 이면도로

- 주차

- 중심가로변 필지에 한하여 필지 내 확보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만큼의 주차대수를 가구 내 공용주차장 내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 유도함
- 중심가로를 제외한 도로변의 필지 및 이면가구들의 필지에 한하여, 필지 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

- 이면도로의 유희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중심가로의 보행성을 회복하고 접속골목들을 정비하여 가구내부를 활성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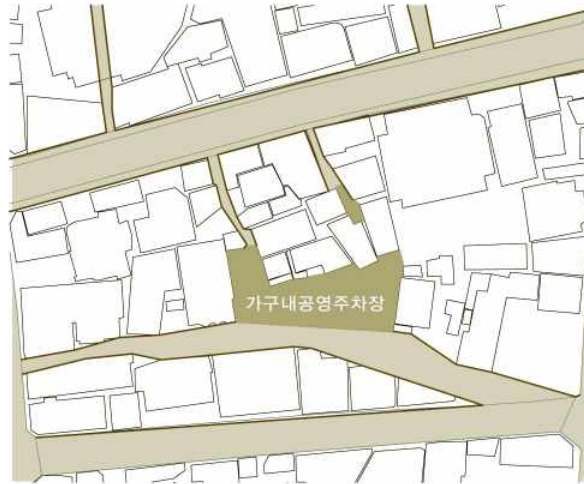


그림 6-83 가구 내부의 활성화와 이면도로와의 연계

#### ④ 구시가지 골목

##### □ 현황

- 격자형 가로체계 도입 이전에 형성된 유기적 구조의 도로 및 폭 2m 미만의 그물형 구조의 도로가 남아있는 제주 고유의 지문 경관
- 기존 시가지 저층 고밀도 단독주택지역의 골목을 대상으로 하되 경관개선시범사업으로 지정되거나 골목보존사업(가칭)등의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그림 6-84 서귀포시 신시가지 가로체계

그림 6-85 서귀포시 중정로 주변 가로체계



그림 6-86 제주시 연동 가로체계

그림 6-87 제주시 산지천 주변 가로체계

#### □ 기본방향

- 골목의 형태와 땅의 경계를 지키되 법적 규제보다 주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합의에 의하여 생활터전에 대한 자긍심으로 관리가 지속되도록 함
- 도시가로의 형태적 특성이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되고 있는 사례
  - 보스턴(Boston)시 블랙스톤(Blackston) 도시형태보전지구 : 골목의 형상이 문화재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은 허용하되 골목의 형태변형은 금지됨
  - 노르망디(Normandy)지역 도시형태보전지구: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로체계
  - 보존과 함께 도시구조의 개선을 시도함



그림 6-88 도시형태보전지구 지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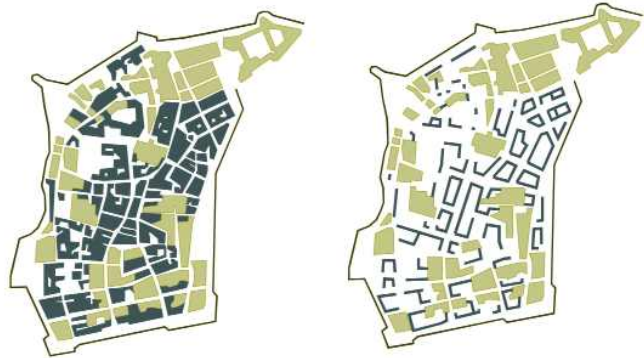


그림 6-89 도시형태의 보존사례

#### □ 세부추진방향

- 경관시범사업
  - 제주시 구시가지 산지천 주변지역과 서귀포시 구시가지 중정로 주변 지역일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 골목특화마을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명품명소 브랜드사업> 등 기존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특화마을> 지정 사업을 추진함
  - 마을별 보존가치가 있는 골목들을 주민들이 선정하여 보존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 지원토록 함
  - 주민들의 거주형태, 정주성과 직결되는 '00동 00골목 지키기' 사업은 주민참여의지가 필수적임
- 골목길 보전지구 지정 및 골목 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대상지의 지형, 골목망, 필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가옥의 철거를 최소로 하고,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며 맹지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⑤ 신시가지 중심가로

### □ 현황

-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 중심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함
-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 동일한 형태와 특성 없는 배치
- 풍경의 다양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가로경관
-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차량위주의 가로구성

### □ 기본방향

- 보행자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 공공영역-민간영역의 통합관리
-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신시가지 가로 풍경 지양, 풍경의 다양성, 차이권장, 반복을 가능한 배제한 가로디자인
- 기존 취락지와 경관 조화유도
- 한라산·오름·해안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한 배치, 가로구성

### □ 세부지침

#### 중심가로

- 보행로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보행로 통합계획, 관리하고 도시의 기능과 풍경의 연속성, 건축물 저층부의 연속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지상보행로를 네트워크화
  - 보차분리, 보행로와 차로의 3차원적 분리권장, 신시가지 가로변 신축건물의 인공데크 보행로 설치를 유도하고 연속된 보행 네트워크로 보행성이 극대화된 중심가로 조성
- 차로
  - 차량감속유도
  - 보행자 우선의 차도조성

## 가로변건축물

- 건축형태
  - 장기적 차원의 부지크기관리로 가로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 용도관리로 가로 입면의 다양함과 연속성 부여
  - 신축건물의 벽면선 통일과 저층부 층고를 맞추어 저층부의 연속성이 인지되는 3차원 인공 데크 보행로 조성 유도
  - 창조적 다양성, 차이 권장 특성 있는 신시가지 가로풍경조성
- 파사드·건물입면
  - 한라산, 오름, 해안을 향한 조망 존중 위한 파사드 개방도 증가
  - 가로변 파사드의 개방도와 투시도 극대화로 중심가로의 보행공간과 이면가로의 소통확대 유도
  - 대형필지의 건축후퇴선에 의해 노출되는 건물의 모든 벽면도 통합관리
- 오픈스페이스·도시공원
  - 보행로와 연속된 오픈스페이스·도시공원의 조성으로 연속된 보행네트워크의 가로경관 조성
  - 위치선정시 한라산·오름·해안으로의 조망고려
  - 획일적이고 상징성을 강조한 진입경관과 신시가지 랜드마크 보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장기적이고 창조적인 풍경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신시가지 가로조성

## 마. 하천

### ① 치수

#### □ 현황

- 하상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의한 하류지역 과부하 유발
- 부분적 구간별 하천정비에 의한 하류 병목현상

### ② 세부지침

- 자연형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지역 범람을 예방
- 연장과 교폭을 확장하는 교량개량사업 시행
- 복개 구조물 및 상자형 배수구 철거
- 하천단면의 자연원형 복원

### ② 친수

#### □ 현황

- 하천 복개에 의한 생태축의 단절
- 천변 공공부지 부족
- 천변 접근성 부족

## □ 세부지침

- 건천 시 풍경을 경관자원화 하는 하상의 보행루트 조성 시 인공구조물 설치 최소화
- 접근로, 산책로 설치 규모를 제한하며(0.6m-0.9m), 자연친화적 재료 및 시공법 선정
- 공공시설 설치 명목의 하류 인접 매립지 조성 금지
- 교량하부 유휴공간의 활성화



그림 6-90 산지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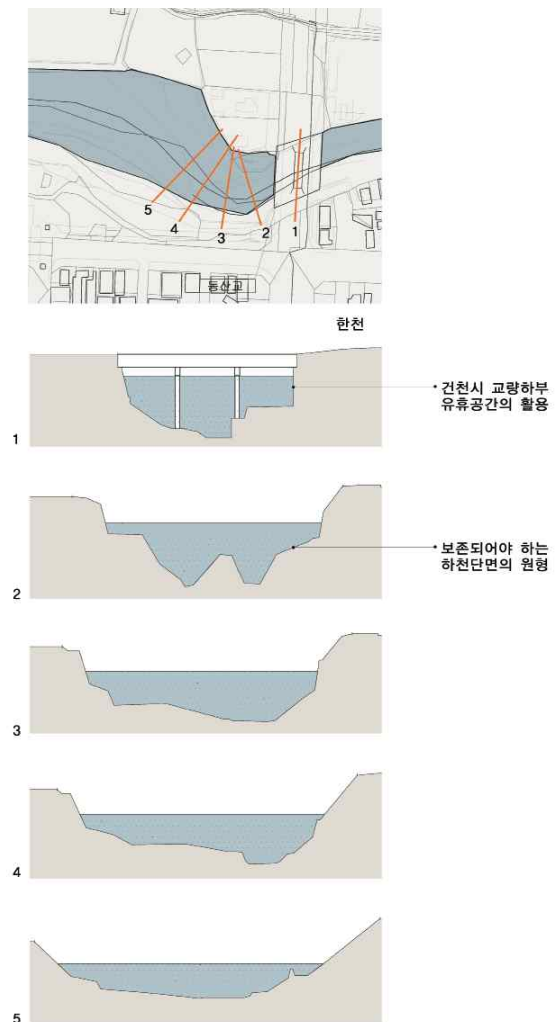


그림 6-91 한천 동산교 부근 단면도

## ③ 조망

### □ 현황

- 획일적으로 조성된 천변산책로
- 고층건축물의 천변 돌출경관 형성
- 하천의 주요 경관을 독점, 사유화하는 특정건축물 난립

## □ 조망 유형별 세부지침

조망유형	조망위치	조망대상	세부지침
천변 보행로 조망	보행로	하천+천변	산책로와 하천의 경계부 식재 지양 하천경계(제방)선 기준 45도 사선제한
필지 내 조망	인접 필지 내부	하천	인공구조물의 좌향은 가급적 하천 직교 방향
교량 조망	교량 상부	하천 + 천변	교량(교각, 난간 등 포함)의 형태, 재료, 규모의 체계적 관리

표 6-10 하천 조망유형별 세부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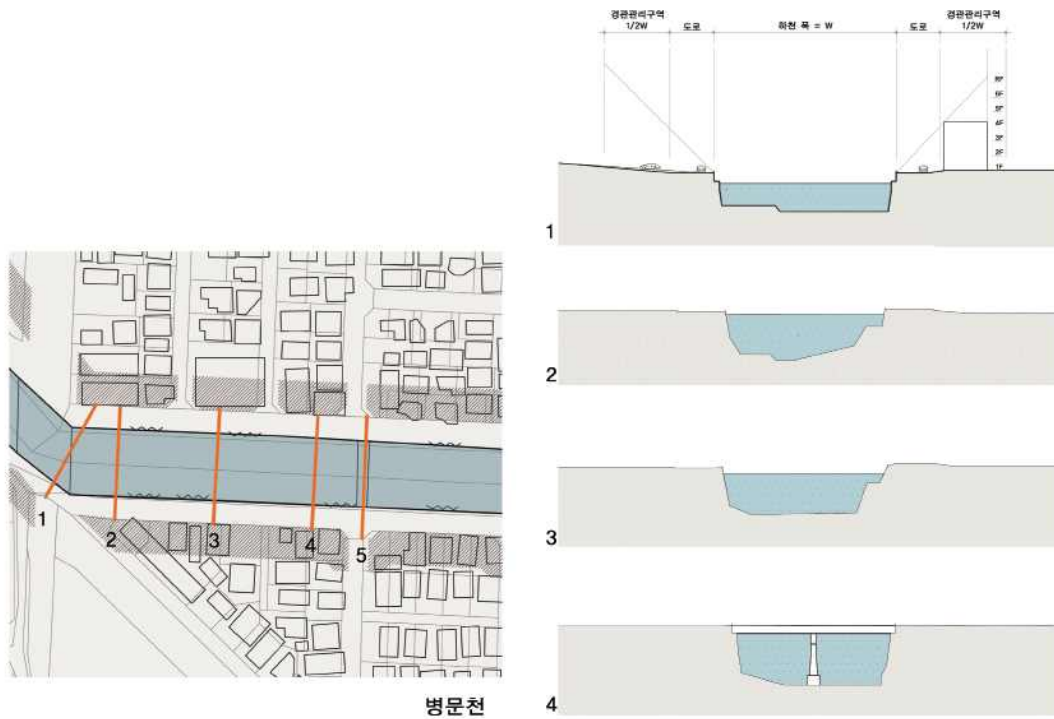


그림 6-92 병문천 단면도

## 바. 조경식재

### ①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 □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녹지

- 일주도로(1132번) 및 해안도로에 적용함
- 일주도로 및 해안도로는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해안경관 보존을 중심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해안선과 바다의 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배제
- 제주해안의 풍광과 이질적인 수목의 식재 배제
- 해안 산책로 등에 인공적·인위적 느낌의 초화연출행위 지양

#### □ 시가지 가로녹지(경관요소별 지침 참조)

-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녹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로녹지 조성
- 가로수 수종은 제주의 향토수종을 사용
- 가로수 하부에 떠녹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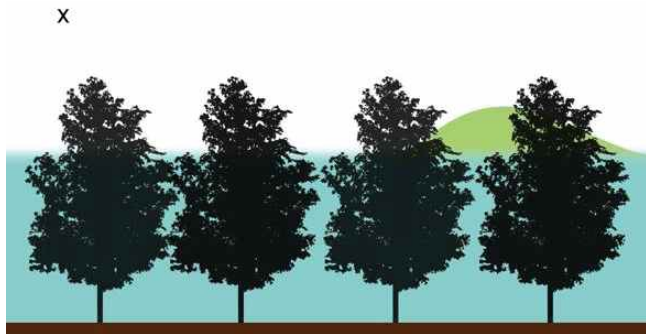


그림 6-93 바다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그림 6-94 인위적 초화연출 금지

#### □ 해안 저지대 오름에서의 식재행위

- 휴게 공간 등 오름 탐방로 상에 식재가 필요한 경우 주변에 분포하는 동일종으로 식재
- 오름 탐방로 양측의 인위적 초화연출 행위 금지



그림 6-95 지문을 고려한 공원형태



그림 6-96 지문을 무시한 공원형태

#### □ 도시공원의 조성

-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내에서 중요한 경관형성 요소임
- 도시공원은 그 내부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도시공원 자체의 입지와 형태도 전체적인 경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신규로 도시공원을 지정할 경우 경관적으로 중요한 한라산, 오름, 해안 등의 조망을 고려하여 적지 선정
- 지역의 오래된 경관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 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지문(地文)을 고려한 형태가 되도록 함
- 시가지 도시공원의 경우 포장면,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녹지를 많이 확보하여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야 함

#### □ 목초지 및 과수재배지

- 해안저지대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목초지 및 경작지도 경우에 따라 중요한 경관자원이 되므로 경관관리 대상으로 인식함
- 제주의 향토정서와 부합하고 고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목초지 및 경작지는 보전함
- 새롭게 조성되는 목초지 및 과수재배지의 식재 행위 시, 목초 종류 및 과수재배품종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변식생 교란여부를 사전에 검토함

### ② 대지안의 조경

#### □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지의 조경

- 경관적, 생태적 교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질적 수종 식재 배제
- 경관단위별 권장수종을 참고로 하여 지역적 정서와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대지 내 자연 지반 녹지율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여 생태적 생육기반을 조성함

#### □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 개별 인허가시 권장수종을 참고하여 향토수종 식재 권고

#### □ 경관보존 수목의 지정과 관리

- 해안·도서마을의 식생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수목·수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경관보존 수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원
- 도서별 특징적인 자생수목을 권장수목에 포함하여 개별대지 및 공공건축물 주변의 주요 수종으로 활용

### ③ 권장수종 예시

구분	권장 수종 예시	비고
교목	가시나무, 곰솔, 구실잣밤나무, 굴거리, 동백, 먼나무, 목서, 아왜나무, 후박나무, 후피향나무, 팽나무, 녹나무, 담팔수, 참식나무, 비자나무, 조록나무, 멸구슬나무, 생달나무, 굴나무, 비목, 호랑가시나무 등	중산간 저지대 자생식물
관목	꽃댕강나무, 팽팡나무, 남천, 다정큼나무, 사철나무, 피라칸사스, 홍가시나무, 병솔나무, 식나무, 산가막살나무, 탐라산수국 등	중산간 저지대 자생식물
지피·초화	송악, 관중, 애기나리, 제주양지꽃, 참억새, 띠풀, 유채 등	중산간 저지대 자생식물

### 사. 바닥포장

#### ① 선형포장

- 선형의 포장이라 함은 보도, 산책로, 탐방로 등 길을 따라 길이로 연속되는 포장면을 의미
- 선형의 포장 면은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므로, 설계제원 (폭, 재료, 색상) 선택에 있어서 경관 관리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 오름 탐방로 포장

- 중산간 및 저지대 오름에 생태탐방로 개설시 주변 식생 및 생태기반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의 설계제원 필요
- 저지대 오름 탐방로 개설시 설계 권고 기준
  - 폭 : 1.2m 이하
  - 재료 : 투수·식물생육 가능한 지역재료 사용
  - 형식 : 토양유실이 우려되거나, 계단이 필요한 급경사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탐방로 포장을 하고, 주변 식생보존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설치하여 동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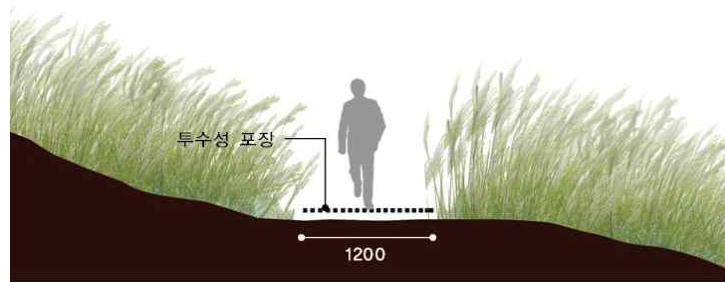


그림 6-97 오름 탐방로 표준 예시

#### □ 해안 저지대의 자전거 도로 포장

-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는 중요한 선형의 경관요소이므로 특히 재료 및 색상 선정이 중요함
- 지역재료를 사용하여 가급적 투수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체구간을 일관성 있게 조성
- 포장소재의 색상은 경관요소별 지침의 ‘재료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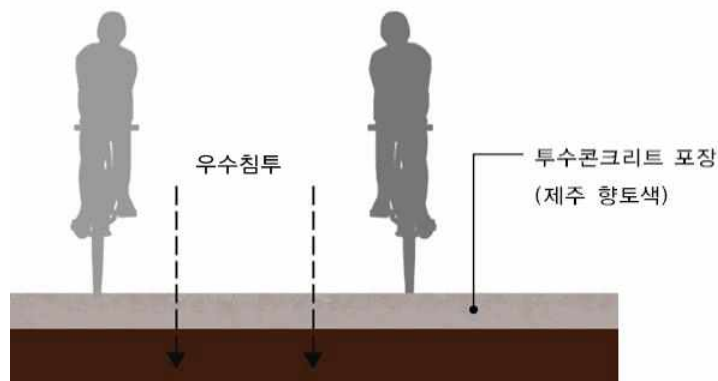


그림 6-98 자전거도로의 단면예시

#### □ 중산간 저지대 마을의 마을안길 포장

- 사용재료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관요소별 지침을 참고함

#### □ 시가지 가로 보도 포장

- 현무암의 재질과 색채를 기본으로 하며, 상세한 예시는 경관요소별 지침 참조

- 면적포장
  - 면적 포장이라 함은 광장, 주차장, 마당 같이 일정한 영역을 특정한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
  - 면적 포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과하는 공간에 이루어지므로 포장면을 형성하는 재료의 물성, 색상, 패턴이 미시적 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포장면의 재료나 시공방법에 따라 빗물 침투여부가 결정되므로, 생태적 식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적의 공간의 경우 투수성 소재 활용하도록 유도
- 포장소재의 색상은 공공디자인의 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현무암, 송이, 제주흙 등 원재료의 고유 색상 권장)
- 주거단지(아파트단지)내 포장 면은 대지 내 생태 면적율이 0.3~0.6 되도록 바닥포장계획 수립
- 생태 면적을 산정은 환경부 제정 ‘생태면적을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을 준용하여 적용함
- 포장방법에 의한 생태 면적율 가중치 적용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포장 유형
부분포장	0.5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전면 투수포장	0.3	자연지반위의 마사토, 자갈, 모래 포장
틈새 투수포장	0.2	틈새를 가지는 벽돌포장, 사괴석포장 등
불투수 포장	0.0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포장

표 6-11 생태 면적율 적용기준

#### 아. 경관색채

##### ① 경관색채현황

- 해안 주변 건축물의 지붕, 돌담 등을 중심으로 생활 경관색채를 형성
- 관광지 건축물과 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관광지 경관색채가 형성되나, 해안변의 관광지 숙박용 건물과 옥외광고물의 난립한 색채가 경관 지해요소로 작용함
- 고채도의 원색 지붕이 마을 색채 경관의 중요한 특성을 이룸
- 슬레이트와 강판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어촌지역 주택 지붕은 고채도로서 해안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그림 6-99 하도 해수욕장 인근거리



그림 6-100 탐동 서부두 횃집거리



그림 6-101 함덕 해안의 펜션



그림 6-102 조천 해안변의 페유탱크

## ② 공통지침

- 해안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간결하고 산뜻한 색채 사용
- 건축물의 지붕, 벽면, 대문 색채는 해안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심 요인이므로 색조합의 예시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장소별 적합한 색채조합 선택 유도
- 해안경관과 어울리는 주조, 보조, 강조색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선별적 사용
- 주조색: 해안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중, 저채도의 차분하고 온화한 색채
- 보조색: 차분한 느낌의 주조색 사용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조색과 명도차이가 나는 중,고채도를 사용하여 경관의 활력을 유도
- 강조색: 해안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물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중, 고채도의 활기차고 개성명도대비가 강한 색채를 사용하되 주조색과 보조색에 비해 작은 면적에 적용
- 건물, 가옥, 표지판의 시각적 명료성과 정보 표시를 위한 강조색은 최소한 면적 활용 유도
- 명도대비가 강한 배색을 권장

## ③ 세부지침

### □ 건축물

- 해안지역 건축물은 차분하며 산뜻한 중·저채도의 주조, 보조, 강조 색상 사용
- 시각적 자극이 적으며 활기찬 느낌을 주는 색채 사용
- 돌담 현무암 색과 잘 어울리는 배색 유도
- 건축물 기준색적용시 장소와 재료의 성격에 맞는 색채 오차허용범위 설정 (오차허용범위 : 채도 0.5, 명도 1.0)





그림 6-105 색채 적용 예시

#### □ 옥외광고물

- 관광지, 주거지, 역사문화지, 간판특화지로 나누어 각 지역별 권장색채 제시
- 지역별 특징에 부합하는 색채 사용으로 활력과 개성을 살림
-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재료색을 그대로 드러냄을 유도
- 건물 외장색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색채 선정
- 면적이 큰 간판의 경우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색 사용 자제
- 명도대비가 강한 배색은 우선적으로 채도대비를 지양
- 관광지
  - 네온사인 지양,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명색 사용
  - 왜곡된 크기나 장식으로 인한 색채의 시각적 자극 지양
  - 상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재질 혼합사용 권장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 사용을 통한 자연색의 적절한 사용 권장
- 주거지
  -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상업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배색 유도
  - 왜곡된 크기나 장식으로 인한 색채의 시각적 자극 지양
  -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의 색채 사용
- 상업지
  -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명색 권장
  -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에 어울리는 산뜻한 색채 권장
  - 건축물과 간판의 색채관계를 고려한 다채로운 색채 사용
  - 경쾌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색채 사용
- 역사문화지
  -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형태의 옥외광고물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색채 사용으로 시각적 자극 피함
  -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 사용 권장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의 적절한 사용

- 간판특화지

- 다양한 색채 적용이 쉬운 플렉스 재료 사용 권장
- 코팅 철판·슬라브판 소재의 자체색 사용 권장
- 상점 개성에 맞는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사용
- 네온사인의 적절한 활용으로 야간에도 색채의 유인성 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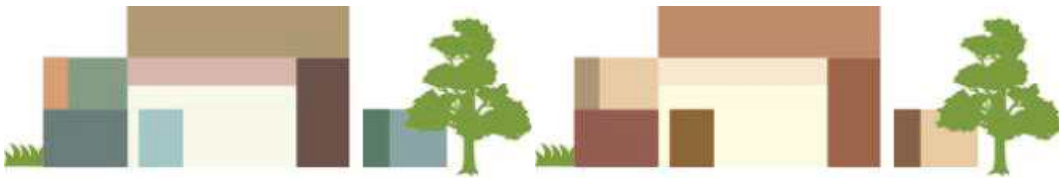


그림 6-106 관광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107 주거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108 상업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109 역사문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그림 6-110 간판특화지 옥외광고물 색채 예시

## 자. 옥외광고물

### ① 관광지

- 지역 및 상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질 사용 권장
- 획일화된 크기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작고 다양한 간판 배치 유도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 준수
- 네온사인을 지양하되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을 적절히 설치 유도
- LED 등 에너지 효율과 조도가 높은 광원 사용 권장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최소의 크기·개수로 설치 권장

### ② 주거지

#### □ 일반주거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며 과도한 크기와 시각 요소 금지
- 보행 시 인지가 빠른 돌출형 간판 권장

- 보행 시 위압감을 줄이는 작은 면적의 간판 권장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다양한 재질의 혼합사용 권장
- 상점명과 로고 위주의 간결한 디자인 유도
- 내부 조명 방식을 택할 경우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조명 방식사용 유도
- 판류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판 전체 조명설치 자제
- 네온사인을 지양하고 노란색 스포트라이트, 백열등 같은 생활 조명 이용 권장
- 반사되는 소재보다 시각적 자극이 적은 소재 사용 유도

#### □ 주거상업지

- 판류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판 전체 조명설치 자제
- 점멸 조명 표시 자제 유도
- 광원 직접노출 방식 사용 자제 유도
- 다양한 재질의 혼합사용 권장
-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의 적절한 설치 권장

#### ③ 상업지

- 도보 시 인지가 빠른 돌출형 세로 간판 표시 권장
- 상점의 개성을 표현하여 흥미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 권장
- 활기찬 느낌의 다채로운 색상 사용 유도
- 지역 및 업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질 사용 권장

#### ④ 역사문화지

- 장식 배제한 간결한 형태 권장
-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배색 유도
-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의 적절한 사용 유도
-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 사용 유도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 반사되는 소재보다 시각적 자극이 적은 소재 사용 유도
- 유연성 원단 소재 사용 자제 준수
- 광원 직접노출 방식 금지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염해와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 ⑤ 간판특화지

- 입체형 문자보다 평면 문자 간판 권장
- 손글씨나 스텐실 등 손맛이 느껴지는 타이포그래피 사용 유도
- 플렉스 재료 지양, 코팅 철판·슬라브판 등 근·현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소재 권장
-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권장
- 네온사인을 지양하고 노란색 스포트라이트, 백열등 같은 생활 조명 권장
- 개별 상점의 특성을 표현하도록 간판개수 제한 완화

## (3) 형성과제

### 가. 생산과 저장

#### ① 경작지 경관

- 경관구조의 단절을 초래하는 택지조성, 간선도로 개통 등에 대한 심의 강화
- 농경과정, 방목풍경 등이 희소적 고유문화경관으로 유지되기 위한 경관생산자 독려시스템 마련
- 농한기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계절경관 형성

#### ② 시설 경관

##### □ 창고·축사

- 마을 입구에 설치된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미관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이미지 부여
- 생업과 직결된 오래된 창고, 축사 등의 규모, 입지, 토속적 형태는 문화경관으로 인정하고 보전함
- 표준개량공법에 의한 신축을 지양하고 토속적 시공법을 존중하고 지원함

##### □ 비닐하우스

- 경관관리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제주도의 지형과 특성에 맞는 장기적 디자인모형 개발 필요
- 해안, 오름경관을 고려한 배치
- 과도한 규모 지양

##### □ 양식장

- 현황
  - 해안풍경의 주요소이나 경관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옴
  - 2008년 7월 현재 290여명 조합원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주도의 주요산업

- 중장기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협조하에 다양한 디자인과 경관을 고려한 양식장도형개발 필요

• 배치

- 해안방향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배치권장
- 양식장 주변 차폐식재를 유도함



그림 6-111 육상수조 양식장 분포도



그림 6-112 양식장 현황



그림 6-113 어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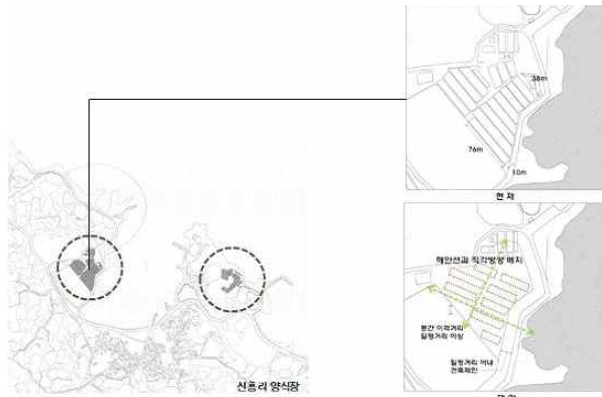


그림 6-114 양식장 배치현황

## 나. 돌문화

### ① 올레담

- 공가발생 및 가옥 구조의 변형으로 전통돌담의 축조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대식 재료의 혼합적 사용에 의한 구축증가
- 기형적으로 왜곡된 유사돌담의 신축을 규제하고 돌담 쌓기 장인 <돌쟁이>에 의한 전수교육의 체계화
- 마을안길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차량진입목적의 골목확장 포장에 의한 올레 훼손 최소화
- 일정구간 올레보전의무를 마을자치규약으로 법제화 유도

### ② 밭담

- 토지소유의 경계, 우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방풍막 기능 등 고유한 농경문화경관
- 도시화, 농업형태의 변화, 비닐하우스 재배 등 새로운 경작형태의 출현에 의하여 훼손이 가속화
- 훼손되면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고, 부분적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자원보전과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GIS를 활용한 밭담관리시스템을 구축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체계에 의한 돌담의 문화자원화 추진 등이 요구됨

### ③ 산담과 분묘

- 경작지의 분묘는 동일한 공간내 산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독특한 제주도 문화풍경이자 고유한 방목문화의 산물로 보존가치가 높음
- 분묘군락을 개발사업대상지로 선정시 제외하여 강제 이장 및 훼손 방지하고 문화경관자원으로 보전

### ④ 갯성

- 제주 중산간지대의 목축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자 조선시대 목마장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경관
- 전국의 역사유물 중 최장 길이의 선형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나 관리부족으로 훼손 위기
-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교육 및 현장 체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⑤ 환해장성

-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 말부터 조선중엽까지 해안선을 따라가며 쌓은 성
- 현재 남아있는 환해장성은 총 14곳으로 모두 도 기념물 4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 고유의 역사가 담겨있는 경관자원으로 보존가치를 지님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개·보수작업 예정
- 제주의 독특한 해안 돌문화 경관요소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그림 6-115 신산 환해장성

종목	시도 기념물 49호	부 속 문화재	곤을동환해장성 (도기념물 49-1)	온평환해장성 (도기념물 49-9)
명칭	환해장성		별도환해장성 (도기념물 49-2)	온평환해장성 제1지점 (도기념물 49-9-1)
분류	성지(성곽)		삼양환해장성 (도기념물 49-3)	온평환해장성 제2지점 (도기념물 49-9-2)
수량	5,120m		애월환해장성 (도기념물 49-4)	온평환해장성 제3지점 (도기념물 49-9-3)
지정일	1998.01.07		북촌환해장성 (도기념물 49-5)	온평환해장성 제4지점 (도기념물 49-9-4)
소재지	제주전역 도일원		동북환해장성 (도기념물 49-6)	신산환해장성 (도기념물 49-10)
시대	고려원종		행원환해장성 (도기념물 49-7)	
			한동환해장성 (도기념물 49-8)	

## ⑥ 방사탑

- 마을 어귀의 돌탑은 제주민의 토태이자 마을의 인상을 담는 이정표
-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구조물로서, 제주 참여공공미술의 기원으로서 의의
- 탑의 개수는 늘어났으나 쌓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된 형태의 탑이 양산됨
- 돌탑쌓기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돌탑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조성하고 공공미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에 의한 지속적 생성 유도

## 다. 야간경관

### ① 녹지

- 녹지경관의 보존을 고려한 간접조명 유도
- 녹지공간 주변 보행로 및 휴게 공간에 안락한 느낌의 간접조명 설치 권장
- 보행 안전성과 경로 안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조도 유도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준수
- 간접조명 또는 반간접조명으로 눈부심이 적은 부드러운 빛 연출 유도
- 녹지 주변의 보행로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성과 경로 안내 역할을 하는 낮은 볼라드등 사용 권장
- 녹지 주변 휴게 공간은 은은한 바닥 조명 연출로 편안함 유도

## ② 일반주거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유도
- 도로에 접한 가옥의 주변의 조도를 전체 조도보다 밝게 연출하여 야간 보행 시 방향유도와 장소안내 역할 유도
- 옥외광고물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웜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3럭스) 준수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설치 유도
- 은은한 보행용 가로등 조명 연출 유도

## ③ 주거상업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권장
-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의 경우 도로에 접한 건물의 색과 조명색 동일한 연출 유도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웜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5럭스) 유도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준수
- 주택 진입부에 스텝라이트, 낮은 볼라드등 설치 권장

## □ 일반건축물

- 건물과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 연출을 하되 조명기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시공 유도
- 원색계열의 조명 색상이 건물면적을 크게 점거하는 조명방식 금지
- 건축물의 색상과 주변 건물 조명 색상을 고려한 색상 선택
- 휘도에 의한 주변 건축물 빛 침해 금지
- 광원의 직접 노출로 수면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도
- 건축물 경관조명 연출시 라인 직접 조명방식 사용 금지
- 판류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판 전체 조명설치 자제



그림 6-116 건축물 라인 조명방식 사용 금지 그림 6-117 판류형 옥외광고물 조명 설치 주의

## □ 생활 공원

- 쾌적하고 활동감이 있는 생활공원 조명 연출 권장
-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도 적용 유도
- 벤치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함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도 유도
- 파고라 조명은 파고라 내부를 은은하게 연출하며, 파고라 내부의 안전조도 유도
- 벤치와 파고라 주변은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 사용유도

## ④ 상업밀집지

- 건물과 거리의 개성에 맞는 조명 연출을 하되 현란한 조명(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 금지
- 색상의 변화, 점멸의 반복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을 주는 방식 금지
- 주변 건물과 조명 밝기의 차가 지나치게 크고,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금지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 금지
- 건축물의 빛의 레벨의 조화 유도
- 건축물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로운 계획 유도
- 전체 건축물과 옥탑부의 휘도차가 커서 야간경관 스카이라인을 훼손 금지

## ⑤ 역사문화지

- 역사적 건축물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조화를 도모하여 야경을 통해 지역의 역사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조명 권장
- 부드러운 조명연출로 문화재의 품위를 높이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킴을 유도하며 업라이트 조명 연출 유도
- 주변 건축물은 문화재 조명을 돋보이도록 은은한 빛으로 연출 준수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설정 준수
- 문화재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게 휘도와 연색성 고려
- 광원은 고효율성 램프를 선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온도
- 주변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루버 등 장착
-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석재, 목재)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 확보 유도하며 직접부착방식 금지
-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조명 사용 금지
-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 직접 노출 방식 금지
- 진입부에 동선을 유도하는 바닥 매설형 조명 권장
- 문화재 조명을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은은한 진입부 보행로 조명 유도

## ⑥ 관광특화지

- 휘도의 적절한 규제: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 금지

- 관광 보행 경로 유도 조명 설치
- 광공해 수준의 지나친 조명 금지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 경관조명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조명 권장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한 연출 유도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 연출 유도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유도

#### □ 주제공원 조명

- 유적 및 예술품의 재질과 색상을 돋보이기 위한 램프 권장
- 생태 보전지역에는 최소한의 조명 권장
- 생태 수변공원의 수면에는 어둠을 지켜 주변의 빛을 수면에 반사 유도하는 간접조명방식 채택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 선택 유도
- 체육공원은 각각의 스포츠에 필요한 조도로 안전을 확보하되,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글레어 방지 유도
-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 금지

#### ⑦ 도로일반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 방식, 간격, 높이 등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
-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구조가 가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 지점 및 사고 다발 예상 지점에는 밝은 조도 유지 권장
- 도로의 주요 결절부 지점에 조도 높임 권장
- 주요 교차로는 교차 지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조도 유지
- 해안도로에는 물이 깨끗하게 보이는 연색성이 우수한 메탈할라이드 램프 사용 유도
- 해안 도로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ut off 방식 조명을 사용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빛이 퍼지지 않도록 함
- 조도가 5~20럭스가 되도록 연출
- 교차로 녹지 섬의 적절한 경관 조명 권장
- 도로 진입부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진입부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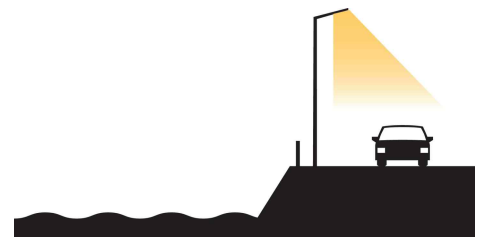


그림 6-118 해안도로 cut-off 방식조명사용권장



## 6.2.5 경관단위㉔ 권역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부속도서 및 해수면
- 외부로부터의 진입 시 경관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개방, 재료, 색채, 형태 제안
- 해안마을 특성, 해안변 경관, 거주민의 주요 생업활동 등을 고려한 지킴 제안
- 해수면에 축조되는 인공구조물의 경관관리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기본원칙** 지역의 생활환경을 존중하여 조화되는 경관 조성을 원칙으로 함

- 보전 : 해안경관 및 하늘, 바다에서의 조망경관 보전
- 관리 : 도서지역별 지킴 존중, 해면 개발시 기존경관과 조화
- 형성 : 주민들의 생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창출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

#### (2) 보전방향

- 도서에서의 해안경관과 한라산과의 조망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도서의 현재 경관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대형건축물은 지양

### (3) 관리방향

- 주민들의 일상생활 개선 및 민박 등은 허용하되 대규모 숙박시설 및 펜션 등은 지양함
- 해상풍력 등 전략사업 추진시 기존 해안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
- 풍력발전기는 세계자연유산등에서 10km 이상 이격된 곳에 위치하도록 함

### (4) 형성방향

- 경관직불제 등을 적극 장려하고, 도서자체를 하나의 경관자원으로 조성해 나감
- 도서지역내 차량의 출입 등을 배제하고 녹색교통수단만을 특화하여 제주속의 경관자원으로 가치를 높여감

## 3) 주요경관

구분	대분류		세부경관자원	비고
보존	절성토량			
	자연식생		수림지, 초지, 습지	
관리	개방지수			
	재료			
	취락	도서		
		해안마을	올레, 가옥, 용천, 팽나무와 땃들, 항구, 도시기반시설	
		도서별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가로	해안마을	마을진입도로, 해변도로, 마을안길	
		조경식재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대지안의 조경	
	바닥포장		선형포장, 면적포장	
	경관색채		건축물, 지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관광지, 일반주거지, 주거상업지, 상업지, 역사문화지	
형성	생산과 저장		경작지 경관, 시설경관	
	돌문화		올레담, 밭담, 산담과 분묘	
	야간경관		주거지, 주거상업지, 역사문화지, 관광특화지, 도로일반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도 이외에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비양도, 추포도, 마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55개의 무인도 등 총 63개의 섬으로 구성
- 도서지역은 또 하나의 제주, 축소된 제주
- 도서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된 섬이 아닌 그동안 제주도가 잃어버렸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는 곳, '평화의 섬 제주',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의 문화풍경을 다시 구현할 수 있는 곳
- 도서지역은 육지 및 본도와 떨어져 있는 공간상의 취약성으로 낙후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과 개발의 욕구만이 강함
- 독특하고 보존할 가치 있는 경관자원의 틀로 도서지역을 재조명할 필요, 개발과 발전 위주의 기존 제 계획에 대한 통합적이고 비전 있는 검토와 중·장기적 경관관리가 요청됨
- 축소된 제주라는 도서지역의 경관특성상 원칙적으로 본도의 경관지침을 준수하되 각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시 각 경관지침을 선택적으로 강화할 필요, 평지형의 경관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라도, 우도, 가파도 등의 경우는 고유의 경관보존을 위해서는 인공구조물의 경관심의시 좌향과 높이 (2층 이하), 개방지수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
- 경관단위 ㉞는 부속도서 및 해수면의 영역을 포함하며, 해수면 구조물의 설치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생태, 녹색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함

## (1) 보전과제

### 가. 절성토량

- 대지조성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자연지형 및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 3.0m 이하를 원칙으로 함
- 과도한 매립행위 지양

### 나. 자연식생

#### ① 수림지

- 도서지역 오름식생의 보존·관리
- 마을과 인접한 오름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탐방이나 경작활동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관리방안 수립
- 식생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식생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시행
- 주요 식생인 곰솔군락을 비롯하여 원식생 보존에 중점을 둠
- 해안, 저지대 오름에 많이 분포하는 참억새, 띠 등의 초지식물은 오름의 식생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식물들이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조망확보를 위한 수목벌채 금지
- 탐방객 편의시설은 오름 기저부 등 경관훼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규모를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시설물(벤치, 쉼터 등)이 과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어야함
- 인위적인 방식의 오름 조림행위 금지 (생태적 복구방안 마련)
- 해안가 수림
  - － 도서지역의 수림은 중요한 생태자원이므로 각종 개발로 인해 부족한 수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관을 관리할 것
  - － 특히 해안선의 원지형, 해변 원식생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 해안가에 분포하는 해송(곰솔)군락지를 보존하고 훼손된 해송림의 식생복구방안 수립

#### ② 초지

- 해안사구 식물군락, 해안암석지군락, 해안풍충지군락 등의 식물자원을 보존함 (식생자원 정기모니터링에 반드시 포함하여 변화추이 파악)
- 참억새, 띠풀 등의 초지식물, 목초지 경관을 보존함

#### ③ 습지

- 제주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습지 및 자연연못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보존 자원이므로 습지자체 및 주변 식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관관리 시행
- 생태적으로 민감한 습지에 대하여 제한된 탐방활동만 허용
- 조사 및 연구목적의 탐방활동

- 전문 가이드를 동반하는 소규모 생태탐방활동
- 해안사구 식물군락, 해안 암석지 군락, 해안 풍충지 군락 등의 식물자원을 보존함
- 연안습지의 개발행위 제한
- 제주해안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연안습지가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 행위 시 경관위원회 및 보전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

## (2) 관리과제

### 가. 개방지수

- 주요 조망대상 방향으로의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서 개방지수를 30% 이상 확보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한라산, 오름, 해안 이외 별도의 조망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함.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예외로 함
- 풍경의 공유를 위한 일정 개방지수의 준수와 함께 필로티 등의 설치를 통한 보행자수준에서 느끼는 건축물 저층부 개방감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나. 재료

- 인공구조물의 외장마감재는 도서지역의 특성과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재료(자연재료 및 재활용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반사가 심한 금속패널, 반사유리, 칼라유리 등의 사용은 지양

### 다. 취락-도서

- 도서와 본 섬 사이의 조망 보전
- 파노라믹 도서자연경관의 보전, 관리
- 도서지형 특성을 존중하는 경관 형성

#### ① 해안마을

##### □ 올레

- 전통주거경관의 보전
- 도로 확포장에 의해 소실, 변형 왜곡된 올레 및 돌담의 정비

##### □ 가옥

- 지형특성 및 해안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건축물의 층고를 최소화하고 균집화하여 조성
-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건축물 입지시 조망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계획심의 시 배치에 유의하도록 하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망쉼터 제공
- 주위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구조 및 형태의 대문 설치 지양,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권장
- 원칙적으로 해안도로 주변의 부지합필을 통한 다세대주택 건립, 대규모 펜션 신축지양

- 자연재료를 이용한 해안경관 개선
- 해안변 특화가로조성사업 전개 : 보행로개선, 해안접근로 확보, 야간경관조명, 특화 뷰 포켓 조성 등
-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 설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형의 고·저차 정도, 주변의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 경관관리지침을 수립
- 각 필지의 원 지적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개발을 위한 합필지양
- 해안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주동길이를 제한한 형태분절, 일부 필로티 처리 유도
- 지붕의 재질은 지역의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및 형태로써 지역의 통일된 경관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재질로 선정, 현재 슬레이트+페인트의 지붕을 점진적으로 원재료로 개선유도
- 주거건물의 외벽은 해당지역의 분위기에 조화될 수 있는 재질을 권장하고 단색이 벽면에 빛의 음영에 의한 변화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
- 표고에 따른 건축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며 사이공간은 식재를 하여 전체적 조화유도
- 오픈스페이스와 면해 있는 건축물은 정면이 오픈스페이스의 중심을 향하도록 권장

#### □ 용천

- 과도한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 용천의 원형을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주민공공시설)
- 미사용 용천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마을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공공공간 조성

#### □ 팽나무와 땃돌

- 지역내 지정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의 생육개선사업 및 보전사업 시행
- 도로확장공사에 의한 제식 및 이식을 지양
- 팽나무 주위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지정재료사용에 의한 팽나무 주변 정비
- 과도한 휴게편익시설 설치를 절제하여 마을쉼터로서의 땃돌 원기능 회복

#### □ 항구

- 항구기반시설을 포함한 항구경관은 마을전체의 이미지제고를 통한 관광효과를 증대라는 인식하에 마을입구로부터, 항구로부터 보행자우선의 접근로와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보를 통한 경관관리 필요
- 건축·조경·공공 통합디자인 관리
- 항만법이나 어항법을 기본으로 한 항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할 때 단순기능 위주의 설치보다는 경관차원의 사전협의제를 의무화
- 항구의 공공시설은 지형과 스케일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강화와 외부방문객 친화시설로 유도 (경관요소별 일반지침 중 공공건축물 일반지침 참조)
- 토목구조물위주의 기반시설 설치시는 지형과 스케일 고려와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유도,

슈퍼그래픽위주의 경관관리는 지양

- 항구는 본섬과의 관계에서 진입경관으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자원으로 중점 경관요소로 지정 관리하여 활용함(지역축제나 행사장으로 활용)

#### □ 도서기반시설

- 섬의 크기와 지형을 고려한 인공구조물
- 기능위주로 단순히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해안선 경관 보호차원에서 위치 및 규모를 신중하게 고려해 설치
- 건축·조경·공공 통합디자인 관리

### ② 도서별

#### □ 추자도

- 추자도는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의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 자군도의 섬들은 제주도와는 달리 한반도 남해안의 섬들과 비슷한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을 갖고 있음
- 남서 해안에는 급경사를 이루는 해안절벽이 발달
- 북동쪽의 해안선은 남서 해안선에 비해 다소 완만한 지형
- 제주도의 자연환경과는 다른 산지형의 경관구조
- 수십 개의 군도가 둘러싸고 있어 섬의 곳곳에서 조망되는 특색 있는 조망경관이 뛰어남
- 대부분의 높은 봉우리에는 군사시설이 입지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움
- 취락경관은 지형에 의해 위요, 외곽도로변에서 주변군도에 대한 조망경관이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조망
- 무인도 휴식년제의 도입 및 지속된 평가관리
- 도로의 확포장에 우선한 기존도로의 효율성 제고 노선체계 개선
- 주변 부속섬으로의 조망이 뛰어난 외곽도로의 경관관리 및 인공구조물 경관심의

#### □ 우도

- 우도는 본섬과의 사이에 조류가 통과하는 깊은 협곡이 존재
- 지형은 대부분 완경사를 이루고 있음
- 대부분이 자연환경 상태를 유지하며 줄무늬 바위로 형성된 해안석벽과 해안가의 현무암이 어우러져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함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도내 첫 대상지. 유채꽃을 식재하여 농촌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 우도의 돌담문화는 제주도의 전통돌담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가장 잘 보존되어진 지역으로 인식
- 돌담 중에서도 해안도로에 인접한 우도의 돌담은 독특한 돌담문화의 양식으로 구축됨

- 우도돌담의 보존을 위해 경관직불대상자원에 포함, 유지보수 비용지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 필요
- 올레코스과 발담 돌담길 정비를 통한 보행자 위주의 산책코스개발 관리
- 전신주의 지중화사업 시범적으로 실시 권장
- 대부분 완경사의 평지로 이루어져 섬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의 높이, 좌향, 개방지수 등 경관심의의 강화가 요구됨

#### □ 비양도

- 정상에 두 개의 분화구가 형성, 주변에는 다종의 화산분출이 화산탄, 베게용암, 용암수로, 화산동굴, 집괴암들이 발달되어 역사적, 지질학적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섬
- 비양봉정상에서 가능한 한라산과 제주시 서부지역 오름군 조망의 중장기적 보존과 관리방안 수립
- 비양나무자생지, 필랑못, 용암기종 등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을 위주로 한 인공구조물의 경관 심의 지속
- 어업생산시설, 항만시설, 관리시설 확충시 인공구조물 경관심의 강화
- 보행우선의 해안도로정비, 해안도로변 인공구조물 심의 강화
- 해안도로 및 섬의 모든 부분에서의 비양봉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인공구조물의 높이, 좌향, 개방지수 등의 경관심의를 강화할 것

#### □ 가파도

- 가파도는 전체적으로 해안단구 지형이며 섬의 남서부 해안지역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높이 약 5~7m의 해안단구지형이 약 700m 정도 발달한 전형적인 해안단구
- 가파도의 해안용천은 총 4개소에서 관찰되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은 1개소이며 현재도 상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용천수가 흐르고 있음
- 제주도에서 단위 면적당 선사 유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 해당함
- 섬 북편 언저리에 패총 잔존
- 섬 남서쪽 가장자리에 선돌이, 선돌 뒤로 고인돌이 밀집된 분묘구역 안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길이 7m, 무게 30톤 이상의 대형고인돌이 자리 잡고 있음
- 해안용천수의 지속적 보존, 정비를 통한 경관자원화
- 가파도 고유해안지형의 보존을 위주로 한 인공구조물 심의강화
- 고인돌, 패총 등 역사유적자원을 중장기적 보호와 관리강화
- 평지형의 경관구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의 높이, 좌향, 개방지수 등의 경관심의 강화필요

#### □ 마라도

- 해안선에서 수직절벽을 이루고 있는 해안단애에는 해식동굴의 발달이 특징적임
- 마라도의 해안선은 수직절벽의 해안단애로 구성. 해안선의 전 구간에 해식동굴(sea cave)이 잘 발달
- 최남단섬으로서 기반시설 관광편의시설 확충요구 시 무분별한 확충설 보다는 기존시스템의 개선을 우선 고려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가장 두드러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고유해안지형, 해안선 경관 자원보존을 위한 인공구조물의 체계적, 통합적 경관심의 강화 필요
- 동고서저의 완만한 초원을 이루고 있는 마라도의 경관보존을 위해 해안선, 본도로의 조망확보를 위한 인공구조물의 높이, 좌향, 개방지수 등의 경관심의 강화필요

## 라. 가로

### ① 해안마을

#### □ 마을진입도로

- 마을진입도로의 확포장 및 증설지양과 보행공간화
- 해안의 조망경관이 중시되는 주요도로변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적용
- 마을의 생활영역을 분절하는 관통도로의 경우 감속을 고려한 도로개선

#### □ 해변도로

- 해변도로 주변의 일정 폭원의 토지를 확보하고 도로 주변을 녹화하되 조풍의 영향, 외부에의 조망, 주변경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함
- 해변도로는 보행이용을 우선으로 함
- 섬의 모든 도로에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여 차의 감속을 위한 노면의 요철화, 소재의 변화, 도로내의 식재에 의한 폭원의 변화, 도로선형의 비직선화 등의 방법을 적용
- 해안도로 확충 및 확폭 지양. 기존 도로체계의 효율성제고 권장
- 조망이 양호한 지점에 쉼터를 조성하고 조망해설안내판을 설치
- 도로자체의 경관, 도로에서의 조망, 보행이용 및 휴식 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구조와 부대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해안도로를 경관도로화 함

#### □ 마을안길

- 인위적 시설물의 증설보다는 제주 고유의 경관적인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확장 및 증설 지양과 보행공간화
- 확장 포장한 마을 안길의 포장개선
-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속도를 줄이고 식재와 주민 공공공간을 조성함

## 마. 조경식재

### ① 녹지 및 공공오픈스페이스

#### □ 해변 도로변 가로녹지

- 해안선과 바다의 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배제
- 제주해안의 풍광과 이질적인 수목의 식재 배제
- 해안 산책로 등에 인공적·인위적 느낌의 초화연출행위 지양

#### □ 도서지역 오름에서의 식재행위

- 휴게 공간 등 오름 탐방로 상에 식재가 필요한 경우 주변에 분포하는 동일종으로 식재
- 오름 탐방로 양측의 인위적 초화연출 행위 금지

#### □ 목초지

- 도서지역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목초지 및 경작지도 경우에 따라 중요한 경관자원이 되므로 경관관리 대상으로 인식함
- 제주의 향토정서와 부합하고 고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목초지 및 경작지는 보전함
- 새롭게 조성되는 목초지의 식재 행위 시, 목초 종류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주변식생 교란여부를 사전에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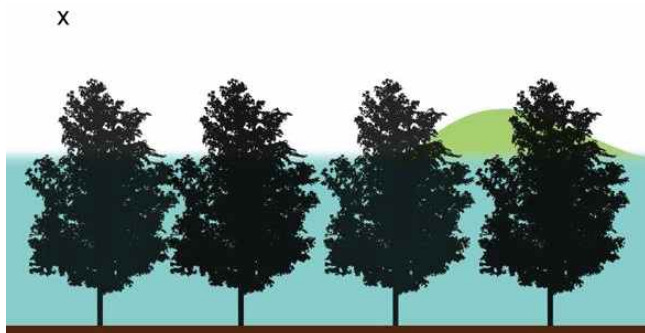


그림 6-120 바다조망을 저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그림 6-121 인위적 초화연출 금지

### ② 대지안의 조경

#### □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지의 조경

- 경관적·생태적 교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질적 수종 식재 배제
- 경관단위별 권장수종을 참고로 하여 지역적 정서와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대지 내 자연 지반 녹지율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여 생태적 생육기반을 조성함

#### □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 개별 인허가시 권장수종을 참고하여 향토수종 식재 권고

#### □ 경관보존 수목의 지정과 관리

- 해안·도서마을의 식생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수목, 수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경관보존 수목으로 지정하고 관리 지원
- 도서별 특징적인 자생수목을 권장수목에 포함하여 개별대지 및 공공건축물 주변의 주요 수종으로 활용

구분	권장 수종 예시	비고
교목	가시나무, 곰솔, 굴거리, 동백, 먼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녹나무, 담팔수, 참식나무, 병굴나무, 비파나무, 무화과나무, 후피향나무, 목서, 향나무, 하귤, 감나무, 멸구슬나무, 애기동백 등	해안 저지대 자생식물
관목	돈나무, 해당화, 다정큼나무, 홍가시나무, 보리장나무, 황근 등	해안 저지대 자생식물
초화·지피	송악, 개상사화, 애기나리, 제주양지꽃, 유채, 순비기, 자금우, 백년초, 백화등, 수선화 등	해안 저지대 자생식물

#### 바. 바닥포장

##### ① 선형포장

- 선형포장이라 함은 보도, 산책로, 탐방로 등 길을 따라 연속되는 포장면을 의미
- 선형의 포장면은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므로 설계제원(폭, 재료, 색상) 선택에 있어서 경관 관리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 오름 탐방로 포장

- 도서지역 오름에 생태탐방로 개설시 주변 식생 및 생태기반을 보존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의 설계 제원 필요
- 도서지역 오름 탐방로 개설시 설계 권고 기준
  - － 폭 : 1.2m 이하
  - － 재료 : 투수, 식물생육 가능한 지역재료 사용
  - － 형식 : 토양유실이 우려되거나, 계단이 필요한 급경사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탐방로 포장을 하고, 주변 식생보존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설치하여 동선 유도

#### □ 해안 저지대의 자전거 도로 포장

-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는 중요한 선형의 경관요소이므로 특히 재료 및 색상 선정이 중요함
- 지역재료를 사용하여 가급적 투수가 가능한 공법으로 전체구간을 일관성 있게 조성
- 포장소재의 색상은 ‘3.3.5 재료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 □ 해안 저지대 마을의 마을안길 포장

- 사용재료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관요소별 지침을 참고함

## □ 해안가 산책로

- 해안선의 지형을 훼손하는 형태의 노선 개설을 금지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최소한의 폭원으로 조성함

## ② 면적포장

- 면적포장이라 함은 광장, 주차장, 마당 같이 일정한 영역을 특정한 재료로 포장하는 것을 의미
- 면적포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통과하는 공간에 이루어지므로 포장면을 형성하는 재료의 물성, 색상, 패턴이 미시적 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포장면의 재료나 시공방법에 따라 빗물 침투여부가 결정되므로, 생태적 식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적의 공간의 경우 투수성 소재 활용하도록 유도
- 포장소재의 색상은 공공디자인의 지침을 준수하여 제주의 향토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조성 (현무암, 송이, 제주흙 등 원재료의 고유 색상 권장)

## 사. 경관색채

### ① 경관색채현황

- 주택의 지붕, 돌담 등 생활 경관이 중심 색채를 이룸
- 원색 지붕이 도서 색채 경관의 중요한 특성을 이룸
- 주로 건축물의 형태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원색의 페인트로 도장됨
- 도서지역 주택 지붕에 고채도 색채를 사용해 해안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 ② 공통지침

- 해안과 도서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간결하고 산뜻한 색채 사용
- 건축물의 지붕, 벽면, 대문 색채는 해안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심 요인이므로 색조합의 예시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장소별 적합한 색채조합 선택 유도
- 해안과 도서경관과 어울리는 주조, 보조, 강조색을 선정하여 시설물에 선별적 사용
  - － 주조색: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중, 저채도의 차분하고 온화한 색채
  - － 보조색: 차분한 느낌의 주조색 사용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조색과 명도차이가 나는 중,고채도를 사용하여 경관의 활력을 유도
  - － 강조색: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물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중, 고채도의 활기차고 개성명도 대비가 강한 색채를 사용하되 주조색과 보조색에 비해 작은 면적에 적용
- 건물, 가옥, 표지판의 시각적 명료성과 정보 표시를 위한 강조색은 최소한 면적 활용 유도
- 명도대비가 강한 배색을 권장

### ③ 세부지침

#### □ 건축물

- 벽면, 대문 색채는 도서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심 요인이므로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 유도
- 대비가 강한 배색의 색채는 지양
- 재료 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 돌담 현무암 색과 잘 어울리는 배색 유도
- 건축물 기준색 적용시 장소와 재료의 성격에 맞는 색채 오차허용범위 설정 (오차허용범위 : 채도 0.5, 명도 1.0)



그림 6-122 배색적용

#### □ 지붕

- 지붕색채는 도서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심 요인이므로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 유도
- 대비가 강한 배색의 색채는 지양
- 지붕색은 도서경관의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지붕색채 계획은 도서지역 특성과 사용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색채 적용을 유도
- 재료별 지붕색 권장 색채 제시 및 관리 유도
- 지붕의 재료 특성과 도장 방법에 따라 색채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
-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지붕색 적용 지양

	컬러강판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점토기와
지붕재료				
				

그림 6-123 지붕권장 색채

#### □ 옥외광고물

- 도서지역 경관에 부합하는 색채 사용으로 활력과 개성을 살림
-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재료색을 그대로 드러냄을 유도
- 건물 외장색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색채 선정
- 명도대비가 강한 배색은 우선적으로 채도대비를 지양

#### 아. 옥외광고물

##### ① 관광지

- 지역 및 상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질 사용 권장
- 획일화된 크기와 디자인을 지양하고 작고 다양한 간판 배치 유도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 준수
- 지역 역사와 향토미가 느껴지는 오래된 간판은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유도
- 최소의 크기·개수로 설치 권장

##### ② 주거지

#### □ 일반주거지

-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추구하며 과도한 크기와 시각 요소 금지
- 보행 시 위압감을 줄이는 작은 면적의 간판 권장
-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 권장
- 상점명과 로고 위주의 간결한 디자인 유도
- 반사되는 소재보다 시각적 자극이 적은 소재 사용 유도

#### □ 주거상업지

- 판류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판 전체 조명설치 자제
- 광원 직접노출 방식 사용 자제 유도

- 다양한 재질의 혼합사용 권장
-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의 적절한 설치 권장

#### □ 역사문화지

- 실사 이미지 사용 지양 유도
- 상점명과 로고 위주의 간결한 디자인 권장
- 고채도와 원색 사용 지양 유도
- 형광색 사용 금지
- 점멸 조명 표시 금지
- 유연성원단 소재 사용 자제
- 광원 노출 방식 사용 금지
- 염해와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 (3) 형성과제

#### 가. 생산과 저장

##### ① 경작지 경관

- 경관구조의 단절을 초래하는 택지조성, 간선도로개통 등에 대한 심의 강화
- 농경과정, 방목풍경 등이 회소적 고유문화경관으로 유지되기 위한 경관생산자 독려시스템 마련
- 농한기 유희농경지를 이용한 계절경관 형성

##### ② 시설 경관

#### □ 창고·축사

- 마을 입구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미관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생적 이미지 부여
- 생업과 직결된 오래된 창고, 축사 등의 규모, 입지, 토속적 형태는 문화경관으로 인정하고 보전함
- 표준개량공법에 의한 신축을 지양하고 토속적 시공법을 존중하고 지원함

#### □ 비닐하우스

- 경관관리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제주도의 지형과 특성에 맞는 장기적 디자인모형개발 필요
- 해안, 오름경관을 고려한 배치
- 섬의 크기와 지형을 고려한 규모

#### □ 양식장

- 현황

- 해안풍경의 주요소이나 경관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옴
- 2008년 7월 현재 290여명 조합원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주도의 주요 산업
- 중장기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협조하에 다양한 디자인과 경관을 고려한 양식장 모형개발 필요
- 현재 도서지역의 육상 양식, 양어시설의 현황은 몇 개소에 불과하나 향후의 양식장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본도에 상응하는 지침의 적용이 필요함
- 향후 도서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육상 양식, 양어 시설의 설치 지양

## 나. 돌문화

### ① 올레담

- 공가발생 및 가옥 구조의 변형으로 전통돌담의 축조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대식 재료의 혼합적 사용에 의한 구축 증가
- 기형적으로 왜곡된 유사돌담의 신축을 규제하고 돌담 쌓기 장인 <돌쟁이>에 의한 전수교육의 체계화
- 마을안길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차량진입목적의 골목확폭에 의한 올레 훼손 최소화
- 일정구간 올레보전의무를 법제화 유도

### ② 밭담 - 경관단위 ㉔와 동일

- 토지소유의 경계, 우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방풍막 기능등 고유한 농경문화경관
- 도시화, 농업형태의 변화, 비닐하우스 재배 등 새로운 경작형태의 출현에 의하여 훼손이 가속화
- 훼손시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고, 부분적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자원보전과 경관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GIS를 활용한 밭담관리시스템을 구축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체계에 의한 돌담의 문화자원화 추진 등이 요구됨

### ③ 산담과 분묘

- 경작지의 분묘은 동일한 공간내 산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독특한 제주도 문화풍경이자 고유한 방목문화의 산물로 보존가치가 높음
- 분묘군락을 개발사업대상지 선정시 제외하여 강제 이장 및 훼손 방지하고 문화경관자원으로 보전
- 연고자 미상의 개별 분묘들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다. 야간경관

### ① 주거지

-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유도
- 도로에 접한 가옥의 주변의 조도를 전체 조도보다 밝게 연출하여 야간 보행 시 방향유도와 장소안내 역할 유도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워م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3럭스) 준수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설치 유도
- 은은한 보행용 가로등 조명 연출 유도

## ② 주거상업지

- 가로의 조도를 높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권장
- 옥외광고물에 휘도 상한선 준수
-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워م 화이트(warm white) 계열의 조명 권장
-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적정 수평 조도(5럭스) 유도
- 보행로에서 인근 주택으로 침입하는 빛을 차단하도록 하향 조명시설 준수
- 주택 진입부에 스텝라이트, 낮은 볼라드 등 설치 권장

## ③ 역사문화지

- 부드러운 조명연출로 문화재의 품위를 높이는 업라이트 조명 연출 유도
- 주변 건축물은 문화재 조명을 돋보이도록 은은한 빛으로 연출 준수
- 문화재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지 않게 휘도와 연색성 고려
- 주변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루버 등 장착
-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석재, 목재) 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 확보 유도하며 직접부착방식 금지
-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조명 사용 금지
-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 직접 노출 방식 금지
- 진입부에 동선을 유도하는 바닥 매설형 조명 권장
- 문화재 조명을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은은한 진입부 보행로 조명 유도

## ④ 관광특화지

-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 금지
- 관광 보행 경로 유도 조명 설치
- 광공해 수준의 지나친 조명 금지
- 직접광원의 노출 금지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조명 권장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한 경관조명 연출 유도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의 경관조명 유도

### ⑤ 도로일반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 방식, 간격, 높이 등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
- 가로변 일반 구간은 가로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 권장
- 도로의 주요 결절부 지점에 조도 높임 권장
- 해안도로는 물이 깨끗하게 보이는 연색성이 우수한 메탈할라이드 램프 사용 유도
- 해안 도로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ut off 방식 조명을 사용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빛이 퍼지지 않도록 함



## 6.3 경관축 계획

### 6.3.1 기본방향

구분	대상지
하천경관축	삼수천, 대용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한림천, 옹포천, 문수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귀덕천
	창고천,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송천, 가시천, 안좌천, 천미천, 진평천, 예래천, 중문천, 색달천, 대포천, 회수천, 동회수천, 도수천, 고지천, 궁산천, 악근천, 세초천, 영남천, 연외천, 생수천, 서흥천, 호근천, 원제천, 동흥천, 보목천, 상호천, 영천
해안경관축	일주서로, 도령로, 서광로, 동광로, 조천우회로, 일주동로로 연결되어 있는 해안도로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 구역/ 보전연안해역
주요도로축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

### 6.3.2 하천경관축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제주의 하천은 한라산에서 기원해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으로 흘러가는 형태로 평소에는 건천이지만 강우시 강수 유출이 빨리 이루어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기본원칙** 하천변에서 해안, 한라산의 통경축을 유지하는 선형경관의 형성

##### (1) 목표

- 보전 : 한라산에서 해안으로 연결되는 선형을 유지하고 관리보전지역 등급의 엄격한 통제
- 관리 : 주요하천의 특색 유지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관리
- 형성 : 선형경관 확보를 위해 주변 건축물 간의 높이를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

##### (2) 보전방향

- 관리보전지역 등급상에서 주요 하천변 등급강화로 개발수요 억제

##### (3) 관리방향

- 하천변 개발수요의 관리를 위해 개방지수, 좌향 등을 고려하여 한라산에서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선형경관을 유지하는 할 수 있도록 함

#### (4) 형성방향

- 하천주변 사유지에서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하되 사선제한 등 높이기준은 엄격히 유지

### 3) 경관계획

#### (1) 기본관리방향

- 경관의 공공성
- 제주도의 공간과 스케일의 보전
- 수변생태 이미지 보전
  - 주변산림, 식물군락 등 생태환경을 절대적으로 보전
  - 과도하게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철거를 하여 최소화하고 자연재료를 사용
  - 친수공간 조성시 과도한 친수시설의 설치보다 수변생태에 영향을 최소화한 공간 조성
- 하천변의 인공물 관리
  - 하천변 건축물은 저층배치를 유도하여 수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 하천변 공업지역에 대한 차폐식재로 수변 경관개선
  - 하천을 지나는 교량, 고가차도 등의 도로구조물 디자인 및 색채 정비

#### (2) 주요 심의사항

- 하천의 경계선으로부터 45도 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경관관리지침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녹지지역 등에서 45도 사선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경관심의



### 6.3.3 해안경관축

#### 1) 주요 경관특성

-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해안으로 제주의 중요한 경관자원임
- 이국적인 바다색과 해안선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아름답지만 최근 개발수요가 급증함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기본원칙** 해안선 및 지형의 형태 보전과 통경축의 확보를 원칙으로 함

- 보전 : 제주지역 해안의 지형·지질적 특성에 변형을 가하지 않도록 보전
- 관리 : 해안선에서 거리별 차등 적용하여 개발의 억제, 관리, 유도하여 기존 경관과 조화
- 형성 : 기존 형성된 취락과 건축물의 생활경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 형성

### 3) 경관계획

- 올레길의 개선·유지 및 녹지 연계
  - 올레길의 훼손지를 개선하되 변형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 올레길 인근의 녹지와 공원시설 등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어지도록 연계
-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을 해안경관축으로 설정하여, 거리와 지역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
  - 해안선 보호구역(5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을 설정하고 구역별 관리 기준을 정함
  - 해안선 보호구역(50m) : 해안선에서 50m까지의 지역에서 제주만의 자연요소가 넓게 분포하거나, 생태환경 및 경관이 탁월하게 우수한 지역으로 보존해야할 지역
  -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 해안선에서 50m거리부터 100m까지의 지역에서 항구 등 기 개발된 지역과 취락지역 주변 등 해안 자연요소의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발의 영향이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해안
  -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 해안선에서 100m거리부터 500m에서 친수활용성 및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적극적 이용과 유도가 필요한 해안



### 6.3.4 주요도로축 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제주지역의 도로는 지역간 연결 및 주요관광지간의 연결이 주요 기능임
- 주요도로들은 1100도로, 516도로와 같이 도로자체가 경관포인트로서 경관자원이며 도로에서 보여지는 조망경관도 중요함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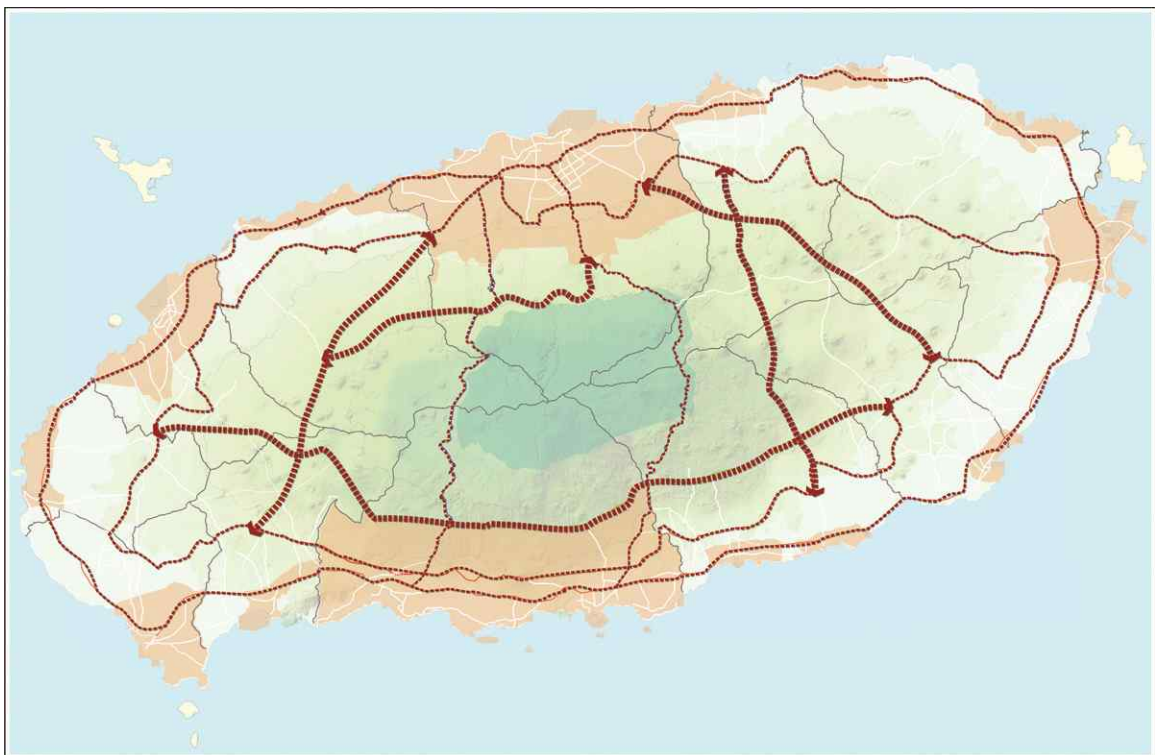
##### (1) 목표

**기본원칙**    제주의 상징성과 자연성을 나타내고 부조화스러운 인공물의 배제

- 보전 : 선형 경관의 다양한 조망 경관의 보전
- 관리 : 주요도로변의 인공물과 해안 및 오름, 한라산으로의 통경축 관리
- 형성 : 자연스러운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경관립 형성

#### 3) 경관계획

- 주요도로축의 대상은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임
- 주행경관이 아름다운 도로경관 관리
  - 부조화로운 인공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미를 나타내는 경관립 또는 조경의 식재



## 6.4 경관거점 계획

### 6.4.1 기본방향

구분	경관거점	설정기준
역사문화 경관거점 (11)	제주향교지구, 관덕정지구, 오현단지, 삼성혈지구, 삼양동 선사유적지구, 하도리 별방진지구, 용수리 절부암지구	문화자원보전지구(제주시)
	보목동 숲섬지구, 서귀진지지구, 보성리 대정성지지구, 수산진성지구	문화자원보전지구(서귀포시)
관문 경관거점 (7)	공항입구 교차로,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제주시 주요도로축의 진입부 교차로 및 회전교차로
	비석거리교차로, 중앙로터리, 동문로터리	서귀포시 주요도로축의 진입부 교차로 및 회전교차로
공공시설 경관거점 (24)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지방합동청사, 구좌읍사무소, 애월읍사무소, 조천읍사무소, 한림읍사무소, 남원읍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성산읍사무소, 우도면사무소, 추자면사무소, 한경면사무소, 안덕면사무소, 표선면사무소	주요 관공서 및 공공시설
	동문시장, 민속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종합경기장, 강창학 종합경기장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인구밀집장소

### 6.4.2 역사문화경관거점 경관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제주는 역사, 문화, 인문 자원이 풍부하고 마을마다 신당이 있고, 제주도 전체에도 1만8천의 신들이 존재함
- 제주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경관자원화하고 훼손을 방지해야 할 것임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 보전 : 역사문화 경관에 걸맞은 지속성 유지
- 관리 : 문화재 관련 지침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관리
- 형성 : 주변지역과의 관련성, 중심성을 고려하여 경관형성

#### 3) 경관계획

- 역사문화경관거점의 대상은 문화자원보전지구로 설정
- 역사문화자원 주변에 존재하는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전
  - 녹지가 풍부한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해안, 오름 등의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을 유도
- 역사문화자원을 배려하는 주변부 관리
  - 지구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추진
- 공공시설물의 개별적 디자인을 지양하고 제주 공공디자인을 활용하며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함
- 공공기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함



#### 6.4.3 관문경관거점 경관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제주공항에 보여지는 제주진입 관문이 명확하지 못하고, 위요성을 가진 공간이나 구조물이 없으며, 장소 진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주공항진출부 동선이 불량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 보전 : 관문은 위요감을 가지되 노트(node) 기능을 부요
- 관리 : 제주에 온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징성을 부여하되 과도하지 않게 함
- 형성 : 제주로의 진입을 인지할 관문 조성으로 랜드마크 기능까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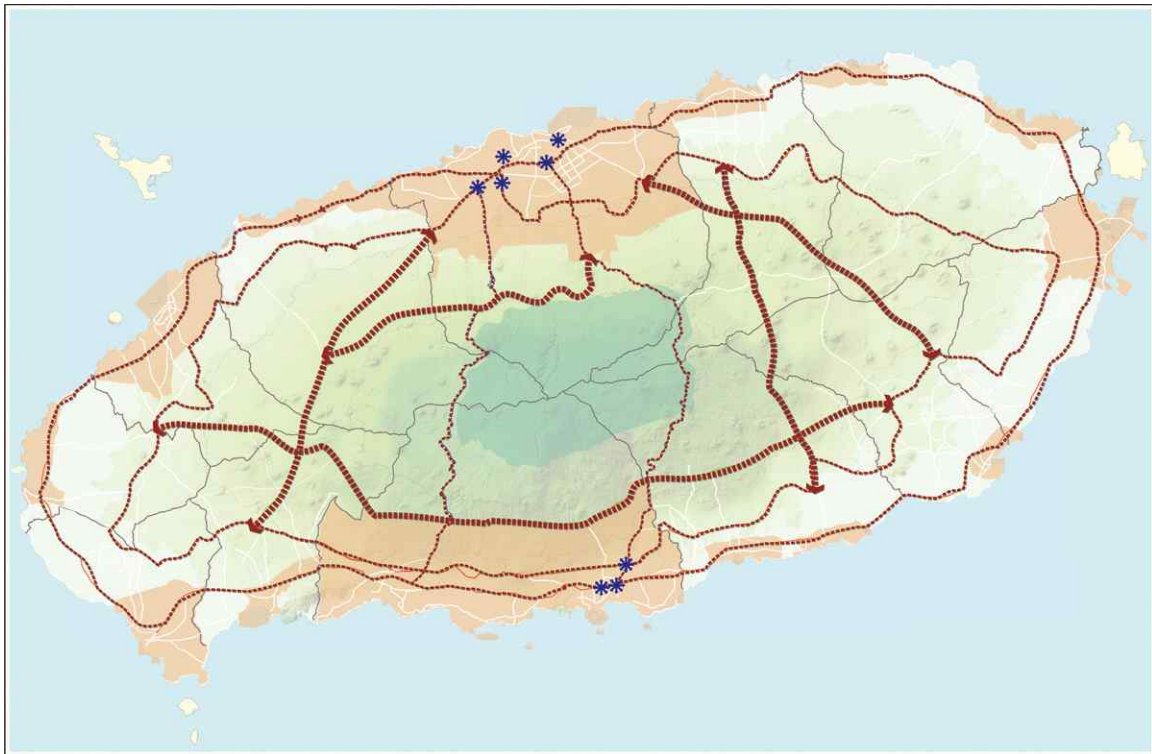
###### (2) 기본방침

- 관문으로 상징성은 가질 수 있도록 위요성은 가질 수 있도록 하지만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랜드마크 및 이정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3) 경관계획

- 관문경관거점은 주요도로축의 진입부 교차로 및 회전교차로로 공항입구 교차로,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비석거리교차로, 중앙로터리, 동문로터리임.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자연적 경관 특성을 강화하여 관문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을 유도
- 진입도로 및 주요 가로, 공원 등에서의 시각회랑 및 조망권을 확보하고, 가로변 녹지축 확보 등 녹지대의 네트워크를 고려
- 경관적 낙후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관리
  - 지역단위로 경관 개선 방안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저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해 지역 이미지가 정체되어 있는 지역의 경관개선을 도모
- 통일감 있는 고유 도로경관 조성
- 공공기관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을 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 6.4.4 공공시설 경관거점 경관계획

##### 1) 주요 경관특성

- 공공건축물은 계획시 제주다운 경관과의 조화와 명품화하기 위해서 설계공모 등을 통해서 신축되고 있고, 공공건축물이 공공시설 경관거점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건물들에만 적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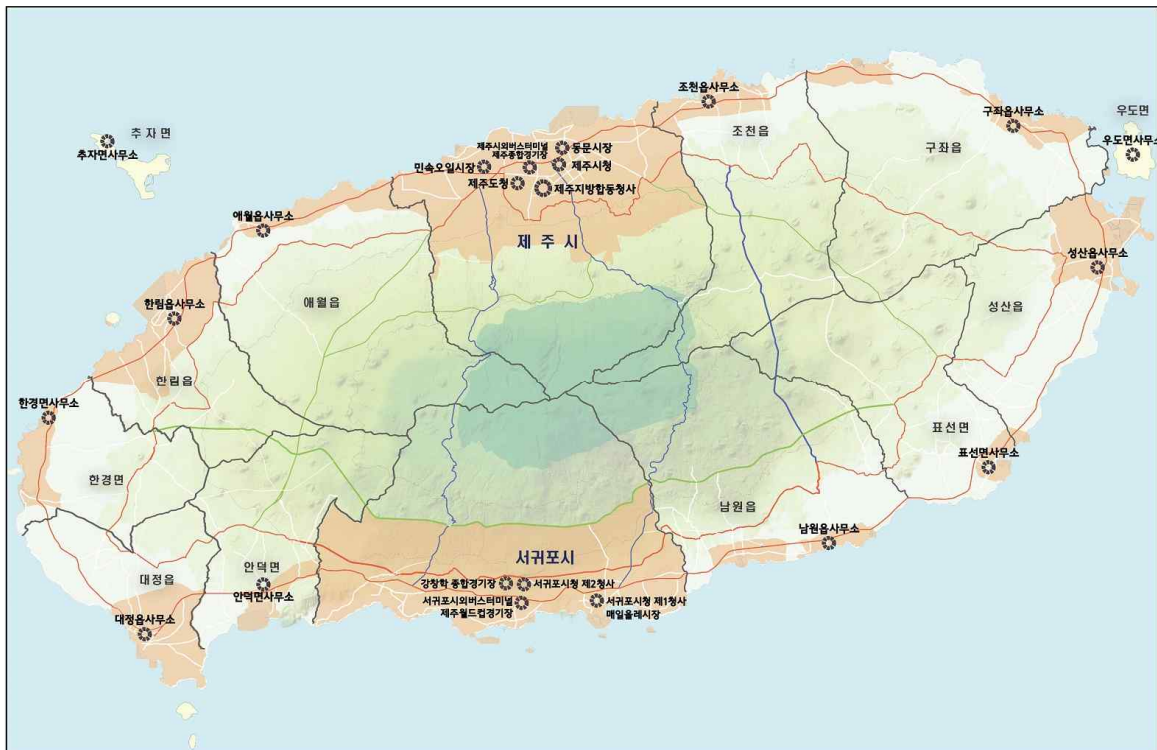
##### 2)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 (1) 목표

- 보전 : 신축 및 리모델링을 병행하여 공공시설물 신축 및 개축
- 관리 : 시설의 기능 및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거점으로 관리
- 형성 : 기존의 공공건축물 신축건축물의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지역내 경관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함

### 3) 대상별 경관계획

- 공공건축물(커뮤니티관련시설, 공공업무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로 3층을 초과하는 경우(단,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당선작은 제외한다) : 커뮤니티관련시설(주민센터, 복지회관, 정보센터 등), 공공업무관련시설(우체국, 전화국, 소방서, 파출소, 보건소 등), 교육관련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경관심의대상 제8호)
- 공공기관이 「경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6.5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개요

구분	내용
경관목표 측면	제주경관의 대표적인 곳들을 유지하기 위해 중점관리구역 지정
경관자원 측면	기존의 경관자원을 지키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전략 마련
실행방안 측면	중점관리구역도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하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
구역설정 측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부터 포함하고 향후 개별법에 의해 정비되는 것들을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함

### 6.5.1 오름군락

####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오름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제외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로 화구를 갖고 있으면서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독립화산체 또는 기생화산체으로 주로 한라산 산록 동측 및 서측 중산간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제주도만의 독특한 지형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 마을과 근접하여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자 일부이며 도시내 녹지공간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유지, 마을공동소유, 재단 소유의 비율이 높고 개발의 압력이 높아져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군락에서의 가시권확보를 하고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함
- 동서 장축 끝 지역의 넓은 평원의 오름밀집지역은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자연경관이자 그 자체로 집단적 랜드마크를 형성
- 오름 주변지역의 인공개발경관의 간섭으로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제주 원풍경을 지속

#### 오름군락의 선정기준

- 오름군락은 평화로, 산록로, 번영로, 남조로, 녹산로, 비자림로, 중산간도로 및 오름 군락을 관통하는 군도로부터 연속적으로 중첩되어 조망되는 오름군
- 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사업지 등으로 지정 혹은 지정 후 해제된 지역을 위요하고 있는 오름군
- 가을의 억새군락, 봄의 무꽃군락, 유채밭 등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절경을 이루는 오름군
- 동부오름군락과 서부오름군락으로 설정

#### 구역경계

-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격된 구간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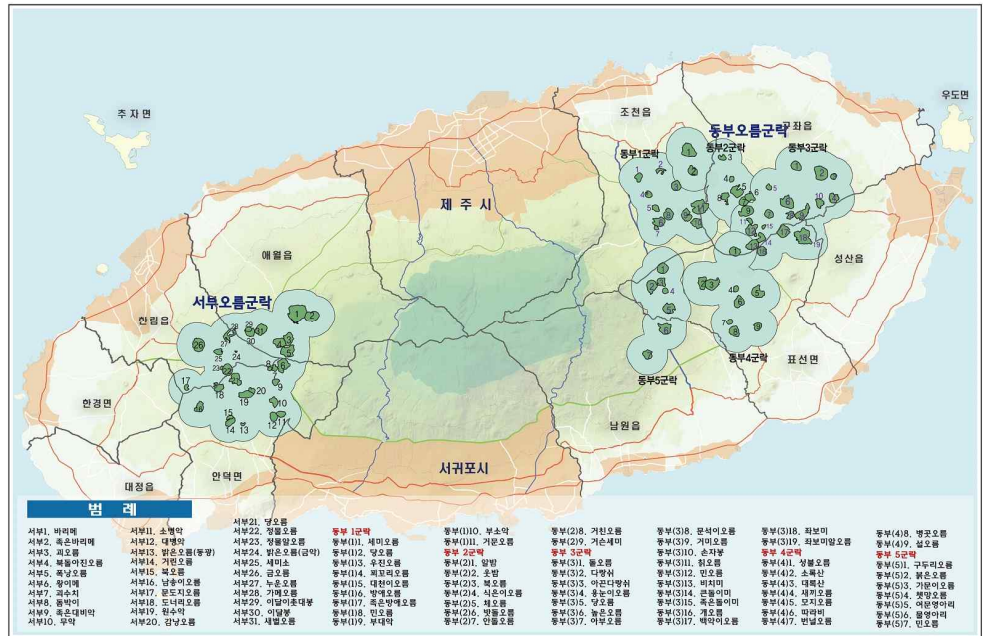
##### 기본원칙

오름자체의 개별적 관리는 물론 오름과 오름 사이, 오름 주변지역을 인공개발경관의 간섭으로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제주 원풍경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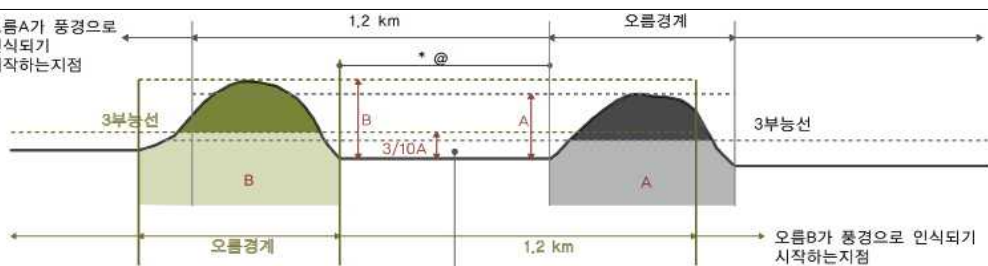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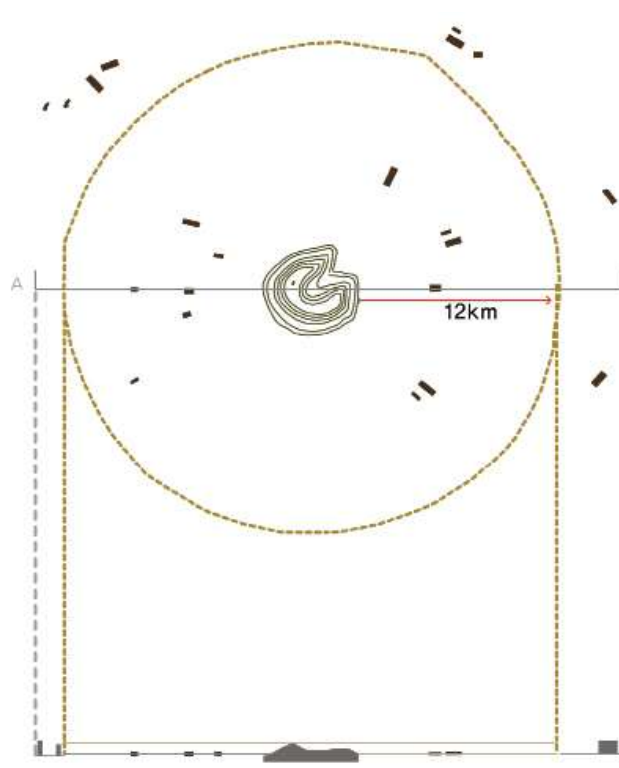
- 보전 : 고유의 자연지형 존중 및 조망 보호
- 관리 : 주변과 조화되는 인공물 경관관리
- 형성 :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의 소통을 유도

### 3)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름 경계선이 위치하는 접하는 지면의 해발고도와 상관없이 그 경계로부터 수평으로 1.2km 이격된 구간을 지정 (단, 이격한 구간에서 중첩이 되지 않은 지역이 이격 구간에 둘러싸인 지역은 오름군락에 포함)</li> <li>• 관리경계 내 기 설치된 인공시설경관의 경우 심의에 의한 조정기준 준수(소급적 적용 심의)</li> <li>• 관리경계 내 기 계획된 인공시설경관의 경우 심의에 의한 설계변경 검토(소급적 적용 심의)</li> </ul>
대상 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오름군락 (55개 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름군 1 : 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거문오름, 피꼬리오름, 대천이오름, 민오름, 방애오름, 죽은방애오름, 부대악, 부소악</li> <li>- 오름군 2 : 알밤, 옷밤, 식은이오름, 거친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 북오름</li> <li>- 오름군 3 : 돌오름, 다랑쉬, 아끈다랑쉬, 용눈이오름, 당오름,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거미오름, 손자봉, 침오름, 민오름, 큰돌이미, 죽은돌이미, 비치미,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 좌보미알오름</li> <li>- 오름군 4 :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모지오름, 따라비, 새끼오름, 번널오름, 병곶오름, 설오름</li> <li>- 오름군 5 : 구두리오름, 붉은오름, 가문이오름, 챗망오름, 여문영아리, 물영아리, 민오름</li> </ul> </li> <li>• 서부오름군락 (31개 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메오름, 괴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문도지오름, 바리메, 밝은오름(동광리), 밝은오름(금악리), 북돌아진오름, 새별오름, 이달이쫓대봉, 이달봉, 세미소, 정물알오름, 정물오름, 죽은바리메, 폭낭오름, 감낭오름, 거린오름, 괴수치, 남송이오름, 당오름, 도너리오름, 돛박이, 대병악, 무악, 북오름, 소병악, 왕이메, 원수악, 죽은대비악</li> </ul> </li> </ul>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구조물의 주재료는 지역재료로 제한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지구 내 일체의 인공구조물은 심의를 받음</li> </ul>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름 경계선이 위치하는 접하는 지면의 해발고도와 상관없이 그 경계로부터 수평으로 1.2km 이격된 구간을 지정</li> <li>• 관리경계 내 기 설치된 인공시설경관의 경우 심의에 의한 조정기준 준수(소급적 적용 심의)</li> <li>• 관리경계 내 기 계획된 인공시설경관의 경우 심의에 의한 설계변경 검토(소급적 적용 심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오름의 3부능선 미만으로 제한하되 오름주변지역의 생태등급별 행위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함</li> <li>• 해발고도가 해당 오름의 3부 능선보다 높은 경우, 건축물 가능 높이는 2층(8m 이하)로 함</li> <li>• 3부 능선 미만과 해당 경관등급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li> <li>• 오름의 3부 능선은 평균값이 아닌 해발고도로부터의 절대 높이에 대한 조망위치별 변수임</li> <li>• 인접 오름과 관리경계가 중첩되는 구역은 높이 기준 등 강화된 수치를 적용함</li> <li>• 주요도로변 경관관리지구와 중첩되는 경우 기준의 누적 및 동일기준 시 강화된 수치를 적용함</li> <li>• 동부오름군락의 오름군 3과 오름군 4의 경우, 탁월한 경관미를 보존하기 위해 위 기준 및 개별법과 상관없이 인공구조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름군 3 : 억새밭, 무밭, 유채밭과 조화되는 오름군락의 계절별 경관미가 탁월함</li> <li>- 오름군 4 :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녹산로 변 조망권 보전</li> </ul> </li> <li>• 동부 오름군락군의 오름군 1, 2, 5와 서부 오름군락의 경우,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중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건축물·공작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 오름군 1 : 방목지, 초지,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조망권 보전</li> <li>- 동부 오름군 2 : 중산간 자연수림의 경관미를 보존</li> <li>- 동부 오름군 5 : 중산간 자연수림과 람사르습지의 경관미가 수려</li> <li>- 서부 오름군 전체 : 서부지역의 상징적 도로로 경관적 보존 및 관리가 필요</li> </ul> </li> <li>• 공공 및 특수목적으로 제한범위 초과시 경관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li> </ul>

높이	 <p>*@ Exampl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gt;A일 때, 최고높이 <math>\leq 3/10 A</math></li> <li>2) @지역이 경관3등급지역일 경우, <math>3/10A &lt; 12m</math> 일 때, 최고높이 <math>\leq 3/10 A</math>  <math>3/10A &gt; 12m</math> 일 때, 최고높이 <math>\leq 12m</math></li> </ol> <p>오름인접지의 경관등급의 행위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최고높이와 3부능선의 고도 중 작은값을 대상지 인공구조물 최고높이로 적용한다. 단, 개별법적용시 허용최고높이와 비교하여 작은값을 적용한다.</p>
좌향	<p>•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좌향은 한라산으로의 통경축과 상관 없이 해당 오름에 대한 조망방향과 평행하게 함</p> 

#### 4) 경관관리방안

##### • 기본방향

- 대상 오름의 경계로부터 1.2km 구역을 오름밀집지역 중점경관관리범위로 지정하여, 오름이 풍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조망거리로부터 조망권을 보호
- 개별오름의 경우도 오름경계로부터 1.2km 구역 내는 동일한 기준 적용
- 경관적 흡수력이 낮은 중산간지역의 경관잠식요인인 도로변 점적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
- 도로변 경관관리지구와 중점시 기준을 누적 적용하되, 높이의 경우 오름밀집지역 기준을 상위로 둠

##### • 동부오름군락 1, 2, 3, 4, 5군락

-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행위(농업, 축산 등)외에는 개발을 지양

##### • 서부오름군락

-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행위(농업, 축산 등)외에는 개발을 지양

###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관리

- 해안, 하천 및 오름 주변의 개선·정비 (사업공공기관이 「경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경관심의대상 제6호))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서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경관보전지구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할 경우 (경관심의대상 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경관심의대상 제1호의 2)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원단 설치 및 운영

- 경관위원회 등을 통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자문 및 지원 기구 설치 검토
- 특히 오름군락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 지원 검토

## 6.5.2 습지 및 자연연못

###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습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때문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습지의 생태관광과 연관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훼손지 복원 등 습지보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경관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다루어야 함



물영아리오름

제주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동백동산습지

#### 구역경계

- 습지 및 자연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m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심의대상 제13호)

###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기본원칙

습지 및 자연연못 원식생경관의 훼손을 방지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수변과의 조화성을 강조

- 보전 : 원식생경관의 보호
- 관리 : 시가지 및 읍면지역에서 주변과 조화되는 인공물 경관관리
- 형성 : 수변의 친수성과 공공성 강화

### 3)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대상습지 및 자연연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법적지정습지 5개(동백동산습지, 물영아리오름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숨은물뱅듸)를 대상으로 함</li> <li>※향후 법적 지정습지가 늘어날 경우는 차후 재정비시 대상습지를 추가 지정하도록 함</li> </ul>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 및 자연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m안 구간으로 지정</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이상, 8m초과 구조물은 심의를 받음</li> </ul>
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구조물의 좌향은 한라산, 오름, 습지 및 자연연못을 고려하여 시각통로의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 방향으로 설치</li> </ul>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구조물의 주재료는 지역재료로 제한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지구 내 일체의 인공구조물은 지양</li> </ul>

### 4) 경관관리방안

- 기본방향
  - 건축물, 시설물 등 인공경관의 설치를 지양하고 시가지 인근 습지 및 자연연못은 원형 복원·정비 유도
  - 지역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경관형성사업 추진

####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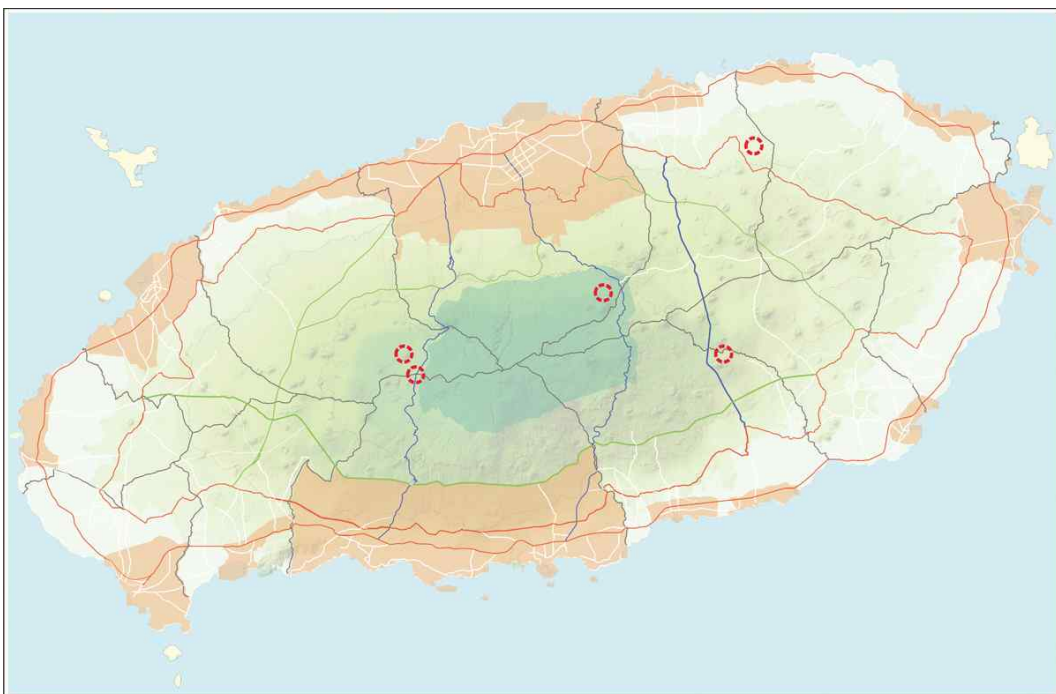
- 심의대상 습지 및 자연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m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원단 설치 및 운영

- 경관위원회 등을 통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자문 및 지원 기구 설치 검토

#### (3) 경관사업을 통한 경관 형성

- 수변생태에 영향을 최소화한 생태체험공간 및 공원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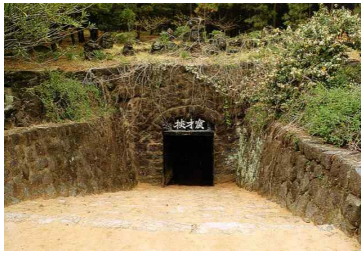
### 6.5.3 세계자연유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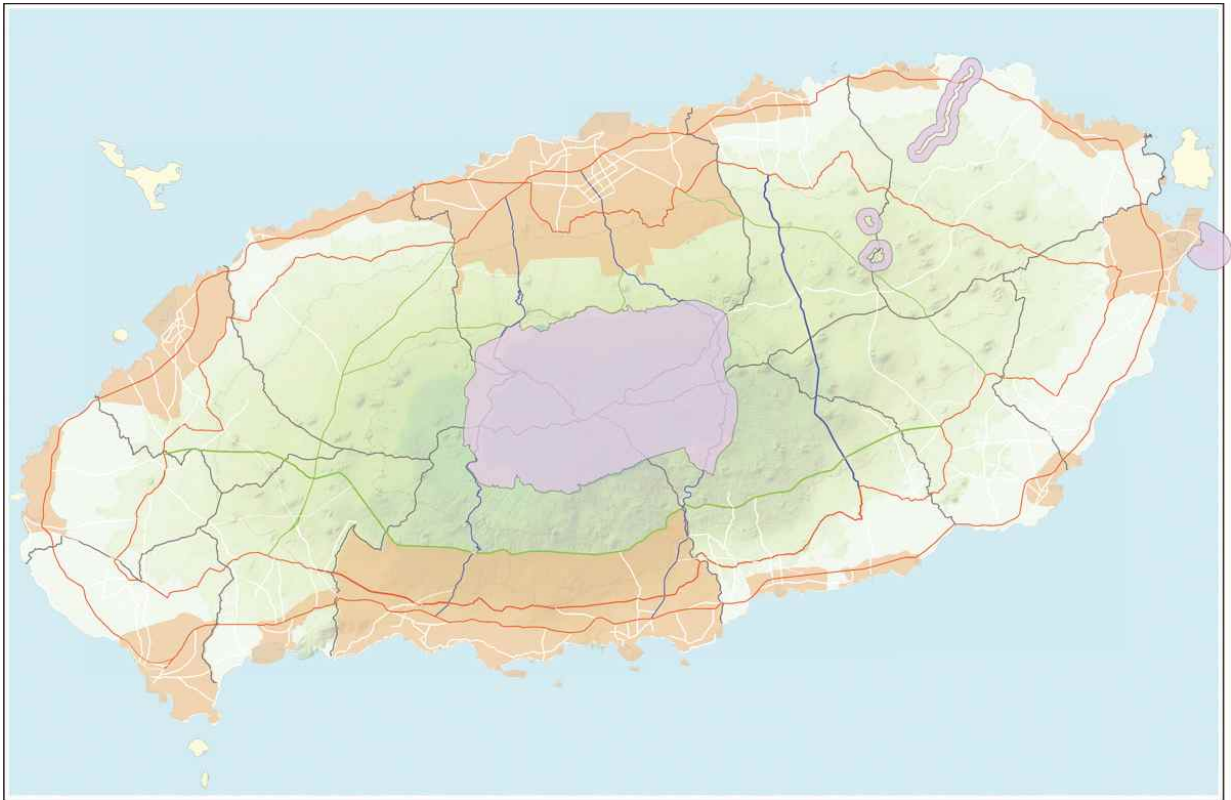
####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인 거문오름, 김녕굴 및 만장굴, 뽕뒤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 총면적 188,45km<sup>2</sup>(핵심지역 94.75km<sup>2</sup>, 완충지역 93.70km<sup>2</sup>)으로 인근 시설의 개발에 대한 관리 필요
- 경관·지질학적 가치가 탁월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 형성을 위한 세계자연유산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 구역경계

-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64.40km<sup>2</sup>, 성산일출봉 1.69km<sup>2</sup>,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22.36km<sup>2</sup>





##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기본원칙**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확립하고 경관·지질학적 가치를 강화

- 보전 : 구역내 사유지의 매입으로 경관보전
- 관리 : 지정지구와 연계된 상업활동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 형성 : 중요한 화산적 특징의 관리와 제주도의 생물다양성적 가치 형성

### (1) 유산지구별 경관관리

- 세계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세부사업 별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구분			세부사업	경관관리항목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위치	규모	개소	형태	재료	절성 토량	시공 방법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체험 트레일 조성	생태경관 체험	성관악~사라오름 연계 트레일	●	●	—	—	●	—	●
			어리목~만세동산 연계 트레일	●	●	—	—	●	—	●
		지질체험	열실 지질체험 트레일	●	●	—	—	●	—	●
			구린굴 지질체험 탐방로	●	●	—	—	●	—	●
		역사문화 체험	불교문화 트레일	●	●	—	—	●	—	●
			불교문화 전래 트레일	●	●	—	—	●	—	●
			어리목 근대 역사체험 트레일	●	●	—	—	●	—	●
		한라산 순환	기존 도로를 활용한 코스	●	●	—	—	●	—	●
			개방형 순환코스	●	●	—	—	●	—	●
	탐방환경 조성	탐방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트레일	●	●	—	—	—	●	—	●
		안내시설(표지판, 이정표 등)의 적절한 활용	●	●	●	●	●	—	—	—
	탐방객 편의 기능 확대	탐방안내소 조성	●	●	—	—	—	●	●	—
		야영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	●	—	—	●	●	—
			삼림욕장 조성	●	●	—	—	●	●	—
			오토캠핑장 조성	●	●	—	—	●	●	—
성산 일출봉 등화구	성산 일출봉	탐방동선 체계정비	순환형 동선시스템 도입	●	●	—	—	●	—	—
		신규관람로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탐방환경 조성	●	●	—	—	●	—	—
		탐방안내소	탐방안내소 복합기능화	●	●	—	—	●	—	●
			자연친화적 공간조성	●	●	—	—	●	●	—
	주차장 이전 및 공원화	주차장 이전	성산일출봉 경관정비	●	●	—	—	●	●	—
			유산공원 조성	●	—	—	—	●	—	—
		상가 이전 및 정비	유산지구 내 상가 이전	●	●	—	—	●	●	●
			테마보행로	●	●	—	—	●	—	—
	체험코스 및 프로그램	체험코스 및 프로그램	테마별 해설코스	—	—	—	—	●	—	●
			해양체험 프로그램	—	—	—	—	—	—	—
			역사체험 프로그램	—	—	—	—	—	—	—
		해녀의 집 활용	정비 및 프로그램 확충	—	—	—	—	—	—	—
거문 오름 용암 동굴	거문오름- 용암동굴 연계탐방 루트개선	탐방루트 진입로	탐방루트 진입로	●	●	—	—	●	—	●
		탐방안내소	탐방안내소의 입지와 형태	●	●	—	●	●	●	—
		탐방로 정비	탐방로 데크	●	●	—	—	●	—	●
			탐방로변 안내판·해설판	●	●	●	●	●	—	—
	만장굴 재정비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탐방프로그램 확대	동굴탐방을 돕는 안내지도 제작	—	—	—	—	—	—	—
		탐방안내소 건립	만장굴 종합휴게소를 활용한 탐방 안내소	●	●	—	●	●	●	—
			친환경적 주차장조성 및 야외공간 정비	●	●	—	—	●	●	●
			용암동굴을 주제로 한 외부공간 조성	●	●	—	—	●	●	●
	비공개 동굴의 간접체험 기반조성	외부공간조성	주변 비공개 동굴 탐방루트 조성	●	●	—	—	●	—	●
			입지선정/시설운영	●	●	—	●	●	●	—

## (2) 유산마을 경관관리

- 연계사업-마을안내센터 운영, 숙박시설 개선 등-확충을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본목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특별경관관리가 필요함
- 각 유산마을에 대한 별도의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및 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3) 경관관리방안

- 기본방향
  - － 지속가능한 보전계획
  - － 공인된 자연가치의 공익적 활용계획
  - －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 관리계획
  - － 지질명소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관리

- 세계자연유산지구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경관심의대상 제1호의 3)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원단 설치 및 운영

- 경관위원회 등을 통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자문 및 지원 기구 설치 검토

#### (3) 경관계획을 통한 경관 형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기본으로 한 세계문화유산지구에 대한 별도의 경관계획과 공간디자인 및 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6.5.4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 1) 주요 경관특성 및 구역설정

- 관광사업 대상지 및 대규모 선도사업, 유원지,, 등이 중산간 및 해안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와 도 전역에서 개별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역경계

- － 평화로, 남조로, 서성로, 산록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내부 구역
- － (면적제시) 관광사업 대상지 및 대규모 선도사업, 유원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

###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 기본원칙

공공재로서의 인식을 확립하고 경관·지질학적 가치를 강화

- 보전 : 지역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보전
- 관리 : 랜드마크적 인공 요소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존중하는 디자인으로 계획·관리
- 형성 : 인공구조물의 랜드마크화 할 경우 문화적 시설로 제주민의 자긍심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3) 경관관리방안

- 기본방향
  - － 새로운 시대, 특히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도시풍경을 형성하며, 제주의 새로운 산업을 중흥시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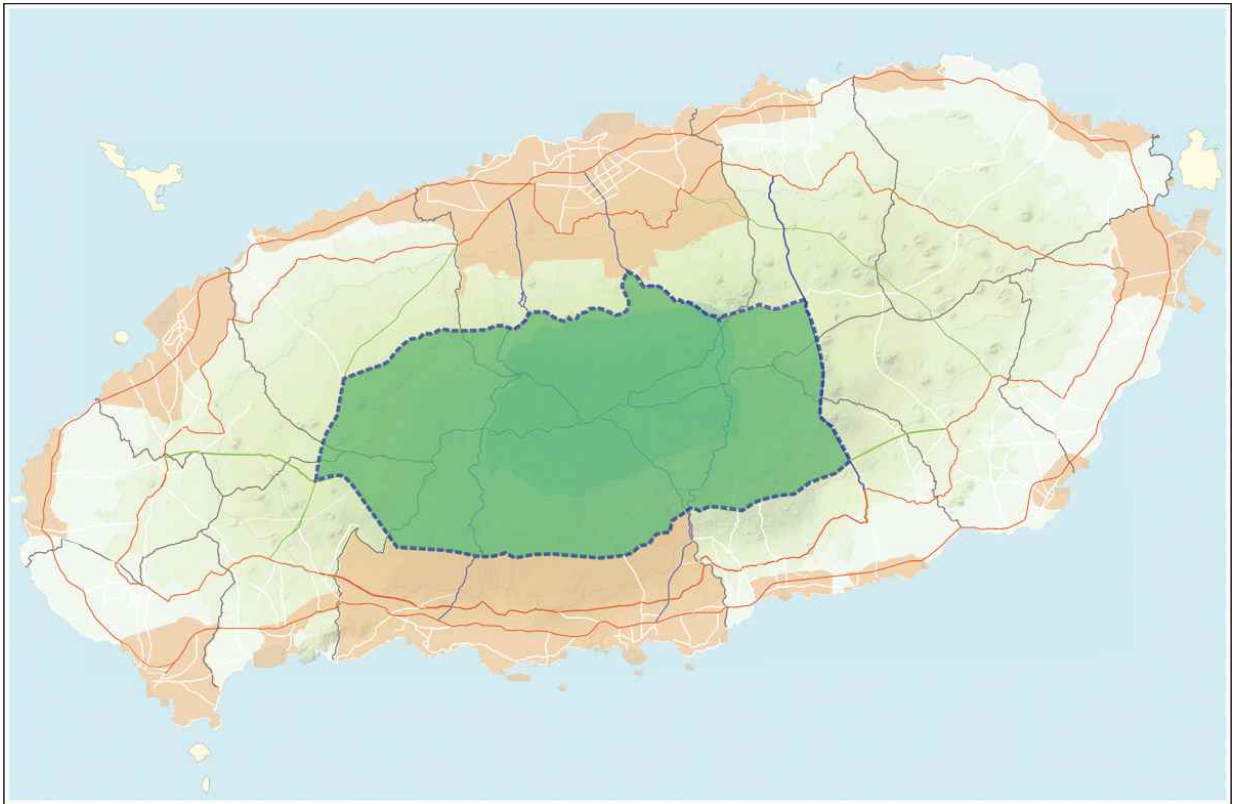
- 국제적 수준의 삶의 터를 일구기 위함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은 예외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경관요소별 일반지침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 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서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해당기관이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의 디자인 심의 시 다음의 기본관리방향 및 심의사항을 참고할 것

####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한 관리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경관심의대상 제1호의 4)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원단 설치 및 운영

- 경관위원회 등을 통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자문 및 지원 기구 설치 검토



## 6.6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 6.6.1 건축물 높이

#### 1) 현황 및 문제점

- 주요하천변 건축물 입지시 경관심의를 받고 있지만, 사선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경관심의 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대단지 공동주택의 신규입지나 재건축시 주변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가지지 못하고 위압적이고 충분한 풍경축이 확보되지 못함

#### 2) 기본원칙

- 하천변에서의 건축물 높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에서도 완화보다는 강화를 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단지들은 주변지역 및 경관상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3) 경관관리방안

- 하천변은 풍경축 확보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호우, 태풍 등)을 고려하여 하천변, 해안변은 건축물 높이 완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
- 대규모 단지나 자연녹지등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여 단지내에서 스카이라인이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형성해 나가야 함

### 6.6.2 도로개설 및 그 부대시설

#### 1)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개설로 인해 기존보다 불량경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로시설물의 과도한 설치로 인해 경관상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 도로가 만들어지면 전신주 및 전선으로 인해 차폐 및 가로경관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도로개설로 인해 도로가 주차공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 기본원칙

- 도로개설시에는 지중화(전선, 통신선 등)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행하는 차와 보행하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만 이용하도록 함

#### 3) 경관관리방안

- 도로개설시 과도한 부대시설물은 지양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도로인 경우는 공동구 등을 활용하여 지중화를 원칙으로 함
-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을 지양하고 노외주차장을 확대하여 도로상에서 주·정차 차량을 배제

### 6.6.3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

#### 1) 현황 및 문제점

-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에 따르면 경관단위 ㉮에 해당하는 도서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허가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제외하고 있어 개별적인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이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돌출경관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2) 기본원칙

- 도서지역에서 추가적인 도로의 개설은 지양하되, 꼭 필요한 도로는 경관심의를 통해서 건설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함

## 3) 경관관리방안

-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경관심의에서 제외됨에 따라 돌출경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등에서 주변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도로지역내 도로는 차량을 위해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개선하도록 함

### 6.6.4 제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제도 건설사업

#### 1)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은 제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및 제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않, 한라산국립공원내 관리용 제도 차량이 있고, 일부 관광지에서 레일바이크, 꽃자왈 관람열차 등이 운행중임

#### 2) 기본원칙

- 제주지역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삭도 및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을때는 경관심의 통해 부작용과 경관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것임

#### 3) 경관관리방안

- 삭도 및 제도 건설이 검토될 때 경관적인 검토, 생태적인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제주지역에 적합한 별도의 삭도 및 제도건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6.6.5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시설물

####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환경수도 등과 관련하여 전기차 등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육상, 해상에 계획되고 건설되고 있지만, 경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것들과, 향후 해상풍력발전기도 제주의 해안경관 훼손이 불가피할 것임

#### 2) 기본원칙

- 송전탑은 점진적으로 지중화하도록
- 풍력발전기는 세계자연유산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하도록 함(예를 들어 10km 이상 이격)
- 해상풍력탑은 해안선에서 최대한 이격하도록 함

### 3) 경관관리방안

- 기존 경관심의 대상인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은 경관심의를 유지하도록 함
- 주요도로변(해안일주도로) 전주는 지중화사업을 추진
- 풍력발전은 육상·해상 모두 경관심의를 통해서 입지하도록 함

## 6.7 경관요소별 계획

### 6.7.1 주택

#### 1) 주거지 경관 관리유형

##### (1) 제주도 주거지 경관의 특성

- 도시지역 주거지는 크게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로 볼 수 있으며, 도시지역 주택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기존시가지 상업지역 인근의 높은 지가로 재건축·재개발이 미미함
- 기존시가지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해안변, 녹지지역과 같은 도시외곽지에도 무질서한 고층건축물이 난립하고 나홀로 아파트의 등장으로 부조화한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
- 경관보호를 위한 제어요소가 도입되지 않고 개발되는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의 획일적 인공경관의 제주 고유의 정체성 상실
- 구시가지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제주도 고유의 스케일과 지적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
- 해안마을, 중산간마을의 취락지역은 신규 상업, 숙박시설 등의 유입으로 기존 취락지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음

##### (2) 관리유형의 구분과 특징

- 주거지 유형은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농어촌취락, 읍면시가지로 구분

주거지 유형	관리유형	지역구분
기존시가지	정비, 보전, 관리	구도심 공동주택단지, 저층밀집지역
신시가지	형성	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저층주택단지
농어촌취락	보전, 관리	자연취락지역
읍면시가지	형성, 관리	비도시지역읍면중심지

#### 2) 기본방향

주거지 유형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전체 방향	건축물의 색채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색채개선사업』의 기준에 따름
기존시가지	철거중심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재정착을 돕는 현지개량식 정비를 통하여 골목을 살리는 가구단위 경관관리계획
신시가지	오름, 산, 해안선 등 주변의 자연경관요소를 공공재로서 존중하는 자연순응형 주택단지의 형성
농어촌취락	제주도 고유의 문화경관자원과 마을별 향토경관자원을 보전하는 경관관리계획
읍면시가지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을공동체 강화를 유도하는 경관관리계획

#### 3) 세부지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류를 따름

- 지정규모 범위 내 합필에 의한 신축일 경우도 저층부의 매스를 분절하여 제주도 고유의 스케일을 유지
- 주변지역 지붕의 경사여부, 경사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지붕색
  - 평지붕의 경우 가급적 옥상녹화를 통해 친환경마을형성에 일조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되 주변에 부조화되는 서양식 형태 도입 지양
- 인접필지 주택의 평균 층수 및 규모에 비해 대형화되는 경우 시각적 완화를 돕는 재료와 색채선정으로 돌출경관 형성을 지양
- 증개축시 건물 전·후·측면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재료 및 색상 사용
- 전통가옥의 채 나눔배치 및 취락구조 스케일 준수를 권장하여 문화경관 지속
- 증개축시 돌담, 울레훼손을 최소화하여 연속성, 일체성 유지(경관직불제 도입)
- 증개축시 건물 전·후·측면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재료 및 색상 사용
- 외벽의 색상은 주변 시설경관의 기존색조(특히 오래된 창고색) 및 유사색 적용
- 인접필지의 주택의 평균 층수 및 규모에 비해 대형화되는 경우 시각적 완화를 돕는 재료와 색채선정으로 돌출경관 형성을 지양함
- 증개축시 건물 전·후·측면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재료 및 색상 사용
- 취락구조 개선사업마을의 모호한 도회지형태 주택양식 도입지양
- 점포주택의 저층외관은 상층부 외관의 질감, 색상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계획하여 이질적, 상업적 형태 남용에 의한 경관악화 방지(점포주택의 저층부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건축심의 대상이 됨)
- 담장 및 대문의 높이가 주변과 현저하게 불일치하거나,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 사용자제
- 인접건물 지붕의 경사여부, 경사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를 통해 생태·친환경마을형성에 일조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함
- 좌향, 조망거리기준 등은 공통지침 및 단위별 일반지침 참조
- 1동의 길이는, 건축심의기준에 근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6호 연립이내, 4호 연립이내의 두단계로 제한하며 6호 연립 이상으로 건축시 2층이하 저층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중간 보행통로 설치
- 발코니, 옥탑 등 설치시 과도한 형태, 색채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저층 소규모 주택군을 배경으로 부피감, 존재감을 최소화

표 6-12 주거지 유형별 주택 종류

주택 종류		기존시가지	신시가지	농어촌취락	읍면시가지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
	다중주택	○	○		
	다가구주택	○	○	○	○
	공관	○	○		
공동주택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	○
	기숙사	○	○		

주1)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주2)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 6.7.2 공공건축물

### 1) 기본방향

-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창의적 디자인
- 도민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 보행권을 강화하고 보행경관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 제주도 전통 민가형식을 반영한 소규모 공공시설 계획
- 규모는 3층 이하로 하되, 3층을 초과하는 경우(건축설계규모 당선작은 제외)는 경관위원회 심의시 계획서 제출<sup>2)</sup>

### 2) 범위 및 수준

분류		세부지침					일반 지침	지침 외
		배치 입지	규모	저층부 용도	외부 공개 공간	실내 공개 공간	재료 색채	외관
커뮤니티 관련시설	주민센터, 복지회관, 정보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아동센터, 보호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자활센터)	○	○	○	○	○	△	×
공공업무 관련시설	자치센터, 지구대, 우체국, 소방서, 파출소, 보건소, 병원, 법원, 의회, 시청, 도청, 전화국,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세무서, 버스터미널 등	-	-	-	○	-	△	×
교육 관련시설	사립·병립·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센터 등	○	○	○	○	○	△	×
기타시설	주차장, 시민운동장, 마을운동장, 체육관 및 체육센터,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문화원, 도서관, 학습센터, 문화센터 등	○	○	-	-	-	○	×

주1) ○ : 준수, △ : 권장, - :

주2)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의 공공건축 세부시설 항목을 참조

### 3) 지침의 방향

#### (1) 커뮤니티 관련시설

- 관습적 디자인, 과시적 디자인을 지양
- 마을 기존 팽나무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강화를 돕는 개방된 외부공간 설치 권장
- 야자수종 식재 금지

#### (2) 공공업무 관련시설

- 획일적, 직설적, 권위적 디자인을 금지
- 상징성 위주의 외관계획을 지양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간계획 유도

2)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관련문서 : 도 건축지적과-19304(2010.12.15))에 의함

7. 공공건축물(커뮤니티관련시설, 공공업무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로 3층을 초과하는 경우(단, 건축설계규모를 통한 당선작은 제외한다)

(적용기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관심의

- 증축(별동의 건축 포함), 개축, 대수선 등은 심의 제외

\* 공공건축물

- 커뮤니티관련시설 : 주민센터, 복지회관, 정보센터 등

- 공공업무관련시설 : 우체국, 전화국, 소방서, 파출소, 보건소 등

- 교육관련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 (3) 교육 관련시설

- 지역공동시설로의 역할 확장
-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역과의 경계부 디자인은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의 통합설계 및 발주

### (4) 기타시설

- 대규모 주차장의 연속적 불투수 포장면은 금지하고, 친환경 주차장으로 계획
-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재료를 권장
- 시설물과 포장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고려
- 재활용 재료사용을 통한 교육적 효과 높임

## 4) 세부지침

### (1) 커뮤니티 관련시설

배치·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주도 전통가옥의 별동배치를 권장하며 특히 ground level의 매스는 지형에 순응하며 분절</li><li>• 기존 향토경관(못, 팥나무)등과 외부공간을 연계</li><li>• 주민센터 계획시 인근 공공건축물의 유사 프로그램과 중복금지</li></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층 이하(3층 이상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시 계획서 제출)</li><li>• 1층 접도 길이는 건축심의기준근거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길이의 일정비율 미만</li></ul>
저층부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문객 지원시설(마을안내 및 체류), 장애인 커뮤니티 시설, 실내 운동시설, 공공목욕시설 등 특정 용도</li></ul>
공공 공간	외부 공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4시간 개방되는 보행로 성격의 실내형 공개공간의 부분적 설치를 권장</li><li>• 마을 전체의 거실이자 공원과 같은 다목적 용도</li></ul>
	실내 공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접 공개공지와의 통합적 사용을 유도</li><li>• 대지 관통 보행로를 설치하여 인접시설 및 인근 녹지등으로 연계</li></ul>

### (2) 공공업무 관련시설

배치·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면 진입부 옥외주차장 설치 금지(소방서 제외)</li><li>• 우체국, 보건소의 진입부 공지는 지역 소공원으로 계획</li></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층이하(3층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시 계획서 제출)</li></ul>
저층부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설별 특수업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우선 확보하되, 최소한의 주민접촉을 두어 직설적인 업무중심의 외관을 완화</li></ul>
공공 공간	외부 공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상근무를 위하여 상시 활용되는 1층 공간에 인접하여, 보행자들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공중화장실 등)을 설치</li></ul>
	실내 공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접 공개공지와의 통합적 사용을 유도</li><li>• 조경면적 극대화(건축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으로 제한)</li></ul>

### (3) 교육 관련시설

배치·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설의 신축, 재축보다, 증개축지침우선</li> <li>• 장방형교사+전면운동장의 전형적 배치를 탈피하는 증축</li> </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이하(3층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시 계획서 제출)</li> </ul>
저층부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보호구역은 보도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방호 울타리 등의 디자인 및 주변 조경, 공공시설물을 통합설계</li> <li>• 학교대지와 보행가로의 경계부는 학교숲이나 완충녹지등으로 계획, 담장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시 돌담설치 권장</li> </ul>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 내 주민이용 복합시설 증축을 허용하되 통학동선과 주민동선 분리</li> </ul>

#### (4) 기타시설

배치·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 노외주차장의 경우 간선도로 이면부에서 진입하는 소규모 주차장을 활성화</li> <li>•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진입부 전면주차장 설치 금지</li> <li>• 보행통로확보, 조명, 그늘식재등 통합설치</li> </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를 권장하며, 합필시 최대가능면적을 건축심의기준에 근거하여 제한</li> </ul>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경계부 및 주차장내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차폐도 및 쾌적성 증가, 복사열저감, 투수면적 확보</li> <li>• 주차선 표시는 도장 외에 차도용 블록재 사용 등 다양화</li> <li>• 차량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 등을 재료의 패턴으로 구분</li> </ul>

### 6.7.3 산업 및 저장시설

#### 1) 기본방향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순응적 디자인
- 제주도민의 생업활동을 고려한 합리적인 디자인
- 제주도의 공간과 스케일을 고려한 디자인

#### 2) 범위 및 수준

분류		세부지침				
		배치·입지·지형	규모	외부공간	외관	재료·색채
생산·산업시설	양식장·어업장	○	○	○	○	○
	비닐하우스	○	○	○	○	—
	목장·과수원	○	○	○	○	○
저장시설	창고	○	○	○	○	○
	대형물류시설	○	○	○	—	○

#### 3) 지침방향

생산·산업시설	양식장·어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방향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배치</li> <li>• 외피와 설비시설의 시각적요소를 고려한 재료, 색 선정</li> <li>• 환경적 측면에서의 디자인</li> <li>• 고유의 해안경관을 해치는 이질적 분위기 연출 지양</li> </ul>
	비닐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오름 방향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배치</li> <li>• 외피와 설비시설의 시각적요소를 고려한 재료·색 선정</li> <li>• 환경적 측면에서의 디자인</li> <li>• 기존 지형의 보존, 절·성토 최소화</li> </ul>
	목장·과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간 경관과 해안경관을 고려한 과도한 규모지양</li> <li>• 기존 지형의 보존, 절·성토 최소화</li> </ul>
저장시설	창고·대형물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상황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 선정</li> <li>• 주위경관과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 제안</li> <li>• 절·성토 최소화</li> </ul>

#### 4) 유형별 세부지침

구분	양식장·어업장	비닐하우스	목장·과수원	창고·대형물류시설
배치 · 입지 ·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형의 레벨을 이용한 배치권장 (지형을 이용한 인공대지화, 지중화 권장)</li> <li>주요 해안도로변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오름경관을 고려한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산간 경관과 해안경관을 고려한 형태분절 배치</li> <li>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자연지형을 이용한 디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지형보존·절·성토 최소화하여 배치</li> <li>해안·중산간·오름을 고려한 배치</li> <li>형태분절배치, 주요 조망대상 개방지수 확보</li> </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규모지양</li> </ul>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식장 담장설치와 담장에서 지정거리 이격으로 경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에서부터 지정거리 이격하여 경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에서 지정거리 이격, 수목 식재 등으로 경관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능한 조경면적 우선 확보</li> <li>공공접근성을 고려한 외부공간섀터 설치</li> </ul>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식장 디자인으로 자연재료 권장 (예: 이중외피 목재루버)</li> <li>형태적으로 자연적인 형상이나 주변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적 효과 연출</li> <li>경관 저해요소인 양식장 설비시설은 일정거리 이격하거나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차폐함 (지형을 이용한 외관 및 공간설계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적으로 자연적인 형상이나 주변환경과 조화된 시각적 효과 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적으로 자연적인 형상이나 주변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적 효과 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적으로 자연적인 형상이나 주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적 효과를 연출</li> <li>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외관 및 공간설계 권장</li> </ul>
재료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색을 원칙으로 함</li> <li>슈퍼그래픽 지양, 자연재료·색채 사용 권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크리트사용 지양·자연재료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슈퍼그래픽 지양, 자연재료·색채 사용 권장</li> <li>대규모 부속 주차장의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 권장</li> </ul>

#### 6.7.4 관광시설

##### 1) 기본방향

- 제주도의 공간과 스케일을 고려한 디자인
- 지역문화와 관광시설의 병행관리를 위한 통합 디자인 및 행정관리기구 정비
- 창의적 디자인 지향
- 제주 전통민가 형식의 디자인, 기존 전통가옥의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 공공성 확보를 고려한 건축·조경·공공분야의 연계 디자인 프로그램 구축

##### 2) 관광시설 유형별지침의 방향

###### (1) 지침의 범위 및 수준

분류		세부지침					
		배치·입지	규모	저층부 용도	외부공간	외관	재료·색채
숙박 시설	호텔·모텔	○	○	-	○	○	△
	펜션						
	민박						
관광 휴게 시설	유원지·놀이공원	○	○	-	○	○	△
	해수욕장 부대시설						
	휴게소						

주1) ○ : 준수, △ : 권장, - :

### 3) 지침방향

숙 박 시 설	호텔·모텔 ·콘도미니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형을 이용한 설계</li> <li>창의적 디자인 지향</li> <li>해안·중산간 경관을 향한 개방감 확보</li> </ul>
	펜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를 위한 건축물 저층부의 개방도 높임</li> <li>주요 경관자원 보전 및 난개발 지양</li> </ul>
	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자수종 식재 지양, 제주 고유수종 권장</li> <li>부속주차장 친환경 투수포장</li> <li>제주지역 재료사용</li> </ul>
관 광 휴 게 시 설	유원지·놀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 위주의 시설배치, 공간구성</li> <li>보행자를 위한 저층부의 개방도 높임</li> <li>창의적 디자인 지향</li> </ul>
	해수욕장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경관대상 개방지수 확보</li> <li>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통합서비스시설 기능 지향</li> </ul>
	휴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재료·색 선정</li> <li>야자수종 식재 지양, 제주 고유수종 권장</li> <li>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통합 서비스시설 기능 지향</li> </ul>

### 4) 세부지침

#### 가. 숙박시설의 분류

구분		호텔	휴양 펜션	민박
관련법규		건축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시설 규모	객실수	-	10실 이하	7실 이하
	층수	-	2층 이하	-
	객실 면적	-	25~100㎡	-
	자연 체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농장 : 660㎡이상</li> <li>체험목장 : 10,000㎡이상</li> </ul>	-
	부대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층 이상 (어린이 놀이터, 간이 골프연습장, 게이트 볼장, 풀장, 바비큐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사시설</li> </ul>
기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에 적합한 시설이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li> <li>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li> <li>외국어 안내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li> <li>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li> <li>외국어 안내표기</li> </ul>

## 나.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

배치 ·입지·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 동선을 우선한 배치</li> <li>절·성토 최소화 자연지형을 이용한 디자인</li> <li>저층부 등 각 층 매스는 지형에 순응하여 분절 권장, 필로티 설치</li> <li>해안·중산간 경관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개방지수 기준 적용</li> <li>조망대상 방향에서 건축물 정면으로 개방지수 확보와 함께 특히 보행자 수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하부의 필로티 설치 등으로 건축물 저층부의 개방도를 높임</li> <li>제주도의 스케일을 고려한 디자인</li> </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도한 규모지양</li> </ul>
외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 위주의 공간구성</li> <li>도로나 해안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공공접근성을 강조한 외부공간선택터 설치)</li> <li>부속주차장 친환경 투수포장</li> <li>공공이용의 경관공지확보유도</li> </ul>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디자인 지향</li> <li>형태분절, 일부 피로티 처리 유도, 제주 고유의 자연재료 사용권장</li> </ul>
조경 ·재료·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고유의 재료사용권장</li> <li>야자수종 식재 금지, 제주고유수종 식재</li> <li>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 사용(공공디자인 색 지침 참조)</li> <li>가능한 조경면적 우선확보</li> </ul>

## 6.7.5 도로

### 1) 개요

- 기본적으로 『제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을 따르도록 함

### 2) 대상 및 범위

분류		세부지침					일반 지침
		설치	시설·배치	재질	식재	패턴·색채	
도로	일주도로	○	○	○	-	-	○
	중산간도로						
	시가지도로						
	그 외 도로						
자전거도로		-	-	○	○	○	○
주요 진입도로		-	-	-	-	-	○
환상교차로		-	-	-	-	-	○

### 3) 기본방향

- 단순한 기능적 요소가 아닌 다양한 활동의 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함

도로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하여 보행권 회복</li> <li>•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채 및 패턴, 조명을 차별하게 조성</li> <li>• 보행가로의 평탄성과 연속성을 강화</li> <li>• 도시의 주요 문화, 녹지, 수체계 축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보행가로를 조성</li> </ul>
	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li> <li>• 자연경관·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도로 디자인</li> </ul>
자전거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와 분리된 독립된 자전거 도로 디자인</li> <li>• 안전시설물 설치와 식별성이 높은 디자인</li> </ul>
주요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자동차 속도저감</li> <li>• 마을의 특성(해안, 중산간)을 살린 디자인</li> </ul>
환상교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고유의 재료·수종</li> <li>• 환상로 중앙 녹지화 디자인</li> <li>• 건축·조경·공공디자인 통합관리</li> </ul>

#### 4) 유형별 지침의 방향

##### (1) 도로

##### 가. 보도

##### ① 적용대상

- 일반도로의 보도를 대상으로 함

##### ② 일반지침

- 유효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권 회복
- 도시의 주요 문화, 녹지, 수체계 축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보행가로 조성
-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채 및 패턴, 조명을 차별하게 조성
- 보행 가로의 평탄성과 연속성 강화
- 전면 공지와 보도의 단차 최소화

##### ③ 설치

- 기초를 철저히 다지고, 통행량이 많은 가로의 경우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내구성과 평탄성을 높임
- 교통약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등의 턱을 낮춤
- 가변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는 방안의 검토 권장
- 보도폭이 충분한 경우, 투수 면적을 늘리고 비점 오염 물질의 저감을 유도하도록 가로녹지대 내 자연 배수로 설치 권장
- 보도의 가로수 식생을 고려하여 보도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 ④ 시설·배치

- 시설물은 시설물 설치 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함
- 통행 구역 내 고정시설물 설치 금지. 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시설물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의 시설물은 주요 정거장과 대중교통 결절점, 건물 출입구 부분과 보행가도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치 가능
- 육교나 지하도 등 입체 횡단 시설 설치 지양.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행할 수 있는 최소 보도폭 확보

#### ⑤ 재질

-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되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함
-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 금지
- 도로폭이 충분한 보행 가로에서 불투성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가로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투수 면적을 높임
- 도심 : 투수블록(인조화강석)
- 중산간/해안지역 : 황토포장, 투수블록
- 특화지역(주요관광지 등) : 제주석(현무암)

### 나. 차도

#### ① 적용대상

- 일반 도로의 차도를 대상으로 함

#### ② 일반지침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노선을 곡선화하거나 굴절시키는 등으로 차량 감속 유도
- 기본적으로 도로 확폭 및 확포장 제한
-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가로시설물 설치 금지
- 계획된 주행 속도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 중심 차도와 교통약자 보호 구역으로 구별하되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환경 조성
-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평탄한 노면 조성
-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는 차량 감속을 위한 과속 방지 시설 및 횡단보도의 설치 권장
-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표면 배수의 집수와 비점 오염 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mounding)과 자연 배수로 조성 권장

#### ③ 재질

-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차도의 주 재질과 구별되는 재료의 사용 권장
- 포장의 요철이 안전한 보행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는 인접 보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높일 것을 권장

## (2) 자전거도로

### ① 적용대상

-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자전거 주행로를 대상으로 함

### ② 일반지침

-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금지 (보도 최소폭 : 1.5m, 자전거도로 최소폭 : 1.1m, 양방향 1.5m 이상 확보)
- 제주도 전체의 자전거도로 표시방안을 통일
- 차량 동선, 보행동선과 분리하고 동선 마찰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도모
- 자전거도로 상 돌출 시설물의 설치 금지

### ③ 재질

-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의 주 재질을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 권장
- 패턴 및 색채
- 포장면에 자전거 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
-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 도입
- 단색으로 계획하되,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원색 사용 지양

## (3) 주요 진입도로 (시가지 진입로)

### ① 적용대상

- 해안·중산간 마을 진입로와 주요 관통도로 도시화된 지역의 주요 진입로를 대상으로 함

### ② 일반지침

- 주요 진입도로변 조망대상 확보
-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녹도 계획
- 주요 진입도로변(시가지 진입) 경관계획 시 과도한 상징 개념 지양
- 주요 진입도로변 경관요소(한라산·오름·해안선)를 고려한 위치선정
- 일률적인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보다 새로운 건축유형의 개발과 진입가로변 프로그램의 재구성·3차원 공간 조직형성에 유의

## (4) 환상교차로

### ① 적용대상

- 도시화된 지역의 환상교차로를 대상으로 함

## ② 일반지침

- 환상교차로 중앙부분의 녹지화 유도
- 건축·조경·공공디자인 통합관리
- 시야 가리는 과도한 조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 6.7.6 도시시설물

#### 1) 기본방향

- 창의적이고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간결하고 배경적인 디자인 권장
- 통합적인 디자인관리기구 시스템 확보
- 유니버설 디자인 및 장애 없는 디자인
-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을 반영하여 과도한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를 사용함
- 적절한 표준화를 통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

#### 2) 대상 및 범위

분류		세부지침					일반지침
		재질	색채	그래픽	형태	설치	
도로 시설물	교량	○	○	○	○	○	-
	입체 교차로						
	고가차도						
도로 부속 시설물	보도육교	○	○	○	○	○	-
	석축 및 옹벽						
	방음벽						
	중앙 분리대						
	방호 울타리						
기타 구조물	송전탑	○	○	○	○	○	-
	풍력 발전탑						
	방파제						
	농업용 배수지						

#### 3) 유형별 지침의 방향

도로 시설물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시적·획일적 디자인 지양</li> <li>• 자연지형을 이용한 디자인</li> </ul>
	입체교차로	
	고가차로	
도로 부속 시설물	보도육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디자인 권장</li> <li>• 기능 위주의 간결한 디자인</li> <li>• 획일적인 기성품 지향</li> <li>• 지형변화 최소화</li> </ul>
	석축 및 옹벽	
	방음벽	
	중앙 분리대	
	방호 울타리	

#### 4) 항목별 디자인 지침

##### (1) 도로시설물

###### 가. 교량

- 교량의 규모는 교량이 위치하는 배경의 혼잡도를 변수로 하여 제한
- 교량의 형태에서는 기능적, 구조적 요소를 제외한 장식적, 상징적 요소의 사용을 지양
- 재료(화강석, 벽돌, 석재타일, 제주돌)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
- 교량의 상부에 기능과 무관한 장식 설치 금지
- 길이가 짧은 교량은 되도록 교각이 없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 교량에 속한 시설물(가로등, 펜스, 보도 등)은 대상별 계획을 따름
- 제주다운 이미지를 가진 조형물(돌하르방 등)의 변형 디자인 지양
- 주변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과 재질, 색채, 형태가 연계를 이루도록 함

###### 나. 입체 교차로·고가차도

- 기본적으로 보행자 우선한 동선체계를 형성하고 입체 교차로의 설치를 제한
- 통합디자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축
- 주요 교차로는 야간시에 밝은 야간 조명을 연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구조 권장
- 입체 교차로·고가차도 전체의 주요 구조물과 디테일은 형태상 일관성을 갖도록 함

##### (2) 도로 부속시설물

###### 가. 보도육교

- 현재 제주도 내에는 보도육교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보도육교 설치를 금지
- 보행자 우선한 동선체계를 형성하도록 함

###### 나. 석축 및 옹벽

- 지형변화를 최소화, 석축 및 옹벽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 경사의 사면으로 조성하여 녹화하는 것을 권장
- 옹벽면의 재료는 양질의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재료 자체의 미를 드러내도록 함
-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 금지

###### 다. 방음벽

- 주변 구조물에 조화되도록 연속성 있는 통합디자인 적용
- 가능한 경우 방음림 조성을 권장
- 여러 재료의 혼용과 과장된 패턴 적용 지양

#### 라. 중앙 분리대

- 일관된 통합적 디자인의 구축·관리와 정비 권장
-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역할을 부여하고 간결한 디자인과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러 재료의 혼용을 금지
- 인공구조물보다 자연녹지 분리대를 우선함
- 마을입구의 소규모 중앙분리대는 가급적 상징수목을 도입하여 마을의 정자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마. 방호 울타리

- 일관된 통합적 디자인 구축·관리와 정비 권장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합성 테크제의 사용과 판상 구조 지양
- 그래픽 요소의 사용을 지양하고 슈퍼그래픽을 금지
- 획일적 기성품 설치 지양

### (3) 기타 구조물

#### 가. 송전탑

- 송전탑의 지중매설을 권장
- 송전탑의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주변 지형과 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 유도
- 가능한 한 등고선의 대각선방향으로 입지
- 철탁의 기단부는 키가 작은 수목들로 식재하여 차폐

#### 나. 풍력 발전탑

- 2012년 9월 기준 약 107MW 설비용량이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제주에 건설되거나 준비 중인 육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2,000MW의 전력생산 예상
- 풍력발전시설 설치시 습지·조류보호구역·자연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문화유적 등 보호대상이나 구역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에 설치를 기본원칙으로 함
- 풍력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환경과 경관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
- 풍력 발전탑 설치시 대규모 선도사업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도 경관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함

표 6-13 제주지역 풍력발전 구축 설비 용량

구분		설비용량(MW)	준공년도	시행사	비고
현재 운영 중	행원풍력	10.55	2002	제주에너지공사	
	신창풍력 그린 빌리지	1.7	2006		
	한경풍력 1,2단계	21	2004 2007	남부발전	
	월정풍력	1.5	2006	에너지기술연구원	
	성산풍력	20	2010	남부발전	
	삼달풍력	33	2009	한신에너지	
	김녕풍력	1.5	2010		
	월령풍력	2	2011	STX	
	가시리풍력	15	2012	제주도청	
	소계	106.25			
인허가 심의 중		146	2013	SK, 한화, 포스코, 두산중공업, 김녕조합, 중부발전	2013년 1월 허가 예정
향후 건설 계획	육상풍력	47.75	-	-	
		누계 : 300	2015		
	해상풍력	30	2013	포스코파워, 두산중공업	제주도와 MOU 체결
		150	2015	한국전력기술	
		200	2017	한국남부발전, 삼성중공업	
		620	2020	제주에너지공사	
		300	2025		
		700	2030		
		누계 : 2,000	203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2012.11

#### 다. 방파제

- 방파제 설치시 기능위주의 단순설치를 지양하고 해안선 경관 보호차원에서 위치 및 규모를 신중하게 고려
- 원칙적으로 그래픽 요소 및 슈퍼그래픽을 이용한 경관디자인을 지양
- 콘크리트 등 기성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천연재료 병용권장
- 방파제 설치로 인한 해안 생태환경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방파제 설치 시 반영
- 항만법이나 어항법을 기본으로 한 방파제 설치계획시 해안선 경관차원에서 사전 협의 체제를 의무화
- 해당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 시 경관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함

#### 라. 농업용 배수지

- 원칙적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래픽 및 슈퍼그래픽을 이용한 경관디자인을 지양하고 외부에 제주고유의 천연재료병용하여 단순하고 배경적인 디자인을 권장

- 관련법을 기본으로 한 농업용 배수지(물저장 탱크) 설치계획시 경관차원에서 사전협의체제를 의무화하여 단순기능위주의 설치를 지양
- 해당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 시 경관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함

### 6.7.7 역사문화시설

#### 1)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준함
- 역사문화경관자원과 조화된 경관 형성
- 장기적 관점에서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 2) 지침의 방향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
- 일반적으로 문화역사 지구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양각을 적용하여 높이제한을 하고 있으나 중요도가 높은 문화역사 지구의 경우는 주변 건축물의 일정최고높이(예를 들면, 2층 이하)를 지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별도의 경관관리가 가능
-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한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해 역사경관 주변에 있는 건축물이 역사경관과 높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 역사경관이 왜소하게 보이지 않고, 주변 건축물들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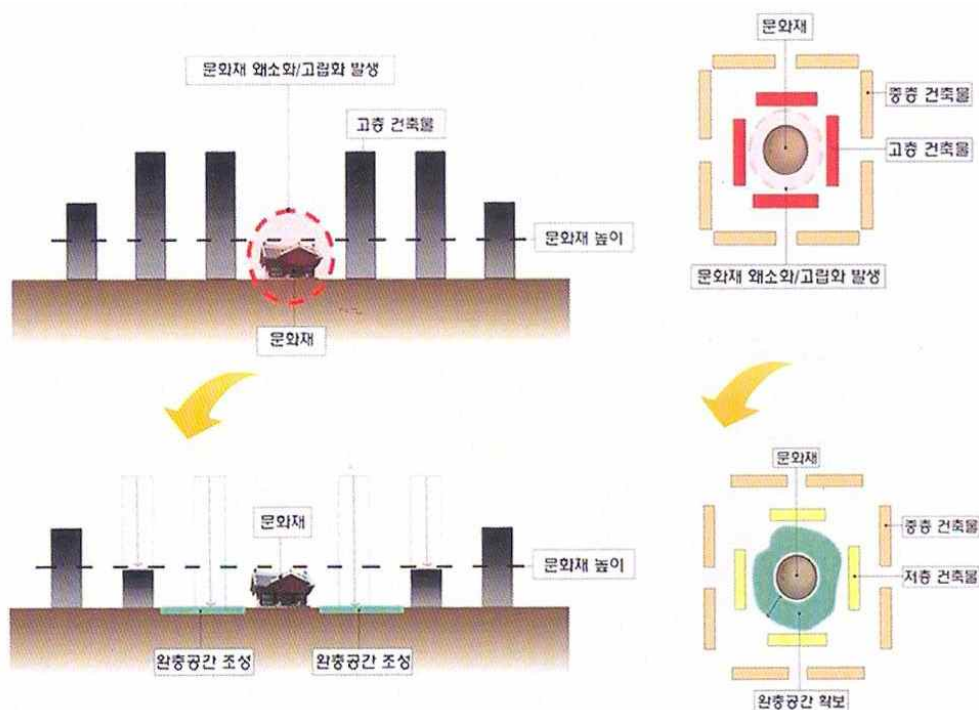


그림 6-127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및 고립화 방안

자료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개선연구, 2008

-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을 위해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또는 윤곽선을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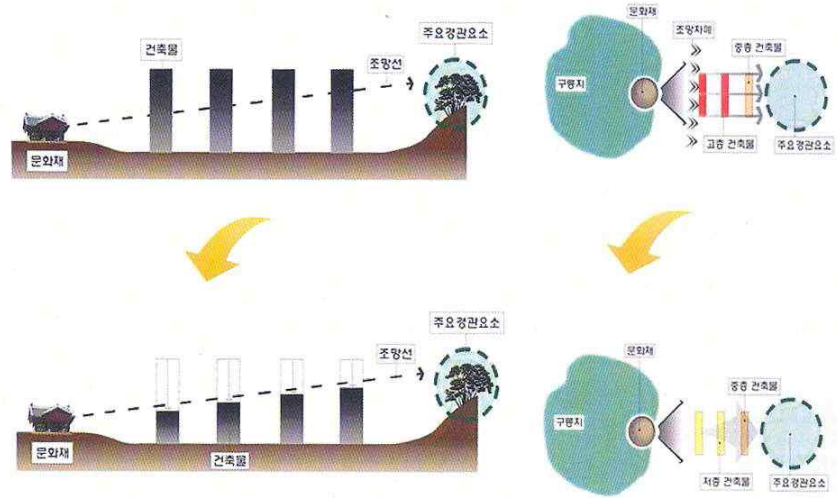


그림 6-128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보존

자료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개선연구, 2008

- 주변지역으로부터 보존대상의 역사경관으로 조망확보를 위해 역사경관의 형태가 스카이라인을 특정 시점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시점과 대상사이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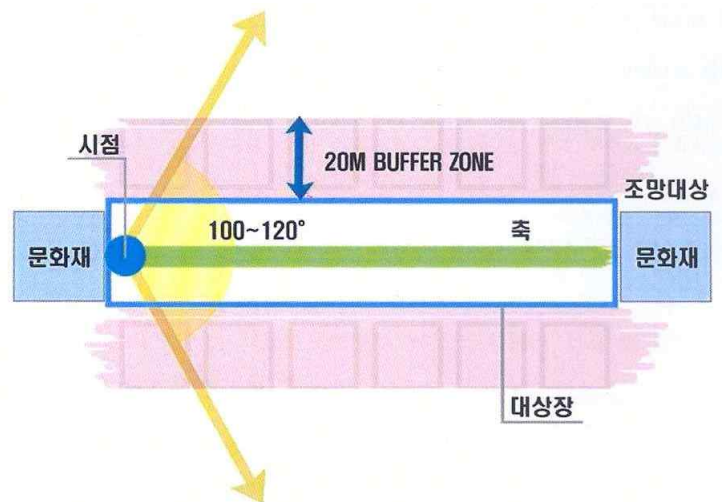


그림 6-129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서의 조망확보

자료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개선연구, 2008

- 주변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경관계획 및 예산 확보

## 6.7.8 가로수 및 가로녹지

### 1) 기본방향

- 가로수는 도시환경에 녹음을 제공하는 기능적 기여 뿐 아니라, 가로의 경관을 특정짓는 경관적 장치로 활용됨
- 가로녹지는 가로에 접하여 띠형태, 포켓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하층식물을 식재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 가로수 및 가로녹지 기본방향에 따름
- 입지환경에 적합한 특성있는 수종 및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선별, 구간별로 알맞은 가로수, 조경수 수종, 따뜻한 기후와 제주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수목 선정
- 가로녹지는 보도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띠녹지 조성시 녹지면의 높이는 보도면보다 낮게 설치

표 6-14 가로수 현황 (상위 10순위)

성상	수종	수량(본)	거리(km)	비율(%)
낙엽교목	왕벚나무	10,460	74.55	28.5
상록교목	후박나무	5,743	43.01	15.2
상록교목	해송	2,448	22.4	6.8
상록교목	구실잣밤나무	2,468	16.77	6.7
상록교목	먼나무	2,468	8.32	6.7
상록교목	담팔수	2,084	18.87	5.7
상록교목	녹나무	1,807	17.63	4.9
낙엽교목	산딸나무	1,079	4.8	2.9
낙엽교목	느릅나무	654	7.84	1.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및 가로화단 현황, 재구성, 2014

## 2) 유형별 지침의 방향

### (1) 가로수

#### 가. 가로수 선정의 기준

구분	고려사항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고유의 향토적(vernacular) 식물로 선정</li> <li>•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수종 선정</li> </ul>	
기능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고, 향, 기온, 바람 등의 기상현상을 고려한 수종</li> <li>• 대기오염에 강하고 대기정화효과가 있는 수종</li> <li>• 재배의 용이성, 수급의 용이성을 고려한 수종</li> <li>• 일정한 수형유지, 충분한 지하고 확보가 가능한 수종</li> </ul>	
심미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도시 또는 마을의 지역적 정서와 잘 어울리는 수종</li> <li>• 육지와외의 수종비교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종</li> <li>• 꽃과(또는)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li> <li>• 악취가 발생하거나 위해적인 요소가 없는 수종</li> </ul>	
대표 수종 예시	경관단위 ㉠	해당사항 없음
	경관단위 ㉡	해당사항 없음
	경관단위 ㉢	후박나무, 먼나무, 녹나무, 담팔수, 참식나무 등
	경관단위 ㉣	후박나무, 먼나무, 녹나무, 담팔수, 참식나무 등
	경관단위 ㉤	해당사항 없음

#### 나. 식재 및 관리 기본지침

- 기본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정) 2008-11-19 조례 제 420호 적용함
- 희귀식물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보호수를 지정 관리함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고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인 도심지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되, 도로시설물과 관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우선시 함
-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은 도 경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2) 가로녹지

### 가. 도심 시가화지역

#### ① 4차선 이상의 도로변 녹지

-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로녹지 조성
- 가로수의 식재간격은 기본적으로 6~8미터를 유지하되, 건축물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골목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
- 하층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띠녹지를 확보하고 그 폭은 최소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폭이 충분할 경우 2미터 내외를 확보하도록 권장

#### ② 교목형 가로수 배제 구간

- 대도시의 복잡한 구도심 등 보도의 폭이 좁아 교목 식재가 적절치 않은 경우, 띠 녹지만 조성하고 교목식재를 배제할 수 있음
- 띠 녹지에 식재되는 식물은 답압으로부터 관리가 용이한 수고 1미터 내외의 상록성 관목으로 식재함

#### ③ 보행자우선도로 적용 구간

- 보행자의 편의와 가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사행형 도로로 만들고 녹지포켓을 조성함
- 녹지 포켓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목 하부에 관목류와 초화류 식재
- 녹지 포켓의 폭이 충분할 경우, 녹지 안에 벤치 등 최소한의 휴식공간 설치 가능

### 나. 읍면의 중심가로지역

#### ① 중심가로녹지(2~4차선)

-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로녹지 조성가로수의 식재간격은 기본적으로 6~8미터를 유지하되, 건축물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골목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
- 하층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띠녹지를 확보하고 그 폭은 최소 0.8미터 이상으로 함

#### ② 이면가로(2차선)

-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 6~8미터의 가로수 식재
- 보도가 좁거나 인접 대지내 조경수목이 충분할 경우, 가로수 식재 배제 가능

#### 다. 비시가화지역의 간선도로 구간(주요간선도로)

##### ① 등간격의 가로수 식재 배제

- 등간격의 가로수는 제주도의 자연풍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배제함
- 도로변의 잔존 수림에 의해 자연스럽게 녹지가 인지될 수 있도록 배려
- 일부 필요 구간에 대해, 주변식생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경관 수림을 조성할 수 있음
- 중앙 분리 녹지대가 있는 경우 키 큰 교목의 열식보다는 참억새, 유채 등 제주의 풍경을 드러내는 키 낮은 식물 식재

##### ② 간선도로변 차폐 식재

- 간선도로변에서 풍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부분적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함
- 차폐식재 구간은 최소한으로 함
- 차폐식재용 수종은, 해당 구간의 식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주변 식생과 동일종 권장)

#### 라. 마을 앞 가로녹지

- 인공적·도시적 형태의 반복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기존 식재되어 있는 등간격의 도시형 가로수를 이식하여 마을의 정자목, 노거수들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농촌의 경관미가 부각되게 함
- 마을단위로 전설·유래가 담긴 수목이나 희소가치가 있고 운치있는 오래되고 큰나무, 희귀목을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함
- 지역적 특성과 반하는 이질적 수종(야자수 계열)의 식재는 원칙적으로 지양함

### 6.7.9 대지안의 조경

#### 1) 적용범위

- 대지안의 개별 조경행위가 도시전체의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별 대지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요소로 이해
  - 대도시 지역의 도시가로 중 주요 가로변 건축물
  - 공공 건축물 (도시지역, 마을단위 공공건축물)
  - 신규로 조성되는 주거단지(아파트단지)

#### 2) 기본방향

##### (1) 도심의 도시가로 중 주요 가로변 건축물

- 보도와 접한 공개공지는 당해 건축물이 아닌 공공보도의 영역으로 인식
- 공개공지 내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총량을 확보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접한 필지의 공개공지 등은 서로 통합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 (2) 공공 건축물 (도시지역, 마을단위 공공건축물)

### 가. 대규모 시설

-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적인 시설이므로 그에 부속된 조경공간의 기능은 소규모 공원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조경공간의 구성도 가급적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기능을 가져야 함
- 공간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로 조성함

### 나. 소규모 시설

- 마을단위의 공공건축물과 그에 부속된 조경공간은 반드시 마을의 전통적 경관과 상징성, 향토적 경관 질서 안에서 표현되어야 함
- 공공녹지공간의 기능은 마을 공공정원의 성격을 가짐

## (3) 신규로 조성되는 주거단지(아파트단지)

- 지역·주변과의 경관적 고려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
-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를 고려한 조경계획 수립
- 식물, 바닥포장, 건축마감재료 등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 6.7.10 도시공공오픈스페이스

### 1) 적용범위

- 공공의 공원, 녹지, 도심 소공원 등 도시경관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자연경관이 우세한 비도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음
  - 도시공원 :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 도심 소공원(쌈지공원)

### 2) 기본방향

#### (1) 도시공원

- 신규로 지정·조성되는 도시공원 및 기존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함
- 공원·녹지의 평면적 형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흔적들 (land prints, 地紋)을 존중하여 결정함
- 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함
- 경관적·생태적으로 이질적인 수목을 배제하고 제주의 풍경을 살리는 향토 수종을 사용함
- 빗물의 토양침투, 우수의 초기 저류기능을 위해 가급적 많은 수공간을 확보함

#### (2) 도심소공원(쌈지공원)

- 소공원은 도시 내 유휴공간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되는 것 의미
- 가로녹지가 협소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에 조성하여 가로경관의 질을 개선
- 가급적 가로에 면하는 형태로 조성
- 필지의 크기가 크지 않은 중소 가로에서는 이 소공원을 통해 보도와 이면도로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6.7.11 바닥포장

#### 1) 기본방향

##### (1) 재료 선정의 기준

- 재료의 물성을 통해 제주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제주의 현무암은 제주를 설명하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물성이며 가장 풍부한 자원임
- 제주의 향토성을 표현하는 지역재료의 사용
- 기본적인 지역재료 : 현무암, 화산쇄설물(송이), 제주흙
- 보조적인 지역재료 : 삼나무 간벌목(미끄럼방지 가공후 사용)
- 기본적인 대체재료 : 무채색계열의 블럭류, 제주의 향토색을 적용한 투수콘크리트 또는 소일콘크리트 계열

##### (2) 재료별 적용방안

자원요소	물성	형태적 변화		적용지침
제주돌 (현무암)	원시적 거침 단단함	원석 형태		광장일부에 장식적 요소로 활용
		판석 가공		가로 공공보도, 광장형 포장에 활용
		벽돌형 가공		반투수성, 보도포장, 공원포장에 활용
		사고석 가공		보차혼용도로, 보행통로 등에 활용
제주흙	어두움 부드러움 자연스러움	SOIL CONC		시멘트와 혼합하여 흙포장 형태로 활용
		흙포장		문화재지역, 공원도로, 사찰 등의 경내 활용
		흙벽돌		자전거도로, 공원산책로 용도로 활용
화산 쇄설물	어두움 화려함	쇄석가공		주차장, 산책로, 공원포장에 활용
		송이		주차장, 산책로, 공원포장에 활용
삼나무 간벌목	거침	데크형 가공		보도 및 공개공지 바닥마감에 활용 가능 빗물, 습기 등 미끄럼이 예상되는 곳에는 미끄럼방지 가공 후 제한적으로 사용
		분쇄목 가공		SOIL CONC와 혼합하여 사용

#### 2) 공간별 적용방향

##### (1) 도심 시가화지역

- 지역의 재료 사용.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디자인
-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 효율이 높은 재료와 시공 방법 적용
- 가로변 건축물 전면공지는 기본적으로 보도 포장 재료와 패턴을 연장하는 개념 적용

## (2) 읍면의 중심가로지역

- 지역의 재료를 사용.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디자인 지향
-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관리 효율이 높은 재료와 시공 방법 적용

## (3) 마을안길

- 주요 차량통로에 한해 견고한 포장소재 사용
- 포장소재는 향토재료를 혼합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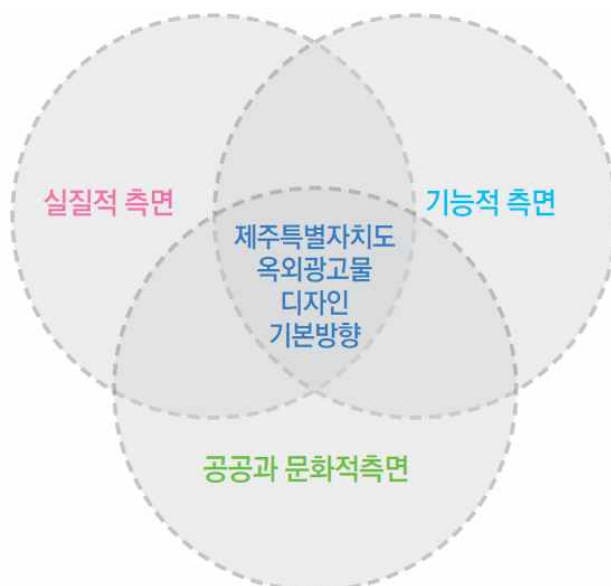
### 6.7.12 옥외광고물

#### 1) 개요

- 『제주 옥외광고물 문화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2) 기본방향

- 실질적 측면에서 가치추구
  - 디자인 요소 및 규제 최소화
  - 수량을 최소화하며 건물에 맞는 크기를 추구
  - 획일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치 추구
  - 간판의 기능인 정보전달이 잘되는 표준디자인 정립
  - 광고주, 도민, 관리행정이 상호 소통하는 체계구축
  - 지역 특성을 살린 간판범용의 픽토그램 활용
- 공공과 문화적측면에서의 가치 추구
  - 공적공간의 쾌적함과 문화 혹은 감성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의 형성
  - 장소의 특성화를 실현 가능하게하는 디자인



### 3) 10가지 기본원칙

- 업소당 간판 수량을 총 2개이내로 함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차등화
- 간판이 건물에서 점유하는 면적을 신조례대로 적용(면적대비 80%)
- 인접간판, 거리, 건물등 주변환경과 조화 되도록 함
-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하여 충분한 여백을 확보
- 판류형 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
- 업소의 성격과 상호에 어울리는 개성적 서체 사용을 권장
- 색채는 1~3가지 절제하여 사용하되 제주색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제주색> 활용을 권장
- 자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을 권장
- 안전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며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어야 함

### 4) 공통지침

#### (1) 정량적 요소 : 최소·조화·연립

- 정량적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유형, 수량, 크기, 위치, 조명, 색채 및 서체의 수량 등에 대한 최소한 제한을 통해 시범가로의 사업 확대를 도움
- 특히 유형별 수량과 크기(폰트포함), 위치는 보다 강화하도록 함
- 소재와 제작 방식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기존의 소재 와 친환경 소재, 신소재 등으로 대별하여 각 가로의 성격에 따라 주 소재를 한정
- 조명의 경우 전력효율성을 우선하고 경관의 우수성을 고려
- 관광지 및 상가밀집지역은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기준을 부분 허용



그림 6-130 최소·조화·연립의 예

#### (2) 정성적 요소 : 개별·개성·심볼

- 정성적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연성의 범위를 높여 open 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제안
- 색채 및 서체의 종류, 소재, 간판스타일, 픽토그램 등 정성적 부분에 대하여 시범가로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
- 색채의 경우 CMYK, RGB를 기준으로 하되, 그 지역이 속한 도시 기본계획 및 경관 계획을 우선하

여 적용하고, 그와 동일한 종류 및 유사한 계획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지의 가로 및 건축물의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 거리의 이미지 활성화를 위해 협의 하에 간판의 색채를 활성화의 요소로 조형적으로 사용. 이때는 배색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하되 대비되는 색이나 1차색으로 이루어진 배색은 금지



그림 6-131 개별·개성·심볼의 예

### (3) 형태와 크기

- 적절한 형태와 크기 형성하여 시각적 친근감 형성
- 개별적 업종의 개성을 표현한 흥미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제작

### (4) 색채

- 건물 및 주변시설물과 조화로운 색채 권장
- 채도가 높은 원색을 피하고 자료자체의 자연스러운 색상 사용권장

### (5) 재료

- 주변환경을 고려한 재료의 선택
- 유지관리 보수가 편리한 재료 선택
- 지역 및 업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재료 이용

### (6) 정보 표시

- 가독성과 명료성을 갖춘 아름다운 글꼴

### (7) 조명의 적정화

- 주변지역에 맞는 조명을 선택
- 간판의 특성에 맞는 조명방식을 선택

### (8) 관리 및 교체

- 업종의 변경, 상호의 변경 시 간판의 일부분만 교체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함
- 외장의 탈색, 파손으로 인해 미관을 해칠 경우 외관 정비와 함께 간판을 교체할수 있도록 함

### (9) 간판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확인
디자인 및 설계	1.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가	
	2. 건물의 외부마감재 색상과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3. 문자 표기내용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가	
	4. 문자 폭이나 자간을 강제로 늘이거나 줄여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5. 문자는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6. 주요 표기내용과 보조 표기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는가	
	7. 등록되지 않은 외국어상표가 한글병기 없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가	
	8. 한글병기 시 글자의 크기는 읽는데 무리가 없는가	
	9.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자나 그래픽을 담고 있지 않은가	
	10. 지나친 광고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11. 관련기관의 허가 및 신고가 되었는가	
제작	1. 간판의 재질이 주변 환경 및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가	
	2. 환경에 유해한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3. 기후 및 계절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질인가	
	4. 조명의 조도와 휘도가 과도하게 높아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지 않은가	
	5. 점멸하는 조명이 주변 부거환경 및 업무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6. 신호등, 교통안내표지 등과 같은 색을 사용하여 정보에 혼란을 주지는 않는가	
	7. 간판의 규격은 간판 유형별 기준에 부합하는가	
	8. 돌출간판의 경우 옆 건물의 간판과 맞닿아 표기면을 가리지 않는가	
	9. 간판의 수량은 조례기준에 부합하는가	
시공	1. 간판의 위치가 불명확하여 업소의 위치파악이 어렵지 않은가	
	2. 주변업소를 침범하거나 규정된 위치를 벗어나 설치되지 않는가	
	3. 건물 외벽의 강도는 확인되었는가? (노화, 균열, 파손, 변형 등)	
	4. 건물 외벽의 배선이 미관을 고려한 마감처리가 되었는가	
	5. 전기시설 부분에 빗물이 고여 누전의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6.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착물이나 표기물은 없는가	
	7. 간판의 설치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되었는가	
관리	1. 미점등조명이나 수명이 다한 조명은 없는가	
	2. 간판에 녹이 슬거나 건축물 벽면에 녹이 흘러내리는 부위는 없는가	
	3. 간판에 파손되거나 더러운 부분은 없는가	

표 6-15 간판디자인 체크리스트

### 5) 세부지침

#### (1) 색채

- 지역별 특징에 부합하는 색채 사용으로 활력과 개성을 살림
- 자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재료색을 그대로 드러 내도록 유도
- 건물 외장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선정
- 면적이 큰 간판의 경우 고채도의 원색에 가까운 색 사용 자제
- 대비가 강한 배색의 색채는 지양
- 상점 개성에 맞는 다채롭고 다양한 색채 사용
- 네온사인의 적절한 활용으로 야간에도 색채 유인성 높임을 권장
- 판류간판보다 심볼, Logo를 이용한 입체 간판 권장
- 특수간판 제작 시 업종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색채, 그리고 재료 등을 고려하도록 권장
- 제주 가이드라인의 210색을 지역별 주조색과 보조색의 배색 설정에 활용 (제주 색채가이드라인 참조)

구분		지침
도심지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온사인 지양,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명색 사용</li> <li>• 과도한 크기나 꾸밈으로 인한 색채의 시각적 자극 지양</li> <li>• 상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재질 혼합사용 권장</li> </ul>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분하고 안정적인 배색 유도</li> <li>• 과도한 크기나 꾸밈으로 인한 색채의 시각적 자극 지양</li> <li>•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색채 사용</li> </ul>
비도심지 중산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색채사용 유도</li> <li>• 저채도의 안정감 있는 색채 사용으로 시각적 자극 피함</li> <li>• 부드럽고 은은한 부분 조명색 사용 권장</li> <li>• 제주 돌, 삼나무 등 자연 소재 사용을 통한 자연색의 적절한 사용 권장</li> </ul>
사용부위 및 면적에 따른 색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채사용 부위의 색채구성의 변화감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li> <li>• 주조색 : 간판 전체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li> <li>• 보조색 : 간판 전체면적의 10~30%를 차지하는 색</li> <li>• 강조색 : 간판 전체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색</li> <li>• 도장이 아닌 재료색을 적극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음</li> </ul>

표 6-16 옥외광고물 색채 지침

## (2) 수량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1387호(2015.10.6 일부개정)의 제11조 일반적 표시방법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준용(창문 이용 광고물 포함)
- 상업지역 : 3개 이하, 상업지역 외 : 2개 이하 설치 가능

구분	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외
수량	3개 이하	2개 이하
1개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다만,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항 본문에 따른 간판의 총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건물을 한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 1.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제3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1의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미만의 가로형 또는 세로형 간판 1개 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로서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돌출간판 1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간판 4. 한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11조(일반적 표시방법)를 표로 정리

표 6-17 옥외광고물 수량 지침

## (2) 서체

### 가. 디자인적인 요소

- 여백
  - 간판디자인에서 시각적인 여유와 휴식을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여백이란 채워야 할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여백 그 자체로 실존적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 강조
  - 글자표현에 있어서의 강조하기는 문장이 아닌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비교, 축소, 확대, 반복, 열거, 점층, 점강 그리고 과장 등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 하는 방법. 대체로 글자의 크기 비교나 형태변화를 통해 강조를 피하고 있다.
- 대비
  - 대비는 상이함을 통해 대비되는 두 요소 모두의 시각적 에너지를 강화시켜 전체적 강조를 창조한다.
- 도형(점·선·면)
  - 점, 선, 면들은 단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함축하거나 공간을 대담하게 분할하거나 페이지에 동적 활력을 더 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 그래픽모티브
  - 그래픽모티브는 추상적 도형, 구두점, 기호나 심벌, 아이콘, 사물 등을 말한다. 활용은 독자의 계층에 따라 경험, 지식, 문화,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와 같은 구두점이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과 같은 수학 기호 그리고 별, 하트, 십자가 등은 이미 우리의 지각 세계에 공감각적 의미가 확립되어 있는 아이콘 들이다.

### 나. 간판 서체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건

- 주목성 혹은 가독성을 높이도록 한다.
- 제품으로 가공하기 쉬워야한다.
- 업소에 맞는 정보내용과 장소의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 다. 서체의 종류

고딕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b>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b> <b>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b>	HY중고딕 <b>제주고딕</b> <b>맑은 고딕</b>	
명조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제주명조 HY신명조 바탕	
손글씨체	<b>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b>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b>제주한라산</b> 나눔손글씨 붓 MD개성체	
전통 서체	<b>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b>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b>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b>	HY백송B 문체부 훈민정음체 HY백송B	
모던 스타일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Caslon 540 LT Std Aldus LT Std Bembo	
올드 스타일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Bookman olstyle Palatino LT Std Goudy Old Style	
스크립트 스타일	ABCDEFGHIJKLMNOPQRSTUVWXYZ <i>ABCDEFGHIJKLMNOPQRSTUVWXYZ</i> ABCDEFGHIJKLMNOPQRSTUVWXYZ	Alison's Hand Commercial Script Brandywine	
데코레이티브 스타일	ABCDEFGHIJKLMNOPQRSTUVWXYZ <b>ABCDEFGHIJKLMNOPQRSTUVWXYZ</b> <b>ABCDEFGHIJKLMNOPQRSTUVWXYZ</b>	Curly MT Flubber Canadian Participants	

### (3) 픽토그램

- 픽토그램의 개발은 아래 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염두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주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생활서비스	이발소, 미용실, 마사지, 목욕탕, 사우나, 세탁소, 사진관, 부동산, 피부샵
	소매업	슈퍼마켓, 청과물, 문구점, 철물점, 안경점, 서점, 건강식품판매점, 의료기기판매점, 명찰(마크)사
	오락/스포츠/취미	노래방, PC방, 당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게임놀이방
	음식점 및 기호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제과점, 떡집, 커피숍, 치킨집
	의류업	한복, 아동복, 양복, 교복점
	주류업	카페, 민속주점, 유흥주점
	의료업	종합병원, 한의원, 약국, 치과, 일반의원, 동물병원
	교육/문화	보습학원, 어학원, 피아노학원, 독서실, 미술학원
	숙박업	모텔, 여관, 일반호텔
	전문업	세무사, 법무사

- 픽토그램은 제주의 이미지 모티브를 반영하여 제작되어지며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종은 가독성을 높여 사용상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여 개발하고 기타 픽토그램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형식으로 제작되어진다.

#### (4) 조명

##### 가. 직접조명

- 직접조명은 간판의 상단이나 하단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간판을 비추는 방식으로 주로 1층에 외장 교체형으로 구성된 간판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쇼윈도까지 떨어지는 조명연출로 또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나. 간접조명

- 빛이 반사되어 간판을 비추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스틸소재의 채널형 간판에 주로 사용되며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다. 내부조명

- 간판내부에 광원이 설치되어 플렉스 간판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 라. 발광조명

- 발광체인 LED, 네온 등을 외부에 노출시켜 조명하는 방식으로 상업지역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조명 방식에 비해 조도가 높아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준다.

표 6-18 조명방식별 허용여부

	직접조명	간접조명	내부조명	발광조명
주거지역	허용	허용	허용	사용금지
상업지역	허용	허용	허용	허용

(5) 재료

	장점	단점
갈브철판 (galvanized st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면이 평탄하여 양호한 도장표면의 확보가 가능</li> <li>• 용접성, 가공성이 우수함</li> <li>• 얇은 철판(0.8~1.8m)으로 절단, 절곡이 용이함</li> <li>• 가격이 저렴하여 대형 채널 사인에 주로 사용</li> <li>• 형태 표현이 자유로워 세련된 감각과 개성 있는 간판을 만들기에 유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의 특성상 차가운 느낌이 남</li> <li>• 코팅을 하여 사용해야 함</li> </ul>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이 생기지 않음</li> <li>• 가공성이 우수함</li> <li>• 재질감이 좋으며 별도의 도장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면에 스크래치가 잘생김</li> <li>• 접합 작업시 숙련을 필요로 함</li> </ul>
알루미늄 (Alumin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벼워서 대형 입체 문자용으로 사용</li> <li>• 가격이 저렴</li> <li>• 시공성 우수</li> <li>• 산화에 견디는 힘이 강함</li> <li>• 고급스러운 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도가 떨어짐</li> </ul>
신주 (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란 금색으로 화려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li> <li>• 전통적 느낌을 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대형 간판에 부적합</li> </ul>

표 6-19 합성재료

	장점	단점
목재 (W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이 용이</li> <li>• 다양한 질감 및 무늬 결로 표현이 다양</li> <li>• 전통적 건물과 조화를 이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기변화에 따른 변형률이 높음</li> <li>• 가공이 용이하지 않음</li> <li>• 손상과 마모에 취약함</li> </ul>
석재 (st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감이 우수함</li> <li>• 고급스러움</li> <li>• 가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연출</li> <li>• 내구성이 높음</li> <li>• 자연친화적 소재 (불화성, 무독성, 저자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비가 다른 소재에 비해 높음</li> <li>• 재료의 가공이 용이하지 않음</li> <li>• 건물에 부착하기 어려움</li> </ul>

표 6-20 천연재료

	장점	단점
아크릴 (Acry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 자외선을 유리보다 잘 투과시킴</li> <li>• 내약품성, 전기전열성, 내수성이 양호</li> <li>• 유리 이상으로 투명</li> <li>• 성형가공도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에 약해 계절의 온도 차에 따라 휨 현상이 생길 수 있음</li> <li>• 크기(폭)가 제한적임</li> <li>• 마찰에 약함</li> <li>• 표면에 스크래치가 잘 생김</li> </ul>
유연성 원단 (Fl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 저렴함</li> <li>• 충격에 강함</li> <li>• 조도가 뛰어나 광고효과가 좋음</li> <li>• 장, 폭에 제한이 없어 대형 간판 제작가능</li> <li>• 곡면 간판에도 유연하게 적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친화적인 소재가 아님</li> <li>• 형태연출이 제한적으로 모양이 단조로움</li> </ul>
PC (Poly Carbon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 광택감, 성형성이 뛰어나</li> <li>•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li> <li>• 가공성이 우수</li> <li>• 제작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li> <li>• 사용 중 파손이 적다</li> <li>• 화재 방재성 우수</li> </ul>	-
WPC (Wood Polymer Compos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목재에 비해 습기와 수분에 강함</li> <li>• 목재와 플라스틱의 장점을 지님</li> <li>• 목재의 내구성, 내마모성이 좋음</li> </ul>	-
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속도가 빠름</li> <li>• 저전압, 저전류로 동작가능</li> <li>• 에너지 효율이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 비쌈</li> <li>• 휘도(밝기)에 한계가 있음</li> </ul>

표 6-21 합성재료

## (6) 비례

- 판류형 간판
  - 판류형 간판 - 당해업소 가로 범위의 80% 이내, 전용면(폭)의 80% 이내
  - 간판의 전체 비율이 100%일때 60% 비율의 글씨가 가장 가독성이 좋고 아름다운 간판이다.
- Bar형 간판
  - 당해업소 가로범위 모두 사용 가능, 글자 100%일때 세로 폭 30%를 넘지 말아야 함

## 6.7.13 가로시설물

### 1) 개요

- 가로시설물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2012)의 각 시설물별 디자인 세부지침에 준용한다.

### 2) 대상 및 범위

#### (1) 대상 시설물의 분류

- 제주도에 필요로 하는 가로시설물을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으로 재정립 한다.
  - 대분류 : 가로시설물 성격에 따라 7가지로 분류
  - 중분류 : 가로시설물 종류에 따라 25지로 분류
  - 소분류 : 가로시설물의 중요도 및 시각적채감도에 따른 분류
- 표준디자인 : 통합가로 형성을 위하여 제공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제작 / 설치하여야 하는 가로시설물

- 기본디자인 : 가로시설물의 특성상 한 가지 디자인으로 통일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시설물로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설물
- \* 단, 기본디자인으로 선정된 가로시설물은 기본방향에 따라 권역별(도심, 중산간, 해안) 색채 및 재질을 고려하여 제작 / 설치

표 6-22 가로시설물의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표준디자인	기본디자인
조명계시설물	가로등	—	○
	보행등	—	○
휴식계시설물	벤치	—	○
	그늘막	—	○
위생계시설물	휴지통	○	—
	클린하우스	—	○
교통계시설물	버스승차대(셸터)	○	—
	자전거보관대	○	—
	자전거안내표지판	—	○
	자전거 스테이션	—	○
안전계시설물	볼라드	○	—
	중앙분리대	○	—
	보호웬스	○	—
	무단횡단방지 웬스	○	—
	자전거안전웬스	○	—
	방음벽	—	○
	해안파제벽	—	○
	공사장가림막	—	○
기타시설물	관광안내소	—	○
	가로판매대	—	○
	주차부스	—	○
정보계시설물	벽보게시대	—	○
	관광안내판	—	○
	유도사인	○	—
	시설안내판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2012

- 항목별 가이드라인
  - 규격 및 형태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각 시설물의 규격 및 형태를 규정
  - 자재 및 재질 : 각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와 재질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 색상 및 마감 : 제주도의 통합가로환경을 위해 기본사항으로 규정
  -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일반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작/설치 방법을 별도 규정
  - 유지관리 유의점 : 각 관리부처에서 유지관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규정
  - 권역별 특이사항 : 도심, 중산간, 해안지역에 적합하도록 특이사항 규정

## (2) 권역구분

- 도심지역, 중산간지역, 해안지역

## 3) 기본방향

### (1) 기본계획



-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제주도의 다양하고 특이한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음
- 삼다란 제주도 에 많은 세 가지를 일컫는 표현으로 돌, 바람, 여자를 말함
- 삼무란 제주에 없는 세 가지를 일컫는 말로 도둑, 거지, 대문을 말함
- 삼려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민속 토착산업을 일컫기도 하고, 식용작물·수산·관광의 세 자원을 말하기도 하고 제주의 따뜻한 인심·아름다운 자연·특이한 산업 구조를 그렇게 부르기도 함

표 6-23 기본계획-삼다

三多(돌, 바람, 여자)	의미	해석	적용
	한라산의 화산활동에 의해 화산석(현무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돌들은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담을 세우는 등 제주를 개척하는데 사용	현무암 사용 (판석, 종석, 원석)	
	돌담은 언제든지 허물 수 있고,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통과시킴으로 자연에 맞서지 않고 순응하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의지가 담겨 있음	바람(타공판) 분해조립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어로 작업중에 조난이나 사고로 인해 여자가 인구통계상 많았으며, 여자들도 해녀가 되어 바다로 나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생활환경이 만들어졌음	물허벅(물독) 태왁, 망사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2012

표 6-24 기본계획-삼무

三無(정낭)	의미	해석	적용
	집주인이 외부로 나갈 때 출타시간의 정도에 따라 정낭개수를 달리하여 걸쳐두었음	경제성 개방성 웬스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2012

표 6-25 기본계획-삼려

三麗(삼려)	의미	해석	적용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식주, 신앙, 세시풍습 등에 있어서도 육지와 다르게 독특하고 개성적임	독창성 개성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2012

## (2) 개발방향

- 제시된 기본개념에 충실한 제주도의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도시 고유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종합적 시각으로 계획 필요

## 4) 공통지침

### (1) 형태계획

- 제주도의 자연환경(해안, 바다, 섬, 바람, 오름, 꽃자왈지대, 습지, 돌 등)에 적합한 모티브를 개발/적용하여 가로시설물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축
- 기능 통합과 모든 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배려' 디자인을 추구하며, 미래지향적 트렌드를 반영한 곡선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

### (2) 정보게시시설물

#### 가. 구성요소 활용계획

- 시설물의 구성요소는 픽토그램, 방향표시, 서체를 말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기호화한 것으로 각 해당시설에 대한 정보와 위치를 전달하는 일종의 매개 수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특성상 국내의 방문객 뿐 아니라 국외의 방문객들 또한 이용에 용이함을 위하여 방문객의 정보습득에 있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구성요소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나. 픽토그램

- 공공성이 높은 픽토그램(화장실, 비상구, 음수대, 안내센터, 응급센터 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표준 픽토그램 사용 권장
- 관광지, 유적지, 특화단지, 건축물 내부에서는 별도 개발된 픽토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인지성이 높은 디자인 사용을 권장



그림 6-132 픽토그램 제시안

#### 다. 방향표시

- 방향표시(화살표)는 방문객이 찾아가고자 하는 진행방향을 정확하게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안내시설물의 시각적 기본요소이므로 문자와 기타 표시요소와의 조화는 물론 형태적으로도 안정성과 가시성이 돋보여야하며, 안내시설물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방향성을 위한 직선적 요소와 안내시설물의 형태 모티브인 요소를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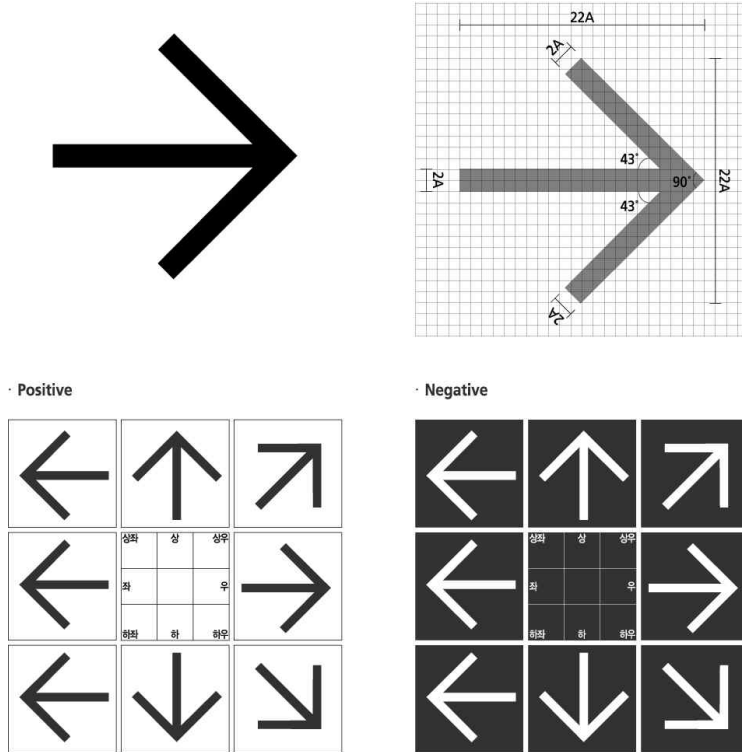


그림 6-133 방향표시 제시안

## 라. 지정서체

- 지정서체는 안내시설에 적용되는 문자기호로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안내시설물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서체에서 조형성은 가시성, 가독성, 주목성, 시인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안내시설물에 사용되는 서체의 중요한 점은 먼 곳에서도 읽기 쉬워야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어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도내에 설치되는 모든 안내시설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시각 정보의 혼선을 최소화 하여야 함

제목서체1 - 제주고딕      제목서체2 - 제주한라산      제목서체3 - 윤고딕130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본문서체1 - 윤고딕 120      본문서체2 - 윤고딕 110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그림 6-134 한국어 서체

제목서체1 - Frutiger 65 Bold

#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본문서체1 - Frutiger 55 Roman

##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그림 6-135 영어 서체

제목서체1 - 윤고딕 340

濟州現代美術館

チェジュの現代美術博物館

제목서체2 - 윤고딕 330

濟州現代美術館

チェジュの現代美術博物館

본문서체1 - 윤고딕 320

濟州現代美術館

チェジュの現代美術博物館

본문서체2 - 윤고딕 310

濟州現代美術館

チェジュの現代美術博物館

그림 6-136 중국어/일어 서체

마. 구성요소의 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서체, 픽토그램, 방향표시의 크기를 적용
- 다양한 서체조합은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하에 표기

## 5) 항목별 디자인 지침

### (1) 시설물 표준디자인

- 다음 시설물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준용하도록 함

표 6-26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유형

대분류	중분류	유형
조명계 시설물	가로등	Type A, Type B, 특화형 A, 특화형 B, 특화형 C
	보행등	Type A, Type B, 특화형 A, 특화형 B
휴식계 시설물	벤치	Type A(등벤치, 평벤치), Type B(등벤치, 평벤치), Type C(등벤치, 평벤치), 특화형 A, 특화형 B, 특화형 C
	그늘막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특화형
위생계 시설물	휴지통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특화형
	클린하우스	Type A, Type B, 디자인 개선안 A, 디자인 개선안 B
교통계 시설물	버스쉼터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간이형, 특화형 A, 특화형 B, 특화형 C
	자전거 보관대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지붕형, 특화형
	자전거 안내표지판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자전거 스테이션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안전계 시설물	블라드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특화형
	중앙분리대	Type A, Type B, Type C
	보호웬스	Type A, Type B, Type C
	무단횡단방지 웬스	Type A, Type B, Type C
	자전거 안전웬스	Type A, Type B, Type C
	방음벽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해안파제벽	Type A, Type B, Type C
	공사장가림막	Type A, Type B, Type C
기타 시설물	관광안내소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가로판매대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주차부스	도심형, 중산간형
정보계 시설물	벽보게시대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관광안내판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유도사인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시설안내판	도심형, 중산간형, 해안형
공공청사 안내시설물	청사종합안내판	
	공공안내판	
	주차안내판	
	건물 내·외부 안내표지판	
	건물내부 방향안내사인	
	부서안내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2012

## (2) 조명계 시설물

### 가. 가로등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27 항목별 디자인 지침 (가로등)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요소를 배제한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 권장</li> <li>제주고유 문화적 특색(하르방, 밀감, 정낭 등)을 응용시 지나치게 직접적인 표현 지양</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권장. 스테인리스 등 광택이 있는 재질은 도장 등의 후가공하여 설치</li> <li>주변 환경의 조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조명방식으로 설치</li> <li>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램프 사용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li>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한 페인트(Non Sticker-Paint)를 사용</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li>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지주는 반드시 수직으로 유지</li> <li>가로등주 배열은 차도폭에 따라 한쪽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앙배열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li> </ul>

### 나. 보행등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28 항목별 디자인 지침 (보행등)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등은 주택가 도로변 한전주나 건축물 등을 이용하거나 보행등 전용주 등으로 설치</li> <li>높이 5m 이하로 하고 경사각도는 5. 이내로 설치 권장</li> <li>주변환경(공원, 건축, 테마파크, 관광지, 경기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보행등을 설치</li> <li>설계시 안정기를 내장하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 권장</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권장</li> <li>주변의 밝기 또는 일출·일몰에 따라 광원이 자동 점멸될 수 있도록 시간조절장치 또는 자동 점멸장치를 설치</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등은 도로여건 및 수면방해, 눈부심 등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li> <li>설치 시 휘도 및 균제도 등을 고려.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주 하부를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li> <li>한전주 이용 보행등은 시공 전 한전 관할 지점에 수용신청서를 제출 하여 사전검토 후 시공</li> <li>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한전 배전전기원의 승주작업 시 큰 지장이 없도록 시공계획</li> <li>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보수 실시</li> </ul>

## (3) 휴식계 시설물

### 가. 벤치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29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벤치)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여 디자인</li> <li>• 1인용과 다인용을 마련하여, 설치 장소 현황에 맞게 설치</li> <li>•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사용자 안전을 고려</li> <li>• 설치공간 특성에 따라 기성제품, 복합형 또는 원형, 화분대형 벤치 등 다양한 벤치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충분히 검토 후 통합가로형성에 부합하도록 함</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돌, 삼나무 등 제주 고유의 재료 활용 권장</li> <li>• 좌대, 등받이는 비열이 낮은 석재, 스틸사용을 지양</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도색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채사용 권장</li> <li>• 목재의 경우 합성목재, 방부목 등을 사용 시에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지보수</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li> <li>• 조명(가로등, 보행등)과 인접하여 야간 사용자의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li> <li>• 가급적 그늘이 형성되는 장소(그늘막, 수목 밑)에 설치</li> <li>•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교통량이 많아 공해가 심한 장소에는 설치 지양</li> <li>• 다리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li>•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벤치의 좌대는 반드시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li> </ul>

## 나. 그늘막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30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벤치)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햇빛, 바람, 빗물 고임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li> <li>• 그늘막은 벤치와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 (단,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li> <li>• 제주도의 풍압, 지반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형태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재는 철강형재를 사용하고, 제주도의 풍압, 지반 등에 적합하도록 구조검토를 실시</li> <li>• 지붕의 경우 반투명 또는 색상을 사용하여 햇빛 차단효과를 주어야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과 함께 설치하거나 가로등과 같은 주변 조명을 이용하여 설치</li> <li>•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산책로, 건물 주변 소공원 등 장소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설치</li> <li>• 지붕은 태양광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최적의 그늘이 형성되도록 설치</li> <li>• 그늘막 내부에 이용자의 불쾌감을 주는 휴지통 설치하는 지양</li> <li>•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li> <li>• 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li>•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일 경우에는, 지면 보수 및 지주의 높이를 조절하여 시각적으로 수평 유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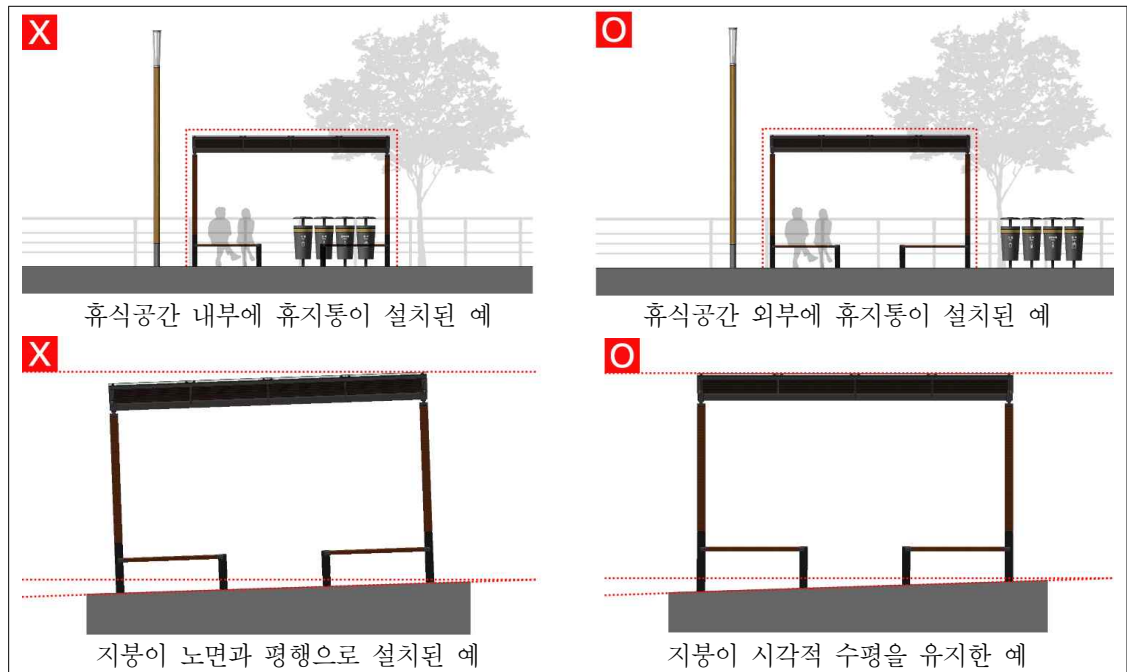


그림 6-137 그늘막 설치 예시

#### 다. 휴지통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31 항목별 디자인 지침 (휴지통)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내부 수분의 배출이 원활한 형태 권장. 쓰레기가 걸리지 않도록 내부에 굴곡이 없는 형태 권장</li> <li>쓰레기 투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를 옆면으로 개방</li> <li>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윗면(뚜껑부)을 설계</li> <li>그래픽 표현은 하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위하여 다수의 휴지통을 설치할 경우에만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식별 및 인식이 용이하도록 함</li> <li>바람이 강한 제주도 환경에 적합하도록(표면 타공, 원형 등) 설계</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권장</li> <li>금속사용시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권장</li> <li>화기에 강한 재료 사용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li>투입구 주변의 오염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어두운 색채권장</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발생 예상지역을 검토 후 배치 (예: 쉼터 주변, 공원, 대규모 이벤트 장소 등). 벤치, 쉼터, 파고라 등 다른 주변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적절한 거리로 이격 시킴(최소 이격거리: 90m)</li> <li>위치이동, 철거, 설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설물로 내피는 가급적 중량이 가볍고 운반이 편리하도록 함</li> </ul>

#### 라. 클린하우스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32 항목별 디자인 지침 (클린하우스)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보관함의 규격 및 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li> <li>도시미관 및 악취예방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li> <li>냄새저감장치, CCTV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li> <li>안내문, 고유번호 등 문구는 별도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정리</li> <li>제주고유 문화적 특색(하르방, 밀감, 정낭 등)을 응용시 지나치게 직접적인 표현은 금지</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바람을 대비한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권장</li> <li>화기에 강한 재료 사용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채도의 색상은 가급적 사용 지양 (단, 안전/경고를 위한 부분적인 색채는 사용할 수 있다.)</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li> <li>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내부 수분의 배출이 원활한 배수 시스템 설치 권장</li> <li>쓰레기 수거차량과의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파손시 부분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li> </ul>

## (4) 교통계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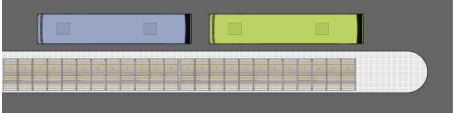
## 가. 버스 승차대(쉼터)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33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버스 승차대 : 쉼터)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스승차대가 설치될 보행통로의 폭, 버스승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승차대의 규모(간 이형, 복합형)를 결정</li> <li>버스승차대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시스템을 설치</li> <li>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사방이 막힌 형태로 설계</li> <li>버스 접근을 확인 가능하도록 투명한 벽면 형태로 설계</li> <li>제주도의 풍압, 지반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 전 구조검토 및 안전도 검사 실시</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람이 강한 제주환경을 고려, 내구성 강한 재료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li>버스승강장 안내(픽토그램, 승강장 명칭 등)를 위한 최소한의 색채를 적용</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차대 주변의 시설물(안내판, 공중전화 부스, 벤치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버스 승하차 및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li> <li>야간에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설치 권장</li> <li>휴지통은 승차대 내부에 설치 지양</li> <li>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li> <li>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li>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지붕은 반드시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li> <li>3가지 type의 승차대를 설치할 보도의 폭이 2m이하일 때 / 2m이상일 때 그리고 노선이 겹쳐 차량의 정차나 이용자가 많은 지역 등에 구분하여 설치 (폭이 2m 이하의 보도는 쉼터설치 지양)</li> <li>BIS(Bus Information System) 설치 시 차량진행방향 및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결정</li> </ul>

표 6-34 버스승차대(셸터) 유형별 디자인

A type	B type	C type
		
		
<b>보도 폭 2m이하</b> 최소한의 시설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	<b>보도 폭 2m이상</b> 광고판과 벤치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	차량의 정차나 이용자가 많은 지역 광고판을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설치하고 개별화 된 형태(B)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 제공

#### 나. 자전거보관대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35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보관대)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난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내구성 있는 형태의 시건장치를 설계</li> <li>이용량과 공간형태에 따라 설치대수 및 지붕설치여부를 결정</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전거와의 잦은 접촉을 고려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li>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그래픽 요소는 금지</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전거를 묶는 지주는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하여 도난을 방지</li> <li>자전거 도로에 인접한 길가 또는 보행자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li> <li>자전거의 도난방지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는 장소에 배치</li> <li>장기간 보관우려가 있는 장소, 비바람에 의한 노출이 심한지역에는 지붕형태의 비가림 시설 설치</li> <li>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고, 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li>설치되는 장소의 보도 폭이 좁을 경우(3m이하) 수평으로 설치하여 보도의 점유면적을 최소화 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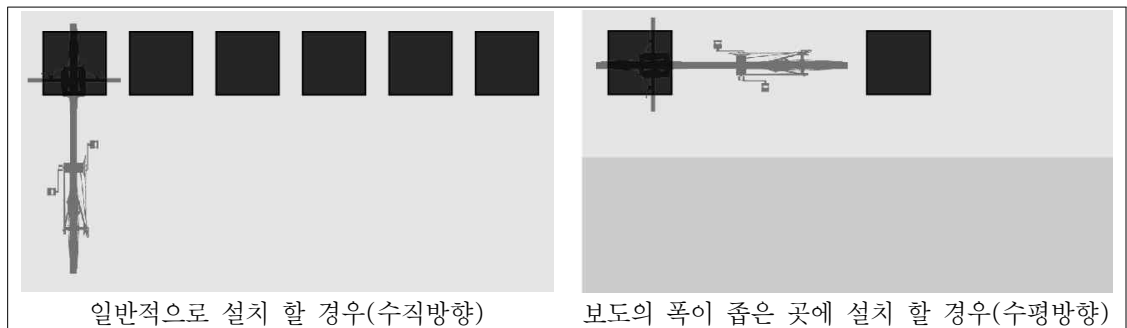


그림 6-138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시

#### 다. 자전거안전웬스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36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안전헬스)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을 우선하여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li> <li>제주도의 지역특성(해안선, 산간도로 등)을 고려하여 곡선구간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사고 발생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li> <li>고광택 재료를 사용할 경우 광택을 줄이도록 표면 가공</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안전을 위한 반사 스티커의 색채사용은 최소화</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바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 중심을 감안하여 1.2m를 기준으로 설치</li> <li>보행 및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현황을 검토하여 설치</li> </ul>

#### 라. 자전거안내표지판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37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안내표지판)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자전거주행로를 대상으로 설치</li> <li>이용자의 눈높이 및 충돌방지를 고려하여 설치높이를 결정</li> <li>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명확하고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설계</li> <li>정보전달을 우선시 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계획</li> <li>제주의 강풍을 고려하여 판류정보보다는 입체문자 또는 바닥페인팅의 형태로 계획</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한 햇빛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소재(반사스티커)를 사용</li> <li>정보의 전달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장식적 개념의 재료는 지양</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표기를 위한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색채를 기본으로 적용</li> <li>설치 권역별 색채를 검토하여 적용</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수 및 다른 표지판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하여 설치</li> <li>판류형 설치시 미관을 고려하여 고정장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li> <li>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의 설치를 권장</li> </ul>

#### 마. 자전거스테이션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38 항목별 디자인 지침 (자전거스테이션)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외부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li> <li>기능적인 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식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내구성 높은 재료 권장</li> <li>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단,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 권장)</li> <li>강화유리 등 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확보</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li> <li>권역별 색채 및 마감재를 충분히 검토 후에 적용</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승체계(Park and Ride) 구축을 위해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설치</li> <li>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출입문은 자동도어 시스템형태로 설치</li> <li>공공자전거 표지 및 이용안내는 부착물의 형태를 지양하고, 별도의 안내사인을 설치</li> </ul>

#### (5) 안전계 시설물

##### 가. 블라드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39 항목별 디자인 지침 (볼라드)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와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설계 . 볼라드의 설치는 지면과 견고하게 결속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li> <li>• 보행 연계 구간 등 보·차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낮은 볼라드의 설치는 지양</li> <li>•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성을 가진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내부에 탄성체를 설치</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li>• 식별을 높이기 위해 바닥포장재와 명도차이가 있도록 설계</li> <li>• 볼라드 상단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성을 높임(단, 조명형으로 설치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광원 노출은 피하도록 한다.)</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급작스런 차량돌진으로부터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예: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li> <li>• 시각적으로 항상 수직형태를 유지</li> <li>•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되어 보·차도 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장소 주변에 설치</li> <li>• 이륜차이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은 최소 150m를 유지 . 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li> <li>• 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ul>

## 나. 중앙분리대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40 항목별 디자인 지침 (중앙분리대)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기능적인 디자인 권장</li> <li>• 불필요한 형태와 장식을 지양하고 많은 설치를 금지(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배치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권장</li> <li>• 유지관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재료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사판 및 지주를 제외하고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1.7.13개정 국토해양부예규)에 따라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법규에 맞도록 설치</li> <li>• 차량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하부 탄성블럭 등)를 적용하여 설치 .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는 시선유도 표지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속도가 50km/h 이상인 구간</li> <li>- 도로선형이 급격히 변화 하는 구간</li> <li>- 차로나 차도 폭이 변화 하는 구간</li> </ul> </li> </ul>

## 다. 보호웬스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41 항목별 디자인 지침 (보호웬스)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li> <li>파손이나 훼손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li> <li>지주와의 거리는 120~150m를 넘지 않게 설치</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충돌을 대비하여 내구력이 강한 재료사용 권장</li> <li>주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광재료 및 유광도장 지양</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로와 차로가 연속되어 구분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li> <li>보행자의 무단횡단 또는 차량의 무단출입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li> <li>기초 시공시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li> <li>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지주는 반드시 수직을 유지</li> <li>지주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li> <li>지주와 지주를 연결하는 파이프는 하나의 직선으로 보이도록 서로 수평으로 유지</li> <li>보차도가 곡면일 경우 곡면을 따라 파이프를 가공하여 연결</li> </ul>

## 라. 무단횡단방지웬스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42 항목별 디자인 지침 (무단횡단방지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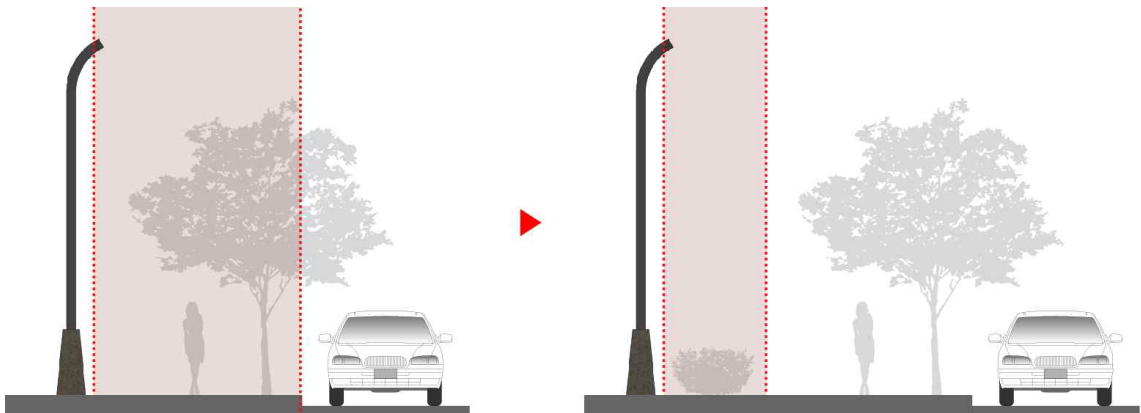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li> <li>시각적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충돌을 대비하여 내구성 위주의 재질 선택</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사판 및 지주를 제외하고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li> <li>기능적 색채(노란색·흰색의 반사체)의 반사체를 띠 등의 형태로 적용 시, 색채나 장식의 남용은 지양</li> <li>운전에 방해되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 지양</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 또는 차량 이동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크기로 설치</li> <li>무단횡단 방지 시설의 설치 지양(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li> </ul>

## 마. 방음벽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43 항목별 디자인 지침 (방음벽)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도로나 공간으로 인식되는 구간 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방음벽 설치권장</li> <li>획일적인 형식의 기성품 사용 지양</li> <li>부피감을 최소화하고 권역별 시설물과 일관성을 위해 수평적 패턴 활용 권장</li> <li>도로 경사로 인해 방음벽 높이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시각적 균형감을 위해 방음벽 높이를 완만하게 조절을 권장</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재, 폴리카보네이트, 강화유리 등 방음성능이 확인된 자재사용 권장</li> <li>차량 및 보행자 충돌 시 충격흡수가 가능한 완충소재를 사용</li> <li>친환경적인 재질 사용 권장</li> <li>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사용을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틸 사용 시 녹막이 처리 및 도금처리 후 도장</li> <li>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적용 지양</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야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 지양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 구조물에 조화 되도록 연속성이 있는 디자인 적용)</li> <li>슈퍼그래픽을 이용한 디자인은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li> <li>가로에 면하는 학교, 공동주택 등의 경우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고 녹지대나 화단을 조성하여 설치</li> </ul>



## 바. 해안파제벽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44 항목별 디자인 지침 (해안파제벽)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 공간화 등의 목적으로 특수한 파제벽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설치</li> <li>기능과 무관한 구조물, 상업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적인 재료(현무암 등)의 사용 권장</li> <li>염분 및 충격에 강한 재료를 사용 권장</li> <li>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 처리를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보수가 어려운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li> <li>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제벽 설치시 기능이 배제된 형태(기둥형태, 간격이 넓은 형태 등)의 설치 지양</li> <li>해안선 경관 보호차원에서 위치 및 규모 고려</li> </ul>

## 사. 공사장가림막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45 항목별 디자인 지침 (공사장가림막)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장내 분진이나 먼지, 낙하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보호를 우선시 하여 설치</li> <li>지면에서 4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li> <li>공사장가림막에 그래픽/건설사 표기 등은 별도 심의를 실시하여 승인 후 설치</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내구성 있는 재질 권장</li> <li>벽면 녹화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마감 처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벽화 및 슈퍼그래픽의 남용을 금지</li> <li>불필요한 장식과 과장된 패턴 적용은 지양</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면에 설치시 상단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치</li> </ul>

## (5) 기타시설물

## 가. 관광안내소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46 항목별 디자인 지침 (관광안내소)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제공을 위해 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자인</li> <li>규모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 계획</li> <li>휠체어 사용자나 노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li> <li>외국 관광객의 빠른 인지를 돕는 픽토그램은 확대하여 적용</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유리 등 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개방성과 접근성 확보</li> <li>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 권장</li> <li>내구성·내온성 마감재를 사용하여 디자인</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근이 용이한 지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주차시설 보유지역에 설치권장</li> <li>도심지역은 반경 2km 이내에 기설치 된 안내소가 있을 경우 신규설치 지양</li> <li>주변 건축물과의 식별성 및 인지성 제고를 위해 안내소 벽면에는 광고물 부착 지양</li> </ul>

## 나. 가로판매대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47 항목별 디자인 지침 (가로판매대)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한의 구조로 단순하며 기능성, 청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디자인</li> <li>내부는 사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디자인</li> <li>도로 쪽에서 운전자가 바라보는 배면 디자인 고려</li> <li>공간의 확대와 변형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디자인 계획</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재질 사용 권장</li> <li>주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스틸 권장</li> <li>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한 재질 사용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 권장</li> <li>내구성·내온성 마감재를 사용하여 디자인</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금지(단, 허가된 광고물 또는 홍보물에 한하여 지정된 위치 설치 가능)</li> <li>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공간을 검토하여 보도폭이 5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만 설치</li> <li>버스쉘터, 벤치 등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120~200m 이상 유지</li> <li>경사지 설치 지양(단, 불가피할 경우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함)</li> </ul>

## 다. 주차부스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48 항목별 디자인 지침 (주차부스)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픽토그램과 외국인을 위한 영문, 한문을 병행하여 표기</li> <li>운전자가 위치 파악이 용이한 디자인</li> <li>테마파크, 관광지 등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 권장</li> <li>인·아웃 차량의 빠른 유입을 위해 이용자 내부 최소한의 크기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입하는 차량을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입부 벽체는 투명한 유리 재료 사용</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채도·저명도 색채 권장</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 권장</li> <li>주변환경(공원, 건축, 테마파크, 관광지, 경기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문을 받아 설치</li> </ul>

### 6.7.14 보행자용 안내판

#### 1) 개요

#### 2) 공통지침

-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정보요소의 가독성(Readability)을 높임
- 보행시 정보 탐색을 위해 주목성(Noticeability)을 높임
- 보행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배려로 정보 접근성을 높임
- 정보요소의 체계성과 일관성 구현
- 가로경관의 아이덴티티를 지향하는 디자인 구현
- 자연 재료와 친환경 재료 사용으로 자연경관과의 일체감 지향
- 정보요소 교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화 유도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과 배치

### 3) 세부지침

#### (1) 관광안내판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 도심, 중산간, 해안지역의 관광지 또는 문화시설 초입부에 설치하여 안내

표 6-49 항목별 디자인 지침 (관광안내판)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식요소를 배제한 직선형의 디자인</li> <li>• 운영이나 민원에 의한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개별로 제작하여 몇 개의 부품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권장</li> <li>• 광택이 적은 재료 및 도장재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계획 내용을 준수</li> <li>• 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와 지지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li> <li>•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안내시설물의 위쪽 면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li> <li>• 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 요소(가로수, 신호등, 기타 도로시설물)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li>• 건축물을 등지어 보도블럭 안쪽 끝선에서 50m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하여 설치</li> <li>• 관광안내판에 들어가는 안내지도는 제주도 전체안내지도와 반경 1.6~2km지도를 병행하여 삽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하여 설치</li> </ul>
권역별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지역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li>• 중산간지역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li> <li>• 해안지역은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스틸재료를 부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ul>



그림 6-139 관광안내판 :  
도심형



그림 6-140 관광안내판 :  
중산간형



그림 6-141 관광안내판 :  
해안형

#### (2) 시설안내판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50 항목별 디자인 지침 (시설안내판)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요소를 배제한 직선형의 디자인</li> <li>운영이나 민원에 의한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개별로 제작하여 몇 개의 부품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광택이 적은 재료 및 도장재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계획 내용을 준수</li>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와 지지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li> <li>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안내시설물의 위쪽 면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li> <li>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 요소(가로수, 신호등, 기타 도로시설물)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li>지역의 주요 시설물, 주변지도, 생활권 별 교통안내 등을 안내하여 방문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도록 함</li> <li>주요가로, 블록입구, 교차로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 1개소씩 설치</li> <li>시설안내판에 들어가는 안내지도는 목적지의 방향과 주변지역 파악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서 반경 800m이내를 수록하되 100m씩 중복되게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하여 설치</li> <li>주택시설(아파트) 단지 명칭과 동호수, 단지 내 상가관리시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요 관광단지 와 공원, 해변의주요시설, 리조트, 숙박시설 등을 표기해야 하며, 명확한 위치감을 요하는 지점을 점 요소로 표기하여 설치</li> <li>지역안내의 명칭은 마을명 및 버스정류장명을 위주로 활용하되 관공서, 주요건물 등이 위치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설치</li> </ul>
권역별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역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li>중산간지역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li> <li>해안지역은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스틸재료를 부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ul>



그림 6-142 시설안내판 : 도심형



그림 6-143 시설안내판 : 중산간형



그림 6-144 시설안내판 : 해안형

### (3) 유도사인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표준디자인**을 적용

표 6-51 항목별 디자인 지침 (유도사인)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요소를 배제한 직선형의 디자인</li> <li>운영이나 민원에 의한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개별로 제작하여 몇 개의 부품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li> <li>유도사인의 정보내용은 기명, 방향표시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전체공간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설계</li> <li>도심지역은 복잡한 상황과 경관의 개방성, 통행의 불편함 등을 고려한 폴 형태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광택이 적은 재료 및 도장재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계획 내용을 준수</li>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와 지지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li> <li>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안내시설물의 위쪽 면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li> <li>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 요소(가로수, 신호등, 기타 도로시설물)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li>관광안내판 또는 시설안내판의 설치위치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혼돈을 최소화</li> <li>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나 교차로 주변 등 길을 찾는데 혼선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li> <li>안내판과 안내하고자하는 시설의 방향을 일치하여 설치</li> <li>시설변경 및 추가를 고려하여 실사출력 부착물을 사용하여 형식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li> </ul>
권역별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역 공원에 설치된 유도사인은 게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상한선 300m, 하한선 230m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1단부터 순차적으로 표지면을 설치</li> <li>해안 및 중산간지역의 유도사인 표기문안은 화살표의 방향성에 따라 정렬하며 한 안내판당 적용될 수 있는 문안은 최대 5개이며, 차량을 통한 이용자를 위한 문안은 적절한 크기로 표기</li> <li>해안 및 중산간지역의 유도사인의 화살표시는 ↑, ←, →, ↘, ↗ 방향순으로 표기</li> <li>도심지역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li>중산간지역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li> <li>해안지역은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스틸 재료를 부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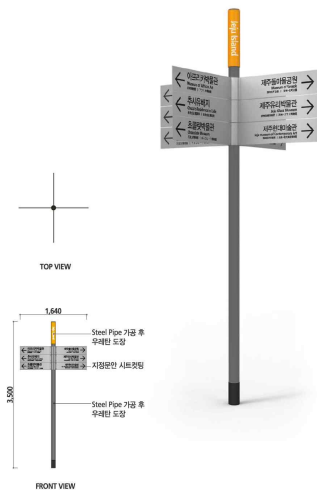


그림 6-145 유도사인 :  
도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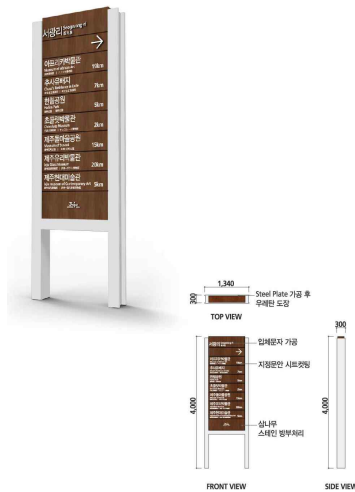


그림 6-146 유도사인 :  
중산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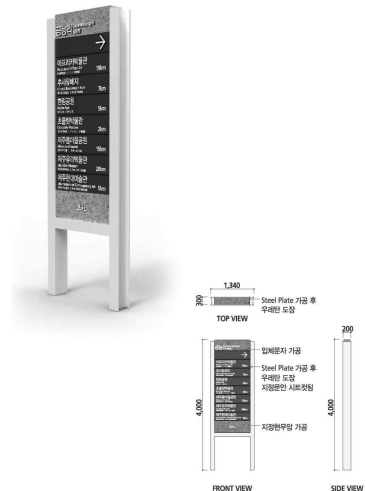


그림 6-147 유도사인 : 해안형

#### (4) 벽보게시대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을 적용

표 6-52 항목별 디자인 지침 (벽보게시대)

규격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요소를 배제한 직선형의 디자인</li> <li>운영이나 민원에 의한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개별로 제작하여 몇 개의 부품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li> <li>유도사인의 정보내용은 기명, 방향표시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전체공간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설계</li> <li>도심지역은 복잡한 상황과 경관의 개방성, 통행의 불편 등을 고려한 폴 형태로 디자인</li> </ul>
자재 및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친화적이고 내구성 있는 재료, 광택이 적은 재료 및 도장재 권장</li> </ul>
색상 및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기본계획 내용을 준수</li> <li>저채도·저명도 색채나 단색·무채색을 사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함</li> </ul>
제작/설치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와 지지대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 처리하여 단정하게 마감</li> <li>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안내시설물의 위쪽 면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li> <li>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 요소(가로수, 신호등, 기타 도로시설물)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li>행사 안내 및 홍보물 표기량에 따라 연립식 설치가 가능</li> <li>경첩을 이용한 개폐방식을 사용하여, 게시물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고 시건장치를 부착하여 게시물의 훼손과 부분별한 부착을 막고 계획적인 관리 및 유지가 가능</li> </ul>
권역별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역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li>중산간지역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li> <li>해안지역은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스틸 재료를 부재료로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li> </ul>



그림 6-148 벽보게시대 :  
도심형



그림 6-149 벽보게시대 :  
중산간형



그림 6-150 벽보게시대 :  
해안형

## 6.7.15 야간경관

### 1) 개요

- 공공건축 및 공간을 중심으로 창출한 야간경관은 지역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주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형성·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측면과 관광객 측면을 고려
- 야간경관을 연출하는 지역은 주변 야간경관과 연속성을 지니고 야간보행 및 주행 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 2) 기본방향

-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야간공간의 성격, 연출방향, 연출방법 등 경관특화계획 수립 후 조성
- 생활조명의 적합한 설치로 야간 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장소를 돋보이게 하는 야간경관을 통해 공공건축 및 공간의 활성화 유도
- 과도한 조도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빛공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 역사문화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인근시설의 야간경관을 다운시키고 역사문화시설이 부각되어 지역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성

## 6.7.16 공공시설물 색채

### 1) 기본방향

- 원칙적으로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본지침을 따르며,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주색채개선사업』, 『제주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제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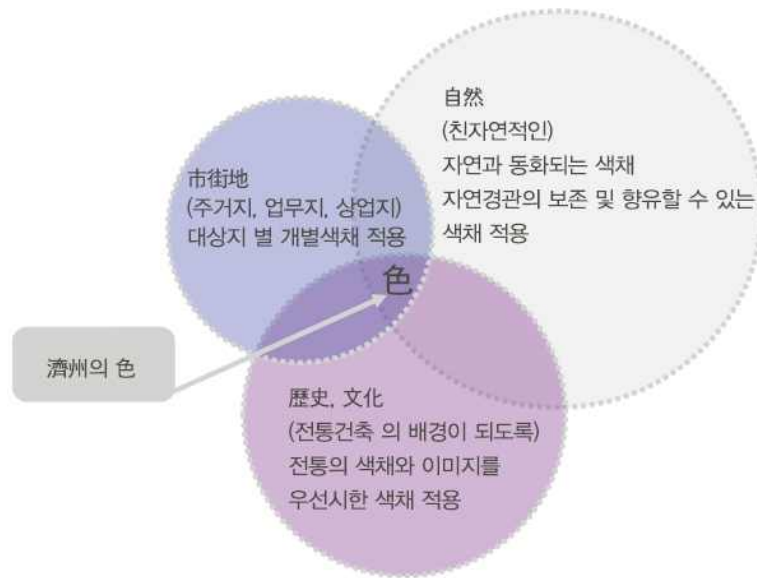


그림 6-151 제주색 개발방향

## 2) 제주대표 10색의 활용

- 제주바다색 : 도시브랜드, 제주시 업무용 차량(다목적 버스, 승합차, 승용차),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감귤색 : 도시브랜드, 제주시 업무용 차량(다목적 버스, 승합차, 승용차),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한라산색 : 도시브랜드, 제주시 업무용 차량(다목적 버스, 승합차, 승용차),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현무암색 : 도시브랜드, 경관색, 교량색채(안), 제주시 업무용 차량(작업용),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송이색 : 경관색적용, 업무용 차량(단속용, 작업용),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유채꽃 색 : 경관색, 공공시설물, 주민센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갈옷색 : 경관색,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흙빛색 : 경관색,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가로조명시설,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제주역새색 : 경관색,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홍보인쇄물, 웹사이트 등
- 종합적용 : 경관색, 공공시설물, 건축, 문화예술, 디자인 맵, 전시행사 등



## 3) 공통지침

- 경관색채의 제시는 기본적으로 저채도(채도 6이하)
- 중·저명도 지향하되 명도차를 3이하로 유지함
- 1층 이하는 자연소재 권장
- 주조색(중요), 보조색, 강조색(10%이하)의 개념
- 채도와 명도를 가장 주의해야 함
- 원경, 중경, 근경 : 500m이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계획할 것

## 6.7.17 대중교통시설

### 1) 개요

- 대중교통수단은 도시의 대표적 이동수단이며 탑승자가 이동하며 경관의 인상을 형성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버스, 택시는 제주도의 경관을 이루는 ‘움직이는 경관’으로 볼 수 있다. 뉴욕의 노란색 택시(Yellow Cap), 영국의 빨간 2층 버스와 블랙 캡 등 유명 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도시의 활기를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아이콘이자 도시의 움직이는 아이덴티티 역할을 함
- 본 지침은 제주도의 대중교통시설인 버스, 택시, 자전거를 경관 요소로서 다루며 제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경관을 인상적으로 형성하는 대중교통에 관한 디자인 방안에 중점을 주며 ‘제주 인상으로서의 대중교통’을 지향함

### 2) 항목별 디자인 지침 및 세부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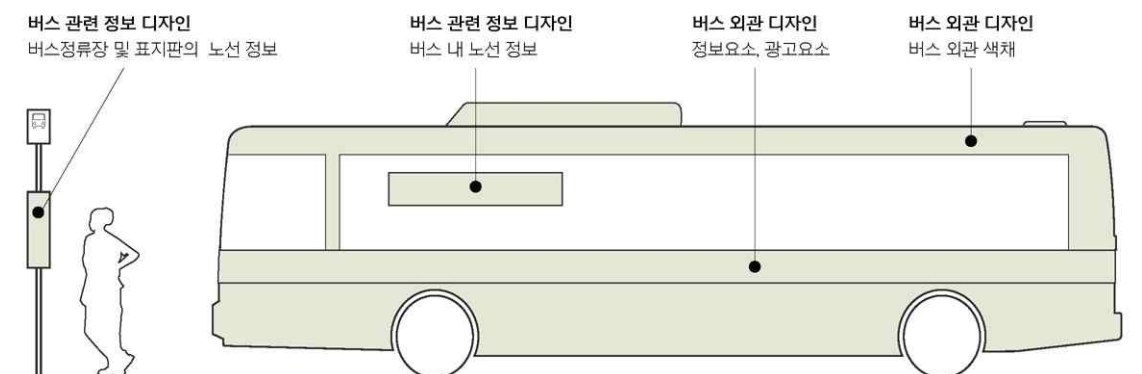
#### (1) 버스

##### 가. 개요

- ‘움직이는 경관’으로서 버스는 대중교통의 중심이며 제주 전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관요소임. ‘제주도 전역에 색채 일관성을 형성하나 버스의 범주 구분에 따른 색채 차이를 전제로 함
- 버스 관련 정류소, 각종 지도와 안내판 디자인 계획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사용성을 지향하며 이에 따른 경로정보안내, 광고정보안내판은 가시성, 가독성, 주목성을 고려한 정보디자인이 요구됨

##### 나. 범위

- 버스 관련 디자인 영역은 버스 외관 디자인과 색채, 글꼴, 안내판 지침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 관련 정보 디자인으로 나뉨
- 버스 외관 디자인은 버스 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버스 외관에 포함되는 정보요소와 광고요소를 포함
- 버스 관련 정보 디자인은 버스 내에 부착하는 노선 정보, 버스정류장 및 버스 표지판의 버스노선 정보요소를 포함



##### 다. 공통 지침

- 경관과 어울리는 제주다운 버스 외관
  - 제주의 대표 경관 이미지와 정체성을 고려한 외관 색채 도입
  - 제주 글꼴을 활용하여, 제주의 아이덴티티 요소로서 버스외관 형성
- 단순, 경쾌한 디자인의 버스 외관

- 현란한 그래픽 및 과도한 크기의 공공CI 표현 지양
- 제주 문화와 표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장된 표현 지양
- 버스노선, 경유지 등 정보표기 요소가 중복되거나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적정 정보 밀도 유지
- 버스종류에 따른 명확성과 일관성 있는 외관 색채 도입
- 시외, 시내, 마을·공영버스 등 버스 종류에 따라 외관 색채를 명확히 구분
- 정보표현 방식, 재질, 형태를 통한 시각적 통합성 지향
- 버스 내·외부 및 정류장 정보 표기 일관성 유지
  - 버스 노선 정보 위계 마련, 정보 표기 통일
  - 일관된 형태, 크기, 색채, 글꼴을 사용한 버스노선정보 디자인
- 다른 대중교통과 연결 효율성을 고려한 정보표기
  - 주요 버스정류장 및 가까운 택시 승강장과 자전거 거치대 위치정보 제공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버스 앞·뒤 자전거캐리어 설치 검토 (제주 버스 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개발)
- 소수의 이용자를 고려한 장치와 정보표기 도입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정보표기
  -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 외국어 혼용 표기 체계를 마련 (한글·영문·중국어 3개 언어 병기)
  - 자전거캐리어를 활용해 휠체어 이용객의 편의 도모
-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요소 표기를 우선으로 함
  - 이용자의 시인성과 가독성 확보를 고려하여 정보요소의 글꼴 크기, 간격 결정
  -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명시성이 높은 색채 적용

## 라. 디자인 세부지침

### ■ 버스 외관

#### ① 외관 색채(시외, 시내, 마을·공영)

- 색채를 경관요소 및 식별 정보로 활용하여 이용자가 버스의 종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함
- 유형별 색채 시스템: ‘제주 빛’ 중 제주의 색구분이 뚜렷하며 대표적인 자연경관 색 3가지를 선정



시외버스 외관색 : 청정바다색

시내버스 외관색 : 유채꽃빛

마을·공영버스 외관색 : 푸른 바다빛

그림 6-152 버스 외관색

## ② 버스외관 정보그래픽

-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고려한 글꼴의 크기와 간격 설정
- 인도 방향인 버스 측면에는 버스 번호, 시·종점, 주요 버스정류장, 제주 로고 및 슬로건 표시. 단, 주요버스정류장 표기의 수를 10개로 한정
- 운전자 방향인 버스 측면에는 버스 번호와 버스회사 이름 삽입
- 정면에는 버스번호와 버스 주행 방향 삽입. 배면에는 버스 번호와 버스회사 이름 삽입
- 시외버스의 노선 이름체계는 효율적인 노선 번호체계로 교체 적용

## ③ 광고판 설치

- 버스 측면에 상업 광고 설치가 가능하나 그 면적의 최소화 권장
- 인도 방향인 버스 측면에는 상업 광고의 면적을 버스 길이의 1/4 이내로 설치
- 운전자 방향인 버스 측면에는 상업 광고의 면적을 버스 길이의 1/3 이내로 설치

## ④ 정보요소표시 재료

- 버스 측면의 정보와 버스 배면, 인도 방향 측면의 버스 번호 영역은 LED 사용
- 그 외 정보요소는 수정이 용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시트 커팅재료 사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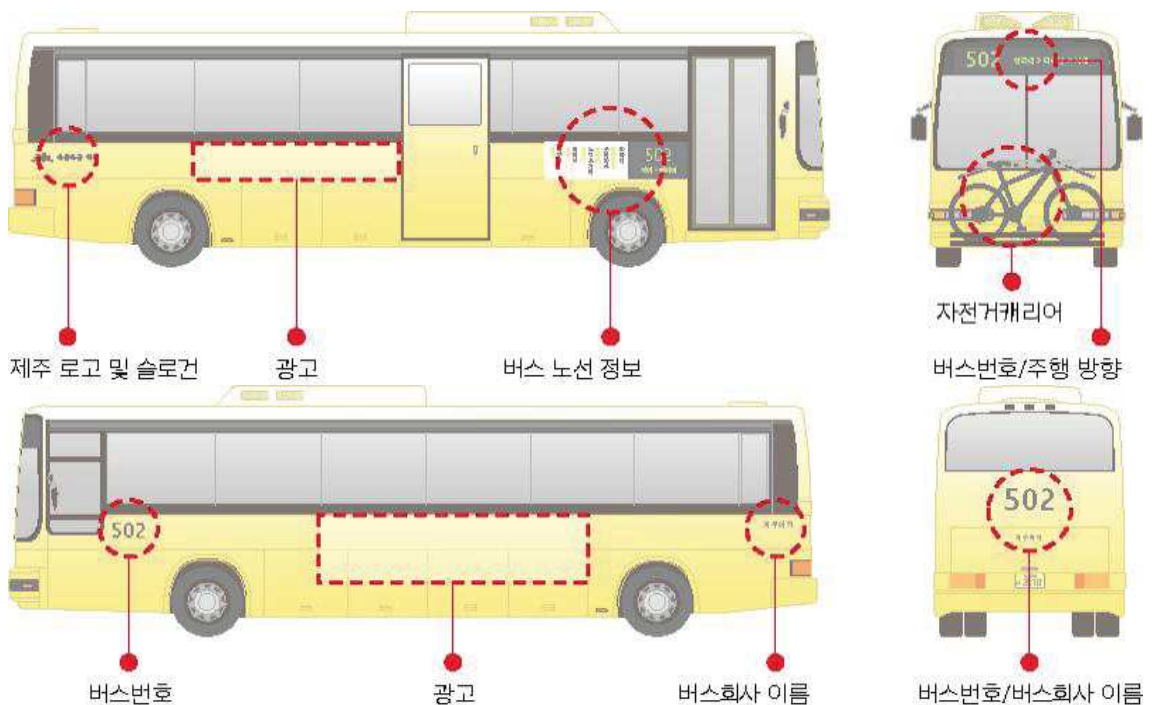


그림 6-153 버스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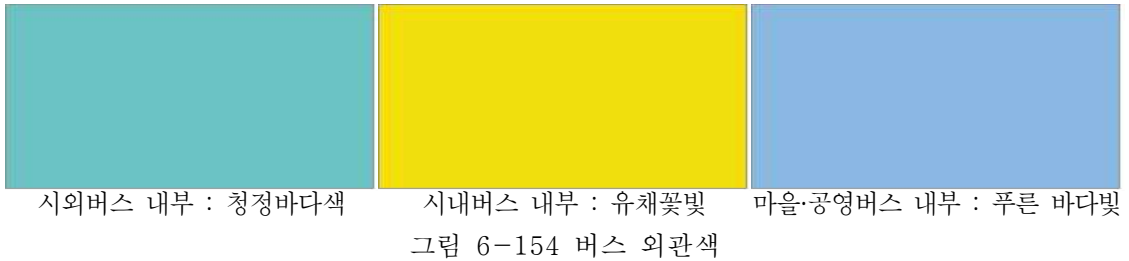
## ■ 버스 내 노선 정보요소

### ① 색채

- 시외, 시내, 마을공영 버스별로 주요색을 버스 외관색과 각각 동일하게 선정하여 버스 내외

## 부의 색채 일관성 유지

- 버스유형별 색채 시스템



### ② 정보그래픽

- 한글·영문·중국어 3개 언어 표기를 원칙으로 함
- 정보요소 : 버스번호, 버스노선, 다른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정류장 표시 (가까운 택시 승강장과 자전거 거치대 위치정보)



그림 6-155 내부 버스정보

### ③ 정보표시 재료

- 쉽게 부착하고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 권장

## ■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의 버스노선 정보디자인

### ① 색채

- 시외, 시내, 마을·공영버스의 구분을 위해 버스 외관 색채와 같은 강조색 사용
- 유형별 색채 시스템(시외버스: 청정 바다빛, 시내버스: 유채꽃빛, 마을·공영버스: 푸른 바다빛)
- 강조색을 제외한 색채는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 등에 어울리는 색채 사용

### ② 정보그래픽

- 버스정류장별로 운행되는 모든 버스의 노선 및 시간 정보 표시: 첫차 시간, 막차 시간, 버스종류, 출발점, 종착점, 현재 위치, 운행경로

- 버스노선정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세분화 되도록 정보 배치
-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설치

### ③ 정보표시 재료

- 표지판형 정류장에는 정보 갱신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용지에 컬러 출력 양식 권장
- 지붕형과 지붕형+의자형 정류장에는 내구성이 비교적 강한, 실크스크린 인쇄 권장

## (2) 택시

### 가. 개요

- 제주의 택시는 버스와 더불어 제주 전역에 노출되는 '움직이는 경관'요소임
- 택시 관련 아이덴티티 개발, 안내판 및 관련 시설물 디자인은 교통수단으로서 택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서 더욱 확장하여 '제주 아이콘으로서의 택시'로 이어지도록 함
- 외관의 디자인뿐 아니라 택시 승차장으로의 접근성 여부, 승차 시 편안함,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의 용이성, 휠체어 이용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함 등 이용객 쾌적성 관점에서의 접근과 배려가 필요
- 본 지침에서는 제주 택시 외관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안하며, 안내판 및 관련 시설물에 관한 통합 디자인을 바탕으로 함

### 나. 범위

- 색채 계획
- 지붕 위 표시등
- 정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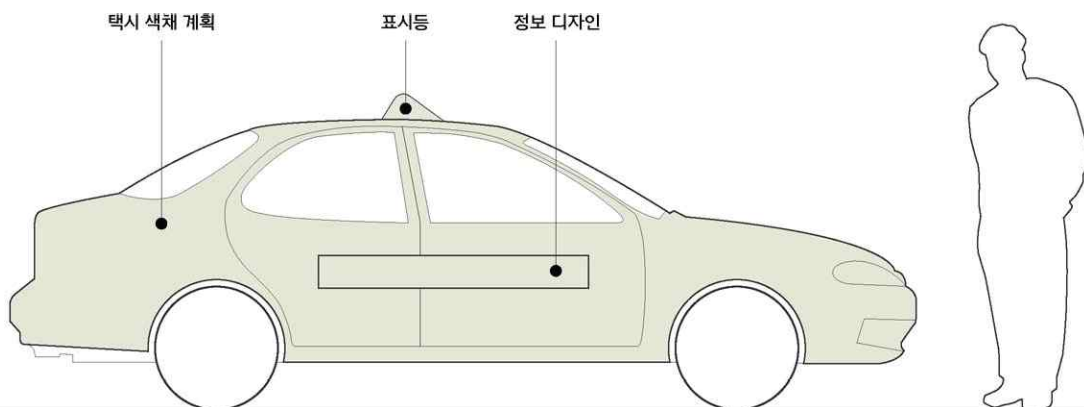


그림 6-156 택시 외관

### 다. 디자인 기본원칙

#### ① 제주 아이콘 역할을 하는 택시

- 택시 기종을 통일하여 외관 형태 통일성 부여

- 제주 빛과 제주 글꼴을 사용하여 제주 아이덴티티의 반영
- 외관 색채와 정보요소 표현에 있어 ‘제주 아이콘’으로서의 택시

## ② 경쾌하고 즐거운 제주 이미지를 형성하는 택시

- 외부 관광객의 택시 이용률이 높으므로, 여행의 감흥을 높이는 경쾌하고 즐거운 느낌의 외관 색채 선정
- 이용자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외관

## ③ 승객의 정보사용 편의를 배려하는 택시

-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요소를 접하도록 배려
- 외국인 방문객,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를 고려한 정보요소 표기

## ④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최소화

- 제주 표상의 직접적이고 과장된 표현 지양
- 지나치게 혼란스러운 정보 표기에 있어 지나친 중복과 높은 밀도 지양

## ⑤ 대중교통 기능을 우선시하는 택시

- 일반 승용차와 쉽게 구별되는 외관
- 택시의 운행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등 설치

# 라. 디자인 세부지침

## ① 색채

- 제주 자연환경에서 추출한 색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색채이미지
- 제주의 빛깔을 통한 제주 아이덴티티 형성. ‘제주 빛’중 유채꽃빛 활용
- 물내림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일반 승용차와 차별성, 시각적인 역동성 부여

## ② 정보요소

- 필수 표기 정보 요소 : JEJU TAXI·제주택시, 택시 소속 기관
- 선택 표기 정보 요소 : 택시 사업자 전화번호

## ③ 지붕 위 표시등

- 표시등의 점등 방식에 따라 주·야간 모두 식별 가능하도록 디자인
- 표시등의 식별성이 높은 조도 적용
- 표시등의 변화에 따른 정보 요소 (소등: 승차중, 점등: 빈차, 점멸: 예약)



택시 외부색채 : 유채꽃빛



택시 표시등 : 소등, 점등, 점멸

#### 6.7.18 공공글꼴

##### 1)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살리는 한편 국제자유도시로서 선진국 수준의 디자인적 품격을 갖추기 위함임
- 공공글꼴을 통해 제주다운 시각적 친근감을 갖게 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성을 높여 공공디자인의 인프라를 조성

##### 2) 범위

- 제주 경관요소 중 공공성을 띄는 시설물 및 영상매체, 인쇄매체,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공공글꼴을 적용함

##### 3) 공통지침

- 공공글꼴은 되도록 적은 종류로 사용
- 정보 내용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글꼴을 선택하여 사용
- 공공글꼴의 글자비례, 글자사이 등의 변형과 지나치게 큰 크기를 지양

##### 4) 세부지침

- 제주 이미지 대표성 : 제주 한라산
  - 유적지와 관광지 간판, 인쇄물의 제목, 표지 제목, 표제, 제주행사 엠블럼, 광고 제목, 관광상품 포장 제목
  - Script Bold, 손글씨체
- 가독성 중점 : 제주 명조체
  - 공문서 및 문서 본문, 공공시설 안내판의 본문, 각종 홍보물과 책자 인쇄물의 본문, 명함 및 명함 이름
  - Serif Light, 바탕본문
- 사용성 중점 : 제주 고딕
  - 공문서 및 문서 제목, 공공시설 안내판 및 Sign, 간판, 각종 홍보물과 책자 인쇄물의 제목, 디지털 기기 화면용(모바일, PT, 전자기기)
  - San-Serif Bold, 돋움제목

표 6-53 제주의 공공글꼴

서체	구성	건본	자수	Code
<b>제주 할라산</b> <b>Reguar</b>	한글 제주어 영문 특수문자	제주전용서체건본 ㄱ ㄲ ㅇ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 Jeju Fonts ※ ☆ ○ ♥ ▼ ◆	11 ,172 160 94 986	Unicode
<b>제주 고딕</b> <b>Bold</b>	한글 제주어 영문 특수문자	제주전용서체건본 ㄱ ㄲ ㅇ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 Jeju Fonts ※ ☆ ○ ♥ ▼ ◆	11 ,172 160 94 986	Unicode
제주 명조 Light	한글 제주어 영문 특수문자	제주전용서체건본 ㄱ ㄲ ㅇ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ㆆ Jeju Fonts ※ ☆ ○ ♥ ▼ ◆	11 ,172 160 94 986	Unicod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전용서체 매뉴얼, 2010을 참조하여 재구성

## VII. 실행 계획



## VII. 실행계획

### 7.1 경관관리지침 적용방식

#### 7.1.1 경관관련 적용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종합하여 적용하여야 함
- 경관권역은 기본경관단위 ㉓~㉗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준용해야 하며 공통지침도 따라야 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인하여 중복된다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도 따라야 함
- 경관축, 경관거점도 경관권역과 마찬가지로 공통지침에 따르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인하여 중복된다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도 따라야 함
-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경관적용과 관련하여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제주미래비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위원단(또는 소위원회)을 구성하여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경관권역별로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지원체계 형태로 구성됨에 따라 권역별로 이것을 준용하고 요소별로도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함

#### 7.1.2 경관심의대상 및 적용

- 경관심의 대상은 기존 조례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추가로 요구되는 것들은 여건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가야 할 것임
- 경관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자료 작성시 경관관리지침을 준용하되, 경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도 준용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개방지수,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경축 확보, 한라산 및 해안, 오름의 조망 등 사업전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함. 절성토의 총합이 3m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며,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메스를 분절하고 거대규모를 지양하도록 함. 개방지수의 경우는 부지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전면,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과대한 메스, 규모 등은 지양해야 함
- 경관심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이 영원불변하는 것들은 아니며, 여건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도 있지만, 향후에 고려할 경관심의 대상은 관련법에 규정하는 법적규제지역(예를 들어 습지법에 따라 지정된 습지) 등을 근거로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임

#### 7.1.3 해안변 및 중산간 경관관리

- 해안변<sup>3)</sup>관리 및 이용의 기본방향으로 조간대 전체 및 해안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중요 자연요소(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정된 자연요소)의 개발로 인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을 제시함
- 해안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훼손되면서 모든 해안변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

3) 제주미래비전에서는 제주의 수변을 물과 접한 친수공간으로서 이용과 보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해안변과 유수천(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안변은 해안선(만조수위선)으로부터 조간대, 해안사구, 사빈(모래사장)을 포함하여 해안의 자연환경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공간을 지칭하며, 관리의 대상으로서 해안변은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포락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

할 해안변은 강력히 보전, 이용할 해안변은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기본방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후속계획으로 별도의 해안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여 도민의 정립한 지켜야할 자원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며, 도민들의 생활과 공존을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도로 등), 주민생계유지 관련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되,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불허하도록 방향을 제시함
- 해안변 그린벨트는 지적경계선에서 해안도로까지 설정하되 해당 해안변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 해안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해안사구 및 지켜야 할 중요자원 요소가 연속할 경우 그 끝선까지 확대하여 지정하고, 해안도로와 해안선이 멀리 이격된 경우 주변에 설정된 해안변 그린벨트를 참고하여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인공도로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설정
- 현재 경관심의회는 경관지구중에서 수변경관지구가 해안변과 관련되어 있지만, 건축심의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범위만큼은 경관건축공동심의 대상으로 하여 해안변 경관관리를 도모한다면 관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심의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용역이 필요하며, 관리보전지역상에서 반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7.1.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적용

- 현재 심의대상 중에서 경관지구에는 수변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경관관리의 역할을 부족함. 최근 경관지구 심의를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경관 및 건축적인 사업 전후의 변화와 주변지역간의 조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함
- 또한 향후 자연경관지구의 경우는 진출입부를 주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나 측면에서 들어가도록 단지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주어야 할 것임
- 해안변 경관지구의 경우는 현재보다 확대하여 건축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만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

#### 7.1.5 주민 홍보 및 교육 방안

- 제주 경관 가치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경관관리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경관관리계획을 알리고 지역내 경관자원을 수렴해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도민이 참여하는 경관자원 발굴 및 도민들이 원하는 가치가 높은 해안변 선정사업도 추진함과 동시에 경관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관의 중요성을 교육하도록 함
-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경관자원의 명품, 명소, 명물화를 통한 경관관리부터 주민참여를 중심하는 경관관리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향후 경관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맵핑 등의 제주경관 아카이브 구축, Urban Tourism 등에 경관자원을 활용하도록 함

### 7.2 관련제도 및 체계의 정비

#### 7.2.1 경관협정

- 최근 서귀포 중문에서 경관협정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건축주와 행정기관간의 경관협정을 통해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경관협정은 경관법 등에서 정하고 있고,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경관

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고 추진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임. 경관협정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지속성 있는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표 7-1 경관협정 추진단계별 지원 내용

추진단계		행정지원 사항
준비하기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해당 지자체 경관조례, 경관협정 매뉴얼 등 경관협정 관련자료 제공
		경관협정 진행의 기술지원을 위한 지역소재 전문가 확보 및 소개
		주민 요청시 전문가 자문 또는 강의 지원
	이웃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우편물 발송 대행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위한 장소 제공
		주민대표 및 기존 주민조직의 소재 파악 및 협력 유도
약속하기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참여 및 구성원 모집 지원
	대상지 둘러보기	경관협정 대상지 현장답사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기타자료 제공
	주민 아이디어 모으기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워크숍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워크숍 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작 지원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확인 및 권리관계 검토(경관법 제19조, 동법시행령 10조)
인가받기	경관협정 인가받기	경관협정 관련서류 제출방식이나 제출형태 결정 및 통보
		경관협정 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경관협정 인가절차 진행 (경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13조)
		경관협정 인가결과 공고 (경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14조)
운영하기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준수 및 승계 관리 (경관법 제22~24조, 동법 시행령 15~16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지원 및 신고절차 진행 (경관법 제20조)
		경관협정 관련사업 연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경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17조)

자료 : 경관협정 매뉴얼 2015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 경관약속 경관협정 , 국토교통부, 2015.10

## 7.2.2 제도개선

- 앞서 제시된 추진방향 및 개념들과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경관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경관창출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경관상세계획 및 경관협정 수립 및 준수할 시 행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관관리지속성 확보 및 참여를 높여가야 함. 더불어 계획에 대한 평가지표와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해나가야 함

## 7.2.3 주민의식교육

- 제주지역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제주지역 자연경관의 우수함을 홍보하고 관리 및 이용의 주체로 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임
- 예를들어 제주지역내 노인대학 커리큘럼이나 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나 대학의 평생교육의 교육과목으로 경관을 반영해 나가야 할것임
- 제주지역 경관의 안내인은 제주지역 주민들이 누구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교육의 받은 분들은 경관의 수혜자이자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도해 나가야 함
- 도민들 대상으로 한 경관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한 경관관리 역량강화를 해야 함. 특히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경관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관전문가 육성 인력관리체계 고도화해야 함

#### 7.2.4 우수한 기성건축사 선정 및 지원대책 수립

- 제주지역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기성건축사 선정의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선발토록 하여 건축 분야의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및 자체적 역량강화를 유도함
- 일정기간동안 건축설계경기에 다수 입상한 우수한 기성건축사에게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함
- 우수한 기성건축사를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건축물 답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축디자인에 관한 최신 정보의 습득과 건축문화 관련 전문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7.3 전문가 POOL 가동

#### 7.3.1 지역경관 향상 공모사업

-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및 경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우수한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 '15년 8개 지자체 지역총괄계획가 인건비·운영비 지원이 총 3억원(약4천만원/개소) 이뤄짐에 따라 제주에서도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함

표 7-2 2015년도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현황

지자체명	주요 역할
서울 서대문구	4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
경기 평택시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관련 사업 조정
대구시 남구	도시재생 추진단, 추진센터, 운영협의회, 주민협의회 지원 및 조정
세종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각종 대형사업의 컨트롤타워
인천 용진군	지역의 우수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지원
전북 임실군	소규모 지자체 중심지(읍·면) 활성화를 위한 총괄 조정
전북 익산시	건축·도시 및 경관 관련사업의 총괄 조정
강원 평창군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지원사업 조정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7.3.2 제주형 농어촌주택 표준형 설계도 마련

- 인구증가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여건에 조화되지 않는 건축행위의 돌출되는 형태 배제 가능
-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지역이나 중앙부처의 기존 농촌표준형 주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주에 특성화된 표준설계도 작성 및 제공이 필요



그림 7-1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예시

자료 : 농림수산물부·한국농어촌공사, 2009-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종합안내서, 2012

### 7.3.3 제주지역내 건축 및 경관 전문가 프로보노(pro bono) 지원체계 구축

- 제주지역 경관관련 사업, 경관심의위원회 운영, 주민교육을 위해서 제주지역에 이주한 전문가나 퇴직교수,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함
-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관관련 사업의 컨설팅이나 각종심의위원회 참여한 활동, 주민교육시 강사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관관리부서에서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함

## 7.4 경관재정비 계속 및 후속사업

### 7.4.1 해안변 경관자원조사

- 조사내용 : 해안변 보전 및 이용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경관자원조사
- 활용방안 : 보전을 위해 공공에서 매입할 부분, 해안변의 경관자원 확인 및 해안변 관리
- 사업비 : 3억원(도전역 해안변)

### 7.4.2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 사업

- 사업내용 : 해안변 GB 설정(보전, 관리, 이용해안 구분)
- 활용방안 : 해안변 관리 및 경관형성
- 사업비 : 5억원(도전역 해안변)

### 7.4.3 주요도로 육교 철거 및 경관자원화 사업

- 사업내용 : 평화로(주요도로) 육교철거 및 일부교량 경관조명
- 활용방안 : 경관축 형성 및 경관자원화
- 사업비 : 3억원(철거비용), 2억원(경관조명)

#### 7.4.4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 조사내용 : 도민 및 관광객 대상 대표경관 조사
- 활용방안 : 기존의 조망점이 경관관리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에 따라 경관관리시 대표경관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비 : 1억원(도전역)

#### 7.4.5 지중화 사업

- 사업내용 : 해안도로 및 주요도로 전선지중화 사업
- 활용방안 : 경관축의 경관자원화
- 사업비 : 3,700억원

#### 7.4.6 풍력발전 가이드라인 사업

- 육상풍력발전 및 해상풍력발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향후 풍력발전과 관련한 구조물 및 입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함
- 수립된 가이드라인중에서 경관관련 심의내용과 관련된 주탑의 높이, 구조물 간의 이격거리, 구조물로 인한 경관변화, 해안에서의 이격거리 등은 경관심의를 통해 협의 및 조정하도록 함
- 청정에너지의 핵심에너지원이 풍력이지만, 군집되고 설치되는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경관적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사업비 : 비예산(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

# 연구진

## 연구책임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

김태운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박철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경석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경관자문단 (가나다순)

김일현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정민 (주)JPM엔지니어링 부사장  
김 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 실장  
김형욱 정도UIT 상무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백혜선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선은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대표  
양 건 가우건축사무소 소장  
양창용 (주)오름그룹 대표  
이민아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택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실 정책보좌관  
황인평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